



編

우리 농업의 미래와
그의 사람들

千

농업은 소중한 생명산업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근원입니다.

농업인 한사람 한사람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 속에 우리 농업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여는 **千**인은

1. 제 1권에서 제 5권까지 총 다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1 권 | 쌀, 기타 식량작물

제 2 권 | 채소

제 3 권 | 과수, 화훼, 특용작물

제 4 권 | 한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가축

제 5 권 | 농산물 가공, 농산물 유통, 농산물 수출, 전자상거래, 그린투어리즘

2. 각 권별 순서는 발간사, 목차, 농업인 경영사례, 찾아보기,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기관 순이며, 그 중 농업인 경영사례는 품목별로 인명별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3. 또한 지역별로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각 권별 말미에 별도의 색인표를 수록했습니다.



目次

일러두기	4
발간사	10
식량작물	12

1

강금성	14	끊임없는 연구·도전으로 경영 업그레이드
강대인	16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맛있는 쌀 생산
고만술	18	안전농산물 생산은 농업인의 의무
고상영	20	쌀농사 취미만이라도 제대로 짓겠다
고종일	22	대공 영농법인 설립 꿈 실현, 벼농사가 천직
고한석	24	규모화를 통해 쌀농사 경쟁력 높여
권동주	26	농약의 해로운 알기에 친환경농법으로
권용구	28	철저한 병충해 방제를 통한 고품질 증자용 벼 생산
김경규	30	12년 전부터 브랜드 쌀 생산
김경호	32	오리가 만들어 내는 고품질 쌀
김공배	34	수지타산이 맞는 수준에서 투자해야 한다
김관기	36	'자운영 농법' 이용한 고품질 쌀 생산
김관호	38	힘들어도 남들이 가지않는 길을 간다
김기윤	40	친환경농법의 실천을 통한 브랜드 쌀 생산
김동봉	42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친환경 쌀 생산
김무성	44	규모화·기계화를 통한 쌀산업 경쟁력
김병섭	46	계획영농과 품종갱신으로 미질 향상
김병오	48	'백반석 쌀'로 성공한 승부사
김병학	50	규모화·자동화로 소득증대 계기 마련
김상우	52	농사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기 성공 비결
김상윤	54	친환경농법과 고유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다가간다
김선주	56	운정을 담은 고품쌀로 승부한다
김승대	58	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김연배	60	미질 향상, 생리학로 개방화 이끈다
김용춘	62	품종 분산도입으로 농작업기간 늘려 소득증대
김용필	64	대안 찾는 노력속에 희망은 시작된다
김원중	66	좋아서 선택한 농사, 후회 없이 지켜갈 겁니다
김용주	68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쌀 전문농
김인산	70	남보다 10년 앞선 생각으로
김일도	72	서해바다에서 울려퍼지는 고품질 브랜드 쌀
김일용	74	쌀 전문농으로 승부를 걸다
김재갑	76	철저한 관리를 통한 과학영농
김종구	78	수도작 외길로 고소득 올려

- 김종기 80 쌀 농사 경쟁력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한다
- 김종화 82 4H 활동이 평생직업으로
- 김주홍 84 친환경 농산물 생산만이 살길
- 김진무 86 820명 먹거리를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보람
- 김찬호 88 경영마인드를 갖춘 경쟁력 있는 농업인
- 김철래 90 쌀사랑으로 이어진 귀농 12년
- 김학만 92 친환경오리쌀 '파란하늘 맑은 햇쌀'
- 김현동 94 벼농사 위탁영농으로 연 3,500만원 순수익
- 김현일 96 해마다 일등급 일품 쌀 생산
- 김홍연 98 맨주먹으로 7만평 대농꿈 이뤄
- 김휘관 100 광작(廣作)벼농사로 미래 쌀산업에 대비한다

㉑

- 나민석 102 분수에 맞는 경영, 15년새 농지 10배로
- 나성주 104 4 H 활동으로 다진 '벼사랑'
- 남경희 106 복합영농으로 농가소득 증대
- 남궁훈 108 부부힘으로 4만평 벼농사 거뜬히
- 노영수 110 친환경 고품질 쌀 직거래 통해 소득 증대
- 노을용 112 맨손으로 일군 1만8천평 쌀농사
- 노종석 114 친환경농업으로 생명창고 지킨다
- 노종진 116 벤치마킹으로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

㉒

- 류중연 118 위기를 기회로 만든 진정한 프로 농업인

㉓

- 문홍근 120 품종 선택과 공동체의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

㉔

- 박기현 122 완전미(Head Rice)개발, 브랜드화 성공
- 박문기 124 우리 몸과 하나된 우리 농산물
- 박백순 126 서산 간척지에서 희망 일구는 쌀 농사꾼
- 박재형 128 규모화와 차별화로 무장 "수입개방 두렵지 않아요"
- 박정만 130 벼농사 천직 순수익 1억원 목표
- 박종대 132 규모화, 기계화된 농업이 살길이다
- 박종수 134 기계화 영농으로 이룩한 부농의 꿈
- 박종열 136 관행농법에 의한 우수 품질 쌀 생산
- 박준용 138 특색쌀 소포장 직거래로 판로 확대
- 박지환 140 으뜸 농업인, 으뜸 농산물
- 백청수 142 쌀농사 전문가로 충남의 수도작을 선도한다

㉕

- 서용칠 144 30만평 논 지배하는 숲 뜰 없는 영농회사 사장님
- 서정수 146 맨손으로 일궈낸 황금빛 풍요
- 서종석 148 친환경농법 경험, 널리 알리고 싶다

- 손부남 150 통합사료를 이용한 자연란이 희망을
- 송명재 152 자연 건조 형태 비령 건조로 건조한 쌀
- 송중현 154 5,000년 전통 김포 쌀 지킴이 될 터
- 산호철 156 평생 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 심원일 158 대통의 꿈으로 한여름을 맞는다
- 심한설 160 기계화 작업과 규모화를 통한 쌀전업



- 안수환 162 논 다섯 파지기로 시작해 대농으로 발돋움
- 안승갑 164 고품질·다수확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
- 안재현 166 신뢰를 바탕으로 일구어낸 형실청경미 생산
- 안효근 168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다'라는 생각으로
- 양문배 170 40년간 황토쌀 재배해 온 쌀 전업농가
- 양승운 172 도전정신 없으면 신 사람 아니죠
- 양연모 174 소비자 감동시키는 농산물 생산해야
- 양용철 176 과학적인 영농만이 농가소득의 지름길
- 양천기 178 전국 제일의 쌀 전업농을 꿈꾸며
- 엄대기 180 고난을 넘어 일어난 농민
- 엄한솔 182 농지구묘화사업으로 이룬 낙인 땅 부지
- 오경매 184 한국 최고의 쌀 농사꾼
- 오은백 186 일품벼로 매년 3천만 원 순수익 올려
- 원상린 188 프로농업인만이 살아 남는다
- 유근해 190 쌀농사로 큰 농사꾼 꿈 이뤄
- 유서용 192 삼각농법을 이용한 포트플러오 경영
- 유연홍 194 축산분뇨를 이용한 맞춤형 벼로 생산
- 유재수 196 자식이 원하면 농사를 되돌릴 하고 싶다
- 윤광일 198 복합영농으로 농가소득 증대
- 윤상연 200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는 알곡 있는 쌀
- 윤준석 202 30년의 벼농사로 대농 일귀
- 이광우 204 소박한 농업인, 이광우님
- 이기용 206 게르마늄 쌀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
- 이기운 208 유기농법으로 생산하는 깨끗한 쌀
- 이길우 210 과학적 규모화로 경쟁력 확보
- 이길정 212 유기농법으로 무가치치 높은 쌀 생산
- 이대근 214 고품질 쌀과 유통의 차별화로 소득증대
- 이래도 216 농민 스스로의 혁신이 필요하다
- 이명열 218 내 나라를 지킨다 내 눈을 지킨다
- 이병주 220 땅을 섬기며 우리쌀 지키는 '오리쌀 농사꾼'
- 이병기 222 고품질 벼 직접 도장, 브랜드쌀로 출시
- 이병주 224 오리농법으로 무농약 고품질인증 쌀 생산
- 이상용 226 땅이 살아야 농민도 산다

- 이상진 228 쌀겨농법 청정쌀, 판로 걱정 '이상무'
- 이우석 230 위탁영농회사로 20만평 벼농사
- 이일남 232 벼 직파재배기술 개발 보급 장본인
- 이점동 234 "만석꾼 꿈(★)을 이뤄내고 말리라"
- 이정모 236 '유기농업만이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 이종용 238 기업가 정신으로 영세농업 탈출
- 이종원 240 맨손으로 도전, 역대 소득 꿈 이루다
- 이진규 242 유기농업 전과정 영농일지 작성
- 이진규 244 39년간 매일 작성한 영농일지가 보물
- 이태근 246 대농의 꿈을 이루다
- 이한구 248 쌀 전업농이라면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해야
- 이훈 250 쌀 개방, 복합영농으로 대처한다

ㄷ

- 장봉훈 252 쌀농사도 자식농사 짓는 맘으로 쌀 농사를
- 장상우 254 쌀, 친환경농법으로 돌파구 찾다
- 장석주 256 영종도 토종 '논골쌀'로 승부
- 정동출 258 맘,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재신'
- 정상봉 260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쌀 생산에 주력
- 정영렬 262 대규모 벼농사로 높은 소득 올려
- 정일모 264 농촌의 절박한 현실 규모화로 승부한다
- 정정수 266 대형화와 米質 개선이 바로 경쟁력
- 정진현 268 대농가를 이루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
- 정창섭 270 규모화해야 소득제고 · 경쟁도 가능
- 정철환 272 자녀에게 대물림할 수 있는 농업희망
- 조관호 274 친환경 오리농업으로 쌀농업 활로
- 주병섭 276 '귀농하기 참 잘했습니다'
- 주영모 278 철저한 경영 관리로 미래 대비
- 주지대 280 성실성과 흙의 진실성을 바탕으로 일으킨 부

ㄹ

- 최광식 282 새로운 농법 개척 프로농군으로 우뚝
- 최만득 284 성실과 정직으로 승부한다
- 최영택 286 벼 재배 고도기술로 안성쌀 입지 강화할터
- 최원국 288 무농약재배로 차별화된 쌀 생산
- 최의주 290 농협 지원받아 오리쌀 농법 전환으로 성공
- 최찬용 292 영농규모화로 고품질쌀 생산
- 최창호 294 농사꾼도 '유통' 잘 해낼 수 있다

ㅎ

- 한순기 296 차별화된 재배방법이 소득의 차이를 가져온다
- 한승철 298 항상 연구하는 농업인
- 허남천 300 저농약 재배를 통한 쌀 생산

허태호	302	비농사 15ha재배 국내 최고 부농 꿈
권영수	304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 확대로 농가소득증대
홍기완	306	친환경 쌀 조기채배로 농가소득 증대
황갑식	308	소백산루의 자연속에서 오리농법으로 무공해 쌀 생산
황공호	310	오리농법으로 단골 확보, 개방파고 돌파
황병섭	312	출사이 늘려 심어 '고품질 쌀 생산
황병호	314	무농약 농사와 하나님의 섭리
황정근	316	양보다 질로 승부, 전자성거래도 실시

기타 식량작물 318

ㄱ

김용주	320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쌀 생산에 주력
김인환	322	지역 실정에 맞는 대체작물로 위기를 기회로

ㄴ

박희석	324	신뢰와 믿음으로 일궈낸 원찰쌀보리 특신화
-----	-----	------------------------

ㄷ

신광식	326	부지런함이 선진농업인으로 변모
신성현	328	모락모락 노오란 이천 밤고구마

ㄹ

이상규	330	감자·벼·대파 작부체계로 고수의 창출
이해근	332	맛으로 승부한 칠옥수수
임정배	334	지역 특화사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

ㅈ

최해동	336	경상도에도 감자가 있다
-----	-----	--------------

찾아보기 338



0000000000

發刊辭

지금 우리 농업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 추세 등으로 개방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와 해외시장에서 세계 각국의 농산물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일선 농촌 현장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1천여 농업인들의 삶의 역정과 경영노하우를 집대성하여 책으로 발간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다섯 권의 책은 우리 농업의 전분야에 걸쳐 우수한 경영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함으로써 현장농업인들의 경영혁신노력을 돕는 데 1차적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선배농업인에게서 경험과 지식을 전수받기 위해 천리길을 마다 않는 농업인들의 노력은 그동안 농업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장려되어야 할 소중한 전통입니다.

우수한 경영사례를 연구하여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것은 비단 개별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 전체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또한 그동안 우리 농업과 농업인들이 이룩해온 성과와 함께 오늘날 농업인들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전과제들을 폭넓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국민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오늘날 한국 농업의 참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농업의 장래를 전망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제공해주신 농업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현장조사와 집필을 담당해주신 농업전문 언론사와 농업정보 119 대학 관계자 여러분, 감수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대한 편집기획작업을 빈틈없이 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03년 2월
農林部長官

김 동 태

發刊辭



지금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단일시장으로 빠르게 통합되면서 각국의 무역장벽도 급격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농업부문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농업을 보호하는 빗장이 하나씩 열리더니 지금은 쌀을 제외하고는 모든 농산물이 수입 개방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농업계는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시대적인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생산자인 농업인들은 시장을 지향하는 경쟁력 있는 안전 농산물 생산에 힘쓰고, 생산자단체는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책자는 농업현장에서 선도농업인들의 다양한 경영노하우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득 담고 있어 영농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우리 농산물 애용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농업은 국민들의 먹거리를 공급함은 물론 생명과 환경을 가꾸고 지키는 생명산업이고 환경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은 농업생산과 농업인의 삶의 공간이며 도시인에게는 안식과 평안을 제공하는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농업과 농촌은 농업인만의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가꾸고 키워나가야 할 우리 민족의 공동자산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업이 매우 어려운 이때, 농업인과 농민단체, 정부 모두가 오늘의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자를 기획하고 발간하기까지 취재에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농업인들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2월
농협중앙회 회장

정대근



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여는

千人

쌀이 남아도는 시대에 쌀산업을 유지 발전시키자면 우리쌀의 품질을 높이고 대규모 영농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영농규모를 확대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쌀, 유기농쌀, 기능성쌀을 생산하고 마케팅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한다면 우리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쌀 경쟁력의 원천은 바로 여기에 있다.



강금성



1961년생



주소 충남 서천군 비인면 구복리 336 전화번호 041. 952. 5842

끊임없는 연구·도전으로 경영 업그레이드

경영체명 오산농장

주 품목 쌀, 방울토마토

영농경력 25년

경영규모 논 5만평

조수입 1억5,000만원

농사 경력 25년 베테랑 농업인

강금성씨는 올해로 농사 경력 25년의 베테랑 농업인이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전파시키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한 강씨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유기농법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등 선진 농업인으로 정평이 나있다.

강씨는 현재 5만여평 농지에 벼농사를 짓고 9백여평의 하우스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등 대규모 농업인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처음 농사를 시작했을 당시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2천5백평의 농지가 전부였다.

이후 밭농사와 육묘사업 등을 전전했던 강씨는 벼농사에 근간을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신기술 습득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온 힘을 쏟아 부었다.

유기농법 실현으로 농업기술 업그레이드

10여년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유기농법을 교육받은 강씨는 이후 곧바로 자신의 논에 이를 접목시켰다.

자가에서 생산되는 퇴비와 인근 축사에서 나오는 축분을 활용하여 유용한 비료로 대용시켜 나간 것. 그 결과 화학비료 사용은 현저히 감소했으며 농약을 조금만 사용하고도 웬만한 병해충은 모두 이겨낼 수 있게 됐다. 특히 강씨가 생산한 쌀은 소비자들에게도 인정받아 40kg 한 가마니당 2,000원씩을 더 없어서 받고 있다. 현재 하우스의 방울토마토에도 유기농업을 접목시켜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당도 등 품질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생산량은 크게 늘고 농약값은 줄어 생산비 절감의 효과까지 얻어냈다.

영농 진실화 위해 부채를 줄이는 노력 병행

그가 선진 농업인으로 자리매김 하게 된 것은 이처럼 앞선 기술을 먼저 받아들이고 실천해 나가는 개혁정신과 함께 규모화가 곧 경쟁력이라는 신념도 한몫을 해냈다.

이에 따라 강씨는 개방화시대의 무기는 규모화라는 생각으로 농지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며 앞선 기술을 현장에 접목시켰다. 강씨가 규모화와 신기술 도입 다음으로 중요시 한 것은 영농의 진실화를 위해 부채청산을 병행한 것이다. 특히 농기계의 경우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2~3년이 지나면 못쓰는 경우가 발생하여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기계의 수명을 늘리는 데 최대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농기계 관리가 자칫 소홀하기 쉬운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강조하는 강씨는 기계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용 후에는 깨끗이 청소한 뒤 기름을 지고 반드시 창고에 넣어두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

이름있는 브랜드 쌀 출시할 터



앞으로 강씨는 미질(米質) 향상에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 쌀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 생산에서 공급, 소비자관리까지 전단계 모두에 도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천쌀연구회 회원이기도 한 그는 충남대 농과대학에서 한달에 한번씩 꾸준히 교육을 받고 연구하는 등 노력하는 농업인의 자울이다.

“품질로 승부하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신념도 있지만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도 절실하다”고 강조하는 강씨는 고

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농업인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米

강대인



1951년생

주소 전남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82가-2 전화번호 061. 857. 5959 H.P 011. 9618. 0085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맛있는 쌀 생산

경영체명 우리원농장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8년

경영규모 논 1만9,000평

순수익 6,000만원

특기사항 농림부장관상

기능성 쌀 생산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무농약 유기재배 경력 22년으로 우주의 섭리를 덧붙인 '생명동태적 농법'을 고집해온 강대인씨는 농산물 품질인증 제에 쌀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95년 유기재배 품질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업분야의 산증인이다.

그는 사라진 토종쌀을 복원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벼꽃이 피면 수술을 채취하여 다른 품종의 암술에 직접 교배해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현재는 60여 품종의 벼를 시험재배하고 있다.

현재 그가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기능성 쌀(녹미, 적미, 흑향미) 8,000평과 유기재배 쌀 1만1,000평을 더해 총 1만9,000평이다. 전국에서 최초로 재배에 성공한 녹미는 청량미라고도 하는데 당뇨에 효력이 있다.

쌀이 붉은 색을 띠는 적미는 심장에 좋으며, 향기가 나는 흑향미는 간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기능성쌀은 1kg 단위로 소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이 좋아 유기재배 쌀 보다 일찍 판매가 끝난다. 일반 유기재배 쌀은 80kg에 소비자와 직거래시 320,000원, 정농회 생협에 출하시 280,000원을 받고 있다. 쌀의 판매처는 소비자와 유·무선을 통한 직거래로 30%, 정농회 생협에 70%를 출하하고 있다.

강대인씨는 지력유지를 통한 쌀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병충해 방지를 위해 현미식초, 목초액, 마늘류 등을 살포하고 있으며, 잡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쌀겨를 뿌린다. 지력 유지를 위해서는 쌀 수확 후 생뽕집일 때 로타리를 쳐서 토양을 관리하고 있으며 항상 자식을 키우는 심정으로 온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생명의 쌀 생산 운동 보급

(사)정농회 회장인 강대인씨는 수확철이 끝나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맛있는 쌀을 생산하기 위해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선진 유기재배 농가를 전학하고 이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 연구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연구한 신기술들을 별교 한빛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뿐만 아니라 (사)정농회 회원들에게도 보급하고 있다. 또한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을 통해 20여년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유기농법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 동안 유기농업의 보급에 노력한 결실로 (사)정농회 보성지회 회원 약 70여명 가운데 유기재배 18농가, 무농약 재배 50농가가 참여하여 모든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으며, 생산된 쌀은 대부분 (사)정농회 생협으로 출하되고 있다.

고만술



1940년생

주소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21-3 전화번호 061. 542. 4543

안전농산물 생산은 농업인의 의무

경영체명

한국가톨릭농민회진도작목반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8년

경영규모

논 8,000평, 밭 1만평

조수입 1억원

무작정 시작한 환경농업 쓰러린 실패

“우리 농업인 공동체는 하늘, 땅,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는 삶의 운동이며, 소비자 입장을 생각하는 생산과 유통, 가공을 통하여 공익을 위한 공동체를 목적으로 한다.” 전남 진도군 가톨릭농민회 진도작목반의 경영원칙이다.

전남 진도군 군내면에서 1만 8,000평의 농사를 지으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작목반을 이끌고 있는 고만술씨. '89년 진도군 가톨릭농민회 초대 연합회장을 역임한 고씨는 일본에서 제작한 농약사용 피해 사례를 담은 비디오를 보고 친환경농업에 관심을 갖게 된다.

'64년부터 짓던 관행농사에서 탈피, '90년 벼와 대파, 배추, 무를 무농약으로 재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험 부족으로 처음 3년간은 시장에 널만한 것들 거의 수확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다.

체계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시작한 것은 '97년, 이웃 5농가와 친환경작목반을 조직하면서부터다. 논에 우렁이와 오리



를 넣어 무농약 품질인증 청정쌀을 생산해 일반쌀 보다 20% 이상 높은 값에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발작물도 무농약재배를 실천하여 검정콩과 고추, 참깨, 양파, 마늘을 생산했다.

무농약 품질인증 · 작목반 결성 선도

산성토양 개량을 위해 1년에 한차례씩 목초액과 현미식초, 조개껍질 등을 이용해 소독하고, 우분·계분·돈분을 혼합하여 300평에 4t 이상씩 넣고 갈아엎고 있다. 돌려짓기, 즉 같은 작물을 잇따라 재배하지 않고 작물이 튼튼히 자라도록 생육기간 중에 아미노산, 미늘기름, 천혜녹즙 및 미량효소를 2회 이상 살포하는 등의 다양한 유기농법을 실천했다.

다행스럽게도 전국 성당의 도움으로 '되살이 매장'을 개설, 각종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아 '되살이 매장'은 현재 강원과 충북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곳곳에 개설되는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시련도 있었다. '99년 한 농가의 재배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돼 작목반이 와해 위기에 처한 것. 일부 농가가 탈퇴해 지금은 새로 2농가를 참여시켜 기술지도를 하는 상태다. 또 정성 들여 생산한 무농약 쌀이 판매가 안돼 다른 벼와 같이 수매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친환경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영농자제도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소비자들 환경농산물에 관심 가졌으면

고씨는 우리 소비자들도 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길보기에 모양이나 때깔이 좋은 농산물만 선호하는 경향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벌레가 조금 먹었더라도 안전한 농산물을 믿고 찾아주는 소비자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근에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면서 계약재배를 요구하는 소비자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일부여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우리 후손들에게 농약과 방부제 덩어리인 농산물을 먹일 수 없어 친환경재배를 실천하고 있다는 고씨는 "우리 자신과 후손들의 건강과 개방시대를 맞아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의 확산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강조한다.

고 상 영



1957년생

주소 전북 김제시 성덕면 대석리 73 전화번호 063. 543. 7525 H.P 016. 9855. 7527

쌀농사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짓겠다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1년

경영규모 논 5만평

순수익 1억원

특기사항

농림부장관상, 신지식농업인

식탐산업훈장

우리나라에서 규모화로 수량을 늘린다

우리나라에서 오직 한 곳 지평선이 보인다는 김제평야에서 21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고상영씨는 젊은 시절에는 객지를 떠돌다 결혼 후부터 벼농사를 짓게 되었다.

처음 5년간은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지어 자금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다시 도시에 나가 살 계획이었다.

그러나 남들보다 근검절약하면서 부지런히 일한 덕택인지 경영규모가 늘어나면서 소득도 높아만 갔다. 농사에도 재미가 붙어 도시로 나가려던 계획을 바꿔 농촌에서 성공해 보기로 결심했다.

고씨는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로 고소득을 올렸다는 주위 사람들의 성공담을 들을 때는 갈등도 많았지만 우리의 주식은 내 손으로 생산하겠다는 일념으로 벼 재배에 몰두했다.

수매가격이 다른 물가에 비해 오르지 않아도 이익은 단가와 수량이라는 공식을 적용해 단가가 낮을 경우에는 수량을 늘려 원하는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농사 경영방식을 적용해 지금에 이르렀다.

지력관리와 경험을 통한 병충해 사전예방이 기본



고씨는 “농업은 뿌린대로 거둔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농업에 임하고 있으며 수확의 기본은 땅 힘에 있다고 믿어 농사를 시작하기 전 지력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지력 향상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를 사용했으며 꼭 필요한 농약만을 살포하여 병충해를 예방했다.

보다 나은 농사기술을 익히기 위해 각종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장에 참석하여 농사기술을 습득하였으며, 직파재배 연구회와 벼 연구

회에 참석하여 회원 간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서로 교환하고 있다. 요즘은 신지식인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분야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분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또한 그는 농사비결을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상담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미질을 높이고 ‘기능성 쌀’에도 눈 돌려

그는 주로 일미 벼를 재배하고 있으며, 미질이 우수하고 밥맛이 좋은 품종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병충해 방제는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에 힘을 써 병해충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종자의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기계화를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있으며 판매는 일부 물량은 정부 수매로 소화하고 나머지는 민간유통으로 돌리고 있다.

고씨는 앞으로 쌀농업의 홍보는 ‘기능성 쌀’에 있다고 보고 미질이 좋은 쌀에 가공기술을 가미한 ‘기능성 쌀’을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종일



1956년생



주소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산 66 전화번호 031, 988, 2786 H.P 018, 230, 2787

대곶 영농법인 설립 꿈 실현, 벼농사가 천직

경영체명 장수농장

주 품목 쌀, 배, 포도

영농경력 26년

경영규모 논 2만3,000평

과수원 4,500평

고유 브랜드 개발, 쌀 시장 본격 참여 할 터

김포 양촌 대벽리서 벼농사만 26년째 경작하는 고종일씨는 요즘 하루 해가 모자란다. 지난해 말 5명이 한마음이 되어 대곶영농법인 창립총회를 갖고 법인설립에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애써 농사지은 쌀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도정시설을 갖추고 고유 브랜드를 개발, 쌀 시장에 본격 뛰어들 작정입니다.”

그는 개방시대에 쌀 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길 밖에 없다며 영농법인 설립이 꿈이었는데 이제서야 그 꿈을 실현하게 됐다며 기뻐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1년부터 2만여 평의 벼농사를 손수 지으며 오직 쌀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지금까지 한 우물만 파고 있다. '95년 쌀 전업농으로 지정 받아 현재는 3만여 평을 경작하고 있으며 건조기,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SS분무기 등 벼농사에 필요한 농기계는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고 과학 영농을 실천하고 있다.

배, 포도 과수원도 6천여 평을 갖고 있으나 과수원은 부인 황부홍씨의 몫이다. 농진청 농업기술 센터에서 주관하는 여성일손갖기사업의 일환으로 가공공장을 부녀회원들과 설립해 현재 포도, 배즙을 생산, 시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품은 관내에서만 판매했으나 올부터 전국에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듯 고씨 부부의 농촌생활은 활기가 넘치고 더불어 고소득의 꿈이 실현되고 있다.

못자리 이양과 수확은 공동 작업으로 인력난 해소

벼농사 중 일손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못자리 설치와 이양 수확 작업은 3년 전부터 공동 작업으로 일손을 덜고 인력난이 심할 때는 양곡면 소재지에 있는 인력시장과 군부대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생산하는 벼는 신김포농협 RPC와 전량 계약재배를 하여 비료 농약 등의 사용을 철저히 검증받아 친환경 농법으로 쌀농사를 짓고 있다.

또 3천 평은 채종포로 이용하여 인근 농가들에게 우량 벼씨 종자를 공급하여 벼농사의 대부분 불려지고 있다. 채종포에서는 김포가 자랑하는 추청벼를 유기농법에 의한 재배방법을 도입하여 철저한 관리 속에서 우량 벼씨를 생산,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벼짚은 반드시 썰어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 다시 논에 시비함으로써 단보당 생산량이 인근 농가보다 항상 20~40kg 더 높다.

쌀 산업도 정부의존 탈피 스스로 경쟁력 키워야

대곶영농법인을 설립한 그는 소규모 도정시설을 올해 안에 설치하고 상반기 중 브랜드 개발과 포장 디자인 작업도 완료하여 본격적인 쌀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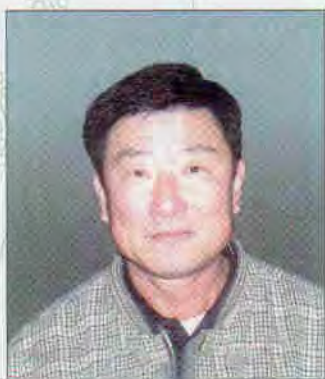
이를 위해 이미 브랜드를 구축한 선진 영농법인과 농협 RPC를 견학하고 자문을 구하는 등 영농법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91년 경기도지사로부터 우수도민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98년 농업기반공사의 우수농업경영인상, '99년 김포시 농업인 대상을 수상한 그는 상보다는 묵묵히 우리 벼농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쌀농사도 정부 구매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브랜드를 붙여 당당하게 외국의 쌀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한석



1944년생



주소 충남 홍성군 서부면 중리 141 전화번호 041. 632. 8358

규모화를 통해 쌀농사 경쟁력 높여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0년

경영규모 논 5만평

순수의 1억2,000만원

쌀만을 20년동안 지켜온 터줏대감

“이제 쌀도 기업농화 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봅니다.”

충남 홍성군 서부면 중리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고한석 씨는 20여년 이상 쌀만을 고집해 온 고향 터줏대감으로 통한다.

현재 경작규모 5만평으로 소유농지 논 2만5,000평과 인차농지 2만5,000평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내에서 경작규모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씨는 주변에서 “쌀농사를 그렇게 많은 것으로 벵차지 않느냐”고 물으면 “기업농 형식으로 경작하면 쌀농사 만큼 안전한 작목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이런 배경에는 고씨의 농사철학과 노력이 숨어있다. 평소 소규모 쌀재배로는 경쟁력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쌀전업농으로 규모화에 주력했다. 또한 각종 물류비 절감과 유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서부면에 위치한 합동정미소도 운영하고 있다.



쌀로만 역대 소득 벌어

지난 '93년부터 운영한 합동정미소는 웬만한 농협의 RPC 규모로 자가 정작한 5만평과 관내 농민들의 벼를 도정, 유통시키고 있다. 고씨의 논에서 연간 생산되는 쌀은 80kg 기준 800여 가마로 가마당 15만원씩 계산해도 1억 2,000여 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정미소에서 80kg 가마당 9,000~1만원의 도정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고씨는 지역에서 역대의 소득을 올리는 농업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쌀로 벌어들이는 소득도 남들보다 많지만 경작규모 만큼 쓰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농기계의 경우 트랙터와 콤파인, 이앙기 등 약 1억2,000여 만원의 기계를 용자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임차농지는 한마지기에 한가마 꼴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밖에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웬만한 농업인들은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규모다.

그러나 이러한 소요비용은 대규모 경작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나마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평소 고씨가 주장했던 기업농화에 의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10만평이 목표

고씨는 마을내 농민들에게 일품벼와 주남벼 등 밥맛이 좋은 벼씨를 추천하는가 하면 직접 재배해 홍성군 서부면 중리쌀이 좋다는 것을 널리 알려나가고 있다.

또한 고씨는 5만평의 벼를 재배하면서 계통출회를 시도하고 있다. 농협을 통해 쌀을 재통출할 경우 개인 유통업자와의 거래부실을 예방할 수 있고 쌀의 브랜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수확 물량의 약 50%를 합동정미소를 거쳐 농협 RPC로 출하하는 등 남다른 출하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고씨는 효율적인 경작과 경영 내실화를 위해 아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다.

아들은 화사출신으로 아버지의 힘든 농사를 도우면서 쌀농사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이런 아들과 함께 고씨는 올해 5만평의 논을 새로 임차해 총 10만평의 벼를 재배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임차농지는 임차료가 저렴할 뿐 아니라 투자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규모화를 통한 일괄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쌀이 개방된다고 하는데 기업화로 나가면 쌀 만큼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없다”고 얘기하는 고씨는 농사는 나이와 그다지 상관없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米

권영주



1954년생

주소 전북 장수군 신서면 오산리 230 전화번호 063. 351. 3635

농약의 해로움 알기에 친환경농법으로

경영체명

장수오메골무농약쌀

E-mail

focas1215@hanmail.net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8년

경영규모 논 20.8ha

순수익 6,100만원

특기사항 농림부장관상

땅과 생명체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

“친환경농업은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땅과 생명체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권동주씨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렇게 말한다.

권씨는 전북 장수군에서 40여 농가와 함께 30.8ha의 논에 친환경농법을 이용 쌀을 생산하고 있다.

권씨는 이 마을 토박이로 어렸을 때부터 농약의 해로움을 체험하며 자랐다. 독립 후 ‘몸에 해로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졌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하면 엄청난 노동의 고통에 비해 수익이 많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농약 치며, 농사를 짓는 관행 농가와 수익의 차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과감히 친환경농업을 시도했다.

혼자였던 그에게 주변 동네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용기를 얻었다.

이러한 노력 끝에 '98년 농림부로부터 친환경농업시범마을로 지정되면서, 친환경농법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했다.



친환경농업은 제초 문제가 관건

이 지역은 사방이 산맥으로 둘러 쌓여 친환경농업을 하기에는 안성마춤이다. 오염원이 없고 농가의 의지와 자부심이 대단하다.

권씨는 지난 '94년부터 친환경재배를 시도하여 2001년부터 20.8ha를 저농약 저비료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나머지 10ha는 지난해부터 장수군 지원으로 무농약 무비료 농사를 짓고 있다. "저농약 무비료 농사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과거 재래식 농사방식으로 농사를 지어 어려운 점이 많다. 무엇보다 제초 문제는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는 제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에는 오리농법을 도입했다. 오리는 이앙 후 2~3주 후에 넣은 후 벼 수입기 때 빼낸다. 그러나 오리농법의 경우 시설비와 사료비가 많이 들고 관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우렁이 농법을 선호하고 있다. 우렁이는 물관리만 잘해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으로 제초를 충분히 제거할 수 없어 틈만 나면 논바닥에 었드려 제초를 해야 했다.

몇 일간만 방심하면 풀 반, 벼 반으로 농사를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권씨는 힘들게 농사를 짓고도 관행농업보다 수입이 낮을 때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우리 쌀을 먹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앞으로 유기농쌀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희망 때문에 다시 눈을 찾게 된다고 한다.

이제 친환경농업은 나의 희망

그는 생산된 쌀 대부분 생협유통망을 통해 80kg 한 가마당 21만원, 직판을 통해서는 28만원에 팔고 있다. 한 해 53만여톤을 생산하고 조수입은 1억여원이다. 권씨는 친환경농업이라면 전국에서 뒤지지 않는 전문가다. 그러나 지금도 그는 친환경농법에 대한 세미나나 교육이 있을 때에는 빠지지 않고 있으며, 전문 서적도 열심히 탐독하고 있다. 성공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소득면에서 관행농과 거의 비슷하여 아직은 아니라며, 앞으로 그린투어와 연결하여 농외 소득에도 눈을 돌릴 계획이라고 한다. 농번기에 도시민에게 친환경농업과정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매뚜기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여 도시 사람들이 산서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米 7

권용구



1953년생

주소 경북 안동시 풍산읍 오매리 541 전화번호 054. 842. 5562

철저한 병충해 방제를 통한 고품질 종자용 벼 생산

경영체명 오미농장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0년

경영규모 1만평

조수입 4,000만원

근면함과 사명감을 지닌 농업인

권용구씨는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부친이 경영하던 논을 물려받아 농사를 시작한지 20년이 된 평범한 농업인이다.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는 아무 것도 몰라 하나부터 열까지 이웃 농업인들에게 물어 물어 기술을 배웠다는 권씨는 “농사꾼은 만능재주꾼이어야 한다”며, 농사 때 겨울 병충해 방제는 물론 농기계 수리 등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스스로 할 정도는 되어 농사꾼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이런 권씨의 말 속에는 자신감이 넘쳐난다.

그는 현재 안동시 풍산읍 오미 1리에서 농업인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미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도 새농민상을 수상하였다.

쌀 농사를 짓게 된 이유는 논을 많이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덤덤하게 말하지만, 지리적으로 안동 풍산읍 지역이 쌀 농사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기도 하다고 밝힌다.

철저한 관리를 통한 신뢰 확보로 지속적인 계약재배 실현

지금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원원종 쌀을 받아서 원종 쌀을 계약 재배 형태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물량의 대부분을 국립종자공급소에 공급하고 있다.

2000년 이후부터는 일품벼, 새추정벼 등과 같이 맛이 좋은 고품질 쌀의 종자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데, 300평당 약 500Kg 정도 생산하고 있다. 종자용 쌀 생산은 큰 수입은 없지만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종자용 쌀의 생산은 일반 쌀 생산과 틀린 게 많다는 권씨는 특히 병충해 방제를 적시에 철저히 하며, 도복이나 질소과다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종자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벼짚 등을 수확 후 논에 다시 사용하는 등 지력 유지를 위해 주로 퇴비를 활용하고 있는 점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종자를 취급하므로 더 신경을 써야 하며,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는 권씨의 신념이 관련 공공기관에서 종자용 쌀의 생산 계약을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종자용 쌀은 다시 내가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생산

종자용 쌀은 소비자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가는 것이므로 국립종자공급소에서 지시하는 대로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권씨는 “내가 생산한 종자용 쌀을 다시 내가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본인은 뛰어난 농업인이 아니며 오히려 평범한 농업인이라고 하는 겸손함을 잊지 않는 권씨는 우리나라 쌀 농업의 장래에 대한 충고 또한 잊지 않는다.

현재 쌀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 주로 50대 이상으로 노령화 현상이 뚜렷하며, 더욱이 수매가가 하락하고 수매량 감소도 문제지만, 특히 소비량의 감소를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 먹는 장면 중 상당 부분이 라면을 먹거나 빵을 먹는 장면인데 이것을 밥을 먹는 장면으로 바꾸어야, 우리 쌀농업이 살 수 있다”고 강조한다.



米

7

김경규



1954년생

주소 경남 산청군 차황면 장위리 256 전화번호 055, 973, 4019

12년 전부터 브랜드 쌀 생산

경영체명 차황영농조합법인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0년

경영규모 논 9,000평

순수익 3,000만원

특기사항 농림부장관상

난 조금 멀리 보았다

차황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김경규사장은 서울에서 공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시작했다.

처음엔 누에로 시작해서 중간엔 양돈으로 전업했다가 지금은 벼농사에 전념하고 있다. 전문화가 필요하고 UR협상이 진행중이어서 언젠가 수입농산물과 싸울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경쟁력 있는 쌀생산을 위해 김씨는 12년 전부터 '베뚜기 쌀'이란 브랜드 쌀을 시판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김씨 혼자 시작했지만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하나 둘씩 동참하여, 지금은 산청군 차황면 전체 농가의 80%이상이 참여해 '베뚜기 쌀'이라는 브랜드쌀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소비자 욕구에 맞는 유기농 쌀 재배

그는 여러 가지 품종의 벼를 재배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벼품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친환경영농을 실천하기 위해 우렁이를 논에 넣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비농사를 짓는데 성공하였다.

우렁이가 김씨에게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은 차황면 대부분 농가에서 김씨와 같이 우렁이를 넣어 친환경 유기농 쌀을 재배하고 있다.

생산된 쌀은 김씨가 정부 구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이 쌀을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kg, 4kg, 8kg로 소포장해 서울 신세계백화점을 비롯, 경남 한살림, 부산 YWCA, 서울 한살림 등 전국적으로 판매하여 연간 9,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다.

처음 친환경 유기농법을 시작할 때는 어려웠지만, 유기농법으로 쌀을 생산만 해 주면 판매는 알아서 해준다는 부산 YMCA의 말만 믿고 오늘에 이르렀다며 항상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품

질 농산물 생산만이 결국 우리 농업이 가야할 길임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였다.

김씨는 일반적으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논에 생산량이 농약을 사용한 논보다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토양을 보호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안전하면서도 고품질의 쌀을 제공할 수 있고 생산자에게도 보다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유통의 이익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환원

12년 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면서 그는 자기를 믿고 따라준 차황면 여러 농가들에게도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7~8년 전부터 유통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3,000만원을 환원하여 학생들 장학금과 어려운 농가들에게 쓰여졌다.

부산 YMCA도 김씨의 뜻에 적극 동참하여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매년 보내오고 있다.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다보니 워낙 손길이 많이 가서 9,000평 규모의 비농사를 더 늘릴 수 없는 형편이지만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몇몇 농가들까지 이 사업에 참여시켜 차황면 전체가 '배뚜기 쌀'이라는 브랜드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빌 수 있기를 김씨는 기대하고 있다.

米

김경호



1943년생

주소 전남 화순군 북면 노기리 203 전화번호 061. 372. 5020

오리가 만들어 내는 고품질 쌀

경영체명

노기오리농쌀작목반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5년

경영규모 논 5만4,000평

순수익 2,000만원

오리농법은 위치 선정과 사전 준비가 중요

노기오리농쌀작목반을 운영하고 있는 김경호씨는 어릴 때부터 성공하는 농업인을 꿈꿨다.

김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농업에 뛰어들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는 비농사 방법을 모색하던 중 친환경농업실천 시범지원사업의 안내를 받아 오리농법을 이용하여 벼를 재배하고 있다

오리농법으로 벼재배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김씨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실감했다. 좋은 토양에 벼를 심고 오리만 집어넣으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줄 알았다.

논둑에 천적을 막기위한 장치를 하지 않아 너구리 및 족제비로 인해 많은 오리가 죽고 재배기술 부족으로 쌀 수확량도 크게 줄어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이왕 시작한 일, 끝을 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노력한 결과 현재는 일반 재배 보다 106% 정도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오리 방사, 관리가 생산량 좌우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안전한 쌀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환경농법을 시도하려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지만 재배의 기술과 오리의 방사, 관리가 생산량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오리는 이른 봄에 새끼 오리를 미리 부화장에 신청해놓고 모이양 다음날에 분양을 받아 2주일 정도 기른 후에 방사해야 한다.

이양에 앞서 논에 표준 시비량의 50% 정도의 화학비료나 유기질비료를 넣고 그 이외에는 관행 영농과 똑같이 이양하고 모내기가 끝나고 1~2주 지난 논에 생후 2주정도 된 오리를 300평당 20~30마리 방사하여 2개월 정도 논에서 기른다.

물 수위가 5~10cm로 유지되는지, 흙탕물이 고르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찰하면서 오리의 활동 정도를 확인하여야 하고 벼이삭이 패면 오리가 이삭을 훑어먹게 되므로 오리를 논에서 꺼내면 된다. 만약 출수 무렵 벼멸구 발생이 우려되면 새끼오리를 2차 방사하고, 벼물바구미 성충이 많은 논은 방사시기를 이양 7~10일로 약간 앞당겨주는 것이 좋다.

이러한 기술을 터득하기 전에는 오리농법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있었으나, 쌀생산량이 높아지고 고수익을 얻게되자 '96년 22농가가 연합하여 벼 8.2ha를 재배하던 것이 현재는 30여 농가가 참여하여 20ha로 재배면적이 확대되었다.

재배환경 관리 철저히 전량계약 재배 실시

오리농법 쌀은 판매가격도 높고 오리도 팔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재배 현장에서 배출된 배설물의 역한 냄새 때문에 몇 차례 직거래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김경호씨는 재배 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느껴 현재는 쌀겨를 이용한 미생물퇴비를 사용, 유명 음식점에 쌀을 전량 계약 재배하게 됐다면서 오리농법 재배에 있어 재배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54년생

주소 전남 강진군 병영면 상낙 전화번호 061. 432. 1356

수지타산이 맞는 수준에서 투자해야 한다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0년

경영규모 2만1,000평

순수익 4,000만원

기와 제조공에서 농사꾼으로

김공배씨는 특별한 기술 없이 고향에서 기와를 만드는 일을 하다가 농촌지역의 주택개량 사업이 시작되면서 기와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자, '78년부터 친척으로부터 논 1,800평을 임차하여 쌀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알아줄 정도로 열심히 일하다 보니 농지를 임대해 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 차츰 규모를 늘려 나갈 수 있었다.

소규모 농사로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고, 이왕지사 농촌에 정착하려면 과감하게 농사를 짓자는 생각이 들어 '92년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2만평 규모로 확대하고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도 구입하였다.

당시 동네에는 농기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농가가 없어 타 농가의 농작업도 위탁받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농사에만 전념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97년에 쌀 전업농으로 선정되어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농지구입자금 5,000 만원을 지원 받아 2,000평정도의 농지를 구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차츰 농업소득이 증가하자,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을 농지 구입에 재투자하여 현재는 자가소유면적이 4,000평정도 된다.

경작방법은 도복피해를 막기 위해 비료사용량을 줄이고, 저농약 농법으로 경작하고 있으며 임차지가 많아 토양검정에 따른 비배관리, 객토사업 등 토질개선에 제대로 투자해오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자운영 재배와 벗짚환원 등을 통해 토양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재배방법은 이앙(2만평)을 주로 하고 직파(1,000평)도 일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미질개선이 쌀농사의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모두 이앙재배를 해나갈 계획이다.

직파재배는 눈을 견조시켜야 도복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물을 통한 양분공급이 어려워져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양 위주보다는 미질 위주의 안정적인 경영이 필요

“쌀농사는 수량이 많게 나오도록 경작하는 것보다는 수량이 적더라도 도복에 강하도록 경작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사람들이 보다 농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씨는 앞으로 노동 능력이 남아있는 한 쌀농사를 지을 계획이며, 현재의 경작규모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전체 생산량의 25%에 달하는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농지 임차보다는 농지구입을 통해 자가소유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지금도 정책자금이나 자기자금을 조달하여 농지를 구입할 수는 있으나 무리하게 투자하여 자금회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경영을 하는 것보다는 수지타산이 맞는 수준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제대로 상환하지도 못하면서 정책자금을 마구 갓다 쓰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라며 신중한 투자와 수지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1955년생

주소 전남 담양군 수북면 나산리 195 전화번호 061. 690. 8748

‘자운영 농법’ 이용한 고품질 쌀 생산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5년

경영규모 2만8,500평

순수익 3,500만원

규모화 영농으로 기업농 꿈 이룬 큰 농사꾼

쌀전업농인 김관기씨는 '78년 군대를 제대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다.

처음에는 농지가 얼마 되지 않아 큰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김씨는 쌀 농사로는 소득을 올리지 못하자 '90년 1,800평의 하우스 딸기를 재배했으나 농사 과중으로 부인의 건강이 악화되자 2년 만에 정리했다.

김씨는 아들 해 규모화 영농정책에 따라 토지매매자금을 지원받고 본격적인 논농사를 시작했다. 이후 '95년 쌀 전업농으로 선정되면서 대규모 농사꾼이 되어 현재 임대농지 2만평과 자경논 8,500평 등 논농사 2만 8,500평에다 밭농사 500평으로 수북면에서 가장 많은 농사를 짓는다.

김씨는 '80년대 '노풍'을 재배했으나 벼멸구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벼 120kg을 도정하면 85kg의 쌀이 나와야 하나 40kg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농업규모를 키우면서 기업농의 꿈을 이뤘다.

기계화 영농을 위해 연차적으로 콤바인을 비롯한 트랙터·이앙기·경운기·보리베토기 등의 농기구도 갖춰 이제는 대규모 농사를 기계로 해결한다.

농사 신념은 '내 가족이 먹는 쌀을 생산하는 것'

김씨는 연간 40kg기준으로 1,400가마의 벼를 생산한다. 수확 후 자체건조를 거쳐 전량 담양농협 연합미곡종합처리장에 공급하는데 가마당 5만원을 받는다. 연간 조수입은 7,000만원으로 이중 비용 50%를 제외하면 3,500만원이 순수익이다.

김씨는 특히 4년 전부터 '자운영 농법'을 도입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3분의 1로 줄였다. 자운영 농법은 가을철 벼 베기 전에 씨를 뿌려놓으면 봄철 온 들판에 자운영 꽃이 만발하는데 이를 갈아엎어 퇴비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농사법은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쌀의 품질도 좋아지게 한다. 벼를 도정했을 때 희나리가 적어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김씨는 '내 가족이 먹는 쌀을 생산한다'는 신념으로 농사짓는다. 자운영 농법을 고수하면서 농약사용도 줄이고 있다고 김씨는 말했다.

김씨는 '95년부터 담양군 전업농연합회 회장 대행을 맡다 지난해 회장으로 정식 취임했다. 이제는 전업농연합회의 자생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직접 재배한 쌀을 도정해 자체 판매함으로써 가격을 제대로 받자는 취지에서다.

자생력 갖추기 위한 자체 전업농 쌀 판매장 개설 추진

고품질 쌀을 재배해 도정한 쌀을 적정 가격으로 판매해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는 김씨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군청에 포장비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며 전국 유명 브랜드 쌀과 경쟁하기 위한 자체 쌀 판매장 개설도 추진하고 있다.

김씨는 이달 내로 담양군 전업농연합회 회의를 거쳐 올해 재배할 벼씨 품종부터 확정할 계획이다. "쌀 농사가 힘들어도 주저앉아 있으면 안되고 돌파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인정하는 친환경쌀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호



1958년생



주소 전남 진도군 진도읍 산월리 298 전화번호 061. 544. 3223

힘들어도 남들이 가지않는 길을 간다

경영체명 산너머농장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0년

경영규모 논 3만8,600평,

밭 2,000평

조수입 1억2,000만원

간척지 논 2,000평 경작하며 잇단 실의

“무작정 검정쌀 법서를 심어 성공적으로 수확을 했습니다만 검정쌀로만 밥을 지어서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도 입을 대지 않더군요.” 전남 진도의 특산물인 검정쌀을 보급,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는데 큰 공헌을 한 김관호씨의 웃지 못할 일화다.

형편이 어려운 농촌 가정에서 태어난 토박이 농업인인 김씨에게 '85년은 그의 영농에 큰 변화를 예고한 해였다.

마을 앞에 소포만 간척지가 조성되어 수 만평의 농지가 조성되어 간척지 농지 2,000평을 임차해 벼농사를 시작했지만 염해 피해가 많고, 가뭄이 드는 해에는 수확을 거의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간척지 논을 개간하고 5년이 지나서야 정상적인 수확이 가능해 졌다.

시간이 지나 간척지 농지가 경지정리 되고 분배와 분할이 실시되자 그 동안의 수익으로 논을 사들여, 농군의 자식으로 농지에만 투자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의 대가로 3만6,000평의 논농사를 짓는 대농으로 성장했다.

검정쌀 재배,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자 김씨는 검정쌀 재배에 관심을 가졌다. 이웃의 한 농가가 검정쌀을 재배하는 것을 보고 '94년 한 되의 씨앗을 얻어 재배를 시도한 것. 그러나 재배방법을 몰라 문의를 하기도 했으나 농촌지도소도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2년여의 노력 끝에 드디어 '96년에 7,000평의 논에 검정쌀을 재배해 수확에 성공하지만 곧 판매부진이라는 시련에 부딪혔다. 당시만 해도 검정쌀에 대한 홍보가 안돼 찾는 소비자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판로확보를 위해 직접 소비지를 돌며 홍보를 해야만 했다. 차츰 검정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웃 농가들의 재배도 크게 늘어났다. 관내 농협도 소포장 판매를 시작하면서 검정쌀이 진도군의 특산물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끌었다.



“수확량보다는 품질로 승부 하겠다”

김씨는 2001년과 2002년 예기치 못한 피해로 좌절하기도 했다. 2001년엔 수로를 통해 바닷물이 유입, 벼가 썩어들어 수확량이 40% 이상 줄었다. 1만1,000평 피해면적에 벼를 다시 심기 위해 못자리를 두 번이나 해야 했다. 2002년엔 태풍 '루사'가 논을 휩쓸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그동안 평균 벼 2,000가마를 수확했으나 500가마로 감소하고, 그나마 대부분이 잠정등의 등급을 받은 것. 하지만 김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 특색미 보급을 더욱 늘리기 위해 '유색미 시범 포' 500평을 조성했으며 일반벼도 품질이 우수한 '추청벼'를 재배할 계획이다. 다른 농가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량보다 품질로 승부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이웃 농가와 연합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주문판매제를 추진하고 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힘들어도 그 열매는 더욱 큼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검정 쌀을 과감히 재배, 지역 특산품으로 자리잡게 한 김씨의 인생관이다.





1962년생

주소 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리 H.P 011. 407. 3107

친환경농법의 실천을 통한 브랜드 쌀 생산

경영체명 금수강산쌀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0년

경영규모 논 1,200평

순수익 3,000만원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쌀생산

“쌀농사도 기존의 방식만 고수하면 안되지요.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영농경력이 20년인 김기운씨는 기존관행의 농법으로는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없다고 말한다. 특히 요즘같이 제품의 경쟁력을 요구하는 시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농산물과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제품의 이미지 개선과 안정적인 판로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씨는 이러한 친환경적인 농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3년 전 오리농법을 선택하였다. 기존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오리농법을 시작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쌀의 가격을 낮춰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이다. 처음에는 낫선 방식이라 힘든 점도 있었으나 지속적인 노력으로 맛과 품질을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금성면 의총리 쌀작목반에서 다섯 농가가 모여 오리단지를 만들었다.

이곳에 1,500~2,000여 마리의 오리를 방목하고 있으며 10a당 20마리를 투입하고 있다. 오리 덕분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오리에 드는 사료를 절감하고 있다. 게다가 여분의 오리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음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내가 생산한 농산물은 내가 판매

오리농법으로 생산한 쌀을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정미소에서 가공하고 대전 일대의 아파트 단지과 서울의 대형 마트 등에 직거래하고 있다.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본인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는 생산 농업인과의 직거래를 통하여 안심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농업인은 안정적인 관로를 만들어 놓아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쌀맛이 좋아 품질을 인정받기 시작한 후 고객수가 상당히 많아졌고, 주문량이 늘어나 물량이 부족하고 일손도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김씨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주부님들이 친환경 품목을 인정하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다. 많은 홍보로 쌀의 품질과 맛을 인정받고 싶어한다. 그래서 매년 5회씩 200여 명을 초청하여 “도시주부 초청 테마여행” 행사를 열어 쌀의 안정성과 품질을 소개하고 있다.

소비자들에 인정받는 브랜드를 위하여

품질이나 유통도 중요하지만, 브랜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2001년에는 ‘금수강산쌀’이라는 브랜드를 특허청에 등록하여 상표를 인정받았다. 게다가 올해는 오리농법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인증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기운씨는 현재 모든 쌀농사를 오리농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보니 주문은 많은데 물량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품질인증을 받으면 규모확장이 가능하고 물량 부족도 해결할 수 있다며 더욱 활발한 영농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米

김동봉



1951년생

주소 경북 상주시 현신동 전화번호 054. 531. 3166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친환경 쌀 생산

경영체명 우렁이쌀작목반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0년

경영규모 논 1만4,500평

순수익 4,000만원

친환경 쌀생산 계기를 마련

김동봉씨는 '97년부터 우렁이쌀 작목반을 결성하여 친환경 품질인증 쌀을 생산하는데 힘쓰고 있다.

그는 "UR농산물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무농약 재배 쌀을 생산함으로써 건강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 기호에 부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김씨는 친환경 우렁이쌀 농사재배 기술을 묵묵히 따라준 작목반원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다.

현재 우렁이 작목반에서 생산한 쌀이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따라서 우렁이쌀은 일반 쌀에 비해 22,000원(20kg기준)이상 가격을 더 받고 있다고 한다.

친환경 기능성 쌀 재배 방법 정착

친환경농법은 처음부터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96년에는 오리농법을 채택하여 무농약 쌀을 재배한 적이 있



다. 그러나 사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실패하였으며 '98년에 우렁이농법으로 전환을 하였다고 한다.

그 당시 우렁이농법을 채택한 논 면적은 9ha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30ha로 40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우렁이쌀을 다른 무농약 쌀과는 달리 눈에 게르마늄을 살포하여 벼를 재배함으로써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친환경에 기능성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 장점

이다. 게르마늄 우렁이쌀 재배방법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경운·정지작업 전후로 70평당 게르마늄 1포대(300평당 2만5천원~3만5천원)를 물에 희석하여 눈에 살포하고 있다.

또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잡초를 제거하기 위하여 모를 낸 후 눈에 300평당 6kg정도의 우렁이를 눈에 투입하고, 특히 초기 제초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쌀겨를 눈에 살포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도열병 등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목초액, 현미식초등을 살포하여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병해충 방제를 하는 등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친환경 기능성 쌀 재배로 인해 쌀 1kg당 게르마늄이 154ppm, 칼슘이 78.85ppm 검출되고 있다. 또한 밥맛을 나타내는 식미치가 94.0%로 전국 평균치 78.0%에 비해 무려 16.0%가 높은 것으로 농협식품연구소 평가결과에서 보고되었다고 한다.

친환경 우렁이쌀 브랜드화 및 판로 확보



상주농협은 우렁이농법으로 재배한 쌀을 '상주 일품 게르마늄 우렁이 쌀'로 브랜드화하여 인터넷 쇼핑몰, 대구 생협, 서울 생협 등 폭넓은 판매망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특히 '상주 일품 게르마늄 우렁이 쌀'을 도시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해 시식회를 연중 개최하는 등 농업인들이 판로에 신경쓰지 않고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에만 주력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는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렁이 농법에 의한 쌀 재배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작목만원의 친환경 농법 지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저농약에서 무농약 재배를, 그리고 장기적으로 전환기 유기농법에서 유기농법으로 친환경 품질 등급을 높이고, 농산물 품목을 쌀에서 과일, 채소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고 소득을 창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米

7

김무성



1951년생

주소 경남 사천시 서포면 구랑리 632-1 전화번호 055, 853, 1363

규모화·기계화를 통한 쌀산업 경쟁력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0년

경영규모 논 2만6,000평

순수익 4,000만원

농업 경영인으로서의 자신감

'84년에 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된 김무성씨는 점점 어려워져 가는 농촌현실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한우를 키워보기도 하고, 염소를 길러보기도 했으며, 단감도 생산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투자를 해 봤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무너진다는 것은 그동안 농업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던 자신에게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갖고 재기를 다짐한 김씨는 전반적인 농업의 현실을 생각하고, 주위의 농산물을 한번 더 자세하게 돌아보게 되었다.

지금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를 하나 하나 신중히 되짚어 보게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농촌의 쌀 생산은 자금자족 목적이 대부분을 이루었고, 좁은 토지에서 많은 수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뿐, 좀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지는 않는 형편이었다.

이에 김무성씨는 좀더 생각을 넓혀 대규모 쌀 생산의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러한 생각을 실천해 가면서 점점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자가 대량생산 방법을 통한 소득증대

'91년 새마을 지도자, 농민상 및 많은 공로패 등을 받으며 농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진 김씨는 쌀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 및 생산비 절감에 있다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쌀을 아무리 잘 경작하여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생산물에 들인 생산비가 높아지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따라서 생산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쌀 생산에 있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에 김씨는 대량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및 농기계를 구입하였다. 많은 양의 쌀을 손쉽게 밀릴 수 있는 건조기, 넓은 농토에 모내기할 수 있는 이앙기, 농토 개간에 필수적인 트랙터, 수확을 할 수 있는 콤바인, 그리고 경운기, 승용관리기 등을 마련하여 쌀 생산에 필요한 인건비와 생산비 절감에 노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만 6천평에서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함으로써 김무성씨는 좀더 많은 이득을 남길 수가 있었으며 UR 타결 이후 어려운 농업여건을 대량 생산 및 기계화라는 무기로 굳건히 버텨 낼 수가 있었다.

쌀값 안정과 앞으로의 농업현황

현재 김씨는 앞으로의 농업현실에 대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쌀농사에 대한 현실적 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때, 정부는 물론 생산자 스스로도 쌀 농사의 발전을 위해 좀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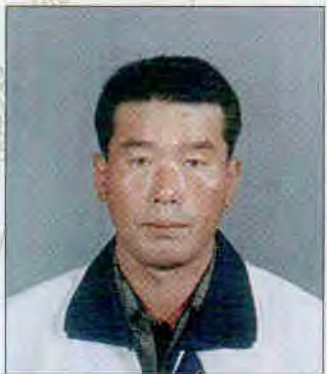
지금의 농업 현실을 보면 이윤이 낮은 쌀 생산보다는 이윤이 높은 특작물 생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의 쌀 재고량도 많아져 쌀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생산자는 늘 불안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김씨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정부는 쌀값안정을 위한 대책을 서급히 마련하고 대규모생산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米

김병선



1958년생

주소 전남 화순군 남면 내리 924-7 전화번호 061. 372. 5919

계획영농과 품종갱신으로 미질 향상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0년

경영규모 2만평

순수익 6,000만원

농기계를 이용한 영농, 공동작업으로 계획 영농 실현

무등산 뒷자락의 중 산간지에 위치한 지리적 불리함 속에서도 연간 6,000만원 이상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김병선씨. 그는 '95년 영농후계자로 지정되면서 논 6,500평, 밭 2,500평, 한우 10두 등 지역실정에 맞는 영농규모를 조성하고 각종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기계를 전 이용한 영농방식과 공동작업을 통해 계획 영농을 펼치고 있다.

매년 벼품종 갱신, 수확량 및 미질 향상에 역점

쌀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매년 객토를 실시하고 있는 김씨는 토양 보존만이 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밥맛이 고소하고 윤기와 찰기가 있으면서 병충해와 도복 피해 등이 적은 품종 선택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매년 농촌 기술센터를 통해 품종 갱신을 하였다.

농촌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5년 농기계 공동 이용단을 조직하여 영농기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일본 최고의 쌀을 생산하는 니카타현 우오누마지역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 객토와 유기질 퇴비를 통한 흙 살리기와 품종선택, 육묘, 비배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여름철이면 산의 풀을 베어 우분과 발효시킨 유기질 퇴비를 듬뿍 넣어줌으로써 화학비료 사용을 크게 줄이면서 잎도열병 등 각종 병해충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특히 한 품종을 오래 재배할 경우 품종 특성이 퇴화돼 수확량이 줄고 미질이 떨어지므로 해마다 정부 보급종으로 품종을 갱신하고 적절한 물 낚기와 물 떼기를 통해 최고의 미질을 유지하고 있다.



친환경 농법 및 농작업 공동작업으로 농업 경영비 절감 꾀하기도

김씨는 10마리 이상의 한우를 사육, 부산물을 유기질 퇴비생산에 활용하는 한편 매년 영농 회 자체 풀베기 대회를 실시하여 퇴비 증산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쌀의 브랜드화 계획을 세우고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을 점차 줄여 품질 좋은 쌀 생산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생산된 농산물을 전량 일반 상인에게 판매하던 것을 유통 비용을 줄이고 농가수취가격을 높이기 위해 전량 농협을 통해 자체 수매에 응하고 있다.

육묘에서 수확까지 관내 9만평의 논 가운데 90% 이상의 농작업을 공동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난해만 해도 7천만원의 고소득을 올리기도 했다.

김씨는 "앞으로는 환경농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면 갈수록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찾기 때문에 당장은 힘이 들더라도 그쪽으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친환경 농법 및 농작업 공동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오



1949년생

주소 경북 예천군 지보면 대죽리 281 전화번호 054. 653. 2287

‘맥반석 쌀’로 성공한 승부사

주 품목 쌀

영농경력 18년

경영규모 논 1만8,000평

순수익 3,500원

영농규모화로 생산비 절감, 소득 향상

’77년 결혼과 동시에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김병오씨는 당시 생활여건이 어려워지자 ’83년 고향으로 내려왔다.

이듬해인 ’84년에 논 1,600평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 농사를 시작한다 그는 물이 부족한 산골 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경운기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물을 퍼 올리는 등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농사를 지었다.

그러던 중 ’86년 농업기반공사로부터 600만원을 지원받아 난생 처음으로 논지 1,000평을 구입했다.

당시 영농규모는 임대까지 합해 모두 2,600평. 어려서부터 어렵게 자랐던 터라 땅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그는 그 이후로 면적을 차츰 차츰 늘려 나가기 시작했다.

’93년 쌀 전업농으로 선정되면서 또다시 2,000평을 구입했고 ’98년에는 현재의 영농규모인 1만 8,000평(임대 1만평)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영농규모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뛰어난 재배기술로 채종포 단지 조성

김병오씨는 벼를 재배할 때 비료살포와 물관리를 가장 중요시한다. 토양개량제인 규산질 비료는 2년에 한번 꼭 뿌리는데 무상지원으로 나오지 않을 때는 개인적으로 구입해서라도 살포한다.

토양검정을 통해 부족한 양분을 시기 적절하게 보충하는 것은 물론이다.

밑거름과 이삭거름은 질소성분을 최소화한 비료를 사용하고 요소성분이 많은 가지거름은 아예 뿌리지 않는다. 질소질 비료 대신 땅 상태를 봐가며 유기질 비료를 가급적 많이 넣어준다.

도복을 방지하고 병충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떼기도 중요한데 김씨의 경우 모심고 한 달 뒤에 한 차례 물을 떼 주고 알을 뺄 무렵 다시 물을 대준 뒤 1주일에 한 번 정도 새물로 교체해 준다.

벼 베기 20일 전에는 물을 완전히 빼 주고 있다. 부단한 노력으로 재배기술이 향상되고 품질을 인정받게 되자 '93년에는 국립종자관리소로부터 전체 벼 재배면적의 3분의 2인 1만 2,000평을 채종포로 지정받았다. 채종포로 지정받으면 이형주 제저 등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대신 추곡 1등급 품수매값보다 5% 더 높은 값에 전량 구매해 준다.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과 '백반석 쌀'

그러나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품질을 높이는 것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인식하고 2000년부터 다수확 품종에서 고품질 품종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지금은 밥맛 좋기로 이름난 '일품벼'와 '추청벼'가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차별성을 꾀하기 위해 브랜드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물질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백반석을 이용해 재배한 '백반석 쌀'이 바로 그것이다.

씨앗을 백반석가루와 살균제로 소독해 파종하고 모를 심을 때와 이삭이 팬 뒤에 백반석 가루에 영양제를 섞어 뿌려준다. 이렇게 하면 2~3번 뿌릴 것을 1번 정도만 살포해도 된다. '백반석 쌀'은 현재 10kg 한 포대 당 3만원으로 일반 쌀보다 30%정도 비싼 값에 판매되고 있다.

김병오씨가 지난해 재배한 '백반석 쌀'은 모두 2,000평. 그는 지난해 인근 농가와 함께 20ha의 백반석 쌀 생산단지를 조성했는데 올해는 재배면적을 30ha로 늘릴 계획이다.



김 병 학



1959년생

주소 전북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703 전화번호 063. 451. 3083

규모화·자동화로 소득증대 계기 마련

경영체명 두리영농

E-mail

kbh3083@hanmir.com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2년

경영규모 5만평

순수익 1억2,000만원

특기사항 철탑산업훈장

흔들리지 않는 농업인

선대로부터 축산과 쌀 농사를 함께 해온 김병학씨. 그는 19세의 나이에 5,400평의 농지를 물려받아 쌀농사를 시작했다. 김씨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무렵, 농촌의 젊은이들은 너나없이 도시로 떠나던 때였다. 그 역시 젊은 나이에 쌀농사를 하면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농촌과 농업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 주위의 사람들이 떠나면 떠날수록 그는 오히려 지역 농업 발전에 젊음을 투신했다.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구입자금을 얻어 영농규모를 5만평으로 늘렸으며 고부가가치와 비용절감에 노력한 결과 연간 1억2천만원의 고수익을 올리게 되었다.

협업농을 통해 유희지 경작

그는 농사가 좋아서 농촌에 사는 것을 한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농촌이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유희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보고 마을 젊은이들과 의논 끝에 9만

3,000평에 달하는 유휴지에 협업농을 시작했다. 이제는 쌀농사 뿐만 아니라 보리까지 생산해 수익을 높여가고 있으며 또 농기계작목반을 결성해 운영하고 있고 (유)대야발전농업회사법인을 설립, 총무과장을 맡고 있다.

또한 군산시 농업경영인 연합회 이사직을 겸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철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현재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마을 이장이기도 하다.

농업은 해볼만한 분야

김씨는 농업기술센터의 영농교육을 비롯해 도농업기술원의 각종 교육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위 농업인들을 독려해 지역 쌀의 고품질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대량생산도 중요하지만 지역환경에 맞는 품종 선택과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해야 소비자가 알아주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성향분석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면서 생태연구를 비롯해 지역환경을 분석해 농업에 대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것이 고품질화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향후 사업 계획도 지속적 규모화를 추진하고 수도작 전분야를 기계화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꿈에 본 쌀' 브랜드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 소비자와 농업인과의 정보교류를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마케팅을 통해 아파트 등 소비자층에 대해 직거래로 공략할 계획이다.

김씨의 두리영농조합은 곡물탱크, 저장시설, 농약 방제기 등의 최신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농업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농업전문학교 현장교수이기도 한 김씨는 농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획적인 영농경영을 하면 지금은 힘들지만 젊은층이 도전해 볼만한 분야라고 강조한다.





1946년생

주소 강원 철원군 철원읍 대미2리 2반 전화번호 033. 455. 5419 HP 011, 9079. 5419

농사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가 성공 비결

경영체명 생태보존농장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0년

경영규모 4만5,000평

순수의 8,000만원

철원지역 친환경 농업 선도자로 손꼽혀

군제대 후 서울에서 잠시 직장생활을 하다 '73년 밭을 개간한 논 2,000명으로 처음 농사를 짓기 시작한 김상우씨는 이제 철원지역 친환경 유기농법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다.

현재는 4만5,000여 평의 논을 두 이들과 함께 경작하고 있는데, 축산 분뇨를 이용한 발효 퇴비로 유기 재배를 실천해 무농약 품질인증을 받았다.

김씨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순환하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특별한 믿음을 바탕으로 '90년부터 무농약 재배를 시작했다.

동물과 식물의 유기체를 발효 퇴비화해 대지에 묻으면 미생물에 의해 분해·흡수되는 친환경 농법이 바로 논이 땅심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씨는 "모든 것이 순환한다는 자연의 법칙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대안은 당연히 친환경 농업"이라고 말한다.

유기농 쌀 생산으로 직거래 판로 확보

김상우씨는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쌀의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매일유업과 '97년 계약재매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 개척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철원쌀에 대한 꾸준한 홍보에 힘입어 그의 쌀은 이제 전량 직거래로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는 도정시설을 직접 갖추고 소비자의 구미에 맞도록 4kg, 8kg 등 소포장으로 개별 판매하고 있다.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유기농 재배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김씨는 말한다. 많은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법을 사용하면 생산량이 감소해 농가소득이 줄 것을 두려워하는데 김씨의 경우는 생산량 감소도 미미했고 오히려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어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부지런히 공부해 기술 갖춰야 남보다 앞서 가

김씨가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농사에 대한 연구를 부지런하게 해 남들보다 빨리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일반 농가들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친환경 농법 등의 새로운 농사 기법에 도전하기를 꺼리는데 이는 농사에 대한 공부가 충분하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다”고 김씨는 말한다.

과학적인 원리를 제대로 알고 새로운 농사 기술에 빨리 적응해야 경쟁력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다. 그래서 많은 농업인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철원군 지역의 유기농작목반을 이끌고 자신의 노하우를 다른 농업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강의를 꾸준히 하고 있다.

이런 그의 공로와 기술을 인정받아 많은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2년 새농민상을 비롯해 농업기술자협회에서 주는 농업기술 특별상 등을 받았다.

김씨는 “우리 나라의 가장 좋은 자원은 자연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면서 “이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농법으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상 음



1965년생

주소 전북 부안군 주산면 돈계리 448-2 전화번호 063. 581. 7044 팩스 063. 581. 7045

친환경농법과 고유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다가간다

경영체명 주산사랑영농법인

홈페이지 www.jusasa.com

주 품목 쌀

영농경력 15년

경영규모 95ha

조수입 10억원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 선택

전북 부안군 주산면은 넓은 들이 있어 타지역에 비하여 벼 재배 기술이 뛰어나고 젊은 농업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젊은이들 대부분이 쌀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에 종사하고 있다.

UR협상 이후 쌀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책으로 관행 농법을 탈피하여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적응하고자 5년전부터 김상음씨를 중심으로 지역 젊은이들이 '주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였다. 이 단체의 목표는 친환경농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있다.

또한 '주산사랑 영농조합법인'은 '주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단체내 친환경 쌀농사 분과에서 운영하고 반딧불이, 재첩, 백로, 물닭, 뜰부기가 사는 내고향 주산면에서 환경과 문화유적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친환경농법으로 환경호르몬과 유전자 조작 농산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우리의 밥상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선진 농업 지식은 선진농업의 기초

'주산사랑 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부안 군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산농협 주관으로 환경농업 교육을 2년 이상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산농협에서 토양진단센터를 설치하여 주산면내 토양검정을 실시, 처방에 따라 시비를 살포하고 있으며 깊이 같이 등 농토배양 사업을 실시하여 지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그리고 목초액, 현미식초, 효소제, 복합비료를 사용하고 농약의 사용을 반으로 줄였다. 우렁이 및 오리를 이용하여 제조, 병충해 방제로 농약과 비료를 절감 사용하여 지금까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그리하여 2002년도에 친환경농업 표시인증을 받아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고 또한 대규모 사업단지와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었다. 주산면 관내 농업인과 함께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의 협조를 받아 연 3회 이상 친환경농업 실천교육을 실시하였다.



상품의 브랜드화

넓은 면적에서 생산된 쌀은 생산량보다는 미질에 정성을 기울여 고품질로 생산하고 있고, 소비자를 위하고 우리 쌀을 살리자는 취지하에 정미소를 구입하여 직접 가공까지 하고 있다.

타지역에서 생산된 쌀과의 차별화를 위해 지역 고유의 '배메쌀', '배메쌀 골드'의 브랜드로 주로 월마트와 김스클럽에 판매하는 등 국내 유명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있어 높은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한 조생종 '상표 배메골드' 80ha를 주산농협과 공동으로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마을을 친환경 농업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향후 2003년에는 더욱 확장하여 다양한 포장으로 주문판매, 대형할인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출하를 계획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이용한 적극적으로 홍보를 구상중이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로서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줄이고 토양을 살리는 작업을 꾸준히 실천할 것이며 홈페이지를 더욱 보완하고 홍보하여 낙후된 농가나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싶다고 김씨는 말한다. 그리고 전북환경연합 회원과 어린이를 초청하여 친환경농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들과의 거리를 좁혀나갈 계획이다.



米
7
김 선 주



1951년생

주소 전남 나주시 봉황면 운곡리 681 전화번호 061. 331. 2753

정성을 담은 고향쌀로 승부한다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0년

경영규모 논 1만2,000평

순수의 3,000만원

입맛에 맞는 고향쌀을 향우회원에게 직접공급

쌀농사를 하는 농업인들의 걱정거리 중의 하나는 고생해서 생산한 쌀을 정부수매나 PRC수매가 막힐 경우, 창고에 방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봉황면 쌀 전업농 작목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선주 씨는 서울에서 요식업에 종사하는 향우회원들에게 훈훈한 온정이 담긴 향토쌀을 공급함으로써 이러한 걱정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계획한 바를 실천에 옮겼는데, 2001년에는 직접 도정공장을 임대하여 작목반에서 생산한 전량의 쌀을 공급하였다. 2002년부터는 판매량이 늘어나 인근 농협에서 미질 좋은 벼를 다시 사들여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씨는 “같은 가격이면, 고향에서 생산한 미질 좋은 쌀을 쓰겠다”라는 요식업을 경영하는 향우회원들에게서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안전하고 미질 좋은 고향쌀 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연계 판매를 할 계획이다.

다양한 농기계로 노동효율 높여

김씨의 농장에 가면 쌀농사를 위해 필요한 각종 농기계를 접할 수 있다. 농기계 보관창고에는 보리수확기, 벼수확기, 승용이앙기, 트랙터 2대와 중고 콤바인을 이용하여 직접 만든 운반작업기 등 많은 농기계가 있다.

쌀 전업농인 김씨는 남들보다 일찍이 대규모 농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기계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생산비와 부족한 노동력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각종 기계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씨는 “노인분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농기계 작업을 한다면, 기계 원가가 나오지 않더라도 보람된 일이다.”라며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인근의 농가에게도 작업을 도와주고 있었다.



농업기술교육은 나를 변화시켰다

김씨가 30년전 떠돌이 장사꾼에서 이곳에 정착하여 농업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농업기술교육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받은 내용을 충실하게 실천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의 성공비결은 농업교육의 성실한 실천 및 봉사정신에 있으며, 강인한 의지력 또한 한 몫을 했다.

밑천과 농토 없이 시작한 농사일이 그리 쉬운일은 아니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수십 번 가졌었지만 그의 강인한 의지력이 현재의 그를 있게 한 것이다.



김승대



1966년생

주소 경북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952 전화번호 054. 751. 6038 H.P 011. 811. 6038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경영체명 건천대성육묘장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3년

경영규모 논 15만평

순수익 1억원

특기사항 농림부 장관상,

경북농민대상

배짱과 오기로 무장한 쌀 전문경영인

“배짱과 오기가 없었다면 쌀만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전업 농으로 성장할 수 없었다”는 김승대씨.

현재 자경재배 6만평, 위탁재배 9만평 등 총 15만평의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3만판의 육묘를 공급하고 있는 전문경영인으로 성장했다. 연간 조수입이 2억원, 순수익도 1억원에 달한다.

농업경영인으로 민족산업인 ‘쌀’ 만은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무장한 김씨. 처음부터 쌀산업 지킴이는 아니었다.

축산부국의 꿈을 안고 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에는 한우사육에 뛰어들어 170두의 한우를 사육하였으나 '90년대 초 '휴경논 재배' 붐이 일때 정부보조를 받아 3만평의 휴경지를 개간, 수도작에 뛰어들면서 축산을 접고 쌀에만 주력하였다.

“한우사육 경험만으로 쌀산업에 뛰어들었을 때는 사실 두려움도 있었고 수도작으로의 전환을 후회한 적도 많았다”는 김씨,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의 끊임없는 도전은 멈추지 않았다.

기능성 부각한 '게르마늄쌀' 개발

김씨는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자문을 받아 2001년부터 '게르마늄쌀' 생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현재 기능성 쌀로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품질인증을 신청한 상태다.

게르마늄쌀은 모내기 전인 4월 1차례에 걸쳐 600평당 1톤(30만원 상당)의 게르마늄을 살포해 생산된다. 기능성 쌀만큼 품질도 해충에 강한 새추청을 선택했으며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대신 퇴비를 사용한다.

손씨에 따르면 "게르마늄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2~3배의 노력과 시간, 비용이 들지만 일반쌀(1가마) 출하가격이 16만원선인 반면 게르마늄쌀은 대략 22~23만원"이라면서 "차별화·브랜드화가 쌀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지름길"이라고, 게르마늄쌀은 수요가 늘면서 도정과 제분을 거쳐 100% 수도권 상인에게 납품된다. 앞으로 김씨가 총무로 있는 건천미맥연구회 회원 15명과 함께 게르마늄쌀 생산량을 더욱 늘려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납품처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친환경쌀(저농약) 생산 움직임과 맞물려 유기질 퇴비 생산업체로의 사업확장도 꾀하고 있다.

이러한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과 브랜드 창출



공로 덕분인지 '99년에 농림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2001년에는 경북농민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쌀산업 지키는 '파수꾼' 자임

김씨는 "수입개방의 파고 속에서 쌀산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좋은 쌀을 생산, 싼 값에 공급하는 것"이라면서 5℃저온창고 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김씨는 꾸준히 저온창고 설치를 요구, 올해 경북에만 5개소의 저온창고가 설치될 예정으로 쌀산업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또 올해는 수익창출을 위해

보리 이모작 대신 우리미를 파종, 10% 이상 추가수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김씨는 "쌀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비책은 '땅은 결코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 하지 않으며 땅 흘린만큼 보답한다'는 신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한다.

또 끊임없는 도전과 소비자 지향의 신제품 개발, 낙관적 사고만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기능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볼 때 친환경, 기능성 쌀 개발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연배



1962년생

주소 전남 영광군 영광읍 덕호리 120 전화번호 061. 353. 9657 H.P 011. 604. 6630

미질 향상, 생력화로 개량화 이긴다

경영체명 덕호농장

주 품목 쌀

영농경력 12년

경영규모 5만평

조수입 2억5,000만원

특기사항 전남 농업인대상

소비자 입맛 사로잡는 고품질 쌀만이 살길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지 일을 거들면서 어깨너머로 농사를 배웠던 김연배씨는 현장지식을 직접 활용하기 위해 대학전학을 포기하고 간척지 쌀·보리농사에 뛰어들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600평의 논농사로는 도저히 대농의 꿈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빚을 얻어 트랙터와 이앙기를 구입, 간척지 임차농을 시작했다.

생산비를 낮추려고 벼 직파 재배법을 도입, 영광군 직파 시범단지로 지정 받은 김씨는 보리재배면적을 크게 늘려 나갔다. '94년 농업경영인후계자로 선정돼 지원 받은 농지구입 자금과 그동안 모아 둔 돈으로 5,000평의 논을 사들인 김씨는 3년 만인 '97년 쌀 전업농이 됐다.

5만평의 벼·보리 2기작 재배로 2002년 전남도 농업인 대상(식량작물 분야)을 수상한 김씨의 연간 조수입은 2억 5,000만원에 육박한다. 식량작물만으로 얻은 이러한 놀라운 소득은 대규모 농사이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고품질 농사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김씨는 밥맛을 좋게 하고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 상온통풍건조시설을 갖추고 물벼 상태로 저장했다가 쌀값 계절진폭을 고려하면서 출하한다. 저농약 품질인증을 받은 김씨의 '해말그미' 쌀은 영광농협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가공한 다음 수도권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판매한다.

자연바람으로 말린 이 쌀은 항상 17~18%의 수분을 간직해 밥맛이 좋고 차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힘이 다하는 날까지 쌀 · 보리농사만

김씨는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1 농가를 설득하여 15만평 규모의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했다. 벼씨 담그기에서부터 모낸 뒤 등숙기까지 5차례 이상 목초액을 뿌림과 동시에 저 인산칼리와 규산질 비료를 뿌려 쓰러짐 현상을 막고 밥맛을 좋게 한다.

'힘이 다하는 날까지 쌀 · 보리농사만을 고집하겠다'는 김씨는 보릿대와 벼짚을 잘라 논으로 돌려주고 겨울에 반드시 깊이갈이를 해 간직지 소금분 농도를 낮추고 땅심을 높인다.

친환경 쌀 단지 육성, 지역사회 활동에도 적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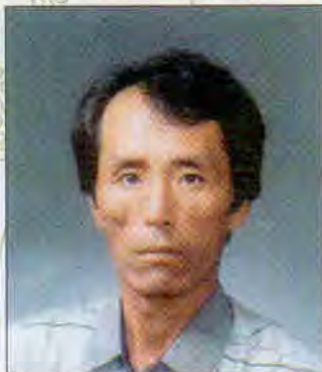
김씨는 농업경영인 영광군연합회 부회장과 감사, 영광농협 청년부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지역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고농기계가 곳곳에 버려지는 것을 안타까워한 김씨는 중고농기계를 수집하여 완벽하게 수리한 다음 설비만 받고 필요한 농가와 연계해주는 농기계 복덕방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김씨는 돈을 벌기보다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보다 오래 쓰게 하며, 고장 났을 경우 완벽한 수리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농기계대리점을 내기도 하였다. 김씨는 우리 쌀의 지킴이 역할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김용춘



1957년생



주소 전남 순천시 별량면 등송리 388-1 전화번호 061. 742. 8905 H.P 011. 621. 6784

품종 분산도입으로 농작업기간 늘려 소득증대

경영체명 별량농업회사법인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5년

경영규모 22만평

조수입 3억5,000만원

영농 규모확대로 경쟁력 확보

“쌀 시장이 개방되고 쌀값이 떨어질수록 영농규모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용춘씨는 WTO 출범이후 쌀 농사뿐만 아니라 농업전체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3년 간 계속된 흉년농사로 쌀값 및 농지가격의 하락이 지속된 지금에 와서도 규모만 확대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농업인이다.

도시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1,000평의 규모로 영농을 시작하여 현재 소유지는 9,000평에 지나지 않지만 일관 농작업 시스템을 갖추고 임차지 11만평과 농작업 수탁을 11만평하여 연간 조수입이 3억 5천만원에 달한다.

영농초기에 규모가 적어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그였기에 논이 많은 사람은 그에게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임차농지를 확보하고자 친구들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8,000평의 농지를 확보하여 경작해 본 결과 5백만원의 순수익을 올려 농업에 대한 희망과 장래성을 보았다.

근면하고 신뢰하면 언제든지 성공가능

김용춘씨는 돈을 벌면서 영농규모를 확대해 나갔지만 동송리 자체가 면적이 협소하여 규모를 확대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처음으로 이양기 보행으로 남의 농작업을 수탁받아 작업하기 시작하면서 밤낮 없이 농사일에 매달린 결과 트랙터와 콤바인을 구입하여 일관작업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빌랑면 지역을 두고 세 사람이 농작업 수탁을 하다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고 경쟁에서 이겨 임대와 수탁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내 논은 제쳐두고 남의 논부터 청작해 주고 또한 임차료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후하게 주어야 했다.

이렇게 하여 점차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부부의 힘으로 전체 농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조생종과 만생종 품종을 분산 도입하여 농작업기간을 늘리는 것이었다. 농기계들이 고가인데다 워낙 내용 년 수가 짧다 보니 기계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사용기간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농기계는 1년에 10일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10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년에는 22만평의 벼 수확을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강행군을 하여 60일 동안에 무사히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생산보다 중요한 것이 판매

김용춘씨는 3년 동안의 풍작으로 인해 쌀 생산량은 증가하는데 비해 소비량은 감소하여 판로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고심하던 끝에 전북 익산의 도매업자와 매년 1억원 정도의 쌀벼를 계약 재배 하기로 하고 2001년 2만4,000평의 논에 통일벼 재종의 쌀을 재배하였는데 참쌀 가격이 40kg 가마 당 6만원으로 쌀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판로의 부담을 줄이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또한 그는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금년에는 부산에 거주하는 전남 향우회를 통해 15만원에 500가마를 판매하였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미곡종합처리장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반시세 보다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이처럼 생산보다 판매가 중요시 됨에 따라 판로의 다양화 등에 대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김용필



1963년생

주소 충남 예산군 신양면 귀곡리 844 전화번호 041. 332. 8228

대안 찾는 노력속에 희망은 시작된다

경영체명

더불어살기 생명농업운동본부

주 품목 쌀

영농경력 8년

농업인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목회자

여름이 오면 들판 이곳저곳에서 오리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충남 예산군 신양면 귀곡리에 가면 농촌과 농업인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목회자를 만날 수 있다.

친환경농법을 전도하는 김용필 목사. '92년 이곳에 부임한 김목사는 2년뒤인 '94년 한 농가를 설득하여 1,200명의 눈에 오리농법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희망이 없는 농촌 현실을 보면서 대안이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환경을 살리면서 돈 되는 농사가 바로 오리농법이란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98년 김목사는 폐교를 임대받아 '예산 신양 귀농학교'를 세웠다. 이 귀농학교는 지난해 8월 '더불어살기 생명농업운동본부'로 개칭되었고 오리농법을 중심으로 인근농가들에 친환경농업을 전도하는 '베카'로 발전해 오고 있다.

올해엔 약 200농가가 오리 및 우렁이농법을 통한 무농약 재배를 실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화학비료 · 농약 안써도 수확량은 그대로

이 곳의 친환경농법은 무농약, 전환기 유기, 유기재배 등 3단계로 구분된다. 무농약은 농약은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화학비료를 기존의 30%만 사용하는 초기단계이다. 처음 참여하는 농가는 모두 무농약 재배부터 시작한다. 1년이상 무농약 재배를 실시한 농가는 전환기 유기농법으로 넘어간다. 농약은 물론 화학비료를 전혀 뿌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유기재배는 전환기 유기재배를 1년이상 한 농가만이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이 곳의 친환경농법은 유기질로 땅심을 높이고 미생물제제인 '자연농약'을 쓰는 것이 특징이다. 수확후 지푸라기 하나도 논에서 반출하지 않고 겨울에 그대로 로터리작업을 한다.

봄이 되면 발효퇴비를 내어 땅심을 복돋운다. 범씨소독제 역시 화학농약 대신 토착미생물을 채취한 뒤 쌀겨를 이용, 배양액을 만들어 사용한다.

제조작업은 오리들의 똥이므로 약제가 필요 없다. 농번기를 맞이하면서 이곳은 봉숭아 꽃밭으로 변한다. 은행잎과 봉숭아(꽃과 잎을 모두 사용) 즙을 섞어 병해충 예방을 위한 소독제로 연 3~4회 쓰고 있다.

올해 잉어농법 시범포 조성

기존농법과 비교시 수확량은 어떠한 질문에 김목사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무농약 재배 단계 수확량은 기존농법과 비슷하고, 전환기로 넘어가면 10% 정도 감소된다는 것. 또 유기재배 1~2년차는 전환기 대비 5% 쯤 감소되지만, 5년차부터는 농약재배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밝혔다. 김목사는 수확량 회복원인을 "땅기 살아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평 기준 40kg 벼 12포대 안팎의 수확량을 올리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판매가격은 공동브랜드인 '의좋은 형제 쌀' 10kg 기준 유기재배가 3만7,000원이므로 40kg 포대당 일반재배 보다 2~3만원 높다고 김목사는 밝혔다. 김목사는 "앞으로는 틈새농업과 볼거리 농업만이 살길"이라고 말했다.

오리와 우렁이를 이용한 농법도 이중한가지라는 것이 그의 말이다. "쌀겨를 이용한 농법도 연구중입니다. 쌀겨엔 인산성분이 많아 풀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잉어농법 시범포도 올해 조성할 계획입니다.

잉어농법은 참깨와 미꾸라지 농법보다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큼니다" 농사후 오리는 판매가 여의치 않지만, 잉어는 또 다른 소득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김목사의 설명이다.





김원준



1962년생



주소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670 전화번호 041. 956. 6579

좋아서 선택한 농사, 후회 없이 지켜갈 겁니다

주 품목 쌀

영농경력 18년

경영규모 4만평

조수입 1억8,000만원

농촌이 좋아 농촌에 남아

“그냥 농촌이 좋아 농촌에 남았고 농사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고향 충남 서천을 지키며 18년째 쌀농사를 짓고 있는 김원준씨는 형님들이 모두 도회지로 나간 뒤 한사람이라도 남아 고향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농촌에 남게됐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연한 생각으로 대학에 입학, 영문학을 공부했던 김씨는 군제대 후 복학을 하고 보니 취업과 직업 선택 등 현실적 벽에 부딪치게 됐고 농사를 지으며 농촌에 머물기로 마음먹었다.

처음 시작 후 7~8년 정도는 부모님 밑에서 농사일을 거드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점차적으로 독립적인 영농을 시작하였다.

농지 규모도 늘어나가 현재는 자신의 논 2만여평과 농지 임차 2만여평 등 4만여평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대규모 농사꾼으로 변신했다.

지력(地力) 관리로 땅심 키워

“농사규모가 늘어나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가을일 끝내고 비료·농약 대금, 농기계 구입자금 등 영농자금을 정리하고 나면 실망이 클 때가 많습니다.” 처음 농사일을 시작할 때는 벼 농사와 함께 시설채소 등을 경작하는 꿈을 키웠었지만 지금은 벼농사 한가지만으로도 빠듯하기만 하다는 김씨는 생산력과 품질향상이 경쟁력이라는 신념으로 이를 실천하고 있다.

김씨는 가을걷이 후 벼짚을 태우지 않고 이를 모두 로터리를 치면서 벼짚을 비료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흙과 뒤섞인 짚은 봄이 돌아오면 흙과 단단히 맞물려 양질의 비료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4년전부터 농지에 시도된 이 같은 지력관리가 지난해부터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전보다 비료가 훨씬 적게 들어가고도 농토의 질이 살아났으며 이에 따라 비료값도 절감됐다.

특히 각종 병해충에 강해지면서 농약 살포 회수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지난해의 경우 단 2번의 농약 살포로 1년의 벼농사를 끝마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안전한 쌀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했다는 사실이 가장 기쁩니다. 토질관리에 신경 쓰기 전보다 수확량도 크게 늘어 주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땐 마음 뿌듯했죠.”

무공해 농법 실현이 앞으로의 '꿈'

김씨는 앞으로 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 양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무공해 농법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중인 유기농법 교육에 열심히 참여해 왔다.

또한 평소 인터넷과 신문, 서적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등 신기술 농업교육에 귀 기울이고 있다. “솔직히 요즘에는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 불안하기도 하지만 소비자 분들이 원하는 요구에 부합한다면 농업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씨는 땅이라는 것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노력 한만큼을 돌려준다는 신념을 토대로 앞으로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이다.

“농사는 뛰니뛰니해도 부지런히 논에 찾아 가보고 관심을 갖는 것이 최선”이라는 김씨는 노하우를 묻는 질문에 열심히 하면 절로 습득하게 된다고 말한다.



米

김응주



1961년생

주소 충북 보은군 보은읍 강산리 24 전화번호 043, 543, 1339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쌀 전업농

경영체명 한주농원

E-mail

kej-49@hanmail.net

주 품목 쌀

영농경력 17년

경영규모 논10ha, 양돈50두

순수익 7,500만원

역경을 딛고 일어난 귀농

김응주씨는 청주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나 회사 생활도 여의치 않고, 젊은 사람이 젊은 지식을 가지고 농사를 시작하겠다는 일념으로 아버지의 농사일을 물려받았다.

고향에 돌아와 쌀농사를 지으면서 1년 내내 물 때문에 싸우는 이웃간의 갈등을 보면서, 그것이 가뭄 때문만이 아니라 거의 해마다 일상적으로 되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벼의 생리적 특성상 물은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공급만 해 준다면 수확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씨는 저수지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3만평이나 되는 논을 훌륭하게 농사를 지어 동네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또한 병충해 발생을 줄여 내병성 작물로 재배함은 물론 농

약과 비료 사용을 대폭 감소시키는 등 저 농약 농산물 및 시비개선에도 기여해 노동력과 경영비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선진 영농기술 도입 및 농업정보의 주민 보급

새로운 농업정보와 농산물 가격, 농업교재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선진 원 스톱 농업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가 선정하는 새농민상을 수상했다.

그는 판매처를 개척하고 작목반별 출하시기를 조절해 농산물 수취가격을 제고시키고 수송비 절감을 위한 출하량을 조절하는 등 경비를 크게 절감하고 있다. 또한 전담, 벚섯 재배사, 축사, 비닐 하우스 등 농업시설과 트랙터, 콤팩트, 건조기 등 각종 농기계를 갖추고 선진 과학 영농을 실천하였다.

김씨는 정보화 농업에도 관심을 가져 PC통신을 이용해 농산물 시세, 작목 재배기술 등 선진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농업정보를 입수, 주민교육을 위한 자료로 수집해 마을회관에 게시, 마을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농촌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벼섯과 양돈을 통한 농한기 극복

"마을의 80가구 중 80%에 해당하는 농가의 연간수입이 천 만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원인을 농한기로 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농한기에 벚섯재배(150평)를 경영하고, 양돈도 600마리를 키우고 있다. 김씨는 농촌의 노동력이 농번기에 편중돼 있는 점을 감안하여 농한기를 없애기 위해 마을의 9농가와 함께 느타리벼섯 작목반을 만들어 농한기의 노동력을 활용한 느타리벼섯 재배로 큰 소득을 올렸다.

그는 성공비결로 생산과정에서는 요소 등 비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소비과정에서는 직거래를 통한 제값 받기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그는 농업의 현실을 농업인 스스로 파악하는 능력 배양을 강조하고 농업인이 서로간의 이해를 도모해 갈 때 진정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米

김인산



1959년생

주소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550-2 전화번호 031, 833, 8234

남보다 10년 앞선 생각으로

경영체명 청갈매농장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1년

경영규모 5만평

순수익 7,000만원

농촌이 나를 불렀다

김인산씨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82년에 예비군 훈련차 고향에 왔다가 부모님께서 어렵고 힘들게 농사짓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을 대신해서 논 900평과 소 2두로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생계유지가 힘들어 부수입으로 농기계 정비 기능사보조 자격증을 취득하고 농기계를 구입하여 주변 농가의 농사일을 농기계로 대신해주며 김씨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83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 교육을 1년 동안 3개월 정도 받고 당시 4H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하면서 영농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

'84년에 그는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되어, 후계자자금을 지원 받아 그 해에 소 7마리를 입식하고 이웃의 논 5,000평을 입차하여 농사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위기가 곧 기회이다



'87년에는 논 1,200평을 구입하고 임차로 1만 평의 논을 경작하면서 규모화 농사가 서서히 시작됐다. '90년에는 농지구입자금을 지원 받아 1만 5,000평의 논을 구입하여 해마다 쌀농사를 확대하여 현재는 본인 소유의 논 3만 평과 임차 2만 평을 경작하는 대규모 농사꾼이 되었다.

특히 '95년경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여파로 쌀값이 하락했을 때 규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여 1만 평 정도의 논을 추가로 구입하였다.

결국 정부의 쌀산업 안정정책에 힘입어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러던 차에 '96년 수해를 당해 3만 평의 논이 매몰되어 7,000만원의 손해를 입고 말았다.

이 때에 복합영농의 필요성을 느껴 '97년부터는 채소 시설재배를 함께 시작하게 되었고, 2,000평으로 시작한 이후 현재 3,000평의 시설에서 여름에는 오이, 겨울에는 상추를 위주로 재배하고 있다. 축산에서 나온 퇴비를 직접 미생물로 발효시켜 퇴비를 만들어 시비하고 키토산을 구입하여 1년에 4~5회 엽면시비하여 품질 좋은 채소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성장하던 사업은 '99년 다시 한 번 수해를 당해 3만 평의 논이 매몰되고 2,000평의 시설 하우스도 물에 잠기면서 1억원의 손해를 보았고, 모든 농기계와 장비가 고장나게 되어 최대의 영농 위기를 맞아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농사를 저버릴 수 없고, 또 부인을 비롯한 가족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어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고 한다.

새로운 시도를 하라

2002년에는 '99년부터 소규모로 하던 정미소를 정부보조 1,000만원과 한우를 팔아서 총 1억원을 들여 정미소를 새로 지어 생산과 함께 도정 및 판매를 직접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정부의 수매 물량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안정된 가격에 판매를 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직접 브랜드화한 '청갈매쌀'은 밥맛이 우수하고 임진강 상류와 휴전선에 인접하고 있어 깨끗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청정친환경 농업지대에서 생산된 품질 좋고 믿을 수 있는 고품질 쌀로 인정받고 있다.

김씨는 정부의 농정시책이 너무 단기적이고 실패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 면제 및 지원,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학시 특별전형 확대, 농업인 주거단지 조성 및 보급 등 농업인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米
7
김 일 도



1944년생

주소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455 전화번호 063. 471. 4154

서해바다에서 울려 퍼지는 고품질 브랜드 쌀

경영체명 일도농장

E-mail

kim41542003@hanmail.net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0년

경영규모 4만5,000평

순수익 7,000만원

바다와 논이 만나는 곳

김일도씨는 중동건설이 한창이던 '70년대말과 '80년대초 이라크, 리비아 건설현장을 누비며 외화를 벌어들여 지난 '83년에 1만5,000평의 쌀농사를 시작으로 농업에 종사했다.

군산시 옥서면 일대는 바닷가 평야지역으로 바람이 강해 쌀농사 이외의 시설작물은 맞지 않았다. 또한 김씨의 경우 5년전에 염전자리를 개간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논을 조금만 깊이 파도 바다 물이 유입돼 타 작물재배가 어려웠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김씨는 중동 사막의 나라에서 힘들게 일했던 생각을 항상 가슴에 품고 집념을 가지고 쌀농사에 심혈을 기울였다.

복합영농으로 연중재배

농사는 노력한 것을 받은 만큼 돌려주기에 시작했다는 김씨는 '83년 쌀농사 1만 5,000평으로 농사를 시작해 20년이

지난 현재 논농사 4만 5,000평, 보리 1만 5,000평 등을 경작하고 있으며 3월에서 4월까지의 밭작물을 재배하고 4월부터 11월까지의 쌀농사로 연간 7,0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다.

경영비를 최소로 지출하여 어려움을 극복했으며 농사만 생각하고 재투자한 결과가 현재 규모의 영농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농촌 고령화로 인해 유휴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6,000평 규모의 임대영농을 추가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보유 농기계는 승용 이앙기 1대, 트랙터 2대, 콤바인 2대, 건조기 2대 등 10여종에 이르며 타인은 기계작업면적도 연간 2만평에 이른다.

사랑과 진실로 벼를 돌보다

농사를 모르던 그가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을 많이 받았으며 도 농업기술원 교육 등 영농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다. 현재도 연중 3~4회 이상은 바쁘더라도 교육에 참가하고 이지역 감자작목반(10여농가), 수도작목반(45호)원들과 함께 선진농가를 견학한다.

김씨는 성공비결의 하나로 농사도 인간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해

야 한다며 시간이 허락하는 한 자주 논과 밭을 돌아본다.

이러한 결과로 이 지역 특산물인 '서해노을' 브랜드 쌀을 개발해 도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시 동대문 부녀회에서 견학을 오는 등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이 찾아온다. '서해노을' 쌀은 소비자들의 구매가 높아 현재 물량이 부족한 상태이다.

어려운 현실의 농가들에게 처음부터 잘사는 사람 없다고 강조한 김씨는 12년째 지역농협 대의원을 맡고 있으며 농촌지도사회 감사, 이곳 선연리 이장으로 지난 2002년 새농민상을 받았다.

친환경 농산물이 살길

김씨는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영농을 계획하고 있다. 수입개방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외국산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품종개발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유의 브랜드쌀 개발도 중요하지만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면 생산자가 살길 없기에 개방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토양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김일용



1954년생

주소 강원 고성군 광산리 242-2 전화번호 033, 681, 3550

쌀 전업농으로 승부를 걸다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6년

경영규모 2만5,000평

순수의 3,000만원

청정지역에서의 고품질 쌀 생산

'87년 전업농이 되어 처음 농업을 시작할 때, 김일용씨는 농사는 때가 되면 씨를 뿌리고 다 자라면 수확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막상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농사라는 것을 시작해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러나 '95년 소값 파동으로 인하여 축산을 포기하고 다시 전업농으로 돌아와 논농사에 대해 배우고 익히며 지금의 성공을 만들어냈다.

처음 영농을 하던 때에는 강원도 특유의 추운 날씨로 인한 냉해와 산악지형으로 인한 수해를 많이 겪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생종을 심어 냉해에 대비하였으며 영양제를 투여하여 수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였다.



지력 회복으로 고품질쌀 생산

김씨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우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생종 품종을 선택하였다. 또한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기 위하여 농약의 살포 시기와 방법을 조절하여 방제하였다. 무엇보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지력을 높이는 일이었다.

지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를 생산해 논에 살포하였으며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 호박을 심어 논농사로 인해 떨어진 지력을 회복시켰다.

이렇게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다 보니 쌀 품평회에서 극찬을 받게 되었고 이에 자신감을 얻은 김씨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포장 단위로 샘플을 만들어 서울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홍보에 주력한 결과 큰 호응을 얻게 되었고, 앞으로는 소포장 단위로 포장을 하여 전화주문 판매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판매를 계획 중에 있다.

비용절감이 곧 소득증대로

동네 이장을 받고 있으면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다가 처음에 2모작을 하여 소득을 증대시키려고 하였다. 그래서 찰보리를 심었으나 2모작을 하기에는 지력이 떨어지고 또한 찰보리로 인해 벼까지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후에 원인을 파악해보니 원래의 지력과 퇴비의 시비량을 잘못 계산하여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비용의 절감이었다.

농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공동구매의 형식을 취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보았다. 또한 전화나 온라인으로 쌀을 판매할 때 포장지가 없어 포장 할 때마다 저울로 무게를 측정하고 박스로 포장을 하는 번거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고성군에 의뢰하여 규격화된 포장지를 제작하였다.

또한 포장지에는 쌀을 생산한 농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책임영농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추후 재 구매하기가 쉽도록 제작하였다.

이렇듯 고품질의 쌀 생산과 비용절감을 통하여 지금은 보다 좋은 조건에서 영농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김재갑



1957년생

주소 충남 진천군 진천읍 산척리 262 H.P 011. 492. 3766

철저한 관리를 통한 과학영농

주 품목 쌀

영농경력 19년

경영규모 2만2,000평

자신에게 맞는 나만의 경영

'83년 청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김재갑씨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형제를 부양하기 위해 진천으로 내려와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10,000평으로 시작한 논농사로 얻은 소득으로 꾸준히 저축하여 농지를 조금씩 구입하여 현재는 22,000평으로 늘어났다.

“쌀농사에 관해서는 이천 사람 누구와도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그 만큼 자신이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을 통한 단기간의 효과보다는 꾸준한 노력을 통한 자기만의 경영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김씨는 실제로 특별한 기술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쌀농사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농약, 비료 등의 자재기술도 말할 것 없지요. 중요한 것은 경영자가 얼마나 꾸준한 관심을 갖고 관찰하느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물 병해의 이전 상태를 파악해서 미리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밥맛이 좋아지는 연구기술은 보급이 다 되었다고 말하는 김씨는 정미시설의 개선을 통한 완전미, 저온저장 시설 등의 다양한 기술 등은 보급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자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그것을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김재갑씨는 이러한 꾸준한 관찰을 작물과의 대화라고 표현한다. 해마다 농사 환경이 똑같을 수가 없고 농작물마다 각각의 진단을 통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자신만의 영농, 자신에게 맞는 농사 기법을 발견하여 이를 토대로 영농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기술교육을 통한 쌀 전업농의 자부심



김재갑씨는 '94년 충북대학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2기를 수료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체계적인 과학영농의 틀을 다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농업경영자들과 다양한 기술교류와 정보를 교환한 것이 자신의 경영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한다.

“부부 농업인으로 그많은 논을 농사를 지으려면 많은 농기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건조기, 호이스트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큰 어려움 없이 농사를 짓는다는 그의 말에 전문농업인의 노련함이 엿보인다.

2000년부터 사단법인 충청북도 전업농단체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갑씨는 전업농 입장에서 의견과 요구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전업농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은 우리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도시 소비자 또한 우리 쌀을 아끼고 지켜가는 마음이 같이 할 때 우리 쌀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김종구



1965년생

주소 전남 구례군 광의면 연파리 496 전화번호 061. 781. 3592 H.P 018. 627. 5356

수도작 외길로 고소득 올려

경영체명 푸른농원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4년

경영규모 논 2만1,000평,

밭 1만8,000평

순수익 7,000만원

농업이 천직인 수도작 외길 인생

쌀 전업농 구례군 회장 김종구씨는 군 제대 후 논 1,200평, 밭 460평으로 영농에 발을 들여놓은 지 벌써 24년이 되는 농업인이다.

“쌀농사로 돈만 벌면 농지를 구입했고 최근까지도 평당 5만원에 구입했다”는 그는 오로지 농업만이 천직이며 땅은 땅을 흘린 만큼 보상해준다는 생각을 하며 밤낮으로 수도작 외길 인생을 걸어왔다.

지금은 해마다 농지규모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금년에는 쌀 2만 1,000평을 경작하여 순수익 약 7,000만원을 올렸다. 2만 1,000평 전부가 본인 소유는 아니며 이 가운데 1만 평은 임차지다.

2만 1,000평의 쌀농사 외에 보리와 밀을 1만 8,000평 경작하고 있으며 그 밖에 남은 시간으로 남의 농작업을 위탁하고 있다.

영농일지를 기록하여 실패를 저울삼아야

그는 8년 전부터 영농일지를 기록하고 있다. “처음에 영농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규모가 적었고 너무 먹고살기 힘들었기에 다른 것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영농일지를 쓰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그에게 있어서 영농일지는 매우 중요한 하루의 일과가 되었다. 못자리 할 때부터 수확, 판매에 이르는 순간까지 모든 것들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여 둔 영농일지를 저울삼아 새해 영농계획을 세우고 실패한 것들에 대한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농사를 지은 지 벌써 24년이 되었지만 농사는 갈수록 더 어렵고, 새로운 느낌이 든다. 농업이 어려울 때 나에게 있어서 영농일지는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해 준다.” 김씨는 영농일지를 기록하다보니 농업용 자가가격도 구레보다는 남원이 약 10% 정도 싼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남원에서 구입함으로써 생산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고객관리로 어려움을 극복

김종구씨는 영농초기에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7회 정도 살포하였다. 그러나 최근 쌀의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오히려 하락함에 따라 친환경 농업에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된 교육이 있으면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마다하고 참여하였다.

그래서 배우고 익힌 지식으로 3년 전부터는 농약은 2회로 대폭 줄였으며, 비료는 친환경 비료인 쌀맛나 비료를 살포하고 있다. 또한 쌀겨를 뿌려서 잡초를 억제하고 있으며, 지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리와 밀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인 보리짚, 밀짚 등을 넣어주고 있다.

작년 그는 쌀 80kg 350가마와 보리와 밀을 600가마 생산하여 정부수매 및 미곡종합처리장에 70%, 직거래로 30%를 판매하였다.

판매가격은 80kg 한 가마에 16만~16만5,000원(택배료는 소비자들이 부담)을 받았는데 일반 시장에 판매하는 가격보다는 약간 높은 가격이었다.

다소나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 품질인증을 받지 못했지만 3년 동안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미질이 향상되었으며, 그 동안의 노력의 결과로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었기 때문이었다.

김종구씨는 앞으로 쌀의 안정적 판매를 위해 기존 소비자들과 평상시 교류를 통해 직거래의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米
7
김종기



1949년생

주소 경북 칠곡면 기산면 영리 209-10 전화번호 054. 971. 5393 H.P 011. 531. 5393

쌀 농사 경쟁력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한다

경영체명 금종농장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0년

경영규모 10만평

조수입 2~3억원

특기사항 경북농정 대상

전문화·규모화부터 시작하자

경북 칠곡 김종기씨의 '금종쌀'은 전국 어느 브랜드쌀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일등명품이다. 금종쌀은 무농약쌀·우렁이쌀로 구분되고 있으며 농협 판매가격은 25만원(80kg 기준)으로 일반 쌀의 1.5배 수준이다.

현재 부인 장점희씨와 아들 셋 등 가족노동만으로 총 10만여평의 논농사를 짓고 있다. 여기에서 생산하는 쌀만 1,500가마(80kg 기준)로 연간 조수입은 3억원에 육박한다.

지금의 명성을 얻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처음 벼농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90년으로 묵은 땅을 보면서부터다. 쌀농사를 천직으로 삼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한 우물만 파기로 결심하고 차츰 벼농사 면적을 늘려 현재 10만여평을 넘어섰다.

이렇다보니 4월 하순~7월 초순까지는 제대로 잡도 못 잔다. 이때부터는 2,000상자의 육묘 상자에 4일 간격으로 12회 나눠 파종한 다음 모내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품질 쌀 생산으로 수입에 대응

김씨가 재배하고 있는 품종은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일품벼 종자를 스스로 개량한 것이다. 개량실력은 수원 및 영남시험장 벼 육종 재배분야 명예연구원으로 위촉될 만큼 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5~6년 전부터 친환경농업에 눈을 돌렸다. 수입농산물에 대응하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농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 일환으로 가을에 논에다 보리·호밀을 심어 이듬해 5월 하순경에 수확하지 않고 갈아엎어 거름으로 활용한다. 잘진 쌀을 생산하기 위해 매년 일정 면적씩 황토로 객토를 하고 있다. 객토는 토양개량과 영양분 공급의 2중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토양에 영양분이 충분하다보니 웬만한 병치레는 없어 방제를 할 필요가 없다. 벼를 심기 전에 제초제만 1번 정도 살포해 완전 무농약쌀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제초제 사용도 자제하기 위해 1만5,000평은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다. 우렁이가 논에 잡초를 먹여치우기 때문이다. 환경농법은 일반재배보다 10% 이상 생산량이 떨어지지만 비료값을 줄일 수 있어 생산비가 절감된다. 3~4년 정도 정착단계를 거치면 소득 상승을 꾀할 수 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새로운 투자는 계속된다

그는 요즘 또 다른 싸움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일반 정미소에서 도정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차별화된 쌀을 공급하기 위해 3억원을 투자 도정시설을 짓고 있다. 현재 80~90% 공정을 마쳤다. 이번 도정시설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색채선별기와 연미기(세척기)로 최고급 쌀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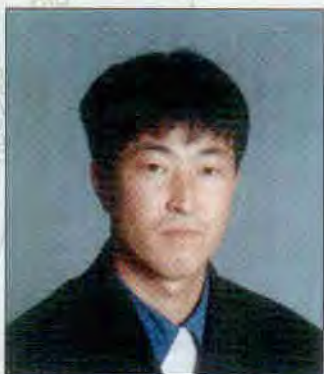
또 쌀 고급화를 좌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한다. 그 하나가 저온저장으로 현재 저온창고 규모는 10평 정도여서 생산량의 10% 밖에 보관할 수 없지만 앞으로 50평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김종기씨는 “농사는 정도가 없고 열심히 몸으로 부딪쳐야 한다.

해마다 토질, 환경, 병해충 등 주변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눈여겨보고 관찰해야 한다”며 “특히 맛있는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재투자하는 것은 사업확장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米

김종화



1969년생

주소 충북 괴산군 사리면 중흥리 574 전화번호 043, 836, 7271

4H 활동이 평생직업으로

경영체명 푸른들작목반

주 품목 쌀

영능경력 12년

경영규모 2만5,000평

순수익 6,000만원

특기사항

농촌청소년 대상,

농림부장관상

4H 활동의 시작

김종화씨는 고등학교시절부터 4H 활동을 시작하였다. 물론 집안에서 대대로 농업에 종사하여 어린시절부터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92년부터 벼농사에 전념하였다. 초기에는 6,000평 규모(논 5,000평, 밭 1,000평)로 시작하였다. 현재의 2만5,000평 규모로 성장하는 동안 대규모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 농기계 구입, 농지 구입에 따른 급진적인 압박을 받기도 했지만 기계화,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현재는 쌀 전업농으로 일반농법과 친환경농업을 동시에 해 나가면서 스스로 벼농사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 가고 있다.

벼베기를 마친 우량 농지가 그대로 방치되는 등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겨울철 작목인 보리를 심어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다.

쌀전업농과 오리농법

김씨는 현재 2만 5,000평 중에 3,000평을 오리농법을 통해 쌀농사를 짓고 있다. 또한 약 1만평 규모의 찰벼단지를 조성하여 질 좋은 찰벼를 생산하고 있다.

쌀전업농으로서 기회를 통해 대량생산을 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틈틈이 시간을 투자하여 오리농법을 통해 일반농법과 다른 방법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리농법을 하게 된 동기는 괴산군에서 시범단지조성에 따른 지원이 주된 요인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생산량 못지않게 고품질 쌀 재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인터넷과 교육책자, 인근주변의 친환경농법 교육시설인 휴살림 등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현재 3년째 오리농법을 시행해 오고 있다.

오리농법의 문제중의 하나는 오리의 판로라고 한다.

지속적인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주변의 식당에 아주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아직은 주목적이 질 좋고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고품질의 쌀생산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만, 김씨는 향후 이런 점까지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또한 농업인들이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유통체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쌀농사도 경쟁력이 있다

김씨는 올해 적정규모의 쌀생산을 위해 약 3만 평 규모의 벼농사를 재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오리농법에 대해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저농약농산물로 인증을 신청할 예정이다.

작목반원 중에서도 가장 젊은 30대에 작목반 일을 도맡아 푸른들 작목반을 꾸려나가고 있으면서 작목반원들에게 값싸고 품질 좋은

농산물의 생산만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농산물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푸른들 작목반원들과 함께 새로운 영농기술습득을 위해 교육과 토론을 통해 보다 나은 영농기술 습득에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영농기술교육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 어떤 먼 곳이라도 한걸음에 달려가는 열성과 패기를 가지고 열심히 영농에 힘을 쏟고 있다.



米

김주홍



1956년생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전화번호 031. 773. 4885

친환경 농산물 생산만이 살길

경영체명 원삼산목장

주 품목 쌀, 한우

영농경력 26년

경영규모

논 1만2,000평, 한우15두

순수익 4,500만원

새로운 기술도입을 통한 소득증대

김주홍씨는 영농 경력 26년의 베테랑 농업인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남다르다. 특히 벼농사를 중심으로 신기술 습득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1만 2,000평의 논에 벼농사를 지으며, 한우 15두를 함께 키우고 있는 김주홍씨는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하여 각종 컨설팅이나 세미나는 물론 한우개량 사업소나 축산기술 연구소, 농협중앙회 영농기술 심포지엄 등에 자주 참석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중 자연스럽게 무농약 농산물 생산에 대한 남다른 매력을 느끼게 됐다. 향후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건강에 이로운 제품 생산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의 도움을 받아 도입한 것이 오리농법에 의한 무농약 쌀 재배다. 2,400평을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비교적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점차 면적을 늘림과 동시에 이웃 농가에도 권장해 나갈 생각이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기계화·전산화

깨끗한 물과 공기 등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김씨는 환경친화적인 축산이 정착될 경우 농가소득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씨는 '94년부터 한우작목반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육성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기계화, 전산화를 통해 고급육 생산에 주력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작목반 반원들은 향후 자체브랜드를 만들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거세육성 비육 등 기본에 입각한 영농축산을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우사 120평을 더 확보해 한우 사육 두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씨는 “계속해서 친환경 농법을 지키면서 농업의 중요성을 깨우쳐 지금보다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계화=인력난해소, 무농약=경쟁력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유기농업에 의한 유기농산물 생산이라고 김주홍씨는 믿고 있다. 수입농산물은 선박에 의한 수송기간이 길어 수확 후 농약살포라는 큰 약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 수입농산물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촌은 계속된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계화를 통해 인력부족을 보충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무농약·무항생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길만이 우리농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김씨는 지적했다.



米

김진무



1950년생

주소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95-3 전화번호 033. 662. 5211

820명 먹거리를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보람

경영체명 무진농장

홈페이지

www.mujiinfarm.com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5년

경영규모 논 3만8,000평

밭 1만5,000평 한우 15두

순수익 8,000만원

쌀도 품질로 승부하는 시대

김진무씨는 4만평 논에서 연간 쌀 800가마(80kg들이), 밭 1만 5,000평에서 각종 작물을 생산하여 820여명의 먹거리를 해결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아간다.

지난해 2억 3,000만원의 소득을 올려 순이익만 8,000만원을 벌었다. 10대째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씨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배고픔을 극복해야했다.

35년전 논 600평으로 시작하여 근검절약하며 조금씩 농지를 늘려가다 93년 정부의 규모화 정책에 힘입어 1억 2,000만원을 장기 저리로 융자받아 6,000평의 농지를 구입했다.

지금도 생각하면 이때처럼 부자가 된 기분을 느낀 적이 없다고 한다. 구입한 농지를 하루에 몇 번씩 돌아보며 가슴이 벅찼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1년에 논 150평을 사기 위해 허기를 달래며 가을걷이를 했었다.



이때부터 콤바인 2대와 트랙터 2대를 구입하여 본격적인 기계화영농에 나섰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연곡위탁영농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주변의 20만평 논농사를 대신했다.

또한 금년부터는 효과적인 육묘를 위해 200평의 프리그 육묘장을 설치하여 15만 2,000평에 양질의 육묘를 공급하게된다. 하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다.

강릉쌀 연구회 설립으로 품질개선 앞장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국민들의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쌀 소비량이 줄어들어 정부는 감산정책을 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보람도 줄어든 것이다.

쌀농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증산보다는 품질개선을 통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차별화된 가격으로 경쟁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김씨의 요즘은 또 다시 바빠지고 있다.

그래도 김씨가 희망을 갖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배고프던 시절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2000년, 지역의 전업농을 중심으로 '강릉 쌀

연구회'를 설립하고 회장을 맡아 품질 향상과 브랜드화를 통한 효과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한 지역에서 많은 품종의 쌀을 생산하면 도정과 유통과정에서 혼합되면서 품질이 하향평준화 되기 때문에 우선 품종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도 가업은 이어간다

그래서 지난해 쌀 연구회는 수라벼를 중심으로 3~4개 품종으로 제한하여 생산하기로 결정하고 금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생산과정에서도 품질향상을 위해 게르마늄비료와 각종 유기물 비료를 사용하고 있다. 농협식품연구소와 제일분석센터에 미질연구를 의뢰한 결과 예전보다는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배고픔만 극복하면 농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김씨는 생산 과잉이라는 문제에 직면하면서 농사는 끝없는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이라는 평범한 진실을 깨달았다.

농고를 졸업한 23살된 아들이 농사를 꺼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작은 소망이다.



1955년생

주소 강원도 철원군 길말읍 상사리 528-1 전화번호 033, 452, 2941 H.P 017, 288, 2941

경영마인드를 갖춘 경쟁력 있는 농업인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5년

경영규모 2만5,000평

순수익 6,800만원

농업인도 판매 능력을 길러야

농촌 출신인 김찬호씨는 학교 다닐 때부터 4H 활동 등의 사회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그리고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되기 전인 청소년기부터 농사로 성공하겠다는 꿈을 키워왔다.

지금은 쌀 전업농이지만 논농사만으로는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없어 다른 작물을 재배한 경험도 풍부하다.

쌀농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느타리버섯이나 수박 등의 농사를 지었고 사슴이나 개, 염소 등 가축을 기르기도 했다.

또 이런 가축을 길러 직접 사슴 중탕 등의 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다. 벼 이외에 다른 농사를 지으면서 김씨가 느꼈던 것은 과거처럼 생산만 해서 경쟁력 있는 농가 경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가공품을 직접 고객과 대면해 판매하면서 가격이나 유통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자신이 생산한 것에 책임을 지자는 생각에 자신의 연락처와 얼굴을 포장재에 붙여 판매하고 있다. 김씨는 “지금 농업인들에게는 판매 능력이 생산 능력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밥맛 좋은 쌀 생산

과거 가공품을 판매했던 이러한 경험과 이들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2만 5,000평에서 생산하는 쌀의 50% 정도를 직거래로 판매한다. 때문에 다른 쌀 생산 농업인들보다는 같은 생산량에서 더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씨가 도시민들과 직거래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는 25년이 넘는 농사 경험에서 나온 기술력에 있다. 본인이 오래도록 쌀 농사를 지으면서 터득한 밥맛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 이상적인 영농계획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적기 이앙과 수확, 중간 물대기 등의 농사 관리를 제대로 해 수확기까지 벼가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씨는 “매년 농사에 모심기와 수확 등의 계획을 세우면 오차가 일주일도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 건조과정이야말로 밥맛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생각에 건조기는 직접 운영하고 있다. 수확한 벼는 윗대 어른들에게서 배운 건조 노하우를 이용, 최상의 밥맛을 내도록 하고 있다.

효율적인 농기계 운영으로 경제적인 효과 얻어

그의 농업 소득을 향상시켜주는 또 다른 비결은 바로 효율적인 농가 경영이다. 같은 규모의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라면 트랙터나 콤팩트 등 값비싼 농기계를 모두 갖추기 위해 빚을 내는 것이 현재 우리 농가의 대체적인 경향이다. 김씨의 경우 이웃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빌려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농기계를 빌려쓰는 대신 자신이 보유한 농기계로 다른 일을 해줘 부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김씨는 “많은 농업인들이 쌀 개방 등의 문제로 시름에 잠겨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을 감안한 농업 경영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농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의 성공 비결은 오랜 경험과 효율적인 경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것이다.



김철래



1953년생

주소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13-38 전화번호 054. 861. 1493 H.P 011. 9576. 3482

쌀사랑으로 이어진 귀농 12년

주 품목 쌀

영농경력 12년

경영규모 논 3만평

순수의 3,000만원

태풍에 휩쓸려간 첫해 수확물

의성군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던 김철래씨는 12년 전 안계면으로 귀농했다.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논지 3만평을 매입한 김씨는 부른 꿈을 안고 본격적으로 영농인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김씨가 농사를 시작할 때는 농촌이 점차 기계화되어갈 무렵이었다.

당시 김씨는 정부 지원금으로 각종 농기계 장비를 구입해 부족한 인력에 대비하는 등 농사꾼으로서의 준비를 마쳐 놓았다. 경북 의성군 안계면은 '안계미'로 유명한 지역이다.

특히 지난해 안계농협은 '안계녹색청결미'의 서울 진입 성공에 힘입어 쌀 판매액이 100억원에 이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김씨도 미질이 좋은 일품벼 종자를 받아 본격적으로 농사를 배워나가기 시작했지만 농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자주 접하지 않던 농기구가 손에 익지 않아 많이 고생했고 여름철에는 햇볕 내리쬐는 논에서 아무리 매도 끝도 없는 김매기에 열중하기도 했다.

하지만 힘들게 일하고 난 다음에 맛보는 점심만큼은 꿀맛 같았다는 김씨는 농사일을 시작하면서 진정한 노동의 참 맛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농사일 시작하면서 노동의 참 맛 알게 돼



그렇듯 김씨는 부푼 가슴으로 첫 수확을 맞았지만 초기 귀농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해 수확량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게다가 귀농한 후 2~3년이 지나자 강력한 태풍이 몰려와 그의 눈을 휩쓸고 가버렸다. 다행히 일부 논에서는 이미 벼 베기가 끝난 상태였지만 전체 수확량의 20%도 못 미치는 양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 농사

를 짓다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툭툭 털고 일어섰다. 덕분에 지난해 전국 곳곳에 큰 피해가 났어도 김씨의 논은 큰 탈없이 무사히 지나갔다.

김씨는 안계면뿐만 아니라 인근 쌀 전업 농가와의 원활한 정보 교류를 위해 쌀전업농협회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다행히 안계면은 우수한 전업농가들이 많이 살고 있어 김씨는 그들과 자주 접하며 새로운 영농소식이나 신기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는 또 지역 쌀의 고품질화와 판매 확대에 적극 나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기도 했다.

쌀전업농협회 가입해 풍성한 정보 수집



하지만 쌀 전업농가에게 겨울나기는 여간 고역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우스 재배는 소규모 단위나 인근 농가와의 협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곤란했다.

다른 부업거리도 이미 저렴한 임금으로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어 김씨와 같은 쌀 전업 농가를 위한 겨울철 농가 수익 사업이 시급하게 되었다.

어느새 귀농 12년을 맞은 김씨는 베테랑 농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은 능숙하게 익힌 농업기술보다 3남매를 나란히 대학에 보낸 것이라고 한다.



김학만



1951년생

주소 경기도 원삼면 두창리 2403 전화번호 031. 332. 8292 H.P 011. 9876. 5292

친환경오리쌀 '파란하늘 맑은 햇쌀'

경영체명 원삼친환경오리농법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0년

경영규모 논 6,000평

순수익 1,800만원

수입농산물이 점점 늘어나면서 과거와 같은 관습 농업만으로는 경쟁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농업인들 사이에 퍼져 나가고 있다.

무작정 국산농산물이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구입해 주기를 바라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소비자가 진정으로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을 생산해서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다가가야만 한다.

김학만씨는 주변의 4농가와 힘을 합쳐 친환경 농업으로 벼농사를 시작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쌀농사

'95년 처음 800평에 추청 품종으로 무농약 재배를 시작하였는데 농약대용으로 목초액을 10일 간격으로 엽면살포한 결과 살균효과는 있었으나 제초효과는 없어서 잡초를 일일이 제거해야만 되었다.

수확량은 일반재배보다 10%정도 감소하였으나 결실이 잘되고 밥맛이 향상되었다.

이듬해에는 잡초발생이 많았던 문제를 보완하여 오리농법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오리를 논에 키우게 되면 오리가 해충과 잡초를 먹고, 오리가 땅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잡초제거의 효과도 있었다.

또한 산소와 영양분 공급 등으로 일반재배와 같은 수준의 수확량 증대효과까지 있었다. 시험재배 성공으로 참여농가도 점점 늘어나게 되어 '98년에는 21농가 5만 4,000평으로 확대되어 작목반을 조직하게 되었는데, 2002년에는 192농가로 확대되었다.

또한 농협에서 일괄 수확하여 친환경오리쌀인 '파란하늘 맑은햇쌀'이란 브랜드로 출하했다. 포장단위도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10kg, 6kg, 2kg, 800g로 다양하게 시판했다.

오리농법에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데 수확 후 오리의 처리와 논에 발생하는 피 제거이다. 수확 후 60만 평에서 6만 마리의 오리가 일시에 출하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오리를 소비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방안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무농약으로 피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것 또한 시급하다.

원활한 상호교류를 통해 밝은 농촌을 만들자



김씨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목초액과 살균제 역할을 하는 현미식초, 영양제 역할인 천혜녹즙(숙, 미나리), 한방영양제(감초, 당귀, 계피), 소주 등을 연 7회 엽면시비하고 있다.

앞으로 더 나아가 현재의 무농약 재배에서 유기농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분종합관리 및 병해충종합관리 시스템 운영과 환경 친화형 비료의 사용을 확대하여 기능성 쌀 생산에 주력 할 계획이다. 농업인들이 우리 농업의 전망에 대해 매우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업이 정착되고 있듯이 연구기관이나 농협에서 개발되는 새로운 기술을 배맞춰 보급하고 농업인과 기관이 보다 긴밀한 상호협조를 통해 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힘쓴다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도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고 김학만씨는 말하고 있다.

김현동



1966년생

주소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신기리 204-2 전화번호 053. 611. 9732 H.P 017. 611. 9732

벼농사 위탁영농으로 연 3,500만원 순수익

주 품목 쌀

영농경력 17년

경영규모 2만평

순수익 3,500만원

농사가 좋아 고교졸업후 벼농사 시작

“외국의 선진 농가들처럼 하루빨리 기계화영농이 보편화 돼야 합니다.”

쌀 전업농인 김현동씨는 자신이 평소에 생각한 기계화영농을 확산시켜야겠다는 의지로 위탁영농사업에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3~4대 정도 구입해 시작했다. 그러다가 하나둘씩 농기계를 늘려 현재는 건조기 4대, 경운기 6대, 관리기 5대, 이앙기 2대, 콤바인 3대, 트랙터 1대 등 총 21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쌀 생산비가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계화영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고, 농기계를 늘리면서 위탁영농사업을 활성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현재 약 2만평 규모의 논농사이다 복합영농으로 보리(1만 2,000평)와 양파(5,000평)를 재배하고 있다. 위탁영농으로 주변의 농업인들을 돕고 있다. 이 같은 일을 통해 김씨는 순수익은 모두 연평균 3,500만원 정도에 이른다.

김씨가 생산한 양파는 전량 농협을 통해 계약 판매되고 있으며, 벼는 생산량의 80%를 현풍면 농업경영인회를 통해 역시 농협과 계약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 20%는 정부수매물량이다. 김씨는 기계화 영농을 통한 효율적인 생산과 빈틈없는 판매전략으로 주변으로부터 유능한 영농인이라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지난 '96년 쌀 전업농으로 선정됐다. "지난 90년대 중반 정부의 규모화정책 시기에 맞춰 농기계를 구입해 위탁영농을 하게 된 것이 스스로 얻은 소득은 물론 협동농업과 기계화 영농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씨는 바쁜 농사일이지만 시간을 쪼개 경북대학교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하고 있을 정도로 배움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다. 미래 농업경영인으로서 자질을 갖추면서 습득한 이론과 정보를 농촌현실에 접목하려는 뜻에서다.

기능성 쌀 생산과 흑염소 사육 계획

김씨는 앞으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기능성 쌀 생산과 흑염소 사육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무턱대고 쌀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이제는 지역특성에 맞는 브랜드화 시급하고, 기능성 쌀 생산이 최대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동안 한우 10마리를 키워본 경험이 축산의 전부인 상태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흑염소 사육방법에 관한 안내책자 등을 부탁해 놓는 등 여러 방면으로 정보를 수집중이다. 김씨는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질 좋은 건강식품을 먹을 수 있는데 일조 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흑염소 사육에 적잖은 투자를 할 생각이다.



米

김현익



1951년생

주소 경북 의성군 다인면 외정리 355 전화번호 054, 861, 4909

해마다 일등급 일품 쌀 생산

주 품목 쌀

영농경력 40년

경영규모 논 1만평

전통 영농기법 고수하는 농업인

장남으로 태어나 농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은 경북 의성군 다인면 외정리 김현익씨.

그가 고향에 남아 농사를 짓게 된 것은 남다른 사명감 때문이었다. “다른 젊은이들처럼 도시로 떠나면 먼저 가신 옷 어른들 뵈 면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고향을 지키게 됐습니다”라는 김씨는 일찌감치 농사로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성실히 땅을 일군 주목받는 농업인후계자였다.

김씨는 전통적인 영농기법으로 농사를 지어온 고지식한 농사꾼이다. 그가 토질을 보호하고 가꾸어주는 자연 퇴비를 사용하는 것도 집안 대대로 해온 방식을 따랐기 때문이다.

김씨는 추수가 끝난 후 논에 남아 있는 짚단은 전량 퇴비로 활용한다.

틈 나는 대로 산에 올라가 풀이나 나뭇가지를 모아 퇴비를 만드는 일은 40년째 해오고 있다.

덕분에 70년대 퇴비 증산 시대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의 헛간 가득히 쌓인 퇴비더미를 구경하러 올 정도였다.

신중한 농사로 40년간 큰 피해 본 적 없어

땅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소신대로 김씨의 논은 거름 많이 준 논답게 영양분이 풍성하고 기름진 것이 특징이다. 특히 추수 때가 되면 누렇게 익은 벼 포기는 검은 반점 하나 없이 깨끗해 마치 옷감에 물들인 것처럼 선명한 황금빛을 자랑한다고 한다.

열심히 땅을 가꾼 덕에 김씨가 수확한 쌀은 해마다 일등급 판정을 받아왔다. 오죽하면 의성군에서 일품 쌀 생산지로 유명한 안계면에서도 그의 쌀을 사러 올 정도일까.

운이 좋았던 탓인지 40년 농사를 짓는 동안 김씨는 특별히 큰 피해를 본 기억도 거의 없다. 심한 흉수나 태풍도 잘 피해갔고, 이웃농가에서 벼 품종을 잘못 선택해 수확에 큰 차질이 생긴 해에도 그는 평년작을 웃돌곤 했다.

이는 경험이 없는 것은 무턱대고 선택하지 않는 그의 신중함 때문이었다.

40년 농사를 지으면서 힘든 일도 수차례 지나갔다. 초창기에는 보릿고개로 힘들었지만 요즘은 수입 농산물이 그를 못살게 군다.

“얼마 전 눈에 심었던 콩을 팔러 나갔더니 중국산 때문에 아무도 사지 않으려고 해서 의욕이 떨어졌다”는 김씨.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좌절할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농업인이 된 것을 후회한 적은 없다고 한다.

농산물 개방 대비책은 '절약'

요즘 김씨는 2004년 농산물 개방을 앞두고 이런저런 걱정이 많다. 하지만 그는 오래 전부터 나름의 대비를 해오고 있었다. 김씨만의 대비책은 바로 절약하는 습관이다.

'75년도 산 농기계를 아직까지 수리해서 쓴다는 그는 평소 절약이 몸에 배어 있다. 김씨의 집에는 TV 이외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거의 없을 뿐더러 끼니때마다 나오는 반찬 종류도 서너 가지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교육비를 제외하고 아이들에게 유행에 맞는 옷가지를 구입해준 기억도 없다.

지난해 추석 김씨는 결혼 25년만에 새 집을 지었다. 그전까지만 해도 겨울철 폭설로 천장이 무너져 외양관에서 밥을 지어먹었을 정도로 웅크린 살림살이였다는 김씨. 행여 농사일에 방해가 될까 기타 탄체나 모임에도 일절 참여하지 않고 오로지 농사 일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그는 자신의 천직은 농사라고 장담한다.



김홍연



1956년생

주소 전남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532 전화번호 061. 352. 6562 H.P 011, 644, 6562

맨주먹으로 7만평 대농꿈 이뤄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0년

경영규모 8만4,000평

조수입 1억5,000만원

중학교 중퇴 후 배달원, 머슴살이

김홍연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다니던 중학교를 그만두고 돈벌이에 나선 지 15년만에 대농의 꿈을 이뤄낸 입지전적 인 사람이다. 어렸을 때부터 체격조건이 좋았던 김씨는 영광군 백수읍에서 범성면 도축장까지 돼지를 자전기에 실어날라 2,000원씩 받는 일부터 시작해 막걸리 배달과 머슴살이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다.

염분이 많아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버려진 간척지를 부인과 함께 삽과 괭이, 리어카를 이용해 논을 만들었다.

3년여 걸쳐 1만 5,000평의 논을 만들어낸 김씨는 콩과 벼를 심어 해마다 논을 사 모았다. 그러나 문제는 농업용수 확보였다. 간척지 농사에서 풍부한 물은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수세가 만만치 않았던 당시로서는 김씨가 물 값을 감당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윗 논에서 흘러 보내는 물을 받아 농사를 짓기도 했다.

물론 지금은 불갑 저수지에서 흐르는 수로에 고성농 수중 모터 3대를 설치, 안전농사를 짓고 있다.

무농약 쌀 생산체제 갖춰 개방파고 넘는다

김씨는 2년째 무농약 쌀 생산을 시도, 대도시 친척들과 친구 등 지인들에게 보내 맛을 보게 하고 있다. 그는 혹시라도 2004년 쌀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무농약 쌀 생산체제로 100%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중만생종 위주의 쌀 농사를 하고 있는 김씨는 수확량의 50%는 물벼 상태로 백수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 판매하고 나머지는 말려 보관했다가 계절 진폭을 고려해 조금씩 출하한다.

육묘공장을 운영하면서 어린 모를 직접 생산하고 있는 김씨는 인근 농가들이 벼씨만 가져오면 실비만 받고 어린 모를 공급해주시기도 한다.

미질을 높이기 위해 벼가 90% 가까이 익었을 때 수확한다. 면적이 많아 같은 날 모내기를 했더라도 익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벼 베기를 할 때는 날마다 전 포장을 돌면서 작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썩 벗겨진 반드시 논으로 되돌려 놓고 겨울에 로터리작업을 한다.

간척지는 염분이 많아 겨울에는 짚이 잘 썩지 않기 때문에 깊이 갈기보다 로터리작업이 효과적이다. 그 대신 이듬해 봄에 깊이 갈이를 한다. 봄철 기온이 올라갈 때 흙 속의 염분이 위로 올라와 비가 내리면 염분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모내기 한 다음 50~60일이 지나면 논바닥이 약간씩 갈라질 때까지 물 떼기를 해준다.

쓰러짐에 강하고 미질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수확량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국 쌀 품평회 2위, 쌀 전업농 강사 활동

쌀보리를 재배하는 김씨는 '96년 전국 보리 다수확왕을 차지한데 이어 2000년에는 전국 쌀 품평회에서 2위를 했다.

농촌진흥청 쌀 전업농 전문강사로 출강하고 영광군농업기술센터 어린 모 기술교육도 맡고 있다.

쌀 전업농과 농민회, 농업경영인들이 참여하는 영광군 쌀대책협의회장으로 쌀값 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는 김씨는 쌀 전업농 영광군회장과 농업경영인 영광군연합회장도 함께 맡아 농업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애쓰고 있다.





김희관



1966년생

주소 충남 태안군 안면읍 정당 4리 30 전화번호 041. 673. 3338 H,P 011. 421. 0338

광작(廣作)벼농사로 미래 쌀산업에 대비한다

E-mail

balloon69@treechal.com

주 품목 쌀

영농경력 16년

경영규모 3만6,000평

순소득 6,000만원

벼농사에 인생승부를 걸다

불안정한 쌀값 때문에 쌀농사를 기피하는 시대에 오히려 벼를 더 많이 재배할 곳을 찾는 젊은 농업인이 있다.

바다를 막아 일군 미포별관에서 3만6,000평의 벼농사를 짓는 김희관씨. 그는 드넓은 광작(廣作) 벼농사에 승부를 건 젊은 농업경영인이다.

“쌀농사로 한 우물을 판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 들에 나가 소금기 듣는 갯벌논과 씨름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군대 3년을 제외하고 줄곧 쌀농사에만 매달려 올해로 17년째이다.

김씨 역시 쌀전업농으로 선정되기 전에는 논 1,200평, 밭 2,300평의 소농에 지나지 않았다. 해마다 땅을 늘려, '95년 '쌀전업농'에 선발되었다. 김씨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토지구입자금을 지원받아 2만 6,000평의 땅을 구입하고, 주위 눈을 임차해 모두 3만 6,000평의 쌀농사를 짓고 있다.

순소득 6,000여 만원의 부농으로 우뚝 서기까지 꼬박 7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축분 액비화로 땅심 높이기

“쌀농가들이 조그만 눈에 기름을 듬뿍 쥐 농사를 잘 짓는 것 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수입쌀에 대응하려면 미질도 경쟁해야 하지만 규모화, 즉 물량도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우리 쌀산업이 지탱해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김씨는 말한다.

2002년에는 쌀(80kg 기준)을 700가마 수확했다. 200평 한 마지기에서 3,8가마를 거둔 셈이다. 수해가 심했던 데다 논의 염도가 높아 수확량이 떨어져, 고심 끝에 인근 축산농가에 200톤짜리 축분저장고 2개를 묻어두고 2001년부터 발효 액비를 뿌리는 친환경농업에 나서고 있다.

워낙 넓어 그것 역시 충분한 양은 못되지만, 앞으로 한 마지기당 4,5가마 수확을 목표로 액비를 시비해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10만평 벼농사가 꿈만 아니다

부농의 꿈을 실현하려는 김씨에게도 2004년 쌀시장 재협상은 걱정거리이다. 하지만 김씨는 단호하다.

“우리 쌀의 시장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쌀생산을 자꾸 줄이다보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중국 쌀·미국쌀 먹여야 할 겁니다”라는 그의 두 눈에선 작은 불꽃이 일렁이는 듯하다.

“고품질만으로는 오늘의 쌀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쪽에선 고품질, 다른 한 쪽에선 저가 이 규모화된 광작으로 쌀 생산비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양과 질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김씨는 벼를 더 심을 땅을 입차하기 위해 올해도 분주하다.

“마을청년들과 함께 서산의 현대 간척지구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저 혼자 10만평 정도는 너끈히 농사지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오늘도 농업 현실을 받아낼 힘이 두 팔에 가득 차 보인다. 다부진 그의 어깨 위에, 가슴 속에 미포벌판의 너머에 있는 바다처럼 미래 농업을 향한 푸른 꿈이 있다.

그는 그 푸른 꿈을 실현하고자 오늘도 벌판으로 나가는 트랙터에 몸을 싣는다.





나민석



1969년생

주소 전남 함평군 손불면 삼남리 928 전화번호 061. 322. 4572 H.P 011. 890. 4572

분수에 맞는 경영, 15년새 농지 10배로

경영체명 감람농장

주 품목 쌀, 밀

영농경력 15년

경영규모 논 3만평

순수익 8,000만원

벼 이모작때 3분의 1은 휴경

“개방화시대에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종자구입부터 판매까지 생산을 제외한 모든 일은 농협에 맡기고 품질향상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찾는 농산물을 만드는 농업인만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 함평군 손불면 삼남리에서 15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나민석씨. '88년 도시 직장생활을 청산하고 귀농, 3,000여평으로 시작한 농사가 지금은 3만여평으로 늘어나 현재 쌀과 밀, 마늘 등을 재배하면서 연간 1억여원의 소득을 올리는 어엿한 선도 농업인으로 자리잡았다.

나씨가 제시하는 성공비결은 철저한 토양관리, 농산물의 상품성은 땅심에 달려있다는 확고한 신념에서다. 우선 매년 벼 수확 후 보리를 심을 때 재배면적의 3분의1은 반드시 휴경을 하고 있다.

휴경지에는 10여마리 규모로 키우고 있는 한우의 축분을 퇴비화시켜 구산질비료와 함께 투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땅이 기름지게 하는 것은 물론 병해충에 강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모든 것 농협에 맡기고 생산 전념

나씨는 “농사꾼의 임무는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라며 “판매까지 신경 쓰면 품질관리에 소홀해 지고 이는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직거래 하기 위해 고생하는 것보다 계통출하를 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분수에 맞는 자가경영도 한몫을 하고 있다.

나씨는 “최근 기계화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부부 노동력만으로도 4만평까지는 벼농사를 지을 수 있다”며 “부부가 공동으로 일하니까 생산성 향상은 물론 인건비 절감의 효과까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나씨는 15년만에 농사규모를 10배 늘리는 효과를 보았다고 덧붙였다. 나씨의 이런 노력은 입소문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쌀 전업농 선정을 비롯해 보리 선도농가상, 새농민상 등 굵직한 상을 휩쓰는 계기가 됐다.

“부부 힘으로 4만평 벼농사 할 수 있어요”

최근 나씨가 새삼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농장경영의 규모화와 함께 보리재배를 밀로 대체하는 것이다.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개방불결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규모화만이 살길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정부 수매가 줄고 있는 보리대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을 재배함으로써 농장경영의 효율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한 것이 현재의 나를 있게 만들었다”고 되새기는 나씨는 “내실 있는 농장경영으로 규모화를 달성, 앞서나가는 선도농업인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성주



1970년생

주소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성남리 54 전화번호 061. 322. 3983

4H 활동으로 다진 '벼사랑'

홈페이지 www.farmhp.co.kr

(2003. 6월 오픈예정)

E-mail nsj3983@kornet.net

주 품목 쌀, 거베라

영농경력 15년

경영규모 논 2만평, 밭 600평

순수의

2,500만원(쌀), 3,600만원(거베라)

“벼농사는 제 농사의 모태”

“벼농사는 제 농사의 모태입니다. 벼농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쌀 전업농 나성주씨의 말이다.

벼농사 외에 화훼, 나비, 누에농사도 겸하고 있는 나씨가 영농에 뛰어든 것은 인문계 고교를 졸업하던 '88년. 누구보다도 지적 호기심이 많았던 그는 '92년 함평군 4H연합회에 가입, 지역의 청년 농업인들과 학구열을 불태웠다.

4H활동으로 얻은 것이 너무나 많았다고 한다. 영농의지를 굳게 다질수 있었으며 보다 넓은 관점에서 멀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능력, 그리고 각계 각층의 인사들과의 만남 등이 그것. 또 이 무렵부터 습관을 붙여 꼼꼼하게 적어 나간 영농일지도 큰 재산이라고 덧붙인다. 특히 4H연합회 함평군회장을 맡은 '95년은 행운의 해였다.

농업기반공사의 도움으로 논 2,000평, 밭 600여평에 그쳤던 농지를 5,000평으로 늘릴 수 있었던 것.

그후 '98년에 임대를 통해 재배면적을 늘린 결과 현재 2만평에 달하는 벼농사에서 연간 2,500만원에 달하는 순수익을 올린다.

기본과 응용지식 고루 갖춘 '과학영농 시험장'

그의 눈은 기본과 응용지식이 결합된 '과학영농 시험장'이다. 7년전부터 목초액과 미생물제제를 이삭패기 전후에 주어 농약 사용량을 3분의 1로 줄였다.

토양검정 자료를 바탕으로 균형시비에 힘쓰고 복합비료를 줄뎨 반드시 규산질을 함께 준다. 그리고 알곡을 뺀 볏짚, 왕겨 등 모든 부산물을 그대로 논에 투입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취향과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 품종의 쌀을 생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드러운 쌀을, 요식업소에서는 오래 놔둬도 밥알이 싱싱하게 보이는 쌀을 찾더군요." 이를 감안해 여러 품종의 벼를 심고 있는데 2002년엔 남평벼와 동안벼를 각각 6,000평씩, 나머지는 일미벼, 향미벼, '꿈의 쌀' 등을 재배했다.

그는 또 올해안에 지역 농업인들과 더불어 함평농산물 사이버장터를 개설, 전국 소비자들에게 함평쌀의 진가를 알릴 계획이다.

사이버장터 열어 '함평쌀 진가' 알리겠다

'88년 그가 영농에 뛰어들 때 "15년쯤 뒤엔 벼 재배면적을 2만평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5년이나 앞당겨 '98년에 이뤄냈지만 그는 조금도 흡족해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있다. "10년안에 벼농사 규모를 4만평으로 늘리겠습니다. 수입쌀과 경쟁하려면 품질도 좋아야 하지만 규모화를 통해 생산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2년 전부터는 600평의 비닐하우스에서 거베라를 재배하고 있다.

"몸이 불편한 두 형과 함께 할 수 있는 작목을 찾다 보니 거베라를 택하게 됐다"고 한다. 그의 거베라는 짧은 기간동안 중국시장 진출을 겨냥할 정도로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며 서울 꽃시장에서 최고품 대우를 받고 있다.



米

남경희



1961년생

주소 경북 상주시 화남면 소곡리 562 전화번호 054. 536. 0196

복합영농으로 농가소득 증대

경영체명 선정원

주 품목 쌀, 시금

영농경력 11년

경영규모 논 1만,000평

순수익 7,000만원

초기 농사 실패가 복합영농의 계기를 마련

남경희씨는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93년부터 부모님과 함께 논 3,000평과 밭 1,000평으로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농지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반 고랭지 배추 농사를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그가 살고 있는 상주시 화남면이 중 산간지로 일교차가 크고, 강수량이 적은 반고랭지 기후이므로 여름에 배추를 출하할 경우 고소득을 보장할 것이라는 생각때문이었다.

그러나 여름 배추 생산에만 신경을 썼을 뿐 판매처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3년 동안 재배하여 왔던 반 고랭지 배추 농사는 실패로 끝났게 되었다.

그 이후부터는 고랭지 배추농사의 실패를 저울 삼아 항상 판로를 염두에 두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다고 한다.

그 동안 작목을 가지, 오이 등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쌀 등을 생산함으로써 복합영농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청정오이 생산으로 친환경 농법 습득

그는 2000년부터 농업경영인회장과 중화농협 대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지역 주민과 농협이 밀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영농활동을 하였다.

특히 2001년에는 팔음산 오이작목반장으로 활동하면서 가격 정보나 판매처 확보를 위한 시장 정보를 반원간에 수시로 주고 받았으며, 청정 오이를 재배하기 위한 목초액 한약 액기스를 사용한 농사기술을 반원에게 보급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 당시 그는 2,000평에 달하는 오이 재배를 위해 상토와 액비를 자가생산하여 살포함으로써 생산비도 줄이고 철저한 선별관리로 등급을 높힘으로써 대전 농협공판장에서 높은 수취가격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2002년부터는 청정오이 생산으로부터 터득한 친환경 농법을 쌀 품목으로 이전하여 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친환경 품질인증 우렁이 쌀 생산

2002년에는 일명 '게르마늄 우렁이 쌀'로 알려진 친환경 품질인증 쌀 생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1만2,000평에 달하는 논 중 6,000평에 우렁이 농법을 채택하고 있다.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잡초를 제거하기 위하여 모를 낸 후 논에 300평당 6kg정도의 우렁이를 kg당 3,500원에 구입하여 논에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초기 제초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쌀겨를 추가 살포하고 있다.

또한 도열병 등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농약 대신 목초액, 현미식초등을 살포하고 있다. 이로써 그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병해충 방제를 하는 등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그는 유기농법에 의한 우렁이 쌀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슴 양축으로 복합영농 체계 구축

그는 사슴과 염소도 기르고 있다. 매년 사슴으로부터 생산되는 녹용과 염소 고기는 한약재 중탕기를 이용하여 녹중탕, 녹용 대보탕 등 건강보조 식품을 생산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판매방식은 친지나 친구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진 근대적인 판매방법에 의존하고 있지만 제품의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그는 고객으로 부터 신뢰를 절대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판로상 애로는 없다고 한다.

그 밖에도 한약재 중탕기를 이용해서 과일 주스 착즙을 하고 있다. 과일주스 착즙은 지역 인근 과수농가가 제공하는 기형 또는 불량 과일을 주 원료로해서 주스로 만들어 주는 대신 임가공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공시설 이용율을 높이고, 농외소득도 올릴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한다.



남궁훈



1969년생

주소 충남 예산군 고덕면 사리 521-3 전화번호 041. 337. 2769

부부힘으로 4만평 벼농사 거뜬히

주 품목 쌀

영농경력 11년

경영규모 논 4만평

순수익 7,000만원

1만평은 자가소유, 3만평은 임대

“벼농사가 돈이 되느냐”는 물음에 남궁훈씨는 “천만의 말씀”이라며 웃었다. “힘은 들지요, 그러나 벼농사를 지어 논 1만평을 내 것으로 만들었으니, 돈을 못 벌었다면 거짓말 아닙니까?” 충남 예산군 고덕면 사리 남궁훈씨.

그의 영농규모는 4만평으로 자가소유가 1만평, 임대가 3만평이다. 자가소유 1만평 중에는 농업기반공사의 영농규모화 사업에 따라 지원받아 구입한 논도 포함돼 있다.

남궁씨가 벼농사로 올리는 연간 순수익은 7,000만원으로 이정도 소득이면 만족스럽다고 말한다.

“벼 농사는 연중 5개월만 일하면 됩니다. 나머지 7개월은 농한기인 셈이죠”. 그렇다고 남궁씨가 7개월 동안 일없이 노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 일대에선 숨씨 좋은 포크레인 기사이며 건축 일도 병행하고 있다. 또 짚을 묶어 축산농가에 사료용으로 판매함으로써 부수입까지 올리고 있다.



못 다루는 농기계 없는 부인이 열 뭇

남궁씨는 군 전역 후 농사를 시작했다. 그때 자가소유 논은 딸랑 다섯 마지기에 25마지기를 임대하여 30마지기에 모를 심었다. 2년 뒤 그는 50마지기로 영농규모를 늘렸고, 1년 뒤 다시 72마지기로, 2년 뒤엔 102마지기로 경작면적을 넓혔다. 4만평 논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3년전 부터이다.

그가 이같이 많은 면적을 관리할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일까?

남궁씨는 “팔불출인줄은 알지만, 안사람 자랑을 해야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인 문중숙씨가 일꾼 열 뭇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농약살포 작업시 일꾼을 사지 않습니다. 안사람과 들어서 하는데 하루 80마지기는 거뜬합니다” 남궁씨는 부인의 농기계 다루는 솜씨가 “정지에 올라섰다”며 팔불출임을 자부했다. “콤바인은 물론 트랙터 운전도 잘합니다.

모내기 작업시 이앙기는 안사람 차지입니다. 트럭운전은 기본이고요” 물을 댄 눈에 남편이 로터리를 치고 나면 부인은 3일후 이앙기를 몰고 뒤따른다는 것이다.

보조일꾼을 데려오긴 하지만, 그들은 모판 나르는 일만 시킨다고 남궁씨는 말했다.

4만평 모내기를 위해 벼씨를 뿌리는 모판수는 4,200개. 이중 절반은 8일묘를 하고 나머지는 기존 방식대로 하우스모판을 설치한다.

남궁씨 소유의 농기계는 이앙기가 4조 1대와 6조 1대, 콤바인은 4조 3대, 트랙터는 62마력 3대이다. 여기에 46석 짜리 전조기가 2대 더 있다. 농기계 수리는 대부분 직접한다.

엔진부분만 제외하고 손수 고칠 수 있다는 것. 농민교육원에서 배운 농기계 수리교육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500 마지기까지 늘릴 계획

앞으로 그는 영농규모를 500 마지기까지 늘릴 계획이며, 직접 가공판매하는 방안도 생각중이다. 남궁씨는 “유기질 거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집 쌀은 찰기가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건조사업을 위해 시설을 늘릴 것도 고려하고 있다. 농촌인력이 노령화 되면서 벼를 건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시설비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작업물량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米

노영수



1976년생

주소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고려리 315 전화번호 052, 260, 0610 H.P 011, 552, 0611

친환경 고품질 쌀작거래 통해 소득 증대

경영체명 무재치큰남쌀

홈페이지

www. ilovessal.com

E-mail ds5llg@hanmail.net

주 품목 쌀

영농경력 6년

경영규모 논 2만평

순수익 3,500만원

부모님 농사 이어받아 전업농으로 출발

노영수씨가 군복무를 면제받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영농의 길로 접어든 것은 '96년 21살 때였다. 칠남매 중 막내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농사일을 거들어오다 아버지가 공직 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던 대학 1년 때부터 사실상 쌀전업농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관계로 산업기능요원 선정 시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농업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확고한 영농의식이 있었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 당시의 영농규모는 논 8,000평 정도였으나 쌀 농사의 경우 쌀 수입 개방에 따라 대규모 영농이 아니고는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 아래 지속적으로 그 규모를 늘려나갔다. 현재 노씨는 2만여 평의 쌀농사를 짓고 있는데, 자신의 노동력만으로도 3만평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울산지역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근지역의 논 확보가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노씨가 보유한 농기계는 트랙터, 이앙기, 콤팩트, 건조기 등 영농에 필요한 농기구는 거의 다 갖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매년 기존 농기계에 대한 수리와 새로운 농기계 구입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이렇게 투자된 농기계지만 이용일수는 매우 짧아, 노씨는 이를 규모 확대로 해결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 규모 논 확보

노씨의 쌀 농사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이 핵심이다. 논에는 늘 물이 고여 있는 데다 청결한 지하수로 농사를 짓고 있어 미질이 특히 뛰어나고 청결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노씨가 특별히 관심을 쏟는 것은 친환경 농법의 무농약 재배다.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해 품질인증을 신청해놓고 있지만 공단이 적지 않은 주변 환경 때문에 아직까지 품질인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애를 태우고 있다. 노씨가 생산하는 쌀은 90% 이상이 직거래로 팔린다.

초기에는 친척들을 통해 식당 등에 직거래가 이뤄졌으나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이 재주문을 해와 직거래 고객을 적지 않게 확보하고 있다. 노씨는 고품질과 꾸준한 인간관계가 직거래 판매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위험성이 큰 대량거래처보다는 인간관계를 통해 확보한 다수 거래처에 소규모로 직거래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친지 등 다수 소규모 소비처에 직거래 판매

노씨의 쌀은 개인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청결미로 특별 가공된다. '무제치큰넙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노씨는 젊은 농사꾼답게 인터넷을 활용한 판로 개척에도 열심인데,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자신의 쌀을 판매할 계획이다.



米

농업



1961년생

주소 경남 합천군 적중면 황정리 230-13 전화번호 055. 934. 0855

맨손으로 일군 1만8천평 쌀농사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0년

경영규모 논 1만8,000평

순수익 4,000만원

직물공장에서 직공생활중 귀농해 8년만에 부농으로 변신한 노을용씨.

어릴 때부터 농사에 관심이 많았던 노씨는 농고를 졸업했지만 농사지를 땅이 없어 돈을 벌기 위해 무작정 대구로 나가 직물공장에서 약 3년간 공장생활을 했다.

직물공장에서 8시간 이상 중노동을 하면서 노씨는 이 정도 노력만 하면 농사꾼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신념 하나만 갖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막상 귀향을 하고 보니 땅이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남의 땅을 임대하여 농사를 시작, 돈이 모이는 대로 전답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기반공사 자금지원이 초창기 큰 힘

그러던 차에 지난 '94년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75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1,600평의 농지를 구입했다. 이때부터 노씨는 소득을 올리기보다 농지를 늘려 규모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모든 이익을 농지 구입에 투자했다.



“지난 90년대만 해도 정부가 농가 희망량 전량을 수매해줬기 때문에 많은 쌀을 생산해도 판매에 어려움 없고 소득도 보장돼 농지를 계속해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과 함께 최근에는 각종 농기계를 비롯한 농자재 값이 올라 그 동안 편안하게 농사지었던 환경이 많이 변했다며 농업인들도 변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유기농 브랜드 쌀 생산에 주력

노씨는 쌀을 생산해도 고품질 브랜드화 되지 못하면 판매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유기농쌀 재배에 나섰다. 약 1,000평에서 우렁이농법, 오리농법을 시작했으나 단지화가 안돼 판매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최근에는 합천군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을 받아 브랜드 쌀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합천군의 많은 쌀 전업농업인들과 함께 브랜드 쌀 생산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동안의 우렁이농법 및 오리농법 등을 연구해서 개선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한 브랜드 쌀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노씨는 “앞으로 브랜드화 되지 못한 쌀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수입쌀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고품질 브랜드화 된 쌀 생산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리 먹거리 쌀 끝까지 지킨다”

한평의 땅도 없었던 노씨가 1만8,000평의 땅을 소유한 부농으로 성장한데는 부인의 도움이 컸다. 부인은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등 모든 농기계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었다.

“워낙 없는 집안에 시집을 와 처음부터 구두쇠 같은 절약정신 하나만으로 저와 함께 농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인생의 동반자이면서 동업자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씨는 농촌의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벼농사를 지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벼농사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米

노 종 석



1959년생

주소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농협 전화번호 061. 323. 3211

친환경농업으로 생명창고 지킨다

경영체명 자운영쌀생산단지

주 품목 쌀

영농경력 7년

경영규모 논 150ha



나비축제와 어울려 자운영농법 시작

"이제는 양이 아닌 질로 승부할 때입니다. 그래서 수량이 적더라도 미질이 좋은 쌀을 생산해 '함평 나비쌀'의 브랜드 힘을 키우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전남 함평군 노종석씨는 지역내 쌀 재배 농가에 자운영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을 보급,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자운영은 콩과의 녹비작물로 질소와 단백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땅심을 높이고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해마다 4월말~5월초면 홍자색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 관광농업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곳 학교면지역에서 자운영 쌀을 재배하게 된 것은 '99년에 열린 함평 나비축제가 계기가 됐다. "함평 나비축제때 찾아 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함평의 깨끗한 이미지를 지역 농산물 판매와 연결시키면 농업인들의 소득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미질 높여가며 브랜드 홍보에도 열심

농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농업인들이 2004년 쌀시장이 개방이 확대되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품질 브랜드라고 확신하고 있는 노씨는 우선 이를 위해 계약재배한 자운영 쌀은 정부수매가로 전량 매입해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포장재비 등을 적극 지원해 참여농가 확대에 힘썼다.

특히 품종·미질별로 차등가격 수매제를 도입해 농가들이 '고품질 쌀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식도 갖게 했다.

또 수매단계부터 원료곡은 품종별로 철저히 구분해 보관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 도정하는 등 미질을 높이는 데도 온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현재 학교면 관내에서는 500여 농가가 가을이면 자운영을 심었다가 봄에 갈아엎는 친환경농법을 실천, 고품질 쌀을 생산해 '함평 나비쌀', '자운영쌀'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자운영 농법으로 생산한 쌀은 일반쌀에 비해 영양가가 높은 데다 밥맛도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생산자, 소비자, 정부 공동의 몫"

함평군과 농협은 최근 쌀 소비 감소와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쌀 팔아주기운동'을 펼쳤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전체 쌀 생산량의 80%를 직거래로 팔았다. 농협에서는 공무원과 조합직원들이 힘을 모아 유치한 고객을 단골로 확보하기 위해 캘린더와 소식지 등을 보내주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농업인과 유통업체, 소비자 모두가 뜻을 하나로 모을때 가능하다"고 말하며 "친환경농산물은 소비자가 사줘야 하고,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판매처를 제공할 생산자단체나 유통업체들이 있어야 하며, 또 농업인들이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한다.



노종진



1964년생

주소 전남 화순군 춘양면 화림리 855-1 전화번호 061. 373. 2238

벤치마킹으로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

E-mail

77516@hanmail.net

주 품목 쌀

영농경력 14년

경영규모 논 2만5,000평

기계공학도에서 반쯤 성공한 쌀 농사꾼으로

농업기반공사 우수 쌀 전업농인 노종진씨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1년여간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이럴 때부터 간직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향수, 농업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93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는 곳이 산간지로 농사 지을 땅은 적는데 비해 농가는 비교적 많은 빈촌으로서 어떤 작물을 주 소득 원으로 선택하여야 할지 고심하였으나, 가진 것이 없어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는 벼농사를 짓기로 결정하고 부모님 소유 3,000평의 농지에 벼농사를 지었다

수확 첫째 40Kg기준으로 165가마를 생산하였으나, UR협상 결과에 따라 정부의 수매량이 줄어들면서 생산량중 일부만 수매할 수 있었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수매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계기로 한때 노씨는 농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농업정책이 잘못돼도 한참은 잘못 됐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농민운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농업인도 변해

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나부터 변해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따지면서, 영농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95년 쌀 전업 농으로 선정되어 현재는 쌀 농사 9.1ha와 축산으로 연간 7천9백만 원의 농업소득을 올리는 어엿한 중견 농업인이 되었다.

쌀전업농연합회 고유 브랜드로 고품질 쌀 생산

“품종 선택이 가장 고민스럽습니다. 맘에 꼭 드는 품종을 찾기 힘들거든요. 소비자들은 밥맛이 고소하고 윤기와 찰기가 있는 쌀을 선호하지만, 저희 농업인들은 미질도 뛰어나지만 병충해와 도복피해가 적은 품종을 선호합니다”

쌀 품종 선택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노종진씨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전업농간 벤치마킹과 유기적인 결속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지역적으로 유명한 전업농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쌀전업농연합회에 가입 '96~2001년까지 총무를 맡으면서 매년 쌀시식회를 개최하여, 우수 품종을 선정, 재배함으로써 품종의 일원화와 함께 유기적인 결속강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자체 브랜드 쌀 개발 등 큰 의미 있는 성과를 일구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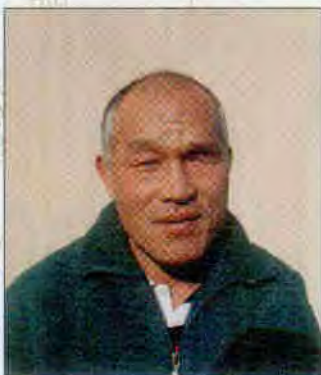
전국적인 판매망 구축을 위해

“농작물은 생산하기보다 판매하기가 더 힘들다. 성공 농업을 꿈꾸는 농업인이란 유통을 심각하게 고민해야죠.” 그는 유통과 마케팅을 알아야 제 값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2003년에는 전국적인 판매망 구축을 위해 견본품을 들고 유통업체에 찾아가 최고의 농산물임을 홍보할 계획이다. 벼농사 노씨는 앞으로도 5만평, 연소득 1억 원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류중연



1960년생



주소 전남 고흥군 고흥읍 등암리 491 전화번호 061. 833. 3675

위기를 기회로 만든 진정한 프로 농업인

주 품목 쌀

영농경력 19년

경영규모 는 4만1,000평

순수의 7,600만원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도전 정신도 필요

“솔직히 쌀 농사 밖에 모릅니다.” 고흥 해창만 간척지 4만 1천평의 면적에서 쌀 농사를 짓고 있는 류중연씨의 말이다.

지난 '82년 청운의 꿈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아직도 조상 대대로 이어온 영농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알게 됐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해보자 마음먹고 궁리 끝에 택한 것이 힘들다고 생각한 오이 하우스 200평 농사였다.

오이 하우스는 밤이면 벚짐으로 엮은 보온 덮개를 덮어 주고, 장작을 쪼개 불을 지피 실내온도를 유지해 주는 기술수준으로 날씨가 추운 겨울밤에는 2시간 간격으로 불을 지피고, 바람이 불고 비나 눈이 많이 내리는 밤이면 뜬눈으로 하우스에서 밤을 새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시행착오에서도 교훈 얻어

3년 동안 부농의 꿈을 안고 시작했던 오이 하우스는 너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등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의 타개책으로 작목을 국화로 바꿔 새롭게 재도전에 나섰지만 수요와 전문적인 기술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혀 실패라는 심각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러다가 농촌생활을 하면서 얻은 농기계 다루는 기술을 활용하면 쌀 농사를 규모화 할 수 있으면서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계화 영농단'을 구성하여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계화영농단을 구성했던 '87년에는 농기계 보급률이 낮아 농사를 위탁해온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넘칠 정도였는데 구입했던 트랙터와 3조식 콤바인, 보행이앙기에 투입된 비용을 전부회수하고도 남을 정도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농사일을 했다.

계속 호황을 맞았던 기계화영농사업도 농기계가 점차 불어나자, 류씨는 '90년 이후 농업기반공사의 농지매매, 임대차사업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해 부농의 꿈을 가지적으로 일구기 시작했다.

찾아오는 기회는 반드시 살려야

지난 '92년 농업기반공사의 농지매매자금을 받아 2,000여명에서 시작한 쌀 농사가 현재는 2만 9천평의 본인소유와 임차 1만2천평 등 총 4만1천평 규모로 10여년만에 20배 이상, 비약적으로 규모를 확대시켰다.

지난 한해 순수익은 7천600만원 수준. 규모의 확대와 함께 쌀의 품질향상을 위해 간척지 지역적응력이 뛰어나고 품질이 우수한 남평벼, 신동진, 화봉 등 3품종만을 선택하고 농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900평 규모의 경지정리 논을 2천700평에서 4천500평 규모로 재정지정리를 실시했다.

특히 지력향상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간척지 뽕층이 드러날 정도로 논을 깊이 갈고 매년 이탈리아 라이그라스를 주문 파종해서 유기물 퇴비로 만들어 사용한 결과 최고의 기름진 옥토를 유지하고 있다.

류씨는 "현 경작면적규모를 유지하면서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할 것"이라며 "농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동력 절감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1958년 10월 11일



1958년생



주소 전북 익산시 왕궁읍 흙암리 177 전화번호 063. 832. 4117 H.P 011. 689. 2299

품종 선택과 공동체의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8년

경영규모 3만7,000평

조수입 1억원

농사가 천직

문홍근씨는 중학교 때부터 농업이야말로 자신의 천직이라고 결심하고 농업고등학교를 스스로 선택하여 입학했다. 이때부터 홀로 계신 어머니를 도와 수도작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군대를 체대한 후 본격적으로 농업에 뛰어들었다.

초창기에는 수도작 면적을 넓히기 위해 소와 돼지를 사육하여 자본을 확보하고, 이를 발판으로 농지를 임차하여 재배를 하면서 쌀값이 고가를 이룰 때 나오는 소득으로 차츰 논을 구입하여 현재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고품질 벼로 안정적인 소득을

문씨는 재배 품종은 일반벼와 찰벼를 1:1로 재배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벼 쌀값의 불안정(하락) 등에 의해 등락이 심한 소득을 고가에 판매되는 찰벼에서 보완할 수 있어 농가소득

에 안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찰벼는 40kg에 일반벼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인 52,500~60,000원에 판매하였다. 그리고 보리를 12,000평을 재배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품종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씨는 품종선택에 있어 누구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다. 주로 '동진벼', '주남벼' 등 신품종과 우량품종을 엄격히 선발, 재배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량 증가를 꾀하고 있다.

농약은 연 1회로 제한하여 가능한 한 최소로 살포하고 있으며, 비료를 적게 사용하여 식미를 높이고 있다. 또한 수확 후 벼짚을 그대로 깎아 퇴비로 이용하여 지력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작목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라



문씨는 현재 쌀 작목회 '고을'을 통하여 고품질 쌀생산과 생산량 증가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종자, 농약 등 농자재 구입은 대부분 농자재 회사에서 저가격으로 공동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농자재 회사에 작목회원 교육을 직접 의뢰하여 전국의 쌀 시장 현황 및 선진 재배 기술 교육 습득에도 적극적이다.

판매에서는 벼, 보리 전량을 도정업자와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도정업자를 통하여 일반벼는 전북 지역으로, 찰벼는 충청남북도로 전

량 판매하고 있다. 이에 작목회는 도정업자와 많은 만남으로 유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간 신뢰를 고취하여 판매에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문씨는 현재의 농가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작목회나 단체를 구성하여 종자의 선택에서 농자재 구입, 재배방법, 판매, 홍보 등 모든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박기현



1959년생

주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263-1 전화번호 043. 534. 2638~9

완전미(Head Rice)개발, 브랜드화 성공

경영체명 충북 진천농협 미곡

종합처리장

주 품목 쌀

고품질 벼 확보 위해 계약재배로

2001년 현재 우리나라 쌀시장은 수요보다 공급물량이 초과하여 산지 쌀값 하락이 우려되었다.

2003년도 가을경에는 쌀 재고량이 1,200만석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은 적자생존의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박기현씨는 향후 벼 재배 농업인과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이 공생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쌀 생산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재배단계에서 부터 고품질 쌀 생산의 기반조성을 위해 2000년말 부터 재배상황을 분석하고 2001년초 토양 검증된 1급지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된 추청벼를 수매·가공·유통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방이 예상되는 쌀 유통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차별적인 판매로 도시 소비자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고품질의 완전미 생산 가공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건조불량을 막기 위한 물벼 수매



박씨는 추청벼의 수확 적기인 10월 중순경에 계약재배한 농가의 벼를 건조 불량에 의한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량 물벼 상태로 수매하였다.

2001년 진천농협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114농가 70.7ha에서 생산한 벼 40kg 짜리 8,830가마를 수분이 22~23%인 물벼 상태로 수매하였다. 순환식 건조기로 17.5~18%정도 건조시켜 원형 저장빈(300톤/기)에 별도 저장하였다.

가공시 저장원료를 순환식 건조기로 템버링시켜 벼의 흡수율을 1.5~2%정도 낮춰 상온까지 냉각시켜 가공하였다.

가공은 종합석발기로 산물벼와 같이 혼합된 이물질을 분리하고 세라믹 정미기에서 세라믹 칼날의 낮은 압력으로 가공하여 품질유지에 노력하고, 색채선별기 2대를 설치하여 먼저 착색미, 미숙립, 풀씨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싸라기, 착색미, 미숙립, 투명한 유리 등을 선별하여 완전미 가공을 하였다. 등급 선별기로 곡물 크기보다 작은 것을 골라내 완전미의 품질을 균일화하였다.

일반쌀보다 30%이상 더 받는 진천 완전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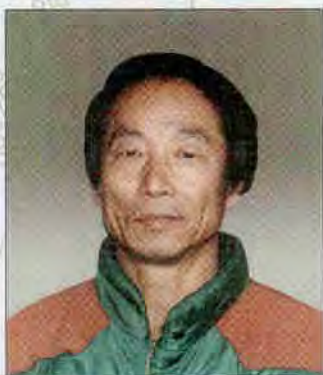
진천 지역은 내륙 분지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커 벼가 튼튼하고 등숙률이 높다. 쌀의 조직이 치밀하고, 맑은 관개용수를 사용한 친환경적 농법으로 재배하여 10여년간 토양 농약잔류 합격판정 지역이다.

한편 '92, '96년의 전국 으뜸농산물 품평회 대통령 수상과 '98년에는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부분 재배단지 대통령 수상 경력이 있다. 기존에 생산되어 온 쌀의 좋은 이미지를 활용하여 새로

은 상품인 완전미(누드쌀) 브랜드를 개발하고, 연간 균일한 고품질 쌀을 공급함으로써 시장과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다. 유통업자 주문에 의해 완전미를 생산하고 있으며, 물류센터 및 기업에서 사은품용으로 애용되면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가격 또한 같은 무게의 청결미보다 30%이상 더 받고 있다.



박문기



1954년생

주소 전북 정읍시 신정동 산17 전화번호 063. 535. 9755

우리 몸과 하나된 우리 농산물

경영체명 백희관광농원

홈페이지

www.dongyee-ac.co.kr

주 품목 쌀, 콩

영농경력 30년

경영규모 논 4만평

순수익 7,000만원

기원을 찾아 연구하며 재래식 품종 재배

단풍의 고장인 국립공원 내장산과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입암산의 중간에 박문기씨의 백희관광농원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등산로와 인접해 있어 산행 전후 민박지로서 주말 원정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박문기씨는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바탕으로 생명의 살림을 통해 '상생의 진리'를 실천한다는 농업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유기농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즉 하늘과 땅에 죄짓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살며 농사를 짓겠다는 소박한 동기에서 시작하여 30년의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박씨는 벼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기원에 관한 책도 많이 출판하였다.

벼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 우리나라 토종 쌀(다금마 등) 종자를 확보하고 입암 토종 쌀 작목반을 조직한 후 유기재배 쌀을 생산 중에 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유기재배 품질인증을 받아 출하 중에 있다.

철저한 관리에 의한 유기농산물 생산

박씨는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30여년 동안 유기농법에 의한 벼농사를 해오면서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을 정도로 유기농재배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토양 관리에서는 9월 하순경 답리작으로 두과 녹비작물인 자운영을 파종하고 벵짚도 전량 토양에 환원하였다.

그 결과 논토양 중 규산함량이 높아지게 되고 벼 줄기의 강도가 강화되어 내도복성 및 내병충성이 높아졌으며 등숙률 및 천립중이 높아 졌고, 미질이 개선되었다.

경운, 정지작업에서는 자운영이 개화할 무렵인 4월말에 경운하고, 유기물이 잘 분해 되도록 5월 상순에 또 한번 경운을 실시한다.

잡초방제는 이앙 직후 쌀겨를 살포하여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산으로 초기 잡초발생을 억제하였으며, 이앙 7일 후 왕우렁이를 투입하여 중기 잡초를 억제하였다.

병해충은 방제보다는 예방위주로 하는데 규산을 사용하고 영양균형을 맞춰주어 벼 줄기를 강건하게 하여 내병충성을 높였으며, 오리의 투입으로 병해충을 방제하였다.

우리의 것을 널리 알려 품질의 우수성 과시



백학관광농원에서는 전국 내방객을 위하여 연중 우리의 바른 역사와 전통문화 강좌를 년 4회에 걸쳐 실시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창조적인 문화생활을 해나가도록 방학을 이용해 문화교실을 열고 있다.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용 전단을 제작하여 농원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품질인증을 받은 무공해 다미금쌀, 흑미쌀, 화도찹쌀, 표고버섯, 태양초고추, 콩과 인근에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높은 소득을 올려, 안정적인 성공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유기농 재배를 통한 무공해 농산물이 우리 인체에 약이 된다는 각종 책자를 발간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지속적인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여 내방객들에게 신선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제공하고, 고부가가치 농산물인 영지버섯, 약용버섯의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어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1954년생

주소 충남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전화번호 041. 853. 9133

서산 간척지에서 희망 일구는 쌀 농사꾼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5년

경영규모 논 6만평

조수입 1억2,000만원

누가 뭐래도 쌀농사로 승부한다

“쌀농사는 죽지 않습니다. 만일 나라가 쌀을 포기한다면 나라는 그대로 있겠습니까? 저는 쌀로 승부하렵니다.”

충남 공주시 의당면에 살면서도 2시간은 족히 걸리는 서산 A지구 땅 5만2000평을 사들여 논농사 규모를 6만평으로 늘리는 모험을 감행한 박백순씨.

'96년도 쌀 전업농으로 선정되고 전업농 충남도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박씨는 2000년 현대농장 분양 때 편한 길을 두고 무리하지 말라는 노모의 만류를 뒤로 하고 인근 동료들과 서산으로 달려 갔다.

“쌀농사꾼이 쌀로 승부할 기회가 왔는데 포기할 수 있나요?”

박씨는 2000년 현대농장 분양 때 어머니의 뜻을 난생 처음 거슬리고 평당 2~3만원의 가격에 무려 12억원어치의 간척지를 샀다.

8억원은 농협으로부터 용자를 받고 4억원은 현대와의 분할상환 조건으로 갚기로 하고 사들인 땅이다.

10년을 내다보는 영농규모 확대

“쌀은 거짓이 없습니다. 규모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포장과 브랜드만 정착되면 다른 작물에 비할바가 아닙니다.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생산기반만 정비돼 있다면 해 볼만한 농사입니다.” 지난 2000년 전업농들이 조직적으로 현대농장 매입에 나섰다. 그가 앞장선 것은 서산간척지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다.

“비행기가 한 번 뜨면 직파가 되고, 농약도 비행기로 단 한 번에 가능하지요.” 그의 규모화대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그는 2002년 서산간척지 5만2,000평에서 1억2,000만~1억3,000만원의 조수입을 올렸다. 아마 태풍으로 인한 흑수, 백수피해만 아니었다면 1억6,000만원 이상은 올렸을 것이다. 평년작의 경우 자기인건비를 소득으로 친다면 연간 1억원 이상씩 소득을 올려 현대층에 4년간 균분상환한다는 복안이다.

농협 용자는 거치기간이 길기 때문에 우선 이자를 갚다가 현대것을 상환한 뒤부터 갚아나가면 된다. 박씨는 현재 송악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 법인은 원래 당진지역에 있던 것인데,

2001년 박씨와 동료들이 인수했다. 박씨는 서산간척지에서 나오는 쌀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초반간 이 법인의 이름을 서산지역에 맞게 바꾸고, 사이로를 추가 하는 등 도정시설을 갖춰 직접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이곳 간척지쌀은 미질이 월등하기 때문에 충분히 브랜드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좌절과 기회는 동전의 양면

이런 그에게도 깊은 고민이 하나 있다. '88년 엘크 한쌍으로 시작한 사슴농사가 지금은 엘크 35마리, 꽃사슴 5마리 등 40마리나 되는데, 최근 수입산 범람과 소비위축으로 녹용이 팔리지 않아 냉장고에 녹용재고가 그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씨는 희망을 가지고 사슴을 돌보고 있다. 농사란 것은 단기간에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사일의 좌절과 기회는 항상 따라 다니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는 서산농장에 농기계 보관과 숙식이 해결되는 시설을 만들어야 하겠어요. 그 래야 비쁠때는 그곳에서 묵으면서 일을 하지요.” 사슴 때문에 실름이 없는 그가 해질 무렵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던지는 말에 신뢰감이 묻어난다.





박재형



1962년생



주소 충남 서천군 화양면 금당리 163 전화번호 041, 951, 0691

규모화와 차별화로 무장 “수입개방 두렵지 않아요”

경영체명 금당영농조합법인

가족 부양 위해 벼농사 시작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6년

경영규모 논 20만평

조수입 1억9,000만원

박재형씨는 충남 서천군 화양면 금당리에서 자신의 논 7만여평과 영농사업단의 위탁영농 13만평 등 무려 20만평의 대규모 벼농사를 짓고 있는 이름난 농업인이다.

이제 막 마흔을 넘은 박씨가 대규모 영농인으로 알려진 것은 규모화가 곧 경쟁력이라는 박씨의 농업철학과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에서 비롯된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일찍이 가장의 책임을 지게 된 박재형씨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사일에 뛰어들었다.

“어쩔 수 없이 벼농사를 시작했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오로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으니까요.”

농지매매사업 참여로 대규모 농업인으로 성장

생계의 수단으로 비동거리며 시작했던 벼농사지만, 시간이 갈수록 박씨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름대로의 규모화 된 농지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했던 박씨는 '86년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되면서 후계자 지원자금과 자비를 털어 2,000여평의 농지를 확보하는 등 규모화를 위한 발판을 다져나갔다.

이후 '90년도 농업기반공사의 농지매매사업과 농지임대차사업 등 정책적인 지원사업에 힘입어 소유농지 4만여평과 임대 3만평 규모로 농지를 확대하는 등 대규모 농업인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다.

내 소유의 농지로 경작해야겠다는 신념과 더욱 규모화 해야겠다는 꿈을 이뤄나가면서 농사를 짓는 일에도 점차 자신감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씨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느 정도의 규모화를 이뤄냈으니 이제는 상품의 질로서 승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차별화된 미질(米質) 생산 주력 '소비자와 더욱 가까이'

남들과 차별화를 이뤄내기 위해 박씨가 생각한 것은 바로 친환경 농법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안전하고 우수한 쌀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농법으로 환경까지 보호해 나가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이에따라 박씨는 8년 전부터 친환경농법을 사용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화학비료를 친환경비료로 대체했으며 업면시비용으로 4종 복합 액비를 사용, 침중할 때부터 가을 벼 출수까지 이를 사용하면서 미질 향상에 신경 쓰고 있다.

물론 내 논에서 자라고 있는 벼들도 마찬가지로 어찌됐건 위탁 영농에 더욱 신경이 쓰인다는 박씨는 못자리에서부터 모내기, 추수까지 모든 영농 과정에 노력과 정성을 쏟아 부으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박씨의 땀과 노력으로 생산된 쌀들은 추수되자마자 전국의 정미업체로 날개돋힌듯 팔려 나간다. 한번 구입하여 맛에 감동한 소비자들이 다시 찾을 때 농업인으로서 가장 뿌듯한 마음을 느낀다는 박씨는 박씨만의 고유 상표를 걸고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가공공장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의 꿈이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 농촌을 떠받들고 지탱해주는 것은 역시 벼농사 아니겠습니까. 양질의 쌀 생산을 위해 지금처럼 노력한다면 수입개방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병행된다면 수입개방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게 농업에 대한 박재형씨의 미래비전이다.

米

벼

박정만



1966년생

주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읍대리 560 전화번호 055. 674. 2156

벼농사 천직 순수익 1억원 목표

주 품목 쌀

영농경력 14년

경영규모 논 2만평

순수익 4,000만원

부농의 꿈을 키우며 규모화 된 벼농사가 꿈

박정만씨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흙을 벗삼아 소년기를 보냈다. 휴일도 없이 주야로 농사에 매달리는 부모님을 도와드리겠다는 생각에 각종 농기계 구입 및 영농자금 대출 등을 하면서 농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97년 쌀 전업농으로 선정되어 농업기반공사로부터 규모 화사업자금을 지원 받아, 9,000평의 농지를 구입하고 '97년 농촌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영농교육을 받음으로써 농업인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됐다.

한 때는 모아 두었던 돈으로 한우 30두와 양봉 100군을 준비하여 복합영농을 시작하였지만 가격정보의 부재와 경험부족으로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동네 선배 한분이 객지에 나가있는 부재지주의 눈을 대규모로 확보하고 트랙터, 콤바인을 구입하여 경영비를 줄이고 쌀 농사를 전문적으로 해보자는 제의가 있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박씨는 부농의 꿈을 꾸고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하게 됐다.

믿음직한 농업 정책 자신감 가져



박씨는 쌀 전업농으로 선정되면서 매년 영농 규모화사업에 참여하여 지금은 소유농지 1만4천여 평과 임차농지 6,000여 평으로 규모화 영농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농기계는 건조기 50석 1대와 콤바인 1대를 지원 받았고, 자력으로 마련한 트랙터 1대와 이앙기 6조식 1대를 보유하게 되어 작은 꿈을 이루게 되었다.

그는 이제 우리 농촌환경도 믿음직한 농업정책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경영 규모화를 바탕으로 당당한 농업경영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고성군 쌀 연구회를 조직하여 지역특산미인 '공룡쌀'을 개발하는 등 쌀 전업농가의 소득향상과 영농기술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특히 수년간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한 벼 직파 기술 노하우를 인근 쌀 전업농가를 중심으로 보급하여 농가 경영비를 30%이상 절감, 농업경영인들의 실질 소득향상에 이바지했다.

자체 브랜드 상품화로 부가가치 높일 터

생산된 쌀의 출하 방식은 정부수매 20%, 소비자와의 직거래 30%, 미곡처리장 및 농협을 통하여 50%를 출하하고 있으나, 앞으로 고성군 쌀 연구회를 중심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60%를 출하하고 나머지 40%는 정부수매 및 미곡처리장을 통하여 출하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확대하여 일손부족 및 인건비 상승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영규모를 2006년까지 4만 평으로 확대하고 기계화 영농으로 연간 순수득 1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인근 전업농가를 중심으로 쌀 생산비 절감 및 비질이 우수한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영농인으로 신뢰를 쌓아 나갈 계획이다.





박종대



1956년생

주소 충남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538 전화번호 041. 741. 0520

규모화, 기계화된 농업이 살길이다

경영체명 진영농장

주 품목 쌀, 딸기

영농경력 20년

경영규모 논 4만평,

딸기 2,300평

순수익 8,000만원

성실을 바탕으로 한 농사

논산시 은진면의 진영농장에서는 농한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하우스에서 딸기가 한창 자라고 있었다.

‘하루만 한눈을 팔아도 한해 딸기농사 다 망칩니다.’ 라고 하는 박씨는 잠깐의 가족나들이에도 인색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70년 스무살 무렵 박씨는 서울에서 제화기술을 배우는 도중 고향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어 가족부양을 위해 고향으로 내려와 농사를 짓기 시작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한다.

초기에는 손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어려움도 무척 많았지만 하나하나 농사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성실히 이를 실천해 나가며 대농의 밑거름을 마련해 나갔다.

기계화로 가능한 규모화된 농사

처음에 1,000평으로 시작한 논농사는 박씨 부부의 성실함과 때마침 시작된 농업기반공사의 영농 규모화 사업으로 인

해 해마다 농사의 규모가 늘어가게 되었다.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받아 해마다 늘어난 논은 현재 4만평에 이르고, 이중 1만 8,000평이 박종대씨 소유이다.

농업에 전념하게된 초창기에는 손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밭도 제 때 찾아먹지 못 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노력한 만큼의 보람이나 성과를 느낄 수도 없던 시절이었다고 한다.

더 이상은 농사짓기가 힘들어 땅과 집을 정리해서 도시로 나가 장사를 하며 살까하는 생각에 가계터까지 알아봤었다고 한다.

그러나 농가부채를 정리하고 난 후 수중에 남은 돈으로는 이도 지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전보다 더 부지런히 농사를 짓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박씨의 농사에 큰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은 기계로 농사짓기 시작하면서 부터라고 한다.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정부에서 농기계를 보조해주어 농사가 점차 기계화되고 일손이 점차 줄게 되어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을 늘릴 수가 있게 된 반면 노동력의 생산 비용은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박씨의 농사 규모는 점점 커져만 갔다.

또한 하우스 딸기를 논농사와 병행할 수 있게 되어 수익 증대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안정적인 농업정책이 절실히 필요

이제는 어엿한 대농이라 할 수 있는 박종대씨 부부는 요즘에는 쌀 농사를 지으려는 젊은이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

더욱이 UR이후로 농기계 구입 지원 보조가 끊어진 후 기계화 영농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젊은이들의 영농희망이 꺾일 때가 가장 안타깝다고 박씨는 말한다. 박씨는 농기계 보조 사업도 다시금 시행되고 쌀 수급 등의 문제도 안정



되어서, 힘들게 쌀 농사를 지으면 그만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종수



1963년생

주소 경북 김천시 양천동 전화번호 054. 435. 3225

기제화 영농으로 이룩한 부농의 꿈

경영체명 김천위탁영농센터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8년

경영규모 논 2만2,000평

순수익 1억5,000만원

경운기 1대로 시작, 순수익만 1억 5,000만원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 한밤중에 일하러 간다’는 농민이 있다. 바로 김천위탁영농센터 박종수씨.

쌀농사 2만2,000평에 한우 60마리를 키우고 가곡정미소를 운영하는 박씨의 1년 순수익은 1억5,000만원 정도. 모든 것이 ‘근면’과 ‘성실’로 일궈낸 성과다.

박씨의 어린 시절 꿈은 ‘부자 농민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이 소유의 땅이라고는 자갈밭 600평이 전부였다. 집안 형편이 이런 탓에 박씨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보일러 시공업자를 따라다니며 기술을 배웠다.

하지만 ‘부농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돈을 모았고 19살 때는 경운기 한 대를 장만할 수가 있었다. 이 때부터 박사장은 이웃농가의 ‘보리타작’, ‘논갈이’ 등을 하면서 농사일도 배우고 또 조금씩 땅도 장만해 나갔다.

“나락 10가마를 타작하면 1말을 샀으로 받았다. 내 땅을 얼마나 갖고 싶던지 돈만 마련되면 땅을 샀다”고 당시를 회고한다.

언제라도 할 일이면 지금하자

농작업을 대신하는데 익숙해 진 박씨는 '87년 이웃의 젊은 농업인들과 함께 김천위탁영농센터를 설립했다. 농작업을 규모화, 조직화해서 기계화영농을 시도한 것이다.

"당시에도 농번기에는 일손이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위탁영농설립센터를 설립하여, 농사작업을 대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위탁영농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한 것이 '90년대 초반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에서 훨씬 이전부터 기계화영농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때 회원들끼리 약속한 것이 '누구라도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언제라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 내가 해야 할 일이면 일찍 하자!' 였고 지금도 박회장은 이런 신념을 갖고 농작업을 대행하고 있다.

"농번기 때는 새벽 2시에 눈에 나가서 별을 보면서 일 할 때가 많다. 작업은 몰려 있고 약속과 신용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겸손해한다.

적기파종, 적기수확, 적기적작이 고소득 비결

박씨는 바쁜 사람이다.

쌀농사 외에도 4~6개월 간격으로 단기비육 출하하는 한우 먹이를 챙기고, 일주일에 한 번은 우시장에 나가서 가격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또 낮에는 도정공장에서 나가서 일을 한다. 사정이 이러하면 농사일이 소홀해질 법도 한데 농사일도 야무지게 자신의 몫에 전념한다.

이에 대해 최원명씨는 "박종수 회장은 계획했던 일은 끝내야 잠을 자는 사람이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남들보다 항상 소출이 많다"고 설명해 준다.

남보다 앞서가는 부지런함들이 박회장을 역대 연봉으로 이어지는 비결인 것이다. 적기에 맞춰 작업을 한 것 결국 박회장이 역대연봉을 올리는 비결인 것이다.

"다시 태어나도 농사꾼이 되고 싶다"는 박씨. 그를 두고 김천위탁영농센터 회원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진정한 농업 경영인이자 성공스토리의 주인공' 이라 자랑했다.





박종열



1953년생

주소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장안리 290-5 전화번호 031. 886. 1150 H.P 011, 737. 9391

관행농법에 의한 우수 품질 쌀 생산

홈페이지 www.realrice.com

E-mail

yeojussal@hanmail.net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2년

경영규모 논 1만7,000평

순수익 5,000만원

‘박리다매’ 경영마인드로 규모화 확대

박종열씨는 20대 후반까지 서울에 있는 회사를 다녔지만 빛 독촉에 못 이겨 여주로 귀향,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농업에 큰 뜻은 없었지만 “농사를 짓다 보니 애착을 갖게 됐고 농업도 규모화해야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으로 대규모 농지를 임차해 벼를 재배하는 ‘임차농’으로 출발했다.

현재 1만7,000평을 보유한 대농이 됐지만 국·공유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쌀을 생산하는데 ‘박리다매’라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건 기본이다. 요즘 유기재배 쌀, 기능성 쌀이 부각되고 있지만, 관행농법으로 우수한 품질을 만드는데 경제적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

기능성이니 유기농이니 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고품질 쌀이라지만 이 역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 따라서 정부가 검증할 수 없는 이들 쌀 생산을 유도하는 데 예산을 소모하기 보다, 고품질 쌀 생산기준을 설정해 관행농법의 다수를 위한 쌀 생산법을 보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무농약·무화학비료에 따른 생산성 저하보다 세계적인 추세인 저농약·저화학비료로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다.

친환경보다 고품질 쌀 기준 설정해야

박씨는 또 전국에 쌀 브랜드가 많지만 엄밀한 의미의 브랜드는 없다고 지적한다. 같은 브랜드라도 품질과 품종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주시 쌀전업농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년전부터 벼 품종, 재배기술, 토양관리기준, 수확 및 품질관리 등 ‘쌀 생산 기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같은 생산기반에서 같은 환경, 같은 생산관리를 하면 표준화된 쌀을 생산할 수 있고, 이 같은 신뢰는 소비로 이어져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고품질 여주쌀 생산계획과 판매전략을 마련해 쌀전업농 회원들과 함께 생산과 유통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특히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소비 형태를 감안해 10kg, 20kg, 40kg 포장단위를 소형규격(4kg)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고품질 벼 품종 개발, 규모화지원 등 문제 해결

“비싸고 잘 팔리는 벼 품종을 개발해야 합니다.” 지난해 일본 벼 품종인 ‘히도메버데’를 직수입해 농촌진흥청과 마찰을 빚기도 한 그는 “생산성 좋고 밥 맛 좋은 쌀을 개발한다면 굳이 수입을 하겠느냐”며 고품질 쌀 품종 개발에 더욱 매진하라고 조언한다.

그는 또 ‘박리다매’를 위한 규모화를 위해 농지를 구입하려는 농가들이 많지만 정부의 ‘규모화자금지원사업’이 현실적이지 못하여, 실제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농지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인 잣대로 일정자금을 지원하는 난점과 농지의 가치판단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산품 생산시 세금을 매길 때 생산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처럼 농지를 생산수단으로 가치를 인정, 조세는 물론 매매가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씨는 이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쌀값에 비해 비싼 인건비, 농기계값 등 생산성과 수입구조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규모를 줄여야 할 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실제로 올해부터는 농지임차하는 대신 생산성과 품질 향상, 인터넷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를 통한 유통활성화에 더 신경 쓸 생각이다.



米

박준용

농



1960년생

주소 전남 보성군 조성면 동촌리 70 전화번호 061. 852. 7168 H.P 011. 641. 7168

특색쌀 소포장 직거래로 판로 확대

경영체명 준용농장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8년

경영규모 논 7만평

순수익 8,000만원

95년 쌀 전업농 선정이 계기

쌀 전업농인 박준용씨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부친이 돌아가시자 어머니의 농사를 돕다가 중학교 때 아예 벼농사를 이어받았다.

그는 동생들 뒷바라지를 위해 고등학교 진학도 2년이나 늦게 했다. 벼농사에 모든 것을 걸기로 하고 농고에 들어가서도 수도작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다.

그가 벼농사에 전문적으로 뛰어 들 수 있었던 것은 '95년 쌀 전업농으로 선정되면서부터다.

이전부터 벼농사를 대규모로 짓고 싶었던 그에게는 좋은 기회였다.

현재 그의 벼농사 규모는 7만평이다.

지난해 태풍 피해 등을 입어 벼 3,000가마(40kg 조곡 기준)를 생산하는데 그쳤지만, 평년에는 4,500가마 정도를 생산한다. 여기에다 5만 8,000평에서 보리를 이모작으로 재배하고 있다.

흑미·찰벼 등은 소포장 가공해 직거래

지난해 그가 벼농사를 지어 거둬들인 순수익은 약 6,000만원이다. 보리 재배 소득 2,000만원까지 합하면 8,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태풍 피해를 입어 평년보다 20% 가량 줄어 든 것이고, 평년 기준으로 하면 쌀과 보리 농사로 연간 1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는 벼의 경우 판로를 세 가지 형태로 하고 있다. 즉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은 정부 수매와 농협에, 나머지 3분의 2는 각각 50%의 비율로 개인 미곡상회 판매와 소포장 가공을 통한 택배 등으로 직거래하고 있다.

특히 흑미와 찰벼 등 여러 품종도 재배하고 있다. 그가 위탁 가공해 소포장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은 주로 흑미와 찰벼이다. 또 찰벼는 현미 형태로 가공해 소비자 기호에 맞추고 있다.

그는 앞으로 소비자 직거래 형태인 소포장 가공 판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유통 경비와 상인에게 돌아가는 마진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찰벼의 경우 일반 출하는 80kg 들이 한 가마에 14만 5,000원 정도에 판매하지만 이를 현미로 가공해 3kg 들이 소포장으로 직접 판매하면 한개당 7,000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미로 가공해 소포장 판매하면 80kg 한 가마에 18만 2,000원 정도가 나와 3만 7,000원 정도의 차익이 생긴다.

이에 따라 그는 쌀을 소포장으로 가공해 아파트 부녀회, 교회 등과 직거래하고 보험회사 등에서 쌀을 고객 사은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판로를 다각화 하고 있다.

그는 10여 년 전부터 이처럼 소비자 직거래를 시작해 지금은 꽤 많은 단골을 확보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개인 도정 공장을 만들어 연중 판매 체계를 갖추고 주문 판매 직전에 도정해 쌀의 신선도를 높일 생각이다. 또한 농지도 10만평까지 늘려 더욱 대규모화 할 계획이다.



박지환



1962년생

주소 충북 청원군 오창면 성재 58-1 전화번호 043, 212, 9510

으뜸 농업인, 으뜸 농산물

경영체명 성재농장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5년

경영규모 논 1만3,000평

순수익 5,000만원

농산물 품평회 쌀 대상

청원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원생명쌀'이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규모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맛과 품질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청원생명쌀'이 명품 브랜드로 입지를 굳혀 가고 있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박지환씨이다.

지난해 서울무역센터에서 열렸던 제 11회 전국 으뜸 농산물 품평회에서 전국 각 시도를 대표해 출품된 전국의 쌀 중에서 박씨의 추청 벼를 청원 생명쌀로 출품,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또는 제 4회 전국 쌀 대축제 품평회에서도 청원 생명 쌀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러한 박씨의 노력 덕택으로 '청원생명쌀'이 명실공히 명품쌀로 자리매김 하게 된 것은 물론, 청원군을 포함한 충북 전체에도 명성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게을리 하지 않는 연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원군 4-H 회장으로 조직을 육성, 발전시키고 과학영농기술 습득 등 단체 활동을 통한 협동심을 고취하였다. 박씨는 '86년에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되고 '94년에는 쌀 전업농으로 선정되어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충북대 농과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수료하는 등 연구 및 자기 개발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박씨는 자신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터득한 농업기술과 친환경농업을 위한 발효가축 사육 기술을 이웃 농업인에게 보급하고, 자신의 논에 수도작 시범포

를 설치하여 주위의 농업인에게 신기술과 영농자재비 절약방법 등을 보급하고 있다.

또한 그는 쌀유기농 작목반장으로서 각종 기술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기술 도입 및 환경농업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고 관련 농업전문 서적도 빠짐없이 구해 보고 있다.

그는 농협에서 제공한 21세기 농업회계 프로그램 척척박사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계획적인 영농을 하고 있는 중이다.

선진농업 경영

그는 오창지역의 8개 작목반을 이끌며 107농가, 34만평에 쌀겨농법을 보급시켜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같은 친환경 농법의 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 향상과 지역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도에는 새농민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전국 으뜸 농산물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지역농협과 제휴를 통하여 '미중진미'라는 브랜드로 고품질쌀을 시판하여 판매 촉진에도 앞장을 서고 있다.





1941년생

주소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234 전화번호 041. 531. 2656

쌀농사 전문가로 충남의 수도작을 선도한다

주 품목 쌀

1,100명으로 시작한 수도작 농사

영농경력 31년

'72년 아버지와 함께 1,100평의 논으로 영농을 시작한 백청수씨는 '74년 10마리의 새끼돼지로 시작하여 '94년까지 약 20년간 양돈을 해왔다.

경영규모

다만 그는 양돈규모는 확대하지 않고 논 구입에 투자하여, 자작지 1만4,500평과 임차지 4,500평을 경작하고 있다.

논 1만4,500평

'79년의 양돈파동을 비롯, 여러번 어려움이 있었으나 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탓에 큰 피해는 보지 않았다.

조수입 7,000만원

벼짚은 모두 논으로 다시 환원

백씨는 벼농사도 품질싸움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백씨는 벼를 수확하면서 벼짚은 모두 논으로 다시 갈아 퍼놓는다. 또 남들은 4~5년 주기로 시비하는 규산질비료를 2년 주기로 살포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절대 질소질비료를 과잉시비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병해발생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도복이 심해지기 때문에 백씨는 쌀맛나, 단한번 등의 친환경비료로 추비를 줄 뿐이다.

이렇게 하면 벼짚의 양분을 고스란히 논으로 투입하여 다음해 벼가 건강하게 자라는 동시에 병에도 잘 걸리지 않을 뿐 아니라 태풍이 불어도 잘 쓰러지지 않는다. 더구나 벼의 생육이 건강해 농약살포를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백씨는 한 차례도 농약을 살포하지 않았다.

몇 년에 한번씩 찾아오는 굴파리나 벼 물바구미는 리젠트라는 농약으로 해결한다. 또 벼멸구는 후라단, 불가피한 문고·도열병과 도복시에는 기타진을 뿌리지만 거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수준으로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벼농사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친환경농업이 아니겠냐”며 백씨는 농사기법을 설명했다.

고품질 벼 생산으로 상당량 종자용으로 판매

쌀 판매는 농협으로 위탁 판매한다. 수확한 벼가 워낙 미질이 좋아 생산량의 20%가량을 종자용으로 판매한다.

지난해에는 거의 전량을 추곡수매의 1등급 수준인 6만원을 받았다. 총 조수익은 7천만원 가량 된다고 말했다.

전업농 충남도연합회장·아산시연합회장을 겸하고 있는 백씨는 본인 스스로 선도농가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종자용으로 사려는 사람에게는 싸게 판매한다.

백씨는 무농약품질인증을 추진함과 아울러 앞으로 3만평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농가 몇 명이 모여 고급미 생산과 작은 RPC를 운영해 소비자 직거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유통사업단을 구성하는 한편 쌀 품목조합도 결성할 참이다. 이같은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향후 아파트단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도농교류를 추진, 메뚜기잡기 등 각종 이벤트와 병행해 농외소득도 거둔다는 생각이다.





서용철



1957년생

주소 충남 아산시 선장면 궁평리 30 전화번호 041. 542. 0836

30만평 논 지배하는 실 틈 없는 영농회사 사장님

경영체명 선장북부영농회사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5년

경영규모 논 30만평

순수의 1억7,300만원

“벼농사는 제 농사의 모태”

충남 아산시 선장면 궁평리 일대.

사방이 탁 트인 드넓은 평야.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펼쳐진 들판에 경지 정리가 잘 된 논들이 어깨를 마주하고 있다. 벼가 자랄 때는 온통 그린 필드요, 추수를 앞둔 때는 황금물결이 넘실대는 장관을 이룬다.

이곳에서 태를 이어 벼농사에 땀을 흘리고 있는 서용철씨. 25년전 고등학교 졸업 후 유산으로 물려받은 논 1만평으로 농업에 뛰어들어 서씨는 지금은 쌀 전업농이자 영농규모가 30만평(자가소유 4만평 포함)에 이르는 '선장북부영농회사'의 어엿한 사장으로 변신했다.

어릴 때 꿈은 “정주영 현대 왕회장”

농업의 장래가 어둡지만은 않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농토를 늘린 결과, “선장면에서 최대의 농사꾼이 돼 정주영 회장처럼 헬기를 타고 논 위를 날아다니겠다”는 어릴적 꿈의 반

을 이뤄냈다. 10년전 설립한 영농회사의 현재 규모는 엄청나다.

우선 보유한 각종 농기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자가 소유 논 뿐만 아니라 영농회사에 위탁한 30여 농가의 벼를 병충해 없이 잘 기르기 위해 농기계를 거의 완벽하게 갖추었다. 농기계가 많다 보니 수명도 짧고 고장도 잦다.

그러나 웬만한 고장은 자체에서 수리가 가능하다. 웬만한 정비공장 못지 않은 수준이다. 서사장은 다른 영농회사보다 작업료를 싸게 받는다. 다른 곳이 논을 갈고 벼를 베는 데 평당 150원을 받는 데 반해 20원이 싼 130원을 받는다. 어려운 이웃을 배려한 조치다. 벼 농사로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은 조수입이 4억 여원. 이 중 1억여원이 순수익으로 떨어진다.

조수입에 비해 순수익이 적은 것은 상시 고용 5명, 많을 때는 20명이 넘을 정도로 팔린 식구가 많은 데다 기름 값 등 각종 생산 원가가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사장의 1년은 너무 짧다. 봄부터 겨울까지 쉴 틈이 없다. 영농철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농한기라는 겨울철도 바쁘기는 마찬가지다. '벚짚 사업' 때문이다.

가공 유통까지 쌀 산업 전 분야 석권이 목표

드넓은 논에서 자란 벼는 벼대로, 벚짚은 벚짚대로 그에겐 소중한 수입원이다.

8톤 트럭 한 대 당 55만원에 아산, 천안 등지에 판다. 강원도에 있는 목장에 납품하면 70만원은 받을 수 있지만 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인근 목장에 판다. 이렇게 해서 1년에 벚짚으로 벌어들이는 조수입은 대략 1억7000만원 정도. 이 중 기름 값 등 제비용을 빼고 나면 7,000만원의 순수익이 남는다. 그러나 이 사업도 점차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

벚짚 값은 매양 같은 값이고 수송비 등은 계속 오르기 때문이다.

서사장은 요즘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

"농업도 경영이다. 옛날처럼 육두문자를 써가며 하던 시대는 지났다. 현실에 걸맞는 새로운 도전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같은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미곡종합처리장 건설. 물론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지만 기필코 이 구상을 추진해 쌀의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까지 완전히 섭렵하겠다는 야무진 각오다. 아울러 '서용철표 쌀'의 조속한 등장을 기대해 본다.





서정수



1952년생

주소 전남 함평군 엄다면 성천리 754 전화번호 061. 322. 7331

맨손으로 일궈낸 황금빛 풍요

주 품목 쌀, 보리
영농경력 28년
경영규모 논 3만평
순수익 6,000만원



땀방울 곳곳에 흙땀 배인 3만평

서정수씨는 주변에서 소문난 '대농'이다.

그가 벼농사로만 해마다 거두는 순수익만 해도 4,0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서씨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던 '75년의 사정은 너무도 달랐다. 논 한 패기 없는 소작농으로 남의 농사를 도와가며 생계를 이어갔다.

'79년, 그의 남다른 근면과 성실함을 높이 산 동네 어른께서 보증을 서주어 트랙터를 구입했다.

이때부터 '내 땅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전진이 시작되었다.

부인과 결혼한지 8년이 지난 '89년에서야 자신의 논을 갖게 됐지만 서씨는 자신의 논 1만 2,000평을 포함한 모두 3만평의 논에서 쌀과 보리농사를 짓고 있다.

“농사는 믿음으로 짓는 것”…원칙 지켜야

“동네 어르신들은 그냥 비료다, 퇴비다 해서 무조건 많이만 넣으면 좋은 줄 아셨죠. 하지만, 제가 표준소비량을 지켜 논에 비료를 적게 넣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모두 따라 하시더군요.”

서씨는 논 2만평에 이모작 작물로 보리를 재배한다. 나머지 1만평중 5,000평에는 자운영을 심어 지력을 높이고 배수가 잘 안되는 나머지 5,000평은 그대로 겨울을 나도록 한다. 밭질, 보리질 등 논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논에 돌려주는 외에도 3년마다 한번씩 규산질 비료를 넣고, 5년에 한번씩 퇴비와 왕겨를 충분히 넣는다.

많은 면적의 벼농사이어서 비료나 농약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서씨는 가능한 한 농약과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농사를 지으려 애쓰고 있다. 화학비료는 토양검정 결과에 맞춰 매년 논 200평 기준으로 20kg 한포대의 쌀 전용 복합 비료를 넣고 있다. 철저한 병해 소독과 육묘상자 방제에 힘쓰고 특히 어린모 단계부터 병해충 발생을 최대한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모를

길러 농약 사용량을 줄이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도시 직거래 망 확보에 주력

서씨는 4년전 오리농법을 시도했지만 판로가 없어 결국 포기했다고 말한다. “오리쌀이 일반 재배 쌀에 비해 왜 비싼지조차 모르던 소비자들의 냉담한 반응을 보고 실망이 컸다. 친환경 농산물의 홍보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800여마리나 되는 오리들도 팔 곳이 없어 남들에게 거저 주다시피 했다고 한다.

서씨는 “200평당 벼 8가마였던 수확량이 지난해 백수피해로 6분의 1 가량 줄어든 데다 올봄에 보리 수매량까지 줄어들게 되면 소득이 많이 줄 것 같다”며 걱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도 서씨는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들과의 교류를 넓혀보려는 시도를 활발히 펴고 있다. 아직은 미미하지만 서울, 광주, 부산 등지의 15곳과 쌀 직거래를 계속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다.

4년째 이장으로 봉사하며 지역 쌀의 고품질화에 함께 앞장서고 있는 그는 아직 컴퓨터를 쓸 줄 모르지만 기회 닿는 대로 전자상거래 교육에 참여할 계획도 갖고 있다.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흠을 가꾸며 정직하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고품질의 쌀과 보리 생산에 전념하다보면 보람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한다.





서종석



1951년생

주소 전북 익산시 준포면 쌍장리 287 전화번호 063. 291. 2325

친환경농법 경험, 널리 알리고 싶다

경영체명 만나영농조합법인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0년

경영규모 2만 6,000평

순수익 8천만원

유기질 비료 사용, 신기술 접목

서종석씨는 학교를 졸업하고 20년간 농업에만 종사하면서 경종·복합영농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남보다 앞선 선진기술 수용과 실천에 앞장서 왔다.

서씨는 점차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 저공해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단위 면적당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6,100평의 땅에 상추, 쌈 모음, 풋고추, 오이 등 과채류를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과수도 저농약재배를 시도하여 친환경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자신감이 붙은 서씨는 논에 오리를 방사하여 청정쌀을 생산할 수 있겠다는 판단 아래 1,200평 논에 오리를 풀어 쌀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오리농법으로 친환경쌀생산 기술 터득

오리를 방사한 결과 잡초제거 효과가 뛰어났으며, 벼대가

튼튼하게 자라고 무효분열가지가 일찍 제거되어 문고병 등 다른 병해충 발생도 적었다. 오리가 배설한 분뇨도 양질의 유기질 비료 공급원이 되어 땅심을 높여 주었다.

유기농 쌀 생산에서 가장 어려운 제조작업을 오리가 대신해주어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었다. 오리가 지은 농사라고 쌀값도 높게 쳐주니 일거양득이었다. 처음엔 오리가 어떻게 김을 매는가? 피도 뜯어 먹을까 등 궁금증이 많았다.

이러한 의문들은 오리를 길러 보고서야 깨끗이 해결 되었다. 모를 심은지 20여일 정도에서 20일령 오리를 넣으면 흙탕물을 일으켜 잡초싹이 발아되지 않고 올미와 같은 씨앗은 오리가 먹어 잡초는 나오지 않았다.

또한 나방이나 잠자리도 뛰어올라서 잡아먹었고, 흑명나방은 벼를 건드릴 때 놀라 떨어지면 잡아먹어 대멸구 등 해충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먼저 오리가 잡초를 모두 제거한 것으로 착각하여 씨레질을 잘못해 높고 낮은 곳이 발생했는데 높은 지역은 물이 없어 잡초가 많아졌다.

그리고 넓은 논은 오리가 고루 다니지 않는 경우가 있어 칸을 막거나 나이 차가 있는 오리 무리를 넣어야 햇볕도 쬐고 깃털을 손질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했다. 또한 족제비와 너구리 같은 천적을 막기 위해 차단막을 설치해야만 했다.

앞으로의 계획

서씨는 현재 과채류, 과수류는 서울환경농업단체와 1년간 계약체결하여 재배하고 있고 친환경 쌀은 직거래로만 판매를 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을 함으로써 토양을 살리고, 품질도 고급화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히는데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米

손부남



1942년생

주소 경기 여주읍 삼교 1리 312-5 전화번호 031. 884. 5772 H.P 011. 742. 5772

톱밥사료를 이용한 자연란이 희망을

경영체명

식물나라유기농 영농조합법인

주 품목 유기농 쌀

영농경력 30여년

경영규모 15,500평

순수익 약 2억원

톱밥에 효소를 뿌리면 냄새가 안나

손부남씨는 완구점, 생과자점, 양화점 등을 하였으나 별로 신통치 않아 '70년대 초 귀향하여 형의 땅 6,000평을 빌려 새로운 영농터전을 마련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농사짓고자 노력했다.

'84년에는 톱밥사료를 이용한 자연란 생산을 시작으로 항생제와 성장호르몬제를 전혀 넣지 않은 사료와 발효사료를 만들어 사용했다.

또한 톱밥을 깔고 효소를 뿌리니 냄새가 나지 않았다. 손씨의 시도에 자극받은 주변의 10농가 등이 참여하여 작목반을 결성하였으나 처음엔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우수한 품질이 알려지면서 지금은 풀무원에서 전량 구매하고 있으며, 자신감을 얻은 손씨는 본격적으로 쌀 농사에도 유기농법을 적용하여 계분에 왕겨나 짚을 깔아 자연 발효된 퇴비를 논에 사용하였고 오리농법과 전해수농법을 통해 잡초와 병충해를 해결하여 지금은 유기농산물 전문 유통업체인 새농(주)과 동원유통에 전량 공급하고 있다.

흙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

흙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선진농업을 습득하기 위해 뉴질랜드, 독일, 스위스, 일본 등지를 다녀오는 등 친환경·선진농업 기술습득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00년에는 해외연수 때 인연을 맺은 일본과 독일의 전문기술 센터를 통해 초청하여 기술지도를 받았다.

심수농법, 쌀겨농법 등 친환경농업에 대한 강한 애착과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으며 이런 손씨의 사례가 각종 언론에 소개된 적도 많았다.

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제고와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보다 확실한 판로확보는 바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소비자 부녀회원들과 자녀들이 참여하는 논오리 방사 시연회, 메뚜기 잡기 행사, 어린이 손모내기운동을 벌이는 등 현재 여주군 여주읍 삼괴리는 친환경 시범마을이자 친환경농업의 교육장이 되어 전국 각처에서 견학을 오고 있다.

믿고 찾는 소비자 신뢰 회복에 온힘을

현재는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판매를 유통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편이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판로망을 개척중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생산지에 직접 와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종 시연회·행사 개최, 주말농장 등을 계속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온힘을 기울일 생각이다.





송명재



1945년생



주소 전북 군산시 신복동 168 전화번호 063. 462. 1090

자연건조 형태 바람건조로 건조한 쌀

경영체명 송이농장

주 품목 쌀, 보리

영농경력 22년

경영규모 논 5만1,000평

순수의 1억2,000만원

수도작 기계화 사용을 위한 노력과

젊은 시절 장항 제련소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송명재씨는 지난 '81년 군산시 원산복의 4,000평 논에 쌀농사를 시작으로 전문 수도작 농업인이 됐다.

경험없이 농사를 시작해 초창기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주위로부터 많은 도움과 농업기술센터의 영농교육에도 빠짐없이 참가해 논농사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 나갈 수 있었다.

'83년부터 영농기계화 단지를 추진하면서 기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제는 지역 환경에 맞게 개발까지 할 수 있는 프로 수준이다.

농촌의 노령화와 이농현상을 지켜보면서 일찍부터 기계화를 준비한 결과이기도 했다.

현재 보유한 농기계현황은 건조기(50~100석), 트랙터(50ha), 이앙기 6조(2대) 등 10여종에 이르며 자체 환경에 맞게 개발한 농기계와 개발 중인 기계도 있다.

연중 미질 좋은 햇쌀 공급



평야지역이라 수도작을 선택해 22년간 노력한 결과 논이 5만1,000평으로 늘었으며 연간 60kg 1기준으로 2천 가마를 생산하고 있다.

순수 쌀 농사만 했을 때 연간 순수익은 영농비를 뺀 1억2,000만원 수준이고 보리를 혼합재배하면 연간 순수익은 1억5,000만에 이른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북지역 후계자 연합회장을 지냈으며 농업기반공사의 쌀전업농 표창을 비롯해 전북도지사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

송씨가 이렇게 쌀전업농으로 성공하기까지는

농업에 투신 후 오로지 한 길만 걸어온 우직함과 부인 이명순씨가 불평 없이 내조해준 결과라고 말한다. 송명재씨가 영농규모를 점차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기반공사가 20년 상환으로 빌려준 영농구입자금이 많은 도움이 됐다. 최근에 농산물 수입이 개방화 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앞으로 3만평 규모를 확대해 보리재배와 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쌀건조기 연구개발에 투자해 사시사철 햇 쌀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계획으로 기존의 열건조기가 아닌 현재 자연 건조기에 가장 가까운 형태인 친환경 바람건조기를 사용해 미질을 최상급으로 올릴 꿈을 이룩하고자 노력 중이다.

자체 브랜드화 상품개발 주력



송씨는 자체 브랜드 상품화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상품화 개발 교육을 받는 등 유럽지역의 네덜란드, 스위스 등 농업선진국 견학도 다녀왔다.

새로운 재배 동향 정보교류와 수도작 농가들 간의 의견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고받으며 전국 어디에서도 쌀재배에 관련 된 문의와 상담이 들어오면 기꺼이 응해주며 미질 좋은 친환경 유기재배 농사로 소비자가 알아주는 상품개발에 주

력하길 당부한다. 송씨는 농사꾼은 농사를 지어 출하까지만 걱정하고 이후 판매는 정부가 주도하는 체제로 농업인은 농사에만 전념했으면 한다고 말한다.

또한 농업기반이 열악한 우리나라가 수입 농산물에 대응해 경쟁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이 상태로 농산물이 완전 개방되면 우리 농업이 더욱 어렵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농사를 지어 오는 동안 지금이 어려운 시기라 보이지만 농업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지역 특산품 브랜드화와 정보화 시대에 맞는 마케팅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米

송중현



1959년생

주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1101 전화번호 031. 984. 3095

5,000년 전통 김포 쌀 지킴이 될 터

주 품목 쌀, 찰쌀보리

영농경력 15년

경영규모 논 1만9,000평

순수의 3,000만원

농약 안전사용 준수 고품질로 승부

“우수한 김포 쌀의 정통성과 고품질 김포 쌀을 소비자에게 새롭게 인식시키고 세계에서 가장 밥 맛있는 쌀을 생산하는 것이 꿈입니다.”

김포에서 1만8,000평의 벼농사를 경작하는 송중현씨는 이렇듯 김포 쌀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벼농사에 승부를 걸고 있는 농업인이다.

'78년 서울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김포 고향에서 6,000평의 벼농사를 시작으로 '92년 1만8,000평으로 규모를 늘려 선도 농업인으로 기쁨을 마련했다.

그는 '93년 농촌 지도자 회원으로 선정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오면서 쌀 농사는 고품질로 승부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확실한 신념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에 혼신의 정열과 힘을 쏟았다. 이를 위해 농약 안전 사용 준수로 미질을 높이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업기계화에 앞장서 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 오고 있다.



찰쌀보리 재배 성공, 농가 소득 배가

특히 그는 벼농사에만 소득을 의존해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김포에서 재배하기 어렵다는 찰쌀보리재배에 성공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했다.

이를 위해 수년간의 재배시험을 통해 경제적 손실과 힘든 일을 마다 않고 찰 쌀보리재배에 성공하여 '98년 10명의 회원을 모집, 5만 평의 보리재배 단지를 조성했다.

여기서 생산된 찰 쌀보리는 주변 아파트단지 부녀회와 직거래를 통해 전량을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5만평의 재배면적을 더 늘려 새로운 소득원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송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쌀의 직거래를 위해 서울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면서 김포 쌀의 명성에 걸맞게 높은 가격으로 직거래를 실현하고 있어 개방화 시대에 우리 쌀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그는 농산물의 생명은 품질에 있다며 동네는 물론 관내를 순회하면서 농약 안전 사용 준수를 계도하여 친환경 쌀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쌀 농사 규모화가 쌀 산업 지킬 수 있어

“개방화 시대에 우리 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쌀을 먹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씨는 미국, 중국 쌀이 아무리 값싸게 들어와도 우리 농업인들이 양질의 안전한 쌀을 생산한다면 우리 쌀이 결코 경쟁력에서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하루속히 쌀 농사의 규모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송씨는 일부 노령농가와 부녀농가의 눈을 입차 또는 구입하여 벼농사를 3만 평 정도로 늘리고 찰쌀보리 재배도 더 늘려 쌀 농사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포 쌀의 우수성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신호철



1957년생

주소 경북 경산시 자인면 울옥리 387 전화번호 054. 856. 2874

평생 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영체명 동환농장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0년

경영규모 논 9만평

순수익 3,000만원

농사는 인생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경북 경산시 자인면 울옥리에 자리잡은 동환농장 주인인 신호철씨는 집안 대대로 농사를 지었고, 그 자신도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영농경력이 30년이 넘는 베테랑인 신씨는 9만여평의 논에 쌀농사를 지어 연간 3,000만원의 순소득을 올리고 있다.

오래 전부터 신씨는 농사에 평생을 바칠 것이라고 장담해 왔다. 자신이 흘린 땀방울만큼 수확이 있을 것이라는 땅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생물인 벼도 주인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돌보느냐에 따라 수확이 많아질 수 있다고 한다.

농사도 정보가 중요

현재 벼를 심을 때 벼와 찹쌀을 혼합해서 심고 있는데, 그 결과 생산량은 줄어들지만 판매는 더 잘되고 있다고 한다.



생산된 쌀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판매하여 판매에는 문제가 없지만 배달을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농협 측에서 '옹골찬' 상표를 권장하고 있고, 신씨 또한 브랜드화의 필요성과 그 이익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포장비와 기계사용 등의 문제로 실질적으로는 힘들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자신만의 고유 브랜드를 만들어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앞으로 쌀 전업농으로 전환을 생각하는 신씨는 “결국 농사도 이제는 정보가 많고 빨리 찾아내는 사람이 유리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정보화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컴퓨터를 배우고, 교육을 받으며 주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정보화된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한다.

어려운 현실이지만 내가 가야할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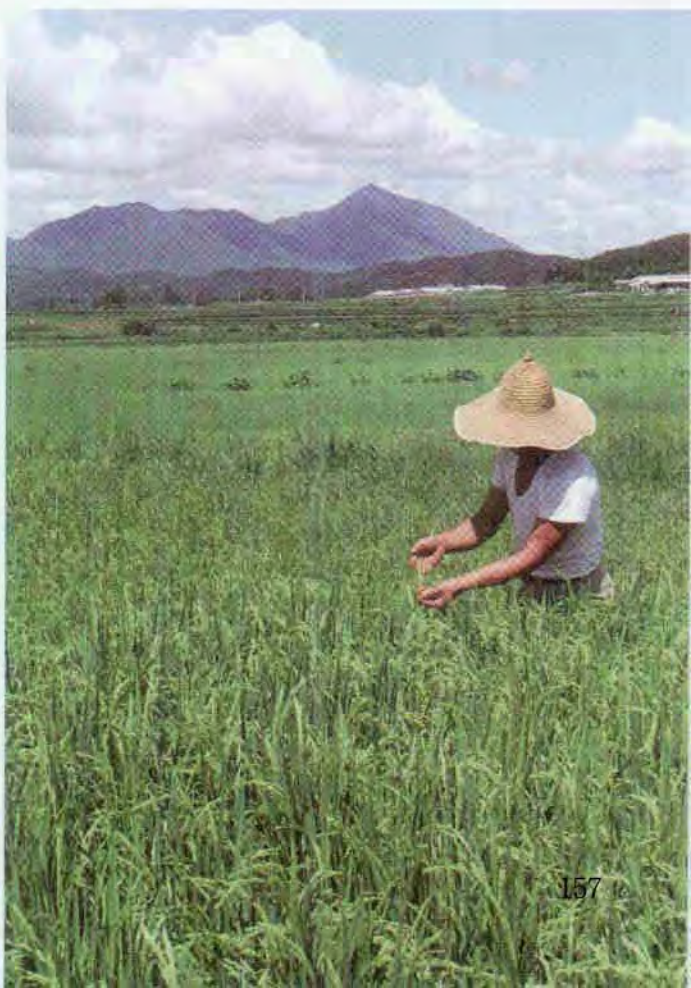
신씨는 농사를 지으면서 무엇보다 어려운 점은 인력난 이라고 한다.

인건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고용 가능한 인력들도 50대 후반으로 고령화 되어 있고, 농번기 때는 인력을 더더욱 구하기 힘들다고 하소연 했다.

현재 판로는 정부수매로 60%, 농협 또는 개인이 40%인데 작년의 경우에는 태풍으로 인한 수해 때문에 농협에 판매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또한 농기계 가격이 비싸 교체하기가 어렵고 위탁경영을 시작한 이후로는 그나마 있던 보조금도 않나오게 되어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고 한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농사에 평생을 투자하려고 한 초심을 그대로 간직하고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는 신씨의 모습은 아마 이 땅의 농민들의 농업에 대한 애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심원일



1952년생

주소 경남 남해군 서면 대정리 1455 전화번호 055. 862. 2185

풍년농사의 꿈으로 한여름 더위 잇는다

경영체명 부부농장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5년

경영규모 논 7ha

순수익 5,000만원

특기사항 농림부장관상

꾸준한 정보획득과 실천의식

심원일씨는 젊은 시절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사꾼이 되었다.

농사 초기에는 지역 특성상 잦은 태풍과 병충해로 인하여 수확량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대규모 농사를 짓겠다는 꿈을 조금씩 실현하여 현재는 7ha에 이르는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이 넓은 경지를 부부 노동력만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경영체 이름도 부부농장으로 명명하여 남해 지역 뿐 아니라 경남 지역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배움을 향한 그 외 열정은 끝이 없어 현재 진주산업대의 작물생명과학과에 재학중이며, 농촌 들판에서 배운 지식과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벼농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직접 선택하며 저농약, 저비용을 통하여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

자기만의 경영방식을 개발해라



심씨는 벼 파종시기를 타 농가와 차별을 두어 35일경에 파종하여 배유양분을 30~40%를 가지고 본답에 심기 때문에 다른 벼보다 저항성과 병충해에 강하다고 한다.

이러한 경영방식을 통하여 튼튼한 벼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원동력은 철저한 경영기록과 과학영농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부부농장의 경우에는 100% 정지정리가 된 수리 안전답으로 각 필지마다 대형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

수확철이 되면 농장에서 수확한 쌀을 건조기를 통하여 24시간 건조를 시키고,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언제든지 출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농업도 규모화를 하지 않으면 농기계를 사용한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다고 심사장은 말한다. 벼 파종이나, 수확기때 사용되는 농기계는 농번기때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몇 달에 걸쳐 사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규모화 하여 그 이용율을 높여서 손익분기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의 기본과 정보공유를 통한 경영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인 땅심이 좋아야 하며, 벼에 공급하는 물도 중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벼 수확후 규산질 성분을 함유한 벗짚을 잘게 잘라 사용하여 따로 비료를 첨가하지 않아도 땅심을 유지할 수 있다. 2기작을 통하여 마늘과 맥주맥을 파종하여 유기질함량을 높이고, 수익도 높이고 있다. 일사량이 많고 해풍이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자란 벼의 수확으로 미질과 밥맛이 좋은 쌀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는 남해 쌀전업농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회원농가와 우수한 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그는 안정된 쌀 판매를 위하여 밀양농업시험장과 협력하여 남해의 자연환경 특수성을 살린 브랜드를 만들어 출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米

심한섭



1952년생

주소 경남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340 전화번호 055. 583. 9241

기계화 작업과 규모화를 통한 쌀전업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3년

경영규모 논 4만평

순수익 6,000만원

5만여평 농지에서 1억3,500만원 조수익 올려

“국내의 농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사정은 아닙니다만 농지까지 규모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인구가 계속 줄고 노령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은 대규모화와 기계화를 앞당기지 않으면 희망을 잃을 수 없습니다.”

'90년부터 농지의 규모화를 이루며 지금에 이르러서는 5만여평의 논에서 1억3,500만원의 조수익을 거두고 있는 심한섭씨는 순수한 전업농이다. 수도작을 한다지만 시기에 맞춰 각종 작물로 하우스 재배를 하는 여타 농업인들과는 달리 쌀농사 한 분야로도 충분히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고 자신한다. 학업을 많이 할 수 없었던 것은 모친의 병환이 원인이었다. 열여섯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열아홉까지 어머니의 수족역할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소년가장으로 농사일에 뛰어들었다. 영농경력으로 따지자면 33년 동안 농사로 뼈마디를 키웠다.

병구완하며 소년가장으로 농사일 시작

그렇지만 농사를 통해 남동생 둘과 여동생 하나를 시집 장가보내기까지 먹여살리며 공부 시켰고 지금의 생활적인 여유까지 덤으로 얻었다. 농지의 규모화를 이룬 동기는 '88년 가아읍에서 마름으로 있던 사람이 자신에게 40마지기의 논을 소작으로 주면서 비룻됐고 농지개량조합장이 1만400평을 임차하면서 확대됐다.

밤낮없이 일에 전념하고 노력한 덕분에 자작농을 한두평 늘려가면서 점차 농토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된 그가 규모화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큰 부담으로 느낀 것은 뭐니뭐니해도 커다란 목돈이 들어가는 농기계 구입. 3000만원까지 호가하는 콤팩트 6대와 1000만원대의 이앙기 6대, 트랙터 3대, 건조기 등만을 계산해도 웬만한 아파트 한 채값이다.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계화 작업을 통해 대규모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지가 초기 시설투자비용을 쏟게 만들었다.

제 1회 쌀축제에서 전국 3위 입상

이와 같은 기계화를 통해 심한섭 씨는 주변 농경지까지 포함하여 일손을 덜고 있다. 농번

기에는 모내기 8만평, 탈곡 13만평을 도맡아 자신의 부지런함을 지역주민들에게 각인시켰다.

특히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군북면 회장을 13년째 맡아오면서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을 향한 노력의 대가는 여기저기서 빛을 발했다.

지난 '99년 농업기반공사에서 규모화 영농상을 수상했으며 제1회 쌀축제에서 전국 3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 5회 농업인의 날 부대행사로 펼쳐진 전국 쌀 대축제에서는 출품인증서를 획득하기도 했다. 현재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과 2004년 쌀시장 개방 재협상 등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그의 희망은 여전하다.

“쌀품목 하나로도 충분히 경쟁력있는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농업인들에게 내 보이고 싶은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쌀 부문 역시 점차적으로 개방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면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영농법인을 만들 생각입니다. 품질 면에서 이름값을 하는 쌀 브랜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맛있는 쌀밥의 진수를 보여준다면 아무리 쌀시장이 개방될지라도 국내 농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리라 봅니다.”





안수환



1952년생



주소 경북 의성군 단북면 정안3리 824 전화번호 054. 861. 0344 H.P 016. 862. 0344

논 다섯 마지기로 시작해 대농으로 발돋움

주 품목 쌀

25년만에 1만8,000평 농지 확보

영농경력 25년

경영규모 논 1만8,000평

순소득 3,000만원

지난 '81년 대구에서 귀농한 안수환 씨. 귀농할 당시 그는 번번한 집 한 칸도 없이 고향인 단북면에 터를 잡았다. 성실하고 근면한 그는 겨우 논 다섯 마지기로 시작해 25년만에 1만8,000평의 농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대구에서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도시는 날마다 같은 자리에 출근해서 기계처럼 움직여야 하지만 시골은 상대적으로 생활이 자유로울 것 같아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안씨는 도시에서 생활할 때도 항상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수확하는 기쁨을 맛보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경운기 한 대도 없이 시작한 농사일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경운기 한 대 없이 시작한 농사

그가 맨몸으로 부딪혀 배운 농사일은 이웃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해낼 수 없는 것이었다.

모 한 포기 제대로 심어보지 않은 그에게 이웃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달려와 안씨를 돕곤 했다. 그는 낮에는 손과 눈으로 농사일을 익혔고 밤에는 책과 씨름하며 다양한 농업이론을 습득해나갔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영농일기를 적으며 조금씩 농촌에 정착해 갔다.

하지만 그는 농사에 사람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가 정착한 단북면은 의성군에서 황토쌀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었다. 하지만 유난히 비가 많이 왔던 지난 '98년 그의 눈에 누렇게 익은 이삭은 추수를 목전에 두고 고스란히 물에 잠기고 말았다. 천신만고 끝에 40%만 전질 수 있었다는 안씨는 그때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다.

“농사는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약을 뿌리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약을 뿌리지 못하게 되고, 병충해가 심해져 수확에 차질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농한기 부업으로 농가 소득 높여



농한기인 겨울철에도 그는 절대로 쉬는 법이 없다. 인근 지역 농지정리사업 등 부업거리를 찾아 부지런히 나서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사 성실하게 일한 탓에 겨울철이면 여기저기서 그를 찾는 손길이 많아 농한기에도 그는 쉴 틈이 없다.

그에게는 엄격하게 지키는 생활철칙이 있다. 마땅한 부업거리가 없는 농한기에도 공연히 삼삼오오 모여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그가 유일하게 사치를 부리는 것이 있다면 아코디언 연주하기이다. 음악을 좋아하는 그를 위해 부인이 큰 마음먹고 선물한 아코디언을 연주하며 지루한 시간을 달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취미이자 낙이다.

단북면 새마을지도자이기도 한 그는 지난해 모범지도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웃 모으기, 고철 모으기 등 각종 재활용품들을 수집하고 독거 노인들을 위해 집수리를 해주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앞장선 공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갈수록 쌓여 가는 농가부채가 가장 큰 걱정이라는 안씨는 농림부에 신선한 제안 한 가지를 한다. 추수기를 지난 매년 12월에 일괄 시행되는 연말정산을 이듬해 4월, 6월, 7월 등으로 나누어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업인들은 이자상환을 위해 혈값에 쌀을 팔지 않아도 되므로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米

안승갑



1957년생

주소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3리 656-18 전화번호 033. 455. 7856

고품질·다수확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

경영체명 순흥농장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3년

경영규모 3만6,000평

조수입 1억원

농사의 기본은 땅심 높이기

안승갑씨는 강원 철원의 민통선(DMZ)안에서 벼를 재배한다. 농사경력 23년째인 그는 벼농사에 관한 한 주위에서 알아주는 전문 농업인이다. 이 지역 벼농사 기술수준을 한 단계 높여 철원 청결미의 성가를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는 말을 듣고 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새농민상 등 많은 상을 받기도 한 그의 벼농사 비법은 과학영농이다.

그는 특히 “농사의 기본은 땅심”이라는 확신아래 철저한 흙 가꾸기를 하고 있다. 그의 이런 생각은 군 제대후 고향에서 주민들과 함께 다수확으로 승부를 내겠다는 각오로 당시 농촌지도소의 지도를 받아 4-H활동 등을 하던 영농 시작단계부터 가졌다.

그 무렵 영농기술을 익히고 신품종 종자를 공급받아 재배하는 등 정성을 기울였지만 수확량이 형편없었다. 의욕에 비해 결과가 좋지않은 원인이 토양의 생리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마을공동 퇴비증산운동에 앞장서는 등 땅을 비옥하게 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다.

토양검정에 맞춘 시비로 지력증진



이 때부터 안씨는 석회·규산질비료 같은 토양개량제를 정기적으로 넣고, 해마다 토양검정을 반드시 받는다. 토양분석 결과에 따라 BB비료(맞춤비료) 등을 시비함으로써 작물이 자라기에 좋은 토양을 만드는데 공을 들인다. 범시 품종이 아무리 좋고 육묘기술이 뛰어나도 땅심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꾼 그의 논은 병충해는 적고 수확량은 많다. 태풍·수해로 얼룩졌던 2002년에도 10a(300평)당 쌀 540kg을 수확하여 대풍을 기록했던 2001년 전국평균치(10a당 516kg)보다도 많다. 지난해의 경우 3만평 논에 농약은 단 한차례밖에 치지 않았다. 오리농법 등을 해가며 저농약인증을 받지 않는 않지만 오래전부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안씨는 이 지역 농가 대부분이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육묘·시비관리 등의 기술이 일정 단계에 올라선 데다 청정지대라는 천혜의 재배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영농회장을 비롯해 농협 대의원 및 청년부장, 시설채소작목반장, 쌀작목반장, 지역농업경영인 회장 등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왕성한 대외활동을 해온 그도 '96년과 '99년 두차례의 수해로 혹독한 시련을 맞기도 했다.

농기계 100% 활용, 조수익 극대화

시련을 앞당겨 극복한 비결은 대외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농사에 전념하면서 일찍이 기계화 영농을 한데 있다.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효율을 높인 것이 대표적인 예다. 트랙터 2대를 비롯, 웬만한 농기계는 다 갖추고 있는데, 전부 모두가 농기계 전문기술자라는 평을 듣는다. 수확철에는 4조식 콤바인으로 무려 논 20만평 이상의 수확작업을 대행한다. 철원지역은 9월 중순이면 벼베기가 끝나기 때문에 경기·충청 등지까지 내려가 수확해주면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조수입을 올린다.

벼농사 3만평외에 4,000평 배추를 재배하는 안씨는 “몇 년간 묵혀두었던 비닐하우스를 올해 우선 두채(300평)만 다시 시작할 생각”이라며 “조만간 마을단위 농외소득개발을 위해 도시민을 위한 휴양시설도 직접 설계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현



1965년생



주소 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 418 전화번호 055. 972. 3351

신뢰를 바탕으로 일구어낸 영실청결미 생산

경영체명 영실청결미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0년

경영규모 논 3만평

순수의 1억원

위기에서 희망으로 바꾸어 준 벼농사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과수원을 경영하시는 모습을 보며 영농의 꿈을 키운 안재현 사장은 20살 때부터 과수원을 물려받아 과수원일을 시작으로 농사에 첫발을 내디뎠다.

시설재배가 낫다고 판단한 그는 17년전 1만평 규모의 과수원을 정리하고 3,000평 규모의 딸기 하우스로 전환해 높은 부가가치를 올렸다. 그런데 높은 수익을 올려주던 딸기 하우스 농사가 고비를 맞게됐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마음의 아픔 뿐 만 아니라, 영농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 부모님과 함께 딸기를 재배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었지만, 두 분이 떠나면서 노동력의 부족이 절실하였고, 결국 안씨는 과감한 선택을 다시 하게 되었다.

그것은 농촌에서 일손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로서 생산 가능한 작물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벼농사였다. 90%이상이 기계화 되어있는 벼농사는 그를 때로시키기 에 충분하였다.

‘영실청결미’를 만들기까지

안씨는 기계화 영농과 더불어 지금의 농업기술센터로부터 3,000만원을 융자받아 청결미 사업을 시작했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도정허가도 나지 않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그는 청결미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그후 양곡법이 개정되면서 청결미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한번의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

부지비용을 제외하고 공장 건립비 4억원을 투자해 ‘영실청결미’라는 브랜드와 도정공장을 세웠다. 물론 부부가 3만평의 벼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해 같은 방식으로 벼농사를 지을 것을 약속한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하고 농가들의 쌀을 수매해 판매하고 있으며, 화학비료의 양을 줄이기 위해 한우를 키워 여기서 생산된 축분을 땅에 되돌려 주는 방법을 통해 땅심도 키워나갔다.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소비자



’99년 ‘영실청결미’라는 브랜드를 만든후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판매문 제였다.

처음에는 주위의 사람들을 이용해 알리고 있었는데, 시작한지 1년만에 위기를 맞이했다. 자신을 믿고 같은 방법으로 벼농사를 짓기로 하고 계약 재배한 농가의 벼 2,000석을 배입했는데 가격은 하락하고 재고도 1,000 석 정도 남게 되었다. 이것은 재고로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 그동안 차입한 경영비용의 이자와 벼 품질 하락이 우려됐다. 안씨는 손해를 입어도 최대한 빨리 처분하는게 나을 것이라고 판단,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처리한 것이다.

안씨는 손해를 입어도 최대한 빨리 처분하는게 결국 이 위기를 견디어 내었고 입소문과 입소문을 통해 전달된 ‘영실청결미’는 전국의 개인과 식당

으로 판매망을 넓혀가고 있으며, 현재 연간 1억원 정도의 흑자를 내고 있다.

“앞으로 현재 3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부부가 기계화의 힘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규모인 5~6만평 규모로 넓히고 영실청결미의 밥맛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씨는 다짐하고 있다.

米

안효근



1942년생

주소 전남 장흥군 용산면 월송리 403 전화번호 061. 862. 5214 H.P 011. 9440. 3317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다’라는 생각으로

경영체명 안효근 쌀농장

홈페이지

www.goodfarm.com

E-mail

ahk1128@hanmail.net

주 품목 쌀

영농경력 50년

경영규모 논 2만평

순수익 3,000만원

무일푼에서 시작, 품종개량까지

보리고개가 심했던 '60년대 말 이를 극복해 보고자 부모님의 유산으로 논 1,000평을 상속받아 농촌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안효근씨, 그 동안 남의 논을 임차하여 뒤돌아볼 사 이도 없이 열심히 앞만 보고 일해 오면서 조금씩 농지를 구입해 2001년에는 6,000평 정도가 되었다.

규모화가 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생각으로 농업기반공사로부터 1억5,000만원의 농지구입자금을 지원 받아 영암지역에 9,000평의 농지를 매입하고, 3,000평을 임차하여 현재는 2만평을 경작하고 있다. 타 지역인 영암에 농지를 구입하게 된 것은 그 지역의 토질이 우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개량을 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규모라면 필요한 농기계를 구비하는 것이 보통인데,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콤바인 한 대와 화력 건조기만 보유하고, 나머지 농작업은 위탁작업으로 해결하고 있다.

재배방법은 답수 직파재배로 하고 있는데, 비료를 적게 시

비해야 미질이 향상되므로 초기 새끼칠 거름을 주지 않고, 이삭거름을 시비하여 품질 좋은 쌀을 수확하고 있다. 특히 토양관리는 벗짚 환원은 물론이고, 2년마다 토양검정을 하여 파종하기 전에 로타리 작업을 하면서 복합비료를 검정결과에 따라 시비하고 있다.

품종은 일반벼의 경우 4,500평에 동안벼, 주남벼, 동진1호를 파종하고, 기타 1만 5,500평에는 직접 품종을 개량한 '안효근4호' 찰벼(조생종)를 파종하고 있다.

품종개량을 통한 고품질 쌀생산



도복에 강하고,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품종개량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진흥청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벼 품종을 보급하고 있으나 토양특성상 맞지 않는 품종이 있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육종교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초기 품종개량을 할 때는 도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 독농가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새로운 정보수집과 자문을 얻고, 제보가 있는 종자를 구하여 육종교배를 한 후 직접 시험포를 설치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이나 작물시험장에서 검증받고 있다.

현재는 안효근 찰벼 1호부터 5호까지 개발한 상태이며, 인근농가 뿐만 아니라 타 지역 농가에도 보급하여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인정되어 2000년에는 전남지역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다.

품종개량 이외에도 물관리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논마다 자동으로 물조절이 되도록 직접 고안한 물조절 펌프를 설치했다. 이러한 연구 뒤에는 '61년부터 지금까지 농작업에 관한 기록을 꼼꼼히 했던 것이 육종교배 연구와 영농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안씨의 주요 판매처는 정부 구매량을 제외한 물량 전부를 직거래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직거래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친척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 판매했는데, 이제 회원수가 점차 증가하여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한다. 직거래 특성상 회원관리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회원관리를 하지 않아도 품질이 좋기 때문에 꾸준히 회원유지가 되고 있다.

“농사는 거짓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것이 부끄럽지만 그에 걸맞게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브랜드 개발과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판매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며, 자가소유 규모도 계속해서 확대하고, 품종개량도 연간 약 1,500만원 정도 소요되지만 고품질·양질미 생산을 위한 품종개량에 노동능력이 있는 한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米

양문배



1954년생

주소 경북 의성군 다인면 신락2리 697 전화번호 054. 862. 4074

40년간 황토쌀 재배해 온 쌀 전업농가

주 품목 쌀

영농경력 40년

경영규모 논 1만평

전국 유명 백화점에 납품

경북 의성군 다인면 신락리 양문배씨. 그는 지난 40년간 황토쌀만 재배해온 다인면의 대표적인 쌀전업 농가이다.

의성군에서 다인면의 특산품으로 알려진 황토쌀은 일반 백미와 달리 빨간색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황토쌀은 전국 유명 백화점에 납품되며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다. 황토쌀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백미에 비해 건강에 좋다는 점이다. 특히 양씨는 오랫동안 저농약 재배법을 이용해 쌀을 재배하기 때문에 그가 생산하는 황토쌀은 밥맛이 찰지고 맛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40년간 쌀 농사에만 전념

지난 40년간 1만여 평에 이르는 논농사를 지어온 양씨는 봄부터 한여름까지 농번기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쌀 개방을 코앞에 둔 요즘 같은 때에 양씨와 같은 쌀 전업농가들은 고심에 쌓여 있다.

쌀 전업농가라면 쌀 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쌀 전업농가들은 쌀값 하락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항할 모책이 없기 때문이다. 양씨는 쌀 전업농가의 가장 큰 문제는 쌀 농사를 전업으로 할 경우 적정한 소득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쌀값은 그대로인 반면 물가는 계속 상승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각 농가에서는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차입한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는데 쌀값은 늘 제자리걸음이니 이대로 가다가는 빚만 계속 누는 실정이 될 것입니다.”

일부 쌀 전업농들 사이에서는 쌀의 품질을 높이거나 특정 브랜드화해서 적정소득 확보에 나서는데 등 지구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쌀 농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그래서 생산비를 낮추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관건으로 보고 이를 위해선 농지규모화가 절대적이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쌀값 걱정 안하고 농사짓는 것이 바람

현재 양씨는 부인과 단들이 1만여 평에 이르는 벼농사를 짓고 있다. 장성한 아이들을 모두 도시로 떠나 보낸 탓에 농번기에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그래서 농기계를 활용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일손을 조달 받는다.

‘70년대 중반 통일벼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집사람과 둘이 농사지어도 정말 힘든 줄 몰랐어요. 수확하는 대로 제값에 척척 팔려나갔으니까 신이 나서 논에 나가곤 했었습니다.”

다시 그때처럼 즐겁게 농사지을 때가 오겠냐고 되묻는 양문배 씨, 그의 유일한 바람은 쌀값 걱정 안하고 안심하고 쌀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米

양 승 운



1963년생

주소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 1리 1반 99-1 전화번호 033. 672. 0945 H.P 019. 339. 9400

도전정신 없으면 산 사람 아니죠

경영체명 털보네농장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2년

경영규모 논 1만2,000평

순수익 3,000만원

거듭된 실패, 그러나 좌절은 없다

강원 양양군 서면에 사는 양승운씨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불도저'로 불린다. 무슨 일이든 마음만 먹으면 불도저처럼 밀어붙인다고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불도저'란 그의 별명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인생 역정을 고스란히 말해준다. 양씨가 농사일에 뛰어든 것은 '81년부터다. 한우 10마리로 양돈사업을 시작하였으나 '83년 소값 파동으로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 오색약수 인근의 종종 땅 6,000평과 외지인의 논을 빌려 쌀농사를 시작했다. 농번기에는 땅을 부치고, 농한기에는 생선장사를 하며 살림에 보탬을 보냈다.

틈틈이 산에 올라 송이버섯이며 산나물을 캐다 팔았다. 이때 너무 바빠 깎지 못한 수염을 지금까지 기른다.

'털보네 농장'이란 이름도 여기서 나왔다.

이런 노력 끝에 살림이 불면서 '89년 남대천 인근에 2,000평의 논도 장만했다.

꿈(★)은 이루어진다

'뽕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건 그때였다.

"힘들게 농사지어 중간상인들 배 채우는 게 화가 났어요. 애써 수확한 옥수수가 헐값에 팔려나가는 걸 보니 옥수수를 냉동 저장했다가 비수기 때 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섯 농가를 끌어 모아 1억 원을 만들었다. 30평의 저온저장고를 짓고 본격 냉동옥수수 생산에 들어갔다. 하지만 관로도 개척하기 전에 시설 유지비가 발목을 잡았다.

다시 한번 손을 들었다. '95년의 일이다.

그래도 그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96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토종닭을 한번 키워보지 않겠느냐며 제의해 왔다. 그렇지만 토종닭 사업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분양 받은 토종닭이 3,600수가 넘어갈 즈음 사료값이 폭등하면서 수지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 이번에도 중간상인들에게 토종닭들을 헐값에 처분하며 그는 피눈물을 삼켜야 했다.

나의 미래는 '펜션 사업가'

그는 다시 쌀 농사꾼으로 돌아왔다. 그후로는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쌀농사에만 매달렸다. 간혹 휴양객들을 상대로 토종닭을 팔고, 민박을 치기도 했지만, 한시도 농사꾼임을 잊지 않았다.

그렇게 한해 두해 조금씩 늘어난 논 5,000평에 임차지까지 합쳐 그는 이제 1만2,000평의 쌀농사를 짓는 '털보네 농장' 주인으로 자리잡았다.

비록 2002년에는 태풍 '루사'에 눈이 유실돼 평년의 반타작도 못 했지만 이젠 훌훌 털고 웃어넘길 만큼 여유도 생겼다. 여기에 2002년 10월, 농협에서 주는 '재농민상'도 그에겐 힘이 되었다.

"돈 많이 버는 순서대로 한다면 새농민상 근처에도 못 갔을 겁니다. 비록 지금까지 실패를 거듭했지만 도전정신을 가지고 살아온 것을 높이 산 거라 믿습니다."

불도저 양씨는 요즘 또 다른 내일을 꿈꾼다. 한계령 초입에 1,500평의 부지를 마련해 전원주택을 짓고 펜션 사업을 해볼 요량이다.

이를 위해 '털보네 펜션'이란 이름도 지어 놓았다는 그는 "도전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산 사람이 아니다"며 호탕하게 웃었다.



米

양 연 모



1951년생

주소 전남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412 전화번호 061. 322. 7766 H.P 017. 607. 7766

소비자 감동시키는 농산물 생산해야

경영체명 상록농장

E-mail

duckrice@hanmail.net

주 품목 쌀, 채소

영농경력 30년

경영규모 논 2만5,000평

조수입 1억2,000만원

특기사항 농림부 장관상

자랑스런 전남인상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친환경농업만이 살길

“우리 농업인 모두가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농사를 짓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친환경농법으로 벼와 채소농사를 지어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양연모씨.

그는 농약과 화학비료 대신 자운영과 오리농법 등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웃 농업인에게 이를 보급,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96년에 처음 배추·상추 등에 도입했고 이듬해부터는 오리농법으로 무농약 쌀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토양 관리에 온 정성을 쏟는다는 양씨는 해마다 10월 상순이면 녹비작물인 자운영을 파종해, 이듬해 5월 중순께 갈아엎어 밑거름으로 활용한다. 또 5월 중순에 300평당 유기질 발효퇴비 2t, 쌀겨 100kg을 넣어주고 있다.

그는 농약 대신 당귀·제피·소주·흑설탕 등을 섞어 발효시켜 만든 한방 영양제와 마늘 엑기스, 담배(니코틴)와 현미식초를 일정 비율로 섞어 500배액으로 희석해 살포하여 병



해충을 방제하고 있다. 양씨가 12농가와 함께 연간 생산하는 쌀은 70여t, 현재 광주 우리농촌살리기본부에 10kg과 20kg으로 포장해 전량 '오리쌀'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또 최근 출시된 쌀 라면의 원료로도 사용될 만큼 그 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위기에 굴하지 말고 밀고 나가

이렇게 기반을 다지기까지 그에게도 갈등과 시련이 적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벼벌레가 한창 들끓었던 '98년, 농약을 치지 않으면 안될 절망적 상황에 처해 이제 막 시작한 무농약 쌀 생산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무척 망설였습니다.”

그 해 수확이 크게 줄어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지만 무엇보다 미질이 좋지 않은 쌀을 출하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나 걱정했던 것과 달리 소비자들의 향의가 한 건도 없어 친환경농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

투철한 직업정신과 성실한 땀의 결실

양씨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환경보호운동 실천, 지역사회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2000년 농림부장관상을 비롯해 새농민상과 군민회상, 자랑스런 전남인상을 연거푸 수상했다.

30년간 농사를 지어온 양씨는 한번도 농촌에 정착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 그만큼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성실하게 땀흘려 왔기 때문이다. 올해 무농약 농산물 재배면적을 20ha로 늘릴 계획이라는 양씨. “무농약재배는 토지, 물, 공기는 물론 사람의 건강과 생명까지 살리는 농법이기에 때문에 소비는 무한하다고 본다.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들이 생산농가를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인데, 따라서 소비자들을 감동시키겠다는 끊임없는 농가들의 지구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을 맺는다.



米

양양철



1956년생

주소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382 전화번호 061. 472. 1165

벼농사 10만 평의 전업농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7년

경영규모 10만평

순수익 7,000만원

대단위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는 모두 갖춰

양용철씨는 전남 영암군에서 벼농사 10만평을 경작하고 있는 쌀 전업농이다. 그는 벼농사만큼 뿌린 대로 거두는 농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쌀 전업농이 된 것도 바로 벼농사는 노력한 만큼 거두는 가장 정직한 농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양씨는 20세 때부터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결혼을 하고 '87년부터는 아내와 부업으로 젃소도 길러봤지만 '98년부터는 벼농사에 전념하기 위해 모두 처분했다.

그의 경영 철학은 간단하다. 기계화를 통한 영농 규모화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양용철씨는 대단위 영농을 위해 필요한 농기구는 모두 구입해 놓고 있다. 트랙터, 콤파인, 승용 이앙기, 비료 살포기 등 농기계 구입비로만 1억원이 들어갔다. 이 농기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지 면적이 10만평은 돼야 한다고 판단해 5만평은 구입하고 5만평은 임대해 경작하고 있다.

2003년에는 20만평 경작할 계획



하지만 그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03년에는 10만평을 더 늘려 모두 20만평을 경작할 계획으로 농지를 임대 중에 있다. 그는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십분 활용하고 성인 노동력 2명 정도만 추가로 확보하면 이 같은 대규모 농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0만평 중 5만평은 기계 이앙을 하고 나머지는 직파 재배를 할 계획이다. 자식들에게도 일요일이면 일부러 농사일을 거들도록 한다.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얼마나 맘홀려 일

하는 지 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다. 양씨는 벼농사가 단위 면적당 소득은 낮아도 대규모로 하면 전체적인 소득은 고생한 만큼 높아진다고 말한다.

상인들로 말하면 '박리다매(薄利多賣)'의 영업 전략인 셈이다. 그래서 남들이 경쟁력이 없다고 기피하는 벼농사로 그는 연간 7,000여 만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다.

대규모 물량 직거래로 판매



양씨는 10만평의 논에서 연간 약 4,200가마(40kg들이 기준)의 벼를 생산한다. 이중 정부 수매로 내는 것은 200여 가마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농협과 개인 정미소에 출하하고 있다. 2003년에 10만평을 더 경작하면 연간 8,400가마 정도를 생산하게 되는 셈인데, 아직까지 벼 판매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경작 규모가 워낙 커 판매를 하는데도 대량 거래가 가능해 오히려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는 10만평을 추가로 경작할 경우 인근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전량 출하하기로 이미 반 계약을 해 놓은 상태다.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농협과 직거래를 해 가격이 조금 낮아도 알선료와 유통 경비 등이 절약돼 그만큼 이득이기 때문이다.

실제 개인 정미소 등에서도 한 곳에서 많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양씨와의 거래를 반기고 있다고 한다. 양씨는 벼농사도 대규모로 기계화 영농 기반을 갖추면 경쟁력이 큰 농사라고 강조했다.

米

양 천 기



1956년생

주소 충북 보은군 탄부면 벽지리 234 전화번호 043. 542. 7942

전국 제일의 쌀 전업농을 꿈꾸며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0년

경영규모 논 10ha

순수익 6,500만원

쌀농사는 천직

2000년은 양천기씨가 다시금 기억하기 싫은 어려운 한해였다고 한다.

봄 부터 불어닥친 가뭄도 그랬고 힘들여 농사지어 놓은 가을 들판에 때아닌 태풍이 불어닥쳐 어려웠다고 회고한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일념으로 다시 일어섰다.

환경파괴가 원인인 기상이변이 해마다 반복되어 농사짓는 일이 인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새삼 느끼게 된 것이다.

"역사의 기록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우리들의 건강한 식생활의 바탕에 자리 매김 한 쌀을 앞으로는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야 할 책임감과 사명감을 내 어깨에 짊어졌다고 여기며 농사일에 임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게인지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 실감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로서도 농업과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먼 미래까지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체질에 맞는 쌀로 식량을 삼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농사짓는 일을 게을리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쌀 농업이 모든 농업의 기본임을 역설하였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농사일을 스스로 도우면서 자신이 가진 부농의 꿈을 위해 농사를 시작한 지 30여년이 된 그는 농사일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

전국 제일의 쌀 전업농을 꿈꾸며

처음 농사를 시작할 당시만 하여도 자신이 소유한 것이라고는 건강한 몸 뿐이었다. 그 시절에는 농업의 기반이 오늘날과 같지 않았다.

하지만 성실함을 발판 삼아 지금은 그가 소유한 토지가 2만평이나 되는 누구나 인정하는 부농이 되었고, 또 충청북도 제일의 쌀 전업농이 되어 각종 경연대회에서 당당히 수상도 하였다.

또한 쌀 농사에 관하여는 마을 주민들이 상의를 해 온다고 하였다.

쌀 농사에 매진해온 30여년 동안 얻어진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인 것이다.

양씨는 정지 정리할 당시 집단환지(98%)를 통해 작업 편리성과 농기계화의 효율성을 가져온 것이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양천기씨는 2000년 12월에 농사일을 마치고, '동네주민을 대표해 농림부 장관께 감사의 글을 올렸다.

“담당 직원들의 끈임없는 관심과 격려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 속에 5월이 다가기도 전에 100%의 이앙을 마쳤습니다.

도내에서 저희 동네가 가장 먼저 모대기를 끝낸 것이라고 하더군요,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벽지리의 경지 정리를 하면서 소하천의 바닥이 논보다 높고 뚝은 모래

로 쌓여 있어서 어려운 공사를 훌륭히 수행해 낸 공무원에 대한 칭찬의 글이었다.

그는 자신이 배운 것은 없지만 고마운 마음의 표시는 할 줄 안다고 했다

米

업 대기



1960년생

주소 전북 임실군 삼계면 학정리 489-1 전화번호 063. 644. 8141 H.P 017. 477. 8000

고난을 넘어 일어난 농민

경영체명 학정대회농장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8년

경영규모 논 1만1,000평

순수익 3~4,000만원

특기사항 전국 으뜸쌀 품평회

금상

고통을 넘으면 즐거움도 크다

늦둥이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아버님을 따라 농사일을 시작한 업대기씨는 연로하신 아버님을 떠날 수 없어 도시로는 나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농사를 계속 짓게 되었고, 부모님으로부터 논과 밭 3,000평을 물려받았다.

'86년 영농후계자 자금으로 1,500평, '88년에 농지구입자금으로 1,200평, '96년에 과수원 1,000평을 구입하여 현재는 산골 마을의 대농이 되었다.

그 간에 농사일로 고생을 한 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2001년, 한해가 극심하여 양수기의 배관호스를 1,500m나 늘어뜨리고 10대나 되는 양수기를 보며 기름 구하러 다니느라 정신없이 뛰어 다녔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또한 업씨는 '95년에 늦게 결혼했는데 아내가 결혼 2년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이마저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45일을 입원하는 등의 시련을 겪었다.

그런 역경을 이겨내고 지금은 우리의 먹거리는 내 손으로 생산하겠다는 일념으로 악조건에도 굴하지 않는 의지를 보

여주고 있다. 질 좋은 쌀은 좋은 토질과 우수한 품종 선택 및 기술적인 재배관리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품종은 고품질과 중간 품질의 품종을 3~4종을 같이 재배하고, 토양관리와 비료 및 물 관리를 세심히 한 결과 수확기인 가을에는 제법 소득이 있었다.

지력관리와 병충해의 사전예방이 중요

엄씨는 “농사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수확의 기본은 지력에 있다고 믿어 농사를 시작하기 전 지력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지력 향상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였으며,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만큼의 농약만을 살포하여 다른 사람보다 농약살포 횟수와 양을 절반으로 줄였다. 보다 나은 농사기술을 익히기 위하여 각종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여 농사기술을 습득하였으며, 쌀 전업농 임실군 회장직도 맡고 있다.

벼 연구회에 참석하여 회원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을 서로 교환하고 있다. 요즘은 신지식인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분야의 농업경영을 하는 분들과 정보도 교환하고 그에게 농사비결을 물어 오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상담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농업

임실군 삼계면은 산간의 청정지역이므로 지역의 여건에 맞게 엄씨는 주로 양질의 쌀 품종을 선택하여 유기물시비에 물 좋고 공기 맑은 이점을 살려 환경 친화형인 기능성 쌀을 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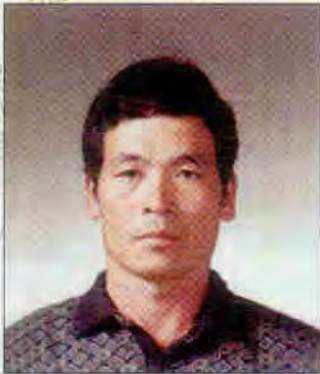
앞으로 쌀을 브랜드화하여 도시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액비 발효시설을 완성하여 액비를 직접 발효시켜 시비함으로써 앞으로는 비료와 농약 없이 쌀농사를 지어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려 한다.



米

면 안 벼



1960년생

주소 전남 순천시 낙안면 검암리 459 전화번호 061, 754, 2794 H.P 011, 645, 2794

농지규모화사업으로 이룬 낙안 땅 부자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5년

경영규모 논 3만평

과수원 3,500평

조수입 1억2,000만원

땅 부자가 되고 싶었던 가난한 농업인

“낙안에서 가장 큰 땅 부자가 되자.”

염찬출씨는 넉넉하지 못한 가정, 가난이 생활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 이웃 사람들의 패기 밭이나 산골 천수답을 경작하면서 남의 집 농사일을 거드는 등 근근히 연명해 가는 영세농이었다.

면내 제일의 부농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던 염씨는 현재 논 3만평, 배 3,500평, 오이 600평을 경작하여 연간 조수입 1억 2천만원을 올리며 면내에서는 가장 돈을 많이 소유한 농업인이 되었다.

규모화가 경쟁력의 척도

염씨는 '94년 UR농산물 협상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은 시대적 상황으로 보고 국내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던 시기에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규모화 사업을 소개 받고 자금을 지원받아 900평을 매입하였다.



평당 1만2,000원에 매입했던 할부금의 원금과 이자를 1년 뒤 그 논에서 수확한 소득으로 충분히 상환하면서 농지매매사업의 지원으로 경작규모를 확대해도 문제될 것이 없으며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길이 곧 경쟁력 확보의 지름길이라는 확신을 굳게 가졌다.

이듬해도 차츰차츰 농지매매사업의 지원으로 규모를 확대 나가던 중 '95년 쌀전업농으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농지규모를 확대하였다. 주위에서는 무모하게 규모를 확대하면 낭패를 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규모확대에 대한 그의 일념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이렇게 규모를 확대하여 '98년에 이르자 농업기반공사 지원상한선인 10ha에 이르게 되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그렇지만 염한출씨는 형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개인적으로 농지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얼마나 농지를 사들였으면 낙안에서 염씨가 땅을 구입하지 않으면 구입할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현재는 농업기반공사의 지원을 통해 구입한 10ha를 제외하고 자력으로 5,200평의 규모를 추가로 매입하였으나 임대차 농지도 5,800평에 이르고 있다.

고품질의 농산물로 판매의 차별화

염씨는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농약을 다른 사람에 비해 적게 사용하게 되었고 이것이 자연스런데 친환경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저농약 품질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판매를 통해 80kg 한 가마당 19만원~ 20만원에 교인들에게 판매하였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 염한출씨는 외국의 값싼 쌀과 경쟁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규모를 30ha까지 확대하여 단위 면적 당 비용을 줄이면서 품질이 우수한 쌀 생산을 목표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망의 다변화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을 제고할 예정이다.

오경배



1945년생

주소 전남 김진군 신전면 별정리 95 전화번호 061. 432. 4250 H.P 011. 9603. 3753

한국 최고의 쌀 농사꾼

경영체명 영동농장 영농

조합법인(생산팀)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0년

경영규모 논 51ha

순수익 1억원

토착 미생물에 의한 친환경농업을 실천

영동농장은 청정해역인 강진만 증류에 위치한 간척지를 개발한 농지이다. '83년 버려진 황무지 100만평을 매입하여 60만평을 농지로 개발한 것이다. 현재는 51ha만 직접 경작 하고, 나머지 토지는 인근 주민들과 화합 차원에서 임대해 주고 있다. 직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명이며, 농기계 및 건조장, 보관창고 등 기본 시설 이외에 자체 직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지역이 간척지이기 때문에 가뭄과 홍수피해 등 자연재해가 심한 편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저수지와 방조제 높이조절, 수문 개보수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의 방향이 식량증산에 역점을 두어 화학비료와 농약을 과다 사용, 토양 오염과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영동농장은 WTO체제에 따른 수입개방 등 국내외적 약조건을 극복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차별화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여 국내 최초로 그린음악농업을 실시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자재를 사용한 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음악을 듣고 자란 건강한 벼

그린음악 농업은 육묘장에서 본답에 이르기 까지 하루 2시간씩 클래식 음악과 전통음악을 들려주는데, 육묘장에서 들려주는 방송은 어린 모일때부터 병충해 및 도복에 강하게 자라도록 하고, 점차 벼 생육시기별 음파를 조절하여 음악농업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80db에서 발생하는 파장은 벼에 활력을 주고 병충해에는 해로움을 주는 음(音)이 생성되어 병충해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그린음악 이외에 5년전부터 자체 개발한 미생물을 이용한 무농약 재배와 저농약 재배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무농약 인증면적은 11ha, 유기농인증 면적은 18ha, 저농약 인증면적은 22ha로 친환경 농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고 있다. 미생물을 이용한 재배방법은 상토 사용시에 5%를 배합하고, 토양 살포시 쌀겨 500kg과 미생물 10kg를 배합하여 수확 후 얇은 로타리 작업을 하고, 물 800l 에 미생물 12kg를 혼합한 후 출수기 전에 엽면시비하고 있다. 미생물을 사용할 경우 정장은 다소 더디지만 뿌리 활착 촉진, 곰팡이와 세균억제 등으로 인해 벼가 튼튼하게 자라 스스로 면역성을 가지게 되어 안전한 쌀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수량차이는 관행농법 보다 약 20~30% 떨어지지만 인력과 농자재 구입비가 적게 들어 큰 차이는 없다.

품종은 주로 히포메모리가 70~80%이며, 기타 주남벼와 일미벼, 남평벼를 심고 있는데 히포메모리는 환경농업에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파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앙재배를 하고 있으며, 비배관리는 활성탄, 굴껍질, 자연퇴비 등의 친환경적 농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생산과 브랜드, 유통망을 시스템화해야 한다

이제는 “농업도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기능성 있는 차별화된 농산물을 고유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농업에서 수입개방에 대처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과 브랜드, 유통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이 농장의 판매방법은 전화나 팩스, 인터넷, 서울 직매장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기호에 맞는 쌀을 주문하면 즉시 벼를 도정하여 2~3일내에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쌀의 영양과 맛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오은백



1953년생



주소 경북 의성군 다인면 신락리 680 전화번호 054. 862. 4525 H.P 011. 9523. 6942

일품벼로 매년 3천만 원 순수득 올려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0년

경영규모 2만3,000평

순수익 3,000만원

2만여 평 농지서 매년 일품벼 수확

경북 의성군 다인면 신락리 오은백씨는 30년간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오고 있는 토박이 농사꾼이다.

젊은 시절 한때 전도 유망한 유도선수로 활약하기도 했던 오씨는 운동선수의 꿈을 접고 20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농사일에 매달려왔다.

오씨가 다인면에서 모범 영농인으로 손꼽히는 이유는 그의 남다른 성실성 때문이다.

그는 매년 2만3,000여평이나 되는 넓은 농지에서 꾸준한 수확량을 보이고 있다. 별로 비뿔 일 없는 겨울철 농한기에 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소여물을 주는 일로 하루를 시작할 정도로 근면성을 갖추고 있다.

오씨가 생산하는 벼는 일품벼로 의성농협을 통해 전국 주요 도시 소비자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특히 그는 저농약 농법을 통해 되도록 농약을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신 부족한 거름은 우사에서 나오는 우분을 활용한다.

저농약 쌀 생산해 소비자에 공급

오씨는 지난해 다인면의 특산물인 황토쌀이 아닌 찰벼를 심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전국을 강타한 폭우로 상당 부분 침수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한해 평균 수확량은 200평당 약 80kg으로 매년 순소득은 3천만 원을 상회하지만, 지난해에는 예년 수확량의 40%만 간신히 견져내 적지 않은 손실을 봐야 했다. 지난 30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우여곡절도 많았다.

풍년이 들어 수확량이 많았던 때보다 큰 피해로 낙심했던 일이 먼저 떠오른다는 오씨. 5년 전에는 급작스러운 병충해로 밭을 동동거리며 논에서 떠나지 못했던 적도 있었다.

당시 그의 논은 모내기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아직 모는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 채 병해충으로 인해 어린 모들이 누렇게 변해버리고 말았다.

“수십 년 농사를 지어오면서 병충해나 수해를 자주 겪어오지만 매년 고이 기른 자식 떠나 보내는 것처럼 안타까운 심정이 바로 농부의 마음일 것입니다.”

겨울철 농한기에 대비해 몇 해 전 그는 소 15마리를 키우기도 했다.

당시만 해도 소값이 상승을 하고 있을 때라 오씨는 꾸준히 늘려가 수익에 보탬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하나둘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15마리의 소도 2마리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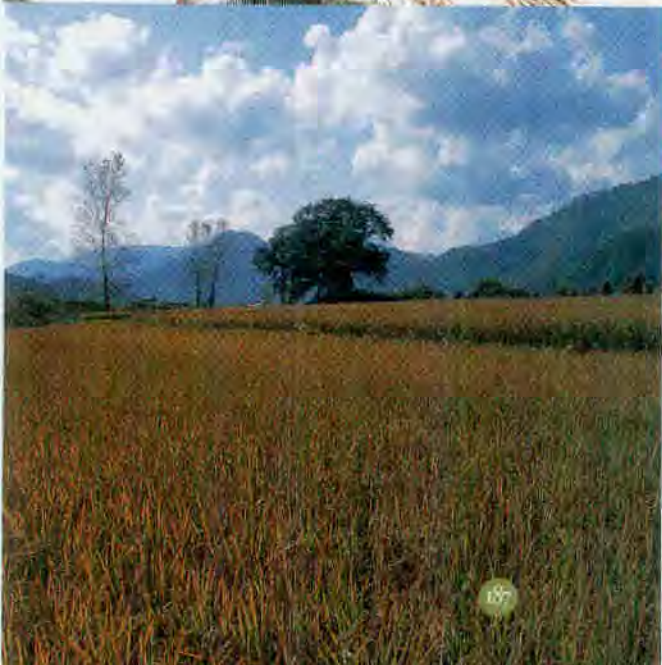
단체 활동도 마다하는 외곬 농사꾼

평소 오씨는 집과 논 사이를 오가는 일 이외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정도로 농사밖

에 모르는 외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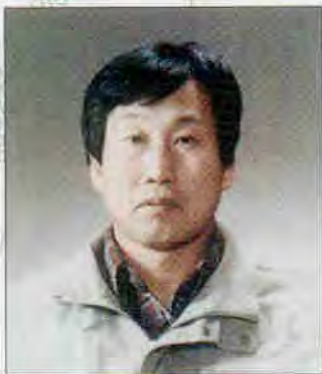
또 성격이 침착하고 신중한 편이라 위험부담이 있는 일에는 무모하게 도전하기보다 사태를 지켜 본 후에 결정하는 편이다.

때문에 선부르게 벼 품종을 바꾸어서 낭패를 보는 일은 그의 사전에 없다. 이밖에 다른 농업인 단체나 모임에도 일절 참여하지 않고 그 시간에 논에 나가 김을 한번 더 맨다는 오씨. 그는 매년 같은 농사를 짓지만 농사만큼 새로운 일도 없다고 덧붙인다.



米

원상린



1955년생

주소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120 전화번호 033. 731. 7386

프로농업인만이 살아 남는다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5년

경영규모 2만2,000평

순수익 4,000만원

쌀농사 4만4천평에 도전

초등학교 졸업 후 영농의 꿈을 키워 온 원상린씨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2,700평 논이 전부였다. 어린시절 공부보다는 부모를 따라 농사짓는 법을 먼저 익힌 원씨는 농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150평당 15만원에 1만5,000평을 임대받아 농사를 지으면서 차츰 소득도 높아지고 자신의 농지도 넓혀나갈 수 있게 됐다. UR협상 등 농업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영농을 포기하려고까지 생각했으나 특별한 기술도 없었고 배운 것이라곤 농사 짓는 기술이 전부였던 원씨는 지금의 영농을 과학화, 기계화시킬 경우 소득을 배로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서 '94년 농업기반공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 해 전업농으로 선정된 원씨는 농업기반공사의 지원으로 조금씩 임대 농지를 넓혀가게 됐고 기계화를 통해 혼자서 2만2,000평까지 경작이 가능하게 됐다.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원씨는 풍부한 영농경험을 심분 발휘해 앞으로 4만4천평까지 수도작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무농약 고품질 쌀 생산계획

“앞으로는 쌀 농사도 많이 지어야겠지만 정부시책에 따라 무농약 고품질 쌀생산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곳의 여건이 무농약에 대한 인식들이 부족해 혼자 힘으로는 힘든 상태입니다.”

한 톨의 쌀을 생산하는 것도 프로그래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원씨는 농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부지런함에 과학영농을 실현하기 위한 배움의 자세까지 몸에 배어있다.

모든 영농 정보를 인터넷을 활용하며 모든 영농교육에는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영농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그때마다 매보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쌀농사에 의존하면서 원씨가 벌어들이는 조수입은 연간 4천만원. 자신의 농지 50마지기 와 임대농지 100마지기를 합쳐 150마지기의 농사를 지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영농장비는 트랙터 1대, 이앙기 1대, 콤바인 1대, 경운기 1대, 전조기 1대 등이다.

적기 이앙으로 단수량 높아

“올해는 부업으로 지난 2000년도에 포기한 한우비육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금이 더 확보되면 농지도 더 구입해 규모도 늘릴 계획입니다.

모든 것이 기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업을 하면서도 농지를 얼마든지 늘려도 가능합니다” 프 로 농업인 원상린씨의 말이다.

원씨는 단수를 높이기 위해 어린모내기과 적기 이앙을 고집하고 있다.

육묘도 남의 것을 전혀 쓰지 않고 현재 150마지기의 논에 전부 자신이 직접 육묘를 생산한다.

그 만큼 그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단수가 10a 당 전국 평균 516kg보다 많은 526kg을 올리고 있다.

육묘를 생산할 때 자식을 대하는 어미의 마음으로 올해도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마음 기도를 올린다는 원씨는 좋은 육묘가 보다 밥맛나는 쌀을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자신의 영농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농업인들 모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할 계획이다.



米

유근해



1947년생

주소 전남 고흥군 도덕면 봉덕리 1252 전화번호 061, 843, 0693

쌀농사로 큰 농사꾼 꿈 이뤄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1년

경영규모 논 4만5,000평

순수익 9,450만원

안일한 타성은 절대 버려야

‘간척지 쌀 농사 4만5,000평에 지난해 순수익은 9,450만원’ 고흥군 도덕면 봉덕리 오마간척지에서 21년째 오로지 쌀 농사만을 고집하고 있는 유근해씨의 영농 결과다.

아직까지 고향을 떠난 적이 없던 그로서는 큰 농사꾼이 되기 위해 간척지가 많은 전북 계화도로 쌀 농사를 짓기 위해 처음 이주한다. 그 때 구례에서 600평의 농지를 매대한 돈을 종자돈으로 계화도에서 1,500평의 간척지를 구입해 본격적인 영농을 시작했다. 부농의 꿈을 일구기 위해 타향에서 남의 논 1만여평을 빌려 6년여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 농지를 3,000여평으로 늘렸으나, 그는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었다.

쌀 농사를 위해 농지확보 가능지역으로 이주

계화도에서 알뜰하게 늘린 농지 6,000평을 팔고 고흥군 오마지구 간척지에 9,500평의 농지를 마련하고 큰 농사꾼의 꿈을 키워 나갔다.

그 후 자기 논과 인접한 논 주인들을 설득하여 꾸준히 농지를 늘려 지난 '95년 1만8천평, '96년 4,500평 등 농지 전체를 한곳에 집단화하고 기계화영농 터전을 닦았다.

현재 그는 고흥 오마지구에서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쌀 농사 후계수업을 받고 있는 아들과 함께 4만5,000평의 간척지에서 쌀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생산량은 40kg들이 콤바인 포대로 2,650개, 106톤을 생산했다.

농지는 집중돼야 경쟁력 향상

그는 “그동안 쌀 농사 경험에 비춰볼 때 고품질 쌀 생산과 지력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산물은 되돌려 줘야 된다는 원칙과 농기계의 효율적인 사용과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농지가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논이 한곳에 집중돼 있으면 농기계의 이동에 따른 시간과 경비, 특히 관리의 어려움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본은 지력 향상에 있다.

“지력은 땅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지 5년 정도가 경과된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그는 “1~2년 정도 땅심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하다 그만 두는 것을 볼 때 가장 안타깝다”고 말한다.

유씨는 대를 이어 쌀 농사 후계자로 나선 아들을 위해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실천하여 과학영농, 친환경농법 등을 이용한 획기적인 쌀 농사에 도전토록 아끼지 않은 지원과 함께 농지를 더 확보해 6만평으로 늘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米

유시웅



1942년생

주소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597 전화번호 041, 642, 4853 H.P 019, 417, 4853

삼각농법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경영

경영체명 덕원농장

주 품목 쌀

영농경력 40년

경영규모 논 8,000평,

한우 30두, 양계 1,700두

순수익 3,650만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유시웅씨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이 천직이라는 생각으로 농사일을 시작하여, 벌써 영농경력이 40년이 되었다.

유씨는 농촌의 취약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농사방법을 스스로 실행, 친환경적인 작물재배에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농사방법을 실천하는데 앞장 서 왔다.

특히 그는 자신이 체험한 친환경적인 자연농법을 관내는 물론 전국으로 전파하고, 일본이나 태국, 중국에까지 홍보하는 등, 자연농업가로서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초창기에 봄배추에 관심을 가지고 5년 가량의 재배로 수익을 많이 올렸으나, 10년이 지난 후부터는 생산비를 차감하면 실질 소득은 얼마되지 않았다. 이후 양계와 더불어 산 3정보, 밭 4,000평, 논 4,000평의 농사를 자연농법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68년 자연농법의 실패로 큰 좌절을 겪었지만 그는 이를 계기로 직접 전국을 돌며 자연농법의 기술들을 획득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현재의 터전을 살릴 수 있었다.

'삼각농법'을 통한 소득유지와 우수 농산물 생산활동

유시웅씨는 전국을 돌며 스스로 배운 경험을 토대로 삼각농법을 창안하였다.

양계와 한우, 배추, 버를 서로 보완하며 기르고 재배하는 방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유기물을 제공해 줌으로서 생산물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삼각농법으로 그의 근본의식인 자연농법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그는 "농업은 양심적이어야 하며, 삼장(된장, 간장, 고추장)을 발효시키는 원리에 따른 신토불이 농업을 지지한다."고 말한다.

삼각농법은 우수농산물 생산과 더불어 소득을 유지시켜주는 포트폴리오 경영기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씨의 경험에 따른 결론으로서 "네 가지가 동시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고, 또한 네 가지가 동시에 불황을 겪지는 않는다."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한 두 가지에서 떨어진 소득은 다른 한 두 가

지가 보완시켜주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삼각농법을 통하여 무농약 재배를 실현하였고, 이 대가로 품질인증을 획득하였다.

비료는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여 흙살리기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어느 시기에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삼각농법의 노하우"라고 그는 말한다.

유통개선 및 농산물 부가가치의 제고

농산물은 농협을 통한 직거래를 실시하고, 계란은 우편주문 판매로 유통구조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부산물인 자가발효 사료로 활용하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질 퇴비를 사용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연구에 매진할 계획이다.

36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자연농업협회의 부회장으로서 교육을 통해 자연농업을 우리나라 뿐 아니라 주변 국가에 더욱 보급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그의 목표이다.





HOYO 99



1939년생

주소 전북 익산시 왕궁면 쌍제리 208 전화번호 063. 219. 8379

축산분뇨를 이용한 맞춤형 비료 생산

경영체명 왕궁벼연구모임

주 품목 쌀, 보리

영농경력 20년

경영규모 논 285ha

벼품종 전시포 및 증식포 운영

유연홍씨 농장은 익산시에서 동쪽으로 5km 떨어진 국도변에 위치,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규모화 영농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유씨는 다양한 방법으로 친환경농법을 수년간 실천했으나 경험부족으로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농법에 대하여 뜻을 같이하는 농가들을 모아 연구모임을 결성하였다.

연구모임에서는 정밀토양점검후 농가별, 작목별, 마을별 시비 처방서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친화형 주문 배합비료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가격절감과 환경오염 방지 등에 많은 기여를 했다. 또한 왕궁면의 축산폐수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산분뇨를 논, 밭에 활용하기 위한 자체시험포를 설치운영하여 축산분뇨자원화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99년부터 벼품종비교전시포를 설치하여 농가들의 벼품종선택을 돕고 우량품종(80여종) 증식 보급을 위해 남평벼 등 고품질 쌀 재배를 통한 생산성 향상

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농약 과다사용과 오염방지를 위한 교육장 설치, 회원농가에 농기계 폐유수집통을 설치하여 폐유를 모아 원예농가에 연료로 공급하는 등 친환경농업실현에 노력하고 10ha 규모의 벼 생력 단지를 조성하여 농작업을 기계화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였다. 그리고 군산도정공장과 흰찰쌀보리를 계약재배하여 정부수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회원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농업결과의 파급효과

유씨는 전국 최초로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맞춤형비료를 공급하여 비료구입가격을 절감시키면서도 시비량은 10a당 64kg에서 59kg으로 줄였다. 또한 저인산 저칼륨사용으로 토양환경개선 및 균형시비로 도복률을 감소시켰다.

또 벼품종 비교전시포를 설치 운영하고 2000년에는 종자 3톤을 공급하였다.

환경친화적 고품질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유연홍씨는 우렁이, 오리농법을 이용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왕궁보석미' 라는 브랜드미 출하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켰다. 한편 흰찰쌀보리 계약재배단지를 조성, 40ha에서 120톤을 생산하였으며 축산분뇨를 자원화하여 20ha에 사용하고 비료구입가격을 절감케 하여 저농약재배 및 토양오염을 줄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농업, 농촌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하여 농약 빈병 및 폐비닐 25톤을 수거하였고 푸른들가꾸기 운동으로는 보리, 자운영심기를 권유하여 깨끗한 농토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새기술보급 향상위한 교육 주도

그는 외부강사를 매월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연 2회 시험장, 연구소 등을 견학하여 연구모임 회원자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업전문교육에 따른 명예지도사로 활동하면서 환경친화농법, 고품질쌀 생산 및 브랜드화에 대한 공동 참여 의식을 확대했으며 새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유재수



1952년생



주소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전화번호 043. 732. 2469

자식이 원하면 농사를 되물림 하고 싶다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1년

경영규모 25,000평

순수의 1억원

아내 반지 팔아 산 경운기로 농사 시작해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에서 31년간 오로지 농사만 지어온 유재수씨. 현재 2만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대농에 속하는 그도 농사를 처음 시작했을 무렵에는 무척이나 어려운 형편이었다.

군 제대 후 본격적으로 농사일에 뛰어들었을 때 남보다 한 발 앞서서 농사일을 하려면 투자가 필요했지만 그의 집안 형편은 여의치 못했다.

그는 아내를 설득하여 반지를 판 돈으로 경운기 1대를 구입해 다른 사람들의 땅을 갈고 씨래를 해주는 등 허드렛일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조금씩 땅을 사들였고 특히 휴경지를 구입해 다시 거름을 주고 끝없는 관리로 비옥한 땅을 만들어 나갔다.



옥천군에서도 제일 크게 농사를 짓는 그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있다. 4월에 갑작스러운 냉해로 어린모가 제대로 생육하지 못하고 죽게 됐기 때문이다.

가만히 볼 수만 없어서 인근 지역은 물론 전국으로 뛰어다니기도 했다. 마치 어린모를 자식처럼 여겼기 때문이다. 물론 약 12만평의 모를 재배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웃농가를 대표해 모를 소개해주고 영업을 할 때라 어깨는 더욱 무거웠다.

소석회를 뿌리면서 그는 밤낮으로 어린모를 보살폈다. 그러

나 뒤늦게 상토를 잘못해 어린모의 생육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에 안도하고 상토 제조업체로부터 보상은 받았지만 그 때의 경험은 농사를 짓는 내내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농업기술을 신뢰하라

그는 농업기술에 대한 신뢰가 강하며 농업기술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물론 위탁영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 교육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참석한다. 농기계 교육을 받는 즉시 실습을 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데 그 결과 이제 정비수리에도 능숙하다. 갑자기 농기계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크게 고장난 것이 아니면 스스로 정비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웬만한 고장은 부품을 구입해 직접 장착하기도 한다.

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벼 재배기술이나 기타 기술지도에 농업인들이 참여하며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기존의 자기방식대로의 농업만을 고집하다보면 자칫 실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공무원을 탓하기보다는 더욱 가깝게 지내고 항상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가 애로사항을 말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다. 그는 자식이 농사짓기를 원하면 자신있게 되물림하고 싶다고 말하는 프로 농업인이다.



영농인



1962년생



주소 경북 상주시 화서면 봉촌리 47 전화번호 054. 534. 2203

복합영농으로 농가소득 증대

경영체명 봉우촌농장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0년

경영규모 논 1만8,300평

순수의 7,000만원

자수성가한 영농인

윤광일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부친 농사를 도우면서 농사 일을 배웠고 '85년에 부친이 돌아가신 후 물려받은 농지 1,000평으로 농사를 시작하였다.

지금은 본인의 노력으로 논 4,000평, 과수원 1,000평, 한우 22두로 성장했다.

현재 영농규모는 자기 논 4,000평과 입차한 논 1만2,000평을 합친 1만6,000평으로 쌀 농사를 짓고 있다.

그는 영농규모의 확대로 생산비 절감 효과와 농업소득 증대 효과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또한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을 이용하여 이웃 주민 쌀 농사 작업을 대신해 줌으로써 농기계 이용을 제고와 함께 농외소득을 추가하고 있다.

청정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을 구현

올해로 윤씨가 수도작 농사를 시작한지가 벌써 30년이 되



었다. 이렇다보니 오랜 농사 경험을 바탕으로 고장난 농기계를 자력으로 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힘쓰고 있다.

비료사용을 억제하는 대신 벧집, 왕겨, 톱밥, 우분을 자연 발효시켜 퇴비를 만들어 시비함으로써 벼 생육을 촉진하여 병충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모를 심은 후 제초제 살포를 하지 않고 대신 쌀 왕겨를 살포하고 있

다. 또한 고랭지 지역이다보니 병충해 발생이 거의 없어 농약 살포를 극히 제한하며, 농약 살포는 가을 벼멸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정도로 그치고 있다.

한우사육으로 농가소득 증대

쌀 농사와는 별도로 20년전부터 한우사육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현재 사육하고 있는 한우는 22마리로, 분뇨를 이용해서 자연퇴비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법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밖에도 번식우에 대하여 다산장려금 및 인공수정료를 받고, 비육 밑소에 대하여 거세를 실시함으로써 거세장려금을 지원 받음으로써 한우 생산비를 낮추고 있다.

복합영농으로 위험분산

5~6년전 부터는 복합영농을 실현하고 있다. 그는 쌀이나 한우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위험을 과일 농사로 분산하고 있다.

과수농사를 추가한 또 다른 이유는 일교차가 크고, 강수량이 적은 고랭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경우 품질 좋은 과일 생산으로 고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여름 과일인 포도는 수령이 3~10년으로 재배지가 1,000평정도 된다.

복숭아의 경우 수령이 6년으로 재배지 규모가 1,000평, 그리고 가을 과일인 배의 경우 수령이 5년으로 재배지가 300평이 된다.

이렇듯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복합영농을 하면서도, 쌀 농사에 중점을 두어 규모화하면서 고품질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米

윤상연



1959년생

주소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384 전화번호 031. 651. 4706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는 얼굴 있는 쌀

경영체명 소사뜰 영농조합 법인 적극적인 홍보와 높은 신뢰도

홈페이지

www.sosadori.co.kr

E-mail

ysy4706@chollian.net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1년

경영규모 논 410ha

순수익 4억원

특기사항 국무총리 표창,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 농림부장관

최우수상

윤상연씨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정미소를 운영하며 '82년 처음 농사를 지은 이래 쌀을 제 값에 팔지 못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95년 1월, 경기도 평택시의 소사별에서 5명의 농업인후계자와 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소사뜰영농조합에서는 410ha의 논을 직접 경작하고, 부족한 것은 다른 농업인들에게 받아서 '소사뜰쌀'의 명예를 걸고 출하하고 있다.

소사뜰영농조합은 초기에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다는 신념으로 '소사뜰'이라는 캐릭터 인형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서고 있다.

인터넷 판매에 매력을 느낀다는 윤상연씨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쌀을 구매하는 회원들 중 아이가 있는 회원에게 이 캐릭터 인형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조합 사람들이 직접 먹어보고, 고품질의 쌀은 따로 관리하며 재배방법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 품질과 신용, 정확한 정보 제공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이 결과 2002년에는 제 2회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에서 농림부장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신비로운 쌀의 탐험'이라는 만화책을 제작하여 서울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고객들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다.

고객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는 친환경 농법

소사뜰영농조합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쌀을 생산하기 위해, 유기농법인 쌀겨농업과 오리농법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저농약 표시와 경기도지사의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소사뜰 쌀'이라는 이름으로 '소사뜰쌀(추청), 소사뜰쌀(경기도지가인증) 무농약, 소사뜰쌀(저농약), 소사뜰쌀(친환경농업), 평택쌀(특산품), 평택쌀(경기도지사인증) 추청'의 여섯 가지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고 있다.

판매 단위도 5kg, 8kg, 10kg, 20kg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판매되고 있다. 요즘 여러 곳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쌀을 생산하지만, 친환경 농산물이라도 어떤 품종을 재배하고 그 재배과정은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소사뜰 쌀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 주었다.

멀리 내다보는 안목과 끊임없는 노력

많은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윤상연씨는 농업인들이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한다면 앞으로의 농업 전망은 비전이 있다고 말한다. 즉, 농업인들이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남과 다르게 해서 상품화하면 우리의 농업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상연씨는 2003년부터 무농약 인증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홀살림'의 무농약 인증을 받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말한다. 또한 경기도와 평택시에서 지원을 받아 저온저장고 시설을 완비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농업인에게는 기쁨과 희망을, 고객에게는 최대의 만족'이라는 표어 아래 최선을 다하는 윤상연씨는 현재 3,500명 정도인 인터넷 회원을 앞으로 1만여명 정도 유치하고, TV 광고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준석



1947년생



주소 경남 창원시 대산면 가솔리 544-23 전화번호 055. 252. 4945 H.P 017. 589. 4945

30년의 벼농사로 대농 일궈

E-mail

youa528@hanmail.net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0년

경영규모 논 2만6,000평

순수익 8,000만원

축분 퇴비로 다수확 기틀 다져

윤준석씨는 2만6,000평의 벼농사를 짓는 대농이다. 군 제대 후 1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다 귀향해 오늘의 대농을 일궈냈다. 그는 처음 3,000여평의 논농사로 시작해 지금까지 30여년간 벼농사만 지어왔다.

따라서 벼농사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남다르다. 어디서나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라고 직업을 밝힐 정도다.

윤씨는 매년 힘들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농사를 처음 시작한 '74년을 기억한다.

당시 배급비료는 늘 부족했다. 그렇다고 복합영농이 잘 알려진 것도 아니었다. 이때 윤씨는 퇴비에 눈을 돌렸다.

부족한 비료문제를 퇴비증산으로 돌파한 것이다.

그 때는 소값이 비싸 소 한 마리만 키워도 부농에 속했다. 그러나 윤씨는 퇴비 확보를 위해 비싼 값에도 불구하고 송아지 한 마리를 더 사서 퇴비생산에 나섰다.

이 퇴비로 비옥한 토양을 만들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다수확도 가능했다.



그런데 뜻밖의 소득원을 발견하게 된다. 소 한 마리를 사서 30~40일 잘 키워 팔면 2만~3만원의 수익이 난다는 부분이였다.

보통 직장인들의 한달 월급이 3만~4만원이었던 시절이다.

퇴비도 생산하고 돈도 버는 재미가 컸다.

이 덕분에 '79년엔 소를 6~7마리로 늘릴 수 있었다. 퇴비가 넘쳐났다. 농지가 적은 것이 아쉬울 따름이었다. 그런데 마침, 정부에서 농지구입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가

생겼다. 윤씨는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아 매년 한 두 필지의 논을 사 들였다.

소도 열심히 키우고, 농사도 열심히 지었더니 어느새 논이 2만6,000여 평으로 늘어났다.

윤씨는 한 길을 달려온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온 것을 성공의 비결로 꼽았다.

외부노동 의존도 없애는 것이 과제

윤씨는 '97년 겨울 아내가 우연한 사고로 척추수술을 받는 바람에 기계화의 속도를 높였다. 기종의 대형화를 피한 것이다. 창고 안에 컨베이어기를 설치해 무거운 쌀가마니를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했다. 이 기계의 설치로 평소는 물론 수확기에도 외부 인력을 거의 안 쓸 정도다.

인건비 지출이 별로 없으니 연간 순수익이 늘었다. 연간 조수입 1억여원 중 영농경비 2,000여만원을 빼고 순수익이 8,000여만원이나 됐다.

친환경농법과 수익증대 접목이 앞으로 할 일

농경지의 대부분이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 근처라는 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많다. '96년 오리농법을 실천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긴 하지만, 윤씨는 앞으로 이러한 친환경농업을 재 시도해 볼 계획이다.



米

이광우



1950년생

주소 경기 평택시 포승면 흥원리 123-5 전화번호 031. 683. 4880

소박한 농업인, 이광우님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0년

경영규모 자영 1만5,000평,

임대 1만5,000평

순수익 5,000만원

농업인의 자식으로서 농사를 질 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한다. “안되면 농사라도 짓지” 그러나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면 안다. 농사가 얼마나 고된 작업인지, 알팍한 생각도 게으름도 통하지 않는 것이 농사이다. 오직 흘린 땀만큼 벼가 자란다.

올해 54세인 이광우씨는 중학교를 졸업하고부터 부모님 계 농지를 물려받아서 농사를 지어오고 있다. 꾸준히 농지를 늘려 현재 1만5,000평의 본인 소유지와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1만5,000평을 임대하여 총 3만평 규모로 농사를 연간 5,000만원의 순수익을 얻고 있다.

영농 기계화 통해 이루어낸 선진농업

영농의 기계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만평 규모의 농지를 이광우씨 부부가 모두 농사를 짓는데, 요즘에는 기계 작업을 통해 많이 수월해지기는 했지만 못자리 설치시에는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

일손이 부족할 때 사람을 쓰려고 하여도 농촌에 사람이 없어서 사람 구하는 것도 어렵다고 한다. 영농의 기계화가 선진농업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농업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다.

이광우씨는 유기물비료와 퇴비를 만드는 일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지만, 최대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로 만든 비료를 사용하고 있다.

많은 수확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것도 바로 그가 눈앞의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멀리보며 환경까지 생각하였기에 이루어진 결실이다.

또한 이씨는 다른 쌀들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조생종인 품종을 사용하여 햅쌀을 빨리 생산해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만큼 판로를 빨리 개척하여 남들보다 앞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계화로 이룬 선진 농업의 꿈이 현실로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임대한 1만5,000평의 농지가 올해 6월이면 임대기간이 만료된다. 앞으로 이씨는 본인 소유의 땅을 더 많이 확보해서 농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앞으로는 규모화가 아니면 농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영농규모가 확대되면 집단화를 통하여 그만큼의 생산비 절감과 함께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다.

우선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되어야 앞으로 곧 닥칠 전면적인 쌀 개방에 농업인들이 맞설 수 있고, 우리나라의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쌀은 우리의 문화



쌀 시장이 개방된 이후 논 면적은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또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도

'80년대 이후 줄곧 감소, 98년부터는 100Kg 이하로 떨어졌다.

근래에는 쌀음료나 스낵류 등이 많이 개발되어 쌀 소비의 촉진을 위한 노력이 일고 있으나 소비자인 우리들의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광우씨는 쌀을 하나의 식량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 한국인들의 하나의 문화로 생각하여 쌀생산자나 쌀소비자 모두 우리 쌀의 소중함을 알고 스스로 지켜내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米

이기용



1940년생

주소 경북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 254 전화번호 054. 787. 3151

게르마늄 쌀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

경영체명 게르마늄쌀단지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0년

경영규모 논 1만평

순수익 1,500만원

오랜 농사 노하우와 새로운 기술의 접목

경북 봉화군 온정면의 이기용씨는 농사를 30년간 지어 왔고, 게르마늄 농사는 6년째 짓고 있다.

처음 게르마늄 쌀 농사를 하게 된 동기는 울진군 기술센터 직원의 소개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98년 농업기술센터의 시험연구사업으로 4.8ha에 재배한 결과 밥 맛과 미질이 우수할 뿐 아니라, 도복 및 병해충에 강하여 점차 확대 재배하게 되었다.

이는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이씨가 환경을 파괴하는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법 도입과 잘 맞아 떨어진 결과일 것이다.

현재 이씨는 온정리 게르마늄 회장을 역임하면서 울진군에서 추진중인 2005년 세계 농업인 박람회에 대비하여 보다 나은 친환경농법의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게르마늄을 이용한 친환경 쌀 개발

게르마늄 쌀이란 게르마늄을 논에 뿌려서 논갈이를 하면 뿌리가 잘 내리고 품질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삼척에서 생산되는 게르마늄 원석을 구입해서 가루를 만들어 논에 사용하는 게르마늄 농법을 이용한 백암 게르마늄 쌀은 '98년부터 확대 재배한 결과 온정면 일원 148농가가 152.5ha에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동 지역에서 생산된 쌀은 온정 농협에서 전량 수매하여 가공 판매하고 있는데 앞으로 153ha에서 260ha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러한 게르마늄 쌀의 경쟁력은 '99년 저농약 표시인증, 2000년 '백암게르마늄 쌀' 상표출원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친환경농산물임을 입증하였고, 특히 '99년 전국 쌀 전업농단체에서 주관하는 제 2회 전국 쌀 대축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쌀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연중 생산량은 약 180여톤의 정곡을 생산하여 서울, 부산 등 농협하나로 유통 센터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연간 조수입은 약 1,500만원의 순소득을 올리고 있다.

현재 상표는 올진 '백암게르마늄 쌀' 로 등록해서 서울 가락동 농산물 판매장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쌀로 승부



이씨는 우리 농업이 살아 남으려면 앞으로 친환경 농업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앞으로의 FTA 등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금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특수성이 있는 상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2002년부터는 미질과 밥맛 좋은 품종 재배를 위하여 단지내 벼의 품종을 추정벼로 단일화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우수한 쌀생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금 여러 상품들과 연구들이 게르마늄의 효능을 입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게르마늄 쌀의 판매 또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며 시장에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米

이기운



1966년생

주소 충북 청원군 오창면 여천2구 380 전화번호 043. 217. 3122

유기농법으로 생산하는 깨끗한 쌀

E-mail cjlku@hanmir.com

주 품목 쌀

영농경력 17년

경영규모 논 7만평

순수익 1억원

특기사항 농림부장관상

친환경농법 적극 실천하는 노력파

충북 청원군 오창면 여천리의 이기운씨는 지난 '87년부터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농사짓는 전 과정이 친환경 농법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저희 논에서 생산되는 쌀은 그 질과 맛을 자부합니다.”

이씨가 택한 친환경 농법은 미강농법을 이용한 유기농법이다. 미강(고운 쌀겨)을 평당 1kg 뿌려줌으로써 잡초가 나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퇴비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씨는 이앙 후 미강을 살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이앙 1주일 후 즉 잡초가 막 발아했을 때쯤 미강을 뿌리고 얼마 안 있으면 물이 적갈색으로 변하고, 흙은 물렁물렁해진다. 물이 빨갛게 되는 것은 광합성 세균 때문이며, 이것은 벼의 뿌리에 해로운 유화수소를 먹어서 무해화 하고, 뿌리를 활성화시킨다.

살포 5일 후 논물이 검어지면서 태양열을 흡수하여 수온이 높아지므로 묘의 활착, 생육이 증대되고 착립수를 증가시켜 등숙률을 향상시킨다. 또한 미질도 향상된다.

비가 강하게 자라므로 병충해 방제 효과가 발생하고 미생물 활동이 활발하여 땅심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육묘법으로 대농 일손 줄여



이씨는 농협중앙회에서 400여 만원을 지원 받아 100평의 육묘장을 갖췄다. 하우스 육묘를 하게 되면 관리가 못자리 육묘보다 쉬워 더 많이 동시에 할 수 있다. 한사람이 더 많은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육묘법이 좋다. 그리고 모 생육조건이 못자리보다 좋으므로 생육이 빨라 어린모를 키워 모내기를 해도 된다. 그래서 수시로 모내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린모는 육묘기간이 8~10일

이며, 못자리에 치상하지 않고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 내에서 선반 육묘하므로 보다 더 생력적인 육묘법이다.

술선수범하는 쌀 사랑



청원은 비와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아 자연재해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관수 시설도 잘 되어 있어 가뭄 피해도 적어 벼농사의 적지라고 할 수 있다.

이씨는 "사람들이 쌀을 밍고 먹을 수 있도록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땅사랑과 쌀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며 "앞으로 청원의 생명 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친환경농법으로 고품질쌀을 생산하는 이씨는 여러 차례의 사례 발표를 통해 주변 농가에 친환경농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농림부장관상, 도지사상과 같은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 농가만 친환경농법을 실천해서는 안됩니다. 이웃의 눈이 오염되면 결국 주변의 땅과 물도 함께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쌀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만큼, 전국의 많은 농가들이 함께 유기농법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米

이길우



1966년생

주소 충북 청원군 북이면 화상리 190-57 전화번호 043. 214. 1582

과학적 규모화로 경쟁력 확보

E-mail

gwlee6607@hanmail.net

주 품목 쌀

영농경력 8년

경영규모 7만평

순수의 1억원

규모화 영농사업 지원 적극 활용

충북 청원 이길우씨는 유통업계에 종사하다 가업인 쌀 농사를 물려받아 직접 경영을 하며 농사를 짓게 됐다.

그는 규모를 늘리기 위해 그동안 영농 후계자 육성자금과 전업농 육성자금, 그리고 각종 농기계 구입 지원 자금 등을 적극 활용해 왔다.

이씨는 물려받은 농지 4만평에 농업기반 공사에서 4차례의 농지 매입과 1차례의 임대를 통해 3만평을 추가해 농지를 넓히고 이앙기와 콤바인 그리고 1천여 만원의 지원을 통해 트랙터를 갖췄다.

100평의 창고 또한 지원을 통해 지었고 그 외 도정기계를 자체 설치했다. 봄철 파종시에는 60명 정도의 인력이 대거 투입된다.

이씨는 지원과 계속되는 투자로 마련된 현대적인 영농으로 현재 1억 원의 순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씨는 "어릴 적 아버지를 보면서 땅에 대한 애착이 생겨났다.



땅 옥심일지 모르지만, 좋은 땅에서 좋은 품질의 쌀을 더 많이 생산하고 싶다.”며, “앞으로 벼농사의 살길은 친환경 농법으로 품질을 높이는 것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대농을 추구하는 것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토양 검증 통해 맞춤 비료 사용

이씨는 작물의 종류와 농사짓는 땅의 상태에 맞춰 성분을 다르게 만든 주문형 비료인 맞춤 비료를 쓰고 있다.

맞춤형 비료는 비료의 3요소에 해당하는 질소(N), 인산(P), 칼륨(K) 가운데 2종 이상을 섞어 만들되 땅의 상태에 따라 배합비율을 조절하게 된다.

각 도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 비료회사 등의 토양 검정기관에서 무료로 실시해 주는 정밀 토양검사를 통해 작성된 시비처방서를 통해 이씨는 토양에 맞는 비료를 찾을 수 있었다.

현대적인 영농을 위해

이씨는 각종 농기계를 갖추어 기계화 영농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농업기반공사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를 자주 출입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해마다 소개되는 신품종 중 이씨의 농도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여 시범 재배한다. 청원 지역에서는 추청과 새추청을 주로 재배하며, 일미 등 동진1호도 많이 재배되는 품종이다.

특히 청원의 생명쌀은 2000년 쌀전업농연합회 주관 쌀품평회와 지난해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의 으뜸농산물품평회에서 거푸 대상을 받으며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640ha를 계약재배해 9월에 매진됐던 청원생명쌀은 올해 1,000ha에서 계약재배한 18만 포대(20kg)를 수도권, 대전·충남지역에 풀어 경기미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이씨는 “청원의 생명쌀이라는 든든한 브랜드가 있지만 올해에는 우리 농가만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볼 계획이다.”이라며 정부나 농협을 통한 판매 외에 일반 판매에도 자신이 있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길정



1942년생

주소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계신리 129 전화번호 031. 882. 9206 H.P 011. 448. 9206

유기농법으로 부가가치 높은 쌀 생산

경영체명 칠암농장

홈페이지

www.chilamfarm.com

E-mail llkj@chollian.net

주 품목 쌀

영농경력 18년

경영규모 논 3만평

조수입 9,000만원

특기사항 농림부장관상

계약재배와 전자상거래로 판로걱정 “끝”

“이제 관행농법으로 쌀을 생산하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유기재배로 쌀의 부가가치를 한층 높인 농촌지도자 이길정씨는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재배한 쌀은 가격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이제는 밥맛이나 품질, 건강까지 생각하는 소비자의 기호를 맞추지 않으면 쌀 개방후 값싼 외국산 쌀에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만평의 논에 오리농법과 쌀겨농법을 도입,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 비농사를 짓고 있는 이씨는 한 유기식품 회사와 분유회사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일반재배 쌀보다 40% 가량 높은 값을 받고 있다.

또한 일반쌀에 비해 칼슘이 160배나 많이 함유된 기능성 쌀을 개발해 전자상거래(www.chilamfarm.com)를 통해 인기에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비싸지만 한번 맛을 본 소비자는 꼭 다시 찾기 때문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판로걱정은 전혀 없다고 한다.

맥반석·효소액 처리한 볏씨 파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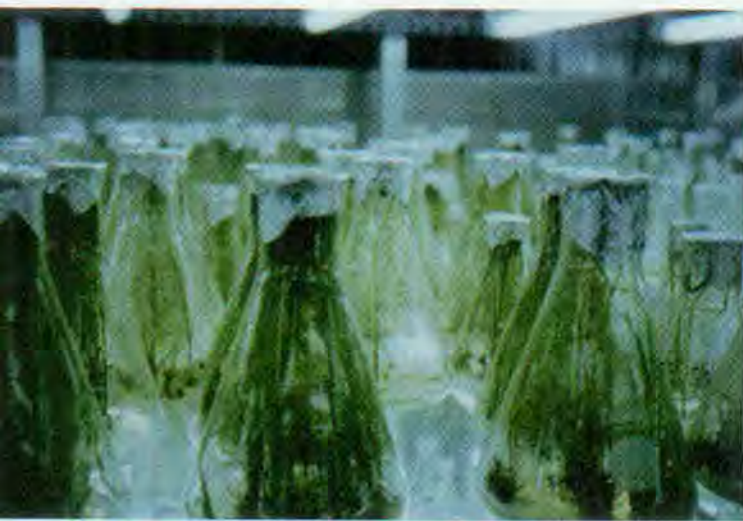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경기도로부터 품질인증을 획득한 이씨는 볏씨 파종에서부터 수확, 겨울철 논관리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방법을 쓰고 있다. 파종할 때는 우량 볏씨만을 선별, 섭씨 5~6℃의 저온창고에서 15~20일간 저온처리 한 후, '맥반석 효소'와 산야초와 해조류를 발효시킨 '맥초액'에 담궈 발아된 것만



쓴다. 토양관리도 남다르다. 발효퇴비로 이용하기 위해 겨울철에 호미를 심어 파종전에 노타리 한 후 쌀겨와 깻묵, 계분을 섞어 발효한 퇴비를 살포, 물을 댄 후 자연상태로 썩혀 퇴비로 이용한다. 여기에 칼슘 함량을 높인 퇴비를 이용해 칼슘이 함유된 기능성 쌀을 생산한다.

또 오리를 방사해 제초는 물론 병해충 농약을 대신하고 있으며, 오리의 배설물로 시비효과도 보고 있다. 모를 낸 후에도 쌀겨와 깻묵, 맥반석, 바이오 효소를 섞은 발효퇴비액을 엽면살포하고, 벼출수후에는 생선아미노산, 목초액, 현미식초를 엽면시비하기도 한다.

“유기농도 과학영농”...연구 안하면 뒤쳐진다



이씨의 이같은 유기재배기술은 국내 유기농협회 교육을 통해 배웠다. 지난 '86년 귀농한 후 2년만에 시작한 유기쌀 재배는 처음에 별 반응이 없었으나 인근 농가와 함께 작목반을 결성, 꾸준히 생산·홍보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유기쌀 재배는 일이 많은 대신 품질 좋은 쌀을 많이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씨는 일년내내 일을 해야하는 수고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많은 소득으로 되돌아 온다고 강조한다. 특히 “최근 친환경농업이 부각되면서 유기쌀 재배가 늘고 있다”면서 “유기농도 과학영농이기 때문에 끊임

없이 연구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십상이고 같은 유기농 쌀과의 경쟁에서도 뒤쳐진다.”고 충고한다.

이씨는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농업인이 나아갈 목표를 경쟁력 있는 우수농산물 생산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이다. 그 방법이 뭐냐는 질문에 이씨는 얼마전 개발·출시한 '콜레스테롤 강하 성분'이 든 기능성 쌀을 내보이며 대답을 대신했다.

이대근



1948년생

주소 충남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303-1 전화번호 041. 642. 6329

고품질 쌀과 유통의 차별화로 소득증대

경영체명 무한천농장

홈페이지 www.k-ssal.com

E-mail k-ssal@hanmail.net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5년

경영규모 3,200평

순수익 1억원

빈농으로 시작해 쌀 전업농이 되기까지

농업이 어렵다고 주작목인 쌀농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친환경 쌀재배와 인터넷 판매를 시도하는 이대근씨 충남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의 '무한천농장'이란 이름으로 벼를 재배하고 있는 이 씨는 소유지 4,000평과 위탁지 1만 2,000평, 임차지 1만6,000평을 경작하고 있다.

빈농으로 태어나 현재와 같은 180여 마지기의 논을 경작하기까지는 숱한 어려움이 있었다. 쌀만 가지고서는 늘어나는 영농비와 교육비 등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그는 지난 95년에 쌀전업농으로 선정돼 본격적인 과학영농기술을 익히게 됐고, 최근에서야 쌀을 가지고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친환경 농산물로 소비자 기대 부응

이씨는 지난해 2,200평에 오리농법으로 쌀을 생산했다. 농협의 계약재배로 이뤄진 오리농법은 새로운 쌀농사의 길



을 크게 했고 조수익 증가라는 두 가지의 이점이 있다. 오리농법 쌀은 1마지기 당 80kg 기준 3가마 정도가 수확돼 일반 재배보다는 수확량이 다소 떨어진다. 그러나 값은 40kg 기준 일반미가 6만2,400원인데 반해 오리농법 쌀은 8만4,500원으로 월등히 높아 1마지기당 일반미보다 20만원 가량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쌀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리농법에 의한 쌀은 물량이 모자랄 정도로 잘 팔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재배면적을 늘릴 수만은 없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친환경 쌀을 원하면서도 인식이 덜 돼 자칫 생산량을 늘렸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오리농법 재배를 약 2,000평 가량 늘려 볼 계획이다.

판로와 맞물려 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협과의 계약재배도 신중하게 대처할 생각이다. 이씨는 또한 판매에 있어서도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고 이미 인터넷홈페이지(www.K-ssal.com)를 만들어 쌀을 직거래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 50가구와 인연을 맺어 인터넷을 통해 쌀을 판매하고 있는데 미질이 좋고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점차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씨 입장에서는 농가 수취가격이 높다는 이점이 있어 점차 판매량을 늘릴 계획이다.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쌀은 주문 즉시 자가 도정기를 이용해 만든 것으로 80kg 가마당 18만5000원에 공급하고 있다. 택배비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일반미 15만3000원선보다는 값이 높아 짝짤한 소득이 된다는 것이다.

직거래를 통해 소득 높일 계획

현재 이씨는 마을 이장을 맡으면서 장곡면 이장들의 모임인 상록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개인의 쌀농사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우량품종 50가마를 얻어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등 모범을 보이고 있다. 30살부터 쌀농사를 지은 이씨는 콤바인과 트랙터, 건담직파기, 파종기, 발아기 등 벼 재배를 위한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기계는 내구수명이 짧기 때문에 융자금을 갚는데 다소 부담이 되지만 친환경 쌀과 직거래 확대를 통해 소득을 높일 계획이다. 이대근씨는 “소비자들이 고품질 쌀을 찾고 있어 앞으로는 친환경 쌀을 재배하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차별화된 영농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래 도



1952년생

주소 경북 상주시 화서면 봉촌리 170 전화번호 054, 533, 5834

농민 스스로의 혁신이 필요하다

주 품목 쌀

영농경력 7년

경영규모 논 2만5,000평

조수입 7,000만원

쌀전업농으로

경북 상주군 화서면의 이래도씨는 '96년부터 벼 농사로 전업하여 쌀전업농으로 열심히 쌀 생산에 노력해 오고 있다.

그 동안 여러 작목을 재배해오던 이씨는 쌀을 전업적으로 농사를 지을 기회를 찾고 있던 중 정부로부터 농기계 보조금을 30% 받은 것을 기회를 계기로 하여 기계화된 쌀 농사로 전업을 하게 되었다. 쌀 농사를 전업으로 하면서 3년전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본격적으로 쌀전업농으로 선정하였다.

쌀전업농으로서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한작목에 만 신경을 쓰다보니 보다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그 만큼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좋은 점 또한 많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기계화를 통한 규모있는 영농

현재 경작하고 있는 2만5,000평 중 1만평은 임대 증이고, 밭도 1천평 임대차 해서 콩 등 잡곡류를 경작하고 있다.

논 6천 5백평에서 생산된 쌀은 안동 종자 공급소에 보내지고 있으며, 1만평에서 생산된 쌀은 올해부터 '참머쌀'이라는 상표를 붙이고 이마트(E-Mart)를 통해서 판매하여 연간 7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쌀농사에 필요한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등 각종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유기질 비료의 사용을 시험하기 위하여 현재 키우고 있는 소 17마리의 축분을 퇴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좋아 앞으로 유기비료의 사용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렵지만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씨는 지난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했었다. 태풍 '루사'의 피해로 800평 가량이 매몰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우박으로 20%가량 농지에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농약과 제초제 등 영농자재의 구입비가 너무 비싸고 일손부족과 농촌 고령화등으로 노동력 확보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이씨는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농업인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기계화와 저농약투입 등 친환경적인 농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한다.

농민 스스로가 변화에 앞장서야

이씨는 일부 영농후계자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그것을 제대로 투자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현재 시행중인 직불제가 2ha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 제한선을 없앴으면 하는 것과 쌀 이외에 다른 작목에서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고루 나누어졌으면 한다는 희망 사항을 피력하였다.

하지만 이씨는 무엇보다 농업인들이 스스로 경영을 혁신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자세가 먼저 갖추어져야만 새로운 환경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을 빼 놓지 않았다.



米

이명렬



1956년생

주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길현리 682-42 전화번호 031. 945. 8550

내 나라를 지키다 내 논을 지키다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0년

경영규모 논 1 만평

순수익 5,000만원

저농약 쌀을 농협에 수매

이명렬씨는 경기도 분당에서 태어나서 '79년에 농협에 입사했다.

군제대 후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농협을 그만두고 '81년에 가업을 물려받아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한다.

벼농사를 지으며 소를 길러봤지만 구제역 등으로 모두 팔아 버렸고 지금은 벼농사만 주력하고 있는데 본인 소유 1만평과 위탁 3만평으로 총 4만평을 경작하고 있다.

300평(한 마지기)에 500kg정도 수확되고 있는데 이곳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본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포함한 주변의 땅은 강을 매립하여 논으로 만들어서 토질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이점을 갖고 있다.

중부지방의 기후적 특성도 한 몫 해 품질 면에서는 어느 지방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현실적인 유기농법 선택

이씨는 특화된 쌀을 생산하기 위해 오리농법을 실시했으나 대규모로 쌀을 재배하는데 있어서는 오리농법의 한계성을 파악하고 동시에 가격이나 소득 면에서 다른 일반 쌀들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은 규산질 비료와 2회 정도로 농약의 살포 횟수를 줄여가고 수확 후 벼짚을 팔지 않고 논에 계속 퇴비로 사용하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유기농법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씨는 '98년의 큰 수해 등의 자연 재해로 논뿐만 아닌 집까지 피해를 입어 아직까지도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고,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다양한 직불제를 확충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경영여건이 안정되어야만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을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도.

논을 지켜야 국토가 산다

'99년부터 지금까지 마을 이장 일을 수행하면서 농사도 짓지 않는 외부인에게 농민의 터전이 많이 넘어가는 사례를 보면서 절대로 본인의 땅만은 늘리지 않고 계속 지킬 것이라며 농사짓는 땅은 농촌 뿐 아니라 나라도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는 소규모 영농으로는 농촌에서 살아갈 수 없다며 기계화를 통한 대규모 영농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점점 고령화가 되어 가는 농촌에 젊은 인력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희망했다.

米 이범주



1952년생

주소 경기 안성시 고삼면 대갈리 481 전화번호 031. 672. 7171 H.P 011. 9756. 7170

땅을 섬기며 우리쌀 지키는 '오리쌀 농사꾼'

경영체명 보람농장

주 품목 쌀

영농경력 16년

경영규모 1만 9,400평,

한우 70두

순수익 2,500만원

특기사항 경기농어민대상

땅도 살리고 농민도 살린 '일석이조' 성과

경기도의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안성시 고삼면에서 친환경 농업을 이끌고 있는 이범주씨는 '오리쌀 농사꾼'으로 통한다. '86년 논 8,000여평으로 벼농사를 시작하게 된 그는 타 고난 근면성과 성실함으로 땅을 일구었다.

농부의 아들로 농사꾼의 자질을 스스로 확인하게 된 그는 '88년부터 축산업을 겸업하며 영농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됐다. 남들과 똑 같아서야 남을 앞설 수 없는 법이다. 이범주는 '86년부터 농사를 지어오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질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오리쌀 브랜드화, 일반쌀 비해 200% 매출신장

이씨는 친환경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농약을 쓰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을 거듭했다.

오리농법을 시작한 주변 지역 농가에 자극을 받은 그는 '96년 때마침 정부정책도 친환경농업에 역점을 두고 있어

는 6,000평에 오리농법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산된 쌀의 수매와 유통이 문제였다. 그는 단지화가 되어야 품질인증 획득이 용이하다는 것을 알고 마을 청년회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작목반을 결성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상호정보를 수집하고 품질향상에 노력했다.

그 결과 오리농법에 의한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일반 쌀에 비해 200%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게 됐다. 친환경 오리농법에서 제초를 위해서는 오리투입시점이 중요한 데 모시고 7일째 되는 날 어린오리(생후 5일)를 투입해야 제초효과가 크다고 한다.

이씨는 평소 농사현장에서 배우고 익힌 유용한 농사정보를 작목반 회원들과 공유하여 고삼면을 오리쌀의 명소로 거듭나게 했다.

또한 병원체에 강한 모를 키우기 위해 모판 1판당 활성탄 2g을 첨가하여 문고병 등 내병성을 강화했고 본논에 평당 600g 활성탄을 살포하여 미질을 높였다.

친환경교육장 조성, 도시 소비자와 농촌을 연계

이처럼 친환경농업에 관심을 갖게된 다른 농업인들도 가세하여 고삼 친환경농업작목회 재배면적은 13만5,000평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항공방제 미 실시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다. 또한 축산 분뇨는 과수재배와 논농사의 거름으로 전량 소비하고 있어 자체로 친환경적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씨는 '96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삼 환경농업작목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2000년 고삼면 농촌지도자협의회 부회장, 2001년부터 고삼면 농업경영인연합회 부회장 등을 맡아보며 지역 및 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또한 천주교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와 결연을 맺어 고삼면 대갈리를 도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해마다 수원, 인천, 서울, 분당 등지



의 주민들이 모내기가 끝난 논에 오리를 풀어 내보내는 일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우리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고삼면에서 생산되는 오리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일석이조의 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는 “고삼면은 오리쌀을 생산하는 단순 재배지역이 아닌 농촌과 도시를 잇는 친환경 재배단지로 거듭 육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米

이 병 기



1959년생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1동 645-5 전화번호 031. 901. 3593

고품질 벼 직접 도정, 브랜드쌀로 출시

경영체명

고양시쌀연구회영농조합법인

E-mail

janghang@freechal.com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0년

경영규모 논 3만평

순수익 2억

“후발주자지만 청결하고 윤기 있고 찰기 많은 고품질 쌀로 승부해볼 겁니다.” 고양시쌀연구회영농조합법인의 이병기 대표이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고양토박이로 농가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레 농사를 익혔다. 현재 가지고 있는 농경지는 3만평 정도로 지난 해까지는 생산에만 전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익은 2억을 올렸지만, 이 대표는 고품질로 제 값을 받겠다고 결심, 최근 30년의 경력을 토대로 본격적인 쌀 상품화작업에 나섰다.

고품질쌀 생산 위해 도정공장 건립

“일종의 모험이지만 고품질 쌀에 대한 믿음은 변함 없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조합원 12명과 고양시 쌀 연구회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고양시 일산구 구산동에 도정공장을 세웠다. 대지 1,200평, 건물 400평 규모로 비용은 조합원이 각자 1억 원씩 부담하고 시·도에서 약 3억3,000만원을 지원받아 충당했다. 일반 미곡종합처리장(RPC)보다 작지만 한시간

에 2.5톤의 도정작업이 가능하다. 또 정미작업에서 수분조절을 하고 6라인의 현미작업으로 압력을 작게 해서 철저히 맛에 맞추고 있다. 보관을 위한 저온창고, 도정, 포장작업이 한번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상품화 과정에서 마음 고생도 심했다.

이 대표는 일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5,000년된 볍씨에서 착안 '선조시대'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출시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동원참치에서 브랜드 등록을 마쳤던 것. "덕분에 3,000만 원을 들여 미리 해 둔 포장 및 상표 작업이 모두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품은 '선조시대'라는 상표를 등록,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선조시대' 브랜드 상표 등록

"맛 좋은 쌀은 농작에서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이 대표는 고양시농업기술센터의 식물작물계 도움으로 저농약 재배를 하고 있다. 3만평의 농지에 추청품종(아키바레), 신추청을 중심으로 재배하고 있다. 지난해는 농약을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 덕분에 지난해 경기도 품질인증 표시 'G마크'를 획득했다.

올해부터는 부분적이지만 등겨를 이용한 친환경 농법도 도입하려 한다. "등겨를 눈에 뿌려두면 기름 막이 형성되어 해충들이 제거되고 양금은 가라앉아 좋은 거름이 됩니다. 물론 맛도 좋고요." 이 대표는 이를 시험적으로 시도해보고 차차 늘려갈 생각이다.

"갈수록 농사짓기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맛 좋은 쌀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겁니다." 이 대표는 당분간 일산농협을 중심으로 '선조시대' 브랜드쌀 홍보와 출시에 신경을 쓸 예정이다. 충남 서산에서 2년째 농사짓고 있는 쌀 연구회 작목반 일부도 도정공장과 연계하려 한다.

米

이 병 주



1943년생

주소 충남 연기군 진동면 송성3리 561 전화번호 041. 863. 2624 H.P 017. 403. 2624

오리농법으로 무농약 품질인증 쌀 생산

주 품목 쌀

영농경력 41년

경영규모 논 10ha

순수의 1억원

정부 수매 보다 30% 이상 높은 값에 판매

이병주씨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벼농사를 짓는다. 논외 제조작업이나 병해충 방제를 오리에게 맡기고 있다. 당연히 농약이 필요 없고 오리의 퐁·오줌 역시 훌륭한 거름이 돼 화학비료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많은 농가들이 쌀 판매를 고심하고 있지만 이씨는 걱정이 없다. 오리를 이용해 생산한 쌀은 전라 서울의 소비자단체에서 높은 값을 주고 사간다. 2002년의 경우 10ha(3만평) 논에 '추청' '주남' 품종을 심어 조곡 40kg기준으로 1,300포대를 생산했는데, 이 단체에서 1포대당 8만3,000원씩에 사갔다. 같은 해 관행 농법으로 생산한 1등급품 벼의 정부 수매값이 6만440원 이었다.

일찍부터 환경농법 관심

이씨가 오리농법을 시작한 것은 지난 '94년부터지만 그는 '80년대 중반부터 환경농법을 실천해왔다.

당시 이씨는 쌀겨를 이용, 일본에서 들여온 고품질 품종인 '고시히카리'를 재배했다. 하지만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어렵고 도복 피해도 심해 농업기술센터의 조언을 얻어 오리농법을 시작하게 됐다.

그러나 이씨는 오리농법 도입 첫해부터 난관에 빠졌다. 4,000여평 논에 오리 350마리를 방사했는데, 단 하루만에 녀구리등이 모조리 물어 죽인 것이다. 게다가 수확량까지 적어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미질도 좋고 안전농산물로 각광을 받자 현재는 모두 13농가가 참여하는 고성쌀작목반을 조직했다. 작목반에 참여한 농가는 모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무농약 품질인증을 받고 이씨와 똑같은 판매처를 확보했다.

벼베기 직전부터 다음해 농사 시작

이씨의 한해 벼농사는 추수를 하기 직전부터 시작된다. 벼를 베기 직전 호밀씨앗을 논에 뿌려주면 벼 수확후 파랗게 싹이 돋는데, 이 호밀은 다음해 4월20일경 로터리 작업으로 갈아엎는다.

여기에는 쌀겨와 들깨묵 등을 발효시켜 뿌려준다.

모를 심고 7~15일 후 이씨는 300평당 오리 20~25마리를 넣었다가 벼이삭이 켈 무렵 빼낸다. 날씨, 기온, 강수량 등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개껍질을 목초액으로 녹인 것과 키토산등도 뿌려준다. 이씨가 이런 과정을 거쳐 수확한 벼는 모두 한 살림공동체가 조곡상태로 사간다.

판매 가격은 수확후 소비자와 생산자가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그리고 다음해 농사도 이렇게 짓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재배계약을 체결한다.



이 상 용



1963년생

주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 2리 전화번호 031. 773. 3085

땅이 살아야 농민도 산다

경영체명

화전2리 오리수도작목반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1년

경영규모 7,000평

순수익 2,000만원

무농약 재배 인증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오리 농법쌀 생산단지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49개 전농가 모두 무농약 재배쌀 인증을 받았다. 여기에는 농가 교육부터 새로운 기술 도입까지 농업에 종사한지 31년째인 이상용씨의 남다른 노력이 숨어있다.

지난해에는 용문면 화전리 소재 2ha의 논에 오리 7,200마리를 방사해 오리농법으로 청정 쌀을 생산했다.

생산한 쌀은 공동수매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는데 일반논에서 생산한 쌀보다 25% 이상 높은 가격에 서울로 직거래됐다.

이처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생산한 오리농법 쌀은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쌀로 급부상하고 있다.

용문면 오리농법쌀 생산단지 내에서는 병충해 발생 억제 및 예방을 위해 항공방이 미생물 제제인 그린케어와 친환경 제제인 키토산을 한달에 각각 2회씩을 살포해 생육 촉진을 돕고 있다.

시행착오 속에서 얻은 교훈



초기에는 재배기술 부족과 오리관리 미숙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농가마다 다니면서 친환경농법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인식시키는 것은 고스란히 이장인 이상용씨의 몫이었다. 한강물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도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사방법이 있다며 소개했지만 선뜻 동조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시행 첫해에는 무도혈병까지 돌아 주민들의 원망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오리농법으로 생산한 쌀이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단위면적당 소득이 증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노인들까지 환경농업에 대한 개념이 확립된 상태다.

처음에는 오리가 크면 좋은 줄 알고 큰 오리를 눈에 풀어놓았는데 식성이 좋아져 벼 잎까지 먹어 치우는 바람에 고생했던 기억을 이상용씨는 회상했다. 특히 오리는 습성상 깊은 물쪽으로 가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데 밭 군데 군데 깊은 곳이 생기면 그곳에서 주로 놀면서 벼를 망가트렸다. 그러나 차츰 노하우가 쌓이면서 지금은 그곳에 망을 설치해 오리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오리는 질병에 강하기 때문에 별다른 관리가 필요 없어서 편리하다. 단지 오리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너구리나 들고양이를 막아주면 된다.

소비자들이 찾는 브랜드쌀 생산



용문면 화전2리 농업인의 과제 중 하나는 유기농인증을 받는 것으로 이를 위해 오리농법을 보장할 수 있는 좀더 나은 기술을 찾고 있다. 또 군이나 농협을 통해서 환경농업 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초빙해 강의를 받는가 하면 선진 유기농법 실시 오리농법 현장을 견학하면서 보완점을 찾고 있다. 특히 일본 유기농업 현장을 견학하여 얻은 정보에 의하면 일본은 국회, 정부, 농민이 일체가 되어 유기농을 널리

보급하고 실천한 결과 수입농산물을 완벽하게 규제하는 효과까지 얻고 있다는 말을 듣고, 반드시 유기농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결심이 확고해졌다고 한다.

이상용씨는 화전2리에서 생산하는 쌀을 '경기 화전쌀'이란 자체브랜드로 만들어 화전리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쌀을 생산해 부가가치를 높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굳게 했다.

米

이상진



1955년생

주소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545 전화번호 041. 952. 5603

쌀겨농법 청정쌀, 판로 걱정 '이상무'

경영체명 와식농장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0년
 경영규모 2만4,000평
 순수익 4,000만원

모낸뒤 쌀겨 뿌려 땅심 높여

“쌀겨농법이랄까, 모내기 후에 쌀겨를 논에 뿌려 땅심도 높이고 농약과 비료를 덜 써 일석이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0년째 벼농사를 짓는 이상진씨는 도정과정에서 나오는 쌀겨를 이용해 청정쌀을 생산, ‘서천쌀’의 명성을 높여 가는 쌀 전업농이다. 번거로운 쌀겨 살포작업 때문에 쌀겨농법은 그동안 농업인들로부터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이씨는 쌀겨농법을 계속 해오면서 새로운 친환경 농법으로 자리잡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친환경재배농업연구회 결성, 쌀겨농법 연구

이씨는 당초 서울에서 사진관을 운영했었다. 그러다가 연료한 부친의 가업을 잇기 위해 '83년 귀향한 이씨는 아내 박순례씨와 각고의 노력으로 당시 5,000평의 논을 2만4,000평으로 늘렸다. 귀향 초기만 해도 농약과 비



료에 의존한 벼 재배에 열중해오던 이씨는 90년대 들어 쌀 시장 개방압력이 거세지면서 농약걱정 없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차별화 된 쌀을 생산하기로 결심했다.

이에따라 친환경농법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서천지역내 뜻을 같이하는 젊은이들과 '친환경재배농업연구회'를 결성, 지역 실정에 맞는 재배법을 찾으면서 쌀겨농법을 도입하게 됐다. 이 연구회는 쌀겨를 논에 뿌리면 쌀겨내 활동하는 미생물이 발효과정을 거쳐 검붉게 변색되면서 수면에 막이 형성, 잡초와 해충의 호흡을 막아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도 알게됐다.

또 쌀겨내에 함유된 영양분으로 토양내 미생물 번식이 촉진돼 굳었던 땅이 물러지는 등 땅심을 높임으로써 작물 생육을 왕성하게 하고 병원균도 억제, 맛과 품질이 뛰어난 쌀을 생산할 수 있다는 실증실험 결과를 얻었다. "모내기 전에 쌀겨를 뿌리면 발효과정에서 나오는 유독가스 때문에 모가 뿌리를 내리지 못

합니다. 따라서 모내기 후 10~14일이 지난 후에 10a(300평)당 150~200kg의 쌀겨를 뿌리는 것이 가장 적당하죠."

녹비작물로 10월초에 자운영 파종

이씨는 '99년부터 녹비작물로 자운영을 심고 있다. 수확 전인 10월초순 정부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자운영 씨앗을 파종하는데, 이 역시 비료값 절약에 도움이 되고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친환경비료는 질소질 성분이 적어 오히려 농가들이 비료를 많이 쓰는 부작용이 유발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다수 농가들이 수확 후 논에 벼짚을 넣지만 잘 분해되지 않아 땅심을 높이는 데 별 효과가 없을뿐더러 모내기후 모가 뿌리를 내리는 데도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재배한 벼는 4,800kg들이 자체 건조기를 이용, 50℃ 이하로 천천히 말려 미질을 좋게 만든 다음 전량 서천농협에 제통출하하고 있다. 모내기와 가을 수확철 등 아주 바쁜 시기를 제외하고는 부부 노동력만으로 농사를 꾸려가는 이씨는 "앞으로 기계화를 바탕으로 5만평까지 농사규모를 늘릴 계획"이라며 "친환경농자제를 적극 활용, 지역 전체를 친환경농업지구로 육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米

이우석



1962년생

주소 충남 청양군 비봉면 관산리 214 전화번호 041. 943. 3966 H.P 016. 9320. 9749

위탁영농회사로 20만평 벼농사

경영체명 비봉위탁영농회사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5년

경영규모 논 20만평

순수익 1억5,000만원

특기사항 충남농업인상,

쌀증산공로상

잘 할 수 있는 일은 벼농사 뿐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일은 벼농사뿐이니 밥 맛 좋은 쌀을 안전하게 생산하도록 꾸준히 노력할 작정입니다.”

지난 '89년 논 1,200평으로 시작해 14년만에 비봉면 벼 재배 면적의 10%에 이르는 20여만평의 벼농사를 짓는 위탁영농회사를 운영하는 이우석씨.

이씨는 이제 지역 벼농사의 중추적 인물이다.

그의 영농 터전은 지난해 큰 산불이 난 곳으로 충남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

차령산맥 줄기가 동북에서 서남으로 뻗어있고 도립공원인 해발 561m의 칠갑산이 있어 구릉이 탁월하나 농지가 적어 구기자과 고추 등을 특산물로 재배하는 전형적인 시골마을이다. 그러나 일손이 많이 필요한 구기자 재배로는 농촌에서 필요한 소득을 올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씨는 '89년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아 논 1,200평을 구입해 주작목을 구기자에 서 쌀로 바꿨다.

고품질 쌀 생산노력 인정받아



이후 이씨는 '93년 정부에서 지원받아 비봉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해 오늘의 농업기반을 다졌다.

그리고 마침내 '95년 농업기반공사에서 육성하는 쌀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됐다. 쌀 전업농으로 선정되어 영농에 필요한 트랙터, 콤팩트, 이앙기, 건조기 등을 갖추고 농업기반공사로부터 1만5,000여평의 논을 구입했다.

그런 다음 임대차 논을 5만여평으로

늘렸으며 마침내 2002년에는 모두 20여만평의 벼농사를 지어 조수입 1억5,000여만원을 올렸다.

이씨는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도 이뤘지만 밥맛 좋은 품종만을 재배하고 있으며, 청양군에서 지원한 축산분뇨 액비화 시설을 적극 활용해 화학비료를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질소질 비료를 정량 넣는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아 위탁 농가 대부분이 재배 품종이나 방제 등을 모두 맡겨 두고 있다.

고유 브랜드 쌀 생산 판매 추진



그러나 이씨는 앞으로 현재 자신에게 위탁하는 고령 농업인들이 더 이상 농사를 돌볼 수 없게 되면 그만큼 영농인력은 줄어들게 되고 농업도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씨는 "이제 농업인의 역할이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며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이 어떤 노력을 들여 생산했는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통과 판매에도 관심

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앞으로 불어 닥칠 개방에 대비해 안전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자신의 위탁 영농회사에서 생산하는 안전한 고품질 쌀 브랜드화에 나설 계획도 세우고 있다.

米

이 일 남



1944년생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동 446 전화번호 062. 943. 6341 H.P 016. 681. 7126

벼 직파재배기술 개발 보급 장본인

경영체명 원시미농장

홈페이지 www.affis.net/rice21

E-mail rice21@affis.net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0년

경영규모 8,000평

순수익 3,000만원

취미가 농사일만큼 농업에 애착

한국원시미(원시미)재배기술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일남씨는 벼 직파재배 기술을 최초로 개발해 일선농가에 보급하는 신지식인이다.

이씨는 농협과 농촌진흥원 벼직파재배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노령화된 농촌현실을 감안해 노동력과 생산비가 절감되는 농사방법으로 농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쌀 생산기술을 획기적인 방법으로 바꿔 벼 직파농법을 개발했다.

이씨는 지난 '88년 벼 직파농법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원시미연구원'을 전국적인 모임으로 조직해 현재 회원들은 2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모두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다.

이들은 이 농법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서로의 경험을 통한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 "앞으로 쌀 생산기술도 농촌 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으로 바뀌어야 하고 직파재배의 장점을 적극 홍보해 재배면적을 확대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직파농법 만큼은 자신있게 말한다.

연사회 등 개최해 직파기술 전파

그는 벼 직파재배와 관련해 연사회를 22회 실시했고 수확 평가시에도 5,900여명이 참가, 그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전국 농민들을 상대로 270여회 기술 강연한데 이어 2만2,000명이 벼 직파재배 현장을 견학했다.

벼 직파재배방법은 복잡하고 힘든 육묘과정을 생략하고 본답에 직접 벼를 살포해 재배하는 방법으로 '90년부터 전국에 보급되면서 일선 농가에 알려지게 됐다.

이씨가 벼 직파농법을 착안한 것은 군복무시설 월남전에 참전해 보았던 그곳 쌀 농사법을 기억해 개발했다.

이 농사법은 이씨를 중심으로 원시미재배기술연구원 회원들이 15년간 농촌 현장에서 경험을 토대로 다듬어 온 기술이다.

실제로 기계이앙보다 ha당 생산비절감 효과가 100만원에 달하고 중노동이 거의 없어 노령인력도 농사짓기에 편리하며 수량도 20%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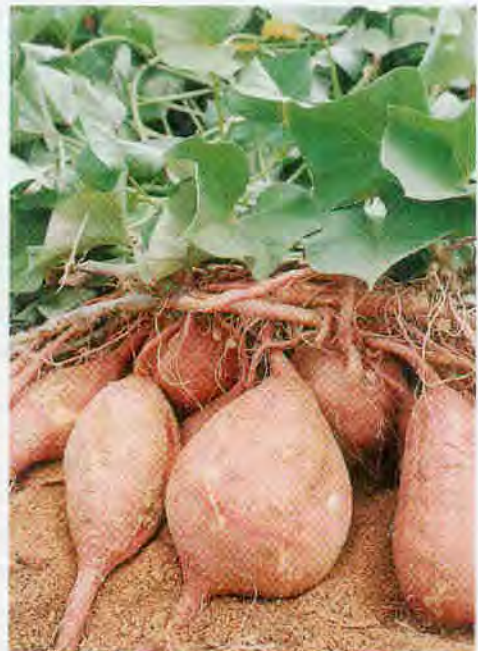
이씨가 그 동안 벼 직파농법을 거듭 연구해 다시 선보인 1모작 직파법과 새로 연구한 2모작 직파법, 무경직파, 1모작 무논직파법, 또한 무논직파 1모작 재배기술과 벼 무논 1경4수 직파재배 기술이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환경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이씨가 새로운 농법을 개발, 보급함에 따라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효과는 물론 육묘, 이앙, 병충해 방제의 과정을 대폭 생략되고 쌀 수량 증대와 밭농사의 휴경화를 예방, 소득작목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리·참깨·고구마 재배법도 개발

이씨는 이밖에도 손쉬운 보리재배기술, 참깨와 고구마를 동시에 재배하는 기술, 고추재배와 완두콩을 연작으로 재배하는 기술을 개발해 보급중에 있으며, 단감으로 꽃감을 만드는 기술 개발에 성공한데 이어 계절 없는 엽채류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씨는 이러한 기술을 전국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홈페이지(www.affis.net/rice21)를 개설, 친절히 상담을 해 오고 있다.



米

이점동



1959년생

주소 경기 부천시 오정동 322-2 전화번호 031. 671. 2747 H.P 011. 9039. 2747

“만석꾼 꿈(★)을 이뤄내고 말리라 ”

경영체명 만석꾼농장

E-mail

ljd1000@hanmail.net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5년

경영규모 논 4만5,000평

순수익 7,500만원

부천시, 오정농협 도움덕택에 성공

만석꾼을 꿈꾸며 벼농사에 전력을 다 쏟고 있는 이점동씨는 농사여건이 지극히 나쁜 퉁바구니속에서 성공 농사를 일궈낸 인간 승리자이다.

이씨는 도시화의 팽창과 산업화의 물결속에서도 우리의 농업을 파수꾼처럼 지키면서, 약 300평의 대지에 사무실과 창고를 마련, 만석꾼농장 간판을 걸고 쌀농사를 짓고 있다.

만석꾼 농장 이씨는 지난해 새로 장만해 농사를 짓고 난 이앙기와 콤바인 그리고 트랙터(2대), 경운기, 건조기 등을 애지중지 아끼는 동반자로 여겨 깔끔하게 털고 닦아 보관해 놓고 있다.

이씨는 수도작 4만5,000평(자기소유 1,200평)을 경작해 생산비 등을 제하고 난 연간 농업소득 7천500만원을 올린다. 월급으로 따지자면 평균소득 630여만원으로 중소기업체의 임원급에 해당하는 보수라 할 수 있다.

이씨는 이만한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농기계를 통한 과학영농으로 효율을 높이고 있고, '전해수농법' 등 노동력, 노동시간 절약으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공장폐수·상습 침수의 악조건과 싸우며 된다



이씨가 농사짓는 곳은 상습침수 지역으로 농번기에 장마가 들면 모두 물에 잠겨버린다.

지난 해에도 태풍 '루사' 로 이 일대의 논이 모두 물에 잠겨버렸다. 4만5,000평을 경작하지만 수해보상금은 지주에게 돌아가 버리고 자신이 받은 것은 논 1,200평에 대한 45만원이다. 수해보상금은 호당 지급하기 때문이란단.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악조건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참고 극복하는 이씨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 목표는 변

함없는 만석꾼이 되는 것이다. 이씨가 만석꾼의 꿈을 키워 나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머슴살이 시절 잊지 않으려 이웃돕기 앞장서...

전남 구례군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이씨는 굶주림에 지쳐 12세의 어린나이에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1년간 받은 세경을 가난한 집안 살림에 보태야 했다.

지금도 가난했던 어린시절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씨는 지금은 소년소녀 가장돕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수확한 쌀 800kg을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나눠줬다.

오정 1동의 영농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씨는 다수확 신품종을 조기에 확보하여 조합원에게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힘쓰고 있으며 농사에만 전념하여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차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씨는 또한, 조합원들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관련 관계자들과 항상 상의하여 조합원들에게 발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米

이정모



1942년생

주소 경기 여주군 강천면 가아리 272 전화번호 031. 882. 6102 H.P 019. 394. 5417

‘유기농업만이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경영체명 가아리농장

홈페이지

www.gaya-farm.com

E-mail

gayafarm@empal.com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6년

경영규모 9,000평,

돼지 100두

순수익 3,000만원

특기사항 친환경농산물 쌀 부문

최우수상, 경기농어민대상

흑설탕·식초·오리농법 등 유기농법 개발

이정모씨는 ‘유기농업의 달인’이라고 불린다. ‘70년대에는 쌀 다수확 재배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며 농촌재건 운동에 젊음을 불태운 그는 농업이 다수확 증산에 모든 정책과 지원이 집중화 되면서 토양 산성화와 농업환경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을 늘 안타까워 했다.

이에 이씨는 ‘78년 자연농업연구회가 건국대학교에서 개최한 겨울농민대학에 참석해 미생물제제에 대한 강의를 듣고 유기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직접적인 계기는 자신의 눈에 농약을 살포하다 부인과 함께 수차례 농약중독 사고를 경험한 이후부터 농약의 폐해를 철저히 느끼면서 확고한 유기농업을 실천에 옮기게 됐다.

그러나 당시에는 환경농업에 대한 기술과 정보도 부족했고 친환경 영농기반시설도 열악했던 터라 삽으로 직접 땅을 파고 축분·인분 등을 발효시킨 유기질 거름을 만들어 눈에 살포했다. 하지만 영양 불균형으로 수차례의 실패를 겪었다. 그럼에도 관행농법으로는 농업환경을 파괴하고 경쟁력을 갖

출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흙설탕·식초 농법, 오리농법, 축분발효퇴비 순환 농법 등의 다양한 유기농법을 개발해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생산에 성공했다.

토양관리부터 벼 수확까지 완벽한 유기농업 실천



현재 이씨는 벼농사 7,000평, 밭농사 (고추·배추) 2,000평, 돼지 100두 등에 농약과 화학비료, 항생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돼지 사료까지도 농장 부산물을 사용할 정도다.

이씨는 토양관리부터 철저하다. 수확 시 벼짚을 썰어 넣고 호밀, 콩과 식물들을 파종, 녹비작물로 사용해 비옥한 토질을 만든다. 이듬해 봄, 고품질 볍씨를 자가 채종하여 염수선 키토산, 보리들

꿈씨를 처리, 침중한 후 피라미드 기(氣)를 이용해 든실한 육묘를 길러낸다.

이어 본답 이앙 후 관리시에는 톱밥발효퇴비·녹비작물로 밑거름을 하고 자가 유기질비료(쌀겨·짚묵 발효제조)를 주비로 사용하며, 질소 저하예방과 각종 영양보충을 위해 목초액·흙설탕·현미식초·생선액비·아미노산·미생물제(효소) 등을 수회 살포한다.

모든 논에는 정식 후 2주경 오리를 입식(300평당 30마리), 제초·시비, 병해충발생 억제, 산소공급을 원활히 해주고 오리가 먹지 못하는 화분과 잡초는 인력으로 직접 제거한다. 수확한 벼는 모두 태양건조한 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고객 주문을 받는 대로 자가도정, 포장화해 판매한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획득, 전국 최고 쌀 자부



이씨의 '가야리 농장 유기농 쌀'은 10kg(정곡)당 6만5,000원(80kg 기준시 52만원)으로 전국 최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이씨는 이 같은 노력으로 '99년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는데 이어 친환경농산물 쌀 부문 최우수상(농림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2000년에는 경기농어민대상(환경농업신기술부문)과 (주)한국유기농업협회의 유기농업인상 본상 등을 수상했다.

한편 지난해부터는 논 350평에 무농약 종이벌칭 재배를 시도해 초기 지온피해와 잡초 발생 및 병해충 발생 등을 억제시키는 성과를 거둬 올해부터 종이벌칭을 확대 재배기로 했다.

米

이종용



1959년생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515 전화번호 031. 771. 6239

기업가 정신으로 영세농업 탈출

경영체명 가마을농장

주 품목 쌀, 한우

영농경력 22년

경영규모 1만5,000평,

한우 40두

순수익 7,700만원

특기사항

농림부장관상

벼직파로 생산비 절감

“벼농사도 이제는 단순 농사가 아닌 경영을 토대로 한 손익을 산출하는 경영적인 면을 중요시 해야 합니다. 농가 자신이 경영프로그램을 만들어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만 살아남습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종용씨는 이와 관련해 벼직파법을 권한다. 벼직파는 못자리와 모내기 등 기존에 행해지던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인력 및 생산비 절감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순조로운 출발은 아니었다. 이종용씨는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제적 손실도 감수해야만 했다.

제대로 소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 관행농업을 통해 얻는 쌀 생산량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은 물론 미질이 좋아서 수익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종용씨는 현재 전체 1만5,000평의 논에서 연간 4,3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특히 900평은 우렁농법으로 무농약 쌀을 생산하고 있는

데, 무농약 인증을 받은 이후부터는 없어서 못 팔고 있다고 싱글벙글이다. 올해는 좀더 많은 면적에 우렁이 농법을 적용해 더욱 높은 수익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노력

올해로 영농경력 23년째를 맞고 있는 이씨는 '83년부터 양평읍 농업경영인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영농기술을 활용해 자신은 물론 주변 농가들이 영세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던 중 '95년에는 서울시와 농협이 주관하는 팔당 환경농업에 참여해 우수농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 정착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로가 인정되어 '98년 11월에는 지금의 농림부장관상인 농수산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몇 년 전부터는 도곡1리 전 논에 대한 토양분석을 실시해 맞춤 비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필요 이상의 화학성분이 토양에 축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생산한 쌀은 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어 소득증대에 많은 보탬이 된다.

이씨는 현재 한우 40두를 통해 연간 3,7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를 100두까지 늘려 여가서 배출된 우분으로 토양을 기름지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밭독에 심은 두릅나무 부수입 창출



그는 소자본으로 농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경사진 밭을 많이 샀는데, 활용도를 찾다가 밭독에 두릅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이것으로 매년 250만원 정도의 부수입을 얻고 있다. 성인병 예방에 대한 관심 증대로 두릅과 같은 기능성 식품의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작물의 농약잔류량에 대한 경각심으로 저농약 자연식품 선호현상이 급증함에 따라 자연산 두릅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므로 두릅나무를 더 식재할 경우 좀더 많은 부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원



1954년생

주소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 714 전화번호 054. 372. 5628 H,P 011. 520. 5628

맨손으로 도전, 역대 소득 꿈 이루다

주 품목 쌀, 감, 배

영농경력 25년

경영규모 2만7,000평

순수익 1억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의 이종원·김정화씨 부부는 벼농사와 감·배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한우도 사육하고 있다.

지난해 이들이 올린 조수입은 2억2,000여 만원, 경영비를 뺀 순소득만도 1억 원에 이른다. 한때 부산에서 이발사로 일하던 이씨는 '78년 부인 김씨와의 결혼을 계기로 고향인 청도로 귀향, 농사를 시작했다. 당시 그에게는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었다.

“농사를 짓겠다고 나섰지만 논 한 패기 없었지요, 수소문 끝에 허벅지까지 빠지는 무논을 겨우 얻어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을의 굿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며 이웃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었고, 차츰 많은 땅을 빌릴 수 있었다.

한우사육으로 일석이조 효과 거둬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벼 수확을 마친 논에는 보리씨앗을 뿌렸고, 밭에는 배추를 심어 밭데기로 팔았다. 형편이 되는대로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논을 매입, 점차 영농규모를 늘려 나갔다.

'90년에는 밭 2,000평을 구입해 '반시' 감나무를 심었다. 또 '95년에는 배 과수원 1,000평을 조성,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다져갔다. 이들 과수원에서는 지난해 15kg들이 기준으로 감 800상자와 배 300상자를 수확했다. "남다른 농사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살면서 이일저일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모든 게 순조롭게 풀렸을 뿐이죠."

'9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한우사육도 적잖은 소득을 안겨주고 있다. 25마리의 한우를 사육 중인 이씨는 지난해 소 사육으로 3,0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이는 직접 지은 벼농사로 얻은 짚을 이용해 사료비를 크게 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한우사육을 통해 나오는 축산분뇨 등은 퇴비화하여 과수원과 논에 투입,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는 청도 <반시>꽃감 홍보에 주력할 터

현재 논농사 규모는 2만4,000여평에 이른다. 이를 위해 이씨는 트랙터와 이앙기 등 모든 농기계를 갖췄으며, 근래에는 노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 농가들의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위탁영농사업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청도 '반시'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씨는 "해마다 동력을 저습하는 감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이웃 농가들과 '반시'를 4등분 하여 팔리는 방법으로 새로운 형태의 꽃감을 생산, 판매한 결과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올해는 이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생산량도 크게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米

이진규



1963년생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295 전화번호 062. 457. 1197 H.P 016. 662. 1178

유기농업 전과정 영농일지 작성

경영체명 선도농가

홈페이지

<http://cafe.daum.net/greenrice>

주 품목 쌀

영농경력 4년

경영규모 5,000평

순수익 2,500만원

“무당벌레와 메뚜기가 뛰노는 논, 옛날 고향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농촌 풍경을 평소 동경해 왔습니다.”

이진규씨는 친환경 무농약 쌀을 생산하고 있는 귀향 농업인이며 '녹색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전자회사에서 근무하다 지난 '99년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명퇴를 하고 다시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동부 세일즈 근로 활동을 하면서 찾은 직장이 바로 대규모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농장이다.

그 당시 연봉이 높은 직장이 나왔지만 이씨는 농사짓는 곳을 고집했다. 더욱이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었기에 호감이 갔다. 그가 이곳을 택하게 된 동기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농약 중독으로 쓰러져 대학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농약을 하지 않고 농사짓는 방법이 없을까 항상 고민해 왔다”는 그는 이곳 농장에서 근무하면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공부를 틈틈히 하고 유기농업으로 농사짓는 과정을 보고 실천에 옮겼다.

이씨는 1년간 유기농업농장에서 근무한 경험과 친환경농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자립하기로 마음먹고 논 3,000평에다 유기농법으로 쌀 농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유기농법으로 농사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해 수확이 3분의 1 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씨는 포기하지 않고 유기농업만이 농사를 짓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기고 유기농법 쌀 농사를 계속 했다.

목초액 등 사용, 겨울엔 논에 자운영 재배

벼농사를 하면서 제초제, 살충제 등 농약을 전혀 하지 않고 목초액, 현미식초, 황설탕발효액, 효소 등을 살포했다. 또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오리, 왕우렁이, 쌀겨, 갯묵 등을 이용해 제초하고 겨울에는 자운영을 심었다. 이처럼 재래식 유기농법으로 쌀 농사를 지은 결과 땅이 살아나면서 품질이 좋은 양질미 생산과 함께 논에는 지렁이, 메뚜기, 무당벌레, 거미 등이 살고 있었다.

“유기농법 쌀 농사는 제초제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일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무척 힘들지만 일반 쌀보다는 소득이 높고 판로까지 확보돼 있어 고생한 만큼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씨는 쌀 농사 경작 규모를 5,000평으로 확대했으며, 지난해 2,500만원의 순소득을 올렸다. 쌀 판매는 농협과 유기농산물 유통업체인 한마음공동체, 개인 거래처 등에 판매하고 있어 판로는 걱정이 없다.

‘그린라이스’ 브랜드쌀로 출시



가격도 친환경 무농약 쌀을 ‘그린라이스’로 브랜드화 해 20kg들이를 8만원에 거래하고 있다. 그는 유기농업으로 농사를 지은 지 4년 만에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 결성한 광주벤처농업연구클럽 사무국장을 맡아 봉사활동을 펴고 있으며, 유기농업 연구에 더욱 몰두하고 있다는 그는 재배 전 과정을 수확 때까지 꼼꼼히 농사일기를 쓰고 있다. 또 유기농업으로 쌀 농사를 짓고 있는 10농가가 유기농 쌀 작목반을 결성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

고 있다. 이씨는 “올해 도시민들을 초청해 오리농법 시연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들 유기농 쌀 작목반들을 중심으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무공해 농산물 생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규



1938년생

주소 충남 당진군 합덕읍 신리 132 전화번호 041. 362. 0400

39년간 매일 작성한 영농일지가 보물

경영체명 신명농장

주 품목 쌀

영농경력 40년

경영규모 25,500평

순수익 5,000만원

특기사항 신지식농업인

지난 '99년 신지식 농업인으로 선정된 신명농장 대표 이진규씨, 농촌지도자 충남도연합회장 등을 역임한 그는 현재 전업농으로 충남 벼농사연구회장과 당진쌀농사연구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영농교육에 강사로 나서고 있다.

그래서 “주말에 여행을 가는 가족들이 가장 부러웠다”는 그는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싶은 게 소박한 꿈(?)이다.

지난 '64년 군 제대 후부터 농업에 투신해 2만5,500평 규모의 논농사를 경영하며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는 신품종 종자 보급에 앞장서 당진군 내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한다.

“고온에서 벼를 말리면 소비자가 외면합니다. 쌀의 품질은 종자에서도 좌우되지만 아무리 좋은 종자로 생산된 벼도 고온에서 말릴 경우 품질은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고품질의 쌀 생산을 위해서는 24시간 적절한 온도에서의 건조가 중요합니다.”

이대표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작은 욕심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며 “논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지력증진

을 위해서는 수확 후 남은 벼짚은 다 썰어서 논으로 돌려줘 유기질이 많은 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영농일지는 영농 가정교사

이대표는 “이 같은 결과는 날씨, 수확량, 벼짚 활용, 자금흐름 등이 자세히 쓰여 있는 영농일지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 대표는 논농사에 투신한 그 날부터 지금까지 39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영농일지를 써왔다. 특히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길 때에는 가족들에게 영농일지를 대신 쓰도록 했다.



“군에서 제대한 후 집에 돌아오니 빚이 많아서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 날부터 10년 계획을 세우고 영농일지를 쓰기 시작하니깐 1년 수확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었고 수확량과 미질이 떨어지는 이유와 종자의 차이, 자금의 흐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8년만에 목표에 도달한 후 농민단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농사도 정보이용해야 잘 짓는다”

이대표의 영농일지는 귀중한 자료로 이용되기도 한다. ‘당진쌀 30년사’, ‘에당농조주변산업현황’ 등 각종 책자와 논문에 그의 영농일지가 인용되고 있다.

당진군과 논농사 농업인에게는 회장님으로 불리우는 이대표는 “농사는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면 보다 잘 지을 수 있다”며 “농민단체 참여는 단순히 무엇을 받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회비 납부 등을 통한 참여의식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표는 또 “앞으로의 농업여건은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규모화와 기계화된 농가들은 경쟁력이 있다”며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쌀 직거래 판매를 해본 결과 서목태콩 같은 것을 작은 포장으로 끼워서 주는 등 인정을 담아서 판매하면 소비자가 정을 느끼게 돼 판매도 어렵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산농전(현 공주예산산업대)을 졸업한 작은 아들이 대를 이어 농사에 참여하고 있어 든든하다”고 말하는 이 대표는 석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농림부장관과 내무부장관 표창, 충남도지사와 군수 표창 등을 받았다.

이태근



1955년생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657-5 전화번호 054. 261. 8284

대농의 꿈을 이루다

E-mail tgroot@hanmail.net

주 품목 쌀, 젖소

영농경력 15년

경영규모 15ha

조수입 1억2,000만원

어릴 적부터 농업에 관심이 많았던 이태근씨는 포항시 흥해읍에서 벼농사를 가장 많이 짓는 쌀전업농으로 재배면적은 무려 20ha, 경상북도에서 손꼽히는 대농에 속한다.

모내기철이나 수확철에는 고용 노동력을 사용해도 하루 24시간이 모자라 밤을 꼬박 세우기 부지기수다.

이씨가 처음부터 벼농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원래 가축을 키우는 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젖소와 돼지를 구입해 축산업을 시작했다.

젖소와 돼지를 키우다보니 날마다 발생하는 분뇨처리를 위해 트랙터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기왕에 구입한 트랙터를 분뇨처리용으로만 사용하는 건 낭비라는 생각에 벼농사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남들은 많은 농사를 효율적으로 짓기 위해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이씨의 경우는 반대인 셈이다.

밤낮 없이 논에서 생활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일단 벼농사에 손을 댄 이상 소일거리로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왕 짓는 거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으며 밤낮 없이 논에서 살다시피 한 열정으로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씨는 모판을 팔레트로 옮겨 심는 방법이 이 지역에서 제일 먼저 시도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앞장서 나갔다. 또한 달팽이 농법으로 잡초발생을 줄이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이 같은 열정 때문에 주변 농가들이 이씨한테 농사를 맡기기 시작, 그는 점차 그 규모를 늘려나갈 수 있었다. 지금은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연간 1억2,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그 중 순수익은 4,000~5,000만원 정도 되고 있다.

개방화 대비 사업다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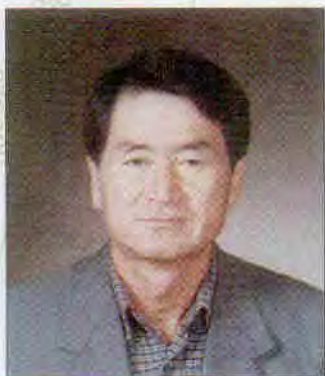
시장개방과 중국산 수입 등으로 쌀 농사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감안, 이씨는 사업을 다각화하는 차원에서 최근 축산과 벼섯농사 등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오래 전부터 가축을 키워보고 싶었던 만큼 지금과 같은 열정을 쏟으면 뿌린 만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도 생겼다. 또 벼농사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벼농사 규모는 더 늘려 나가겠다는 게 이씨의 생각이다. 규모를 더 늘려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다는 생각 뿐이다.



米

이한구



1948년생

주소 충북 옥천군 청성면 대안리 983 전화번호 043. 731. 0061

쌀 전업농이라면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해야

경영체명 금지계농원

주 품목 쌀

영농경력 10년

경영규모 2만평

순수익 2,000만원

땅이 좋아 옥천과 인연 맺어

충북지역에서도 땅이 비옥하기로 유명한 곳이 있다. 바로 그곳이 청성면 대안리. 그가 이곳과 인연을 맺은 것은 단순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던 그는 땅이 좋고 농사일도 해보고 싶어 이곳을 찾았다.

그는 서울에서도 성공한 기업가로서 10년전에 청성으로 내려와 벼를 재배했다. 당연히 그는 농사일은 초보였다.

그는 처음부터 산을 좋아하고 흙을 좋아했던 농민이었던 것이다. 그는 비옥하지만 오지 지역인 이곳에 쌀전업농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는 지난 '97년부터 '98년까지 2년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 전문성을 가지고 몇몇 농가들이 힘을 모아 영농조합을 설립한 것이다.

하지만 서로 농사만 지을줄 알았지 처음 하는 일이라 부실한 경영으로 폐지됐다. 경험자체가 없었던 것이었다.

이에 따라 옥천군에서도 지원자체를 꺼렸다. 그로 인해 영농조합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시행착오를 겪었다.

옥천군내 종자관리 최고명장

현재 이씨는 2만평의 자작지와 1만평의 위탁지를 경영하고 있다. 또한 그는 쌀 이외에 지금까지 관상수를 키워왔다. 그는 지금껏 옥천군에서도 유명세를 탈 정도로 종자관리에 많은 노하우를 지녔다. 벼가 지닌 수량·벼키·이삭수·내냉성·내도복성·수발아등 이 분야 박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벼 품종의 특성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는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은지 이제 6년밖에 안돼는 농업인이었지만 벼 품종에 대해 끊임 없는 연구가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그는 지금껏 새추청·이리444·주남등 벼 품종에 대한 특성 연구에 몰입해 충북도양에 맞는 것을 찾고 있다.

옥천군에서 재배하는 벼 품종의 60%이상을 그의 손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물론 이 지역에 맞는 벼 품종을 구하기 위해 전국 안가본 곳도 없고 특히 농촌진흥청을 밤먹듯이 찾아다니며 우수한 벼 품종을 구입했다.

옥천 쌀 브랜드화를 만들고 싶다

그는 국내외적으로 쌀 연구에 미쳐있다. 일본쌀 주산단지과 필리핀 미작연구소 등을 방문

해 우리 쌀과 비교하는 등 많은 경험을 쌓았다.

충북지역에서는 5가지 이상의 벼를 장려품종으로 추천하고 있다. 물론 150가지가 넘는 품종이 있지만 이 모두가 충북지역 기후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새추청과 같은 고품질 충북 장려품종도 있지만 그 이외에 마땅한 품종은 없다.

그는 전라도·경상도에서 추천하는 품종을 지금껏 재배해왔다.

충북은 다른 타도에 비해 쌀 수확량은 떨어져도 고품질의 쌀을 재배할 수 있다고 그는 늘 강조한다.

그는 쌀 전업농이라면 최고의 품질의 쌀을 생산해야하고 특히 이제는 살아남기위한 방법이 바로 쓸만한 종자를 찾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옥천군에서 쌀 브랜드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예년같이 지난해 11월말에도 쌀맛 품평회를 통해 이 지역에 맞는 쌀을 브랜드화를 시키려고 그는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그는 쌀맛 품평회를 통해 옥천군 쌀 브랜드를 실천하고자 한다. 옥천군은 비옥하고 입지조건도 좋다고 강조하는 그는 옥천군 지역에 종자 10톤을 보급할 계획이다.

물론 식량정책이 바로 서고 새로운 농림정책이 나올때 까지 그는 이곳을 지킬 것이다.



米

이

이



1946년생

주소 경북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77-10 전화번호 054. 955. 5043

쌀 개방, 복합영농으로 대처한다

주 품목 쌀

영농경력 40년

경영규모 2만4,000평

순수익 5,000만원

연간 40kg 조곡 1,400여 가마 생산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을까?”

이는 경북 고령에서 40여년 제 쌀 농사를 짓고있는 이 훈씨의 어릴 적 꿈이자 목표였다.

지금은 경북 면내에서 손꼽힐 만큼 성공한 그이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곧 성공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했다.

젊어서 자장면 5그릇을 얹은자리에서 먹어 치울 만큼 먹성 좋고 힘 잘 쓰기로 유명했던 이씨는 60세를 바라보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만4,000평이 넘는 논을 부인과 함께 순수 일구며 생활하고 있다. 그가 한해에 생산하는 쌀은 40kg 조곡기준 1,400여 가마니가 넘는다.

이씨는 이 가운데 900여 가마는 농협 및 정부 구매로 출하하고 나머지는 인근 식당이나 소매점에 직접 판매 형식으로 소비하고 있다.

“요즘 수확량이 높은 새로운 신품종 쌀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남평쌀'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인근 고령읍과 대구 시내 식당 등에서 벌써 몇 년째 저희 쌀만을 대놓고 먹을 만큼 뛰어난 맛과 품질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농약을 거의 하지 않는 데도 별다른 병충해도 없고 자연재해에도 강해 농사짓는데 어려움도 덜한 편입니다."

기계화로 영농면적 넓혀

이씨가 이처럼 넓은 논을 경영할 수 있게 된 건 지난 89년 농기계를 구입하면서부터이다. 영농이 기계화되면서 노

동력에 여유가 생긴 이씨는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하나 둘씩 논을 구입해 현재의 2만4,000평을 경영하게 됐다. 그래도 이씨의 모내기과 추수는 인근 마을에서 가장 늦다. 이는 미처 농기계를 장만하지 못한 마을 사람들의 모내기과 추수를 돕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논일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농기계를 구입한 후부터 옛날에 비해 쌀 농사를 짓기가 한결 수월해진 편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농사일을 농기계로 하다보니 농기계 수명이 짧아져 교체비용과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방 맞서 한우 접목, 복합영농 계획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시작한 이씨는 "40여년간 쌀 농사를 비롯해 딸기, 축산 등 다양한 영농을 경험하면서 요즘처럼 미래가 깜깜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요즘에는 낭떠러지에 앉아 있는 심정입니다. 농민들이 걱정 없이 영농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의욕을 북돋아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쌀값 안정과 추곡수매만이라도 잘됐으면 하

는 게 제 소원입니다."

2004년 쌀시장 개방확대에 대비해 이씨는 복합영농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한우를 구입해 우선 40여두까지 확대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난 '99년 집을 신축하기 전까지 한우 20여 마리를 사육했던 경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한우 사육에 관심이 큰 만큼 성공을 자신하고 있다.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는 퇴비로 사용하고 논에서 나오는 벼짚은 소들의 먹이로 사용하면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이씨가 복합영농에 거는 기대이다.

米

丩

장봉훈



1951년생

주소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정리 전화번호 043. 877. 5177 H.P 019. 402. 5177

쌀농사도 자식농사 짓는 맘으로 쌀 농사를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2년
경영규모 3만8,000평
순수익 3,500만원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정리에서 4만평에 달하는 논에 쌀 농사를 고집스럽게 짓고 있는 장봉훈씨.

순진히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농사꾼이 됐지만 30년이 넘는 농사일에는 추호라도 불평불만이 없다.

쌀농사가 제값을 못 받을때도, 한해 벼농사를 망칠 때도 그는 제 탓으로 돌린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해 농사를 망치는 것은 주인인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이지요."

그는 벼농사도 자식처럼 아끼고 보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병해충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수분은 충분한지 등 또 하나의 자식을 키운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노동비 절감이 쌀농사 살 길

"점차 노령화되어 가는 농촌현실에서 노동력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줄이는 길뿐입니다."



그는 해마다 줄어드는 쌀 소비량과 맞물려 한없이 떨어지는 쌀값 하락을 극복하고 쌀농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줄이는 길밖에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해 3만8,000평 벼농사를 지어 8,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다. 그는 벼농사에 필요한 기계를 모두 구입하고 수확시기별로 조생종부터 만생종까지 다양하게 경작해 아내와 단둘이서도 벼농사가 가능했다.

“우리 인근 마을에도 대부분의 영농연령이 50대를 훌쩍 넘어 노동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걱정하는 그는 이러한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자신의 논에 직파재배를 시험한 결과 매우 만족할 만큼의 양질의 쌀을 수확했다고 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그는 우선 인근농가에 벼 직파재배를 적극 권장해 노동력을 최소화하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그는 올해부터 도전할 분야가 많다. 우선 5,000평의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시설채소에 도전할 생각이다.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자식처럼 대하는 맘으로 농사를 짓는다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자신 있게 말한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주력할 터



그는 또 올해부터 3만평이 넘는 땅에 무공해 쌀, 친환경 쌀을 생산할 계획이다. 그는 “어차피 남들과 똑같은 쌀을 생산해 낮은 값을 받기보다는 고품질 쌀을 생산해 높은 값을 받는 게 좋겠지요.”

그가 올해부터 새로운 영농에 도전하는데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내 자식처럼’이다. 그의 영농활동에 정신적 지주처럼 차지하고 있는 자식을 키우는 영농은 그만의 영농비법이고 노하우이다.

올해 새로운 도전에 성공한다면 그는 인근 주민들과 연계해 영농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노력을 쏟을 계획이다.

“우리가 땅에게 거짓을 보인다면 땅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질 않습니다.” 그의 영농 신념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米
거

장상우



1942년생

주소 경북 군위군 군위읍 대북1리 375 전화번호 054. 383. 2625

쌀, 친환경농법으로 돌파구 찾다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0년

경영규모 7,000평

순수의 4,000만원

쌀겨 · 우렁이농법으로 벼 재배

“저농약재배 인증을 받고 난 뒤 쌀이 부족해서 못 팔 정도입니다.”

경북 군위군에서 30년간 벼농사를 지어온 장상우씨는 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친환경농법에서 찾았다. 장씨가 친환경농법으로 7,000평 벼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부터다.

군위는 해발 180m의 고지대 분지 지역으로 깨끗한 자연 환경이다 황토성 토질을 갖추고 있어 친환경농법을 실천하는데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두엄을 많이 넣으니 화학비료 사용량이 절반 이상 줄고 병충해에도 강해졌다. 하지만 농약을 치지 않다 보니 제조하는 것이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농업기술센터와 상의한 결과 6년 전, 당시로서는 생소한 쌀겨농법을 도입하게 됐다. 모내기를 한 뒤 1주일 안에 300평당 150~200kg의 쌀겨를 뿌리면 100%에 가까운 완벽한 제조 효과를 나타냈다.



쌀겨에는 각종 영양분도 많아 거름도 많이 줄 필요가 없어졌고 벼가 도복에도 강해졌다. 3년 전부터는 우렁이농법도 도입했다.

품질 인증으로 소비자 인식 좋아져...

장씨를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도 하나둘 이에 동참하기 시작해 '대북리 친환경 큰고을 작목반' 전체가 친환경농법을 도입했다. 현재 34명의 작목반원들이 15ha에서 저농약재배 쌀을 생산하고 있다.

저농약재배로 품질을 특화하고 상표명을 '향기 나는 쌀'이라는 뜻의 '향미담'으로 정해 시장에 출하하자 정부 수매에만 의존하던 기존 판로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현재 수매 후 남은 물량은 농산물유통센터와 군위농협, 우체국 우편판매, 고속도로 휴게소와 대형 음식점, 개인 소비자 등을 통해 수매가보다 높은 값에 직거래하고 있다.

'살아 있는 쌀'을 공급한다

판매 확대를 위해 장씨는 우선 농협과 우체국 등지를 찾아다니며 판매 상담을 하고 '향미담' 쌀을 선전하는 팸플릿을 제작해 출향인사들에게 보냈다.

또 쌀 대량 소비자인 고속도로 휴게소와 대형식당 등을 찾아가 판로를 뚫었다. 향미담은 4kg, 10kg, 20kg, 40kg 등으로 포장 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주문 즉시 바로 찜어 미질 좋은 '살아 있는 쌀'을 맛본 소비자들은 대부분 단골손님이 됐다. 장씨는 신선한 쌀 공급을 위해 앞으로 작목반 전체 물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장석주



1957년생

주소 인천 중구 운북동 24통 7-1 전화번호 032. 746. 0858 H.P 011. 733. 4895

영종도 토종 '논골쌀'로 승부

경영체명 논골농장

홈페이지 <http://ynssal.com>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0년

경영규모 1만7,000평

순수익 3,000만원

“논골쌀은 천수, 옥도, 해풍 등 천혜의 자연조건에서 생산돼 미질이 우수하고 쌀이 찰지며 윤기가 나는 무공해 고품질 쌀입니다.

이 쌀은 자연의 풍성함을 담은 인천 영종도가 출생지이자 지금까지 고향을 지켜오고 있는 그대로의 쌀입니다.”

영종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고향을 지켜오고 있는 장석주씨의 논골쌀에 대한 예찬론이다.

군 제대후 3,000여평의 논농사를 시작한 장씨는 논농사를 비롯해 고추, 버섯 등 특작도 함께 일궈 현재는 2만여평의 영농규모를 자랑하는 남부럽지 않은 농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농사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했다.

장씨는 “젊었을 때부터 고향을 지키며 농사일에 전념하기로 마음먹고 지금까지 한눈 한번 안 팔고 농사일을 천직으로 알고 일해 왔다”면서 “농사일을 포기할까 하는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처음의 다짐을 되새기며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계자 선정후 유기농법 전환

장씨는 지난 '85년 농업경영인 후계자로 선정됐으며, 그때부터 농업기술자협회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농사도 과거 부모님들이 하던 방식이 아닌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안전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개방화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한 장씨는 관내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아래 '논골작목반'을 결성,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내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운 못자리 설치, 이앙방법, 물관리 등 체계적인 재배방법 등 신기술농법을 적극 시행하는 장씨의 순발력도 성공요건이다.

7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논골작목반은 추청, 일품벼 등으로 재배품종을 제한하고, 비료도 인천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을 받아 시비하는 등 철저하게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고 있다.

'논골쌀'의 품질균일화를 위해 작목반원들은 건조, 도청방법을 통일해 1년 내내 똑같은 '논골쌀'의 밥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까지 영종도 '논골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아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는 "서울, 인천 등 대도시 아파트단지에서의 직판사업 추진, 교회 등 대규모 거래처 발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으로 판매물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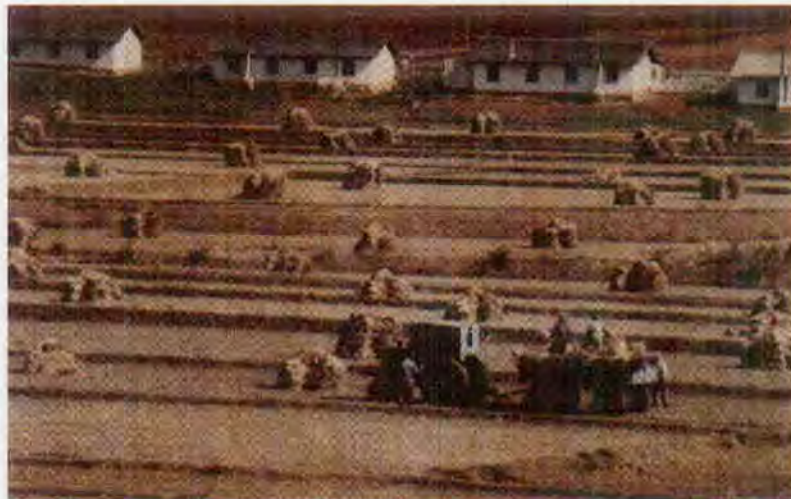
"논골쌀을 한번 먹어본 소비자가 다시 찾는 게 제일 큰 보람입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인정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우리 농업이 가야할 길입니다."

쌀겨농업 목표 기술습득 전력

그는 "논골쌀은 이제부터 시작으로 어렵게 첫발을 내디뎠으니 농촌의 희망을 꿈꾸며 난관을 헤쳐 나가겠다"며 "논골작목반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작목반원들 뿐만이 아닌 영종도 전체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논골작목반은 올해부터 무농약, 친환경 농법인 쌀겨농법을 실시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지난해 경기이천 등 이미 쌀겨농법을 시행하고 있는 작목반을 견학하는 등 상당한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장씨는 또 영종도는 아직까지 오염이 안된 청정지역으로 '논골쌀' 뿐만이 아니라 고추, 버섯 등 무공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판매할 계획으로 있으며 친환경 고품질 '논골쌀' 생산 및 판매량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米

정동출



1957년생

주소 전남 신안군 장산면 대리 696 전화번호 061. 271. 4696

땀,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재산'

경영체명 동원농장

주 품목 쌀

영농경력 15년

경영규모 논 26,000평

순수익 5,000만원

땀밭재배와 염전날품으로 생계 꾸려

“관행 농법만 고집하면 다른 농가와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없다고 판단해 벼 답수직파를 실천, 생산비를 크게 줄였습니다.” 전남 신안의 섬 마을 장산면에서 2만6,000평의 논농사를 짓는 정동출씨의 말이다.

정씨가 오늘날의 성공 농업인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행편이 어려운 농촌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무작정 상경하여 여러 가지 직업을 옮겨다니다 군 제대 후 결혼해 '80년 12월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농사지을 변변한 땅이 없어 땀밭을 활용하여 원예 작물과 농한기에는 염전에서 날품을 팔아 생계를 꾸려왔다.

정씨에게 기회가 온 것은 10여년 전 농업기반공사에서 장산면에 왓사리 대규모 간척지를 조성하면서부터. 정씨는 기반공사로부터 처음 간척지 2,100평을 임차하여 토양개량에 힘써 소금기가 채가지지 않은 뽕 땅을 최고의 농경지로 탈바꿈 시켰다.

정씨의 성공 사례가 알려져 돼 이웃 농가들도 벼농사에 속속 참여하면서 무려 180ha에 달하는 대규모 농지가 조성되는 계기가 됐다.

생산비 줄이기 위해 벼 담수직파 도입

정씨는 과거의 영농방법을 답습하는 대신 창의력을 발휘하여 그 당시 흔하지 않던 벼 담수직파를 도입했다.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부부의 인력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담수직파를 과감히 실천했다. 생산요소의 투입을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절약형 농업의 장점을 충분히 인식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육묘 과정이 생략되는 직파 재배로 생산비와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구획 경지정리도 했다. 농로를 획·포장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작업의 편리성을 크게 높였다. 정씨는 지금도 부부의 힘만으로 하루에 1만평의 농지에 벼씨를 파종하는 등 직파재배에 익숙해 있다. 이와 함께 농약사용을 최대한 줄였다.

평균 농약 살포는 단 한차례에 불과 할 정도로 생산비를 절감했다. 수확량도 관행 벼농사에 결코 뒤지지 않아 소득은 해가 갈수록 늘어났다. 하지만 복병도 만만치 않았다. 직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복, 매년 되풀이되는 태풍 등으로 쓰러지는 벼가 많아 큰 손해를 입었다.

2002년에도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많은 벼가 쓰러져 수확량 감소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환경농업 실천·브랜드화에도 총력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씨는 최근 담수직파에 건담직파를 응용한 농기계를 직접 고안, 주문을 마친 상태다. 담수하기 전에 논을 조금 깊게 파내 주는 기계를 이용하면 벼씨 뿌리가 깊게 내려 도복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씨는 최근 현재보다 수취 값을 더 높이기 위해 환경농업과 브랜드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해 친 환경재배에 박차를 가하고, 가칭 '풍광수도 약사리'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 포장재 개발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다른 농

자보다 한발 짝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다. 맨손으로 시작해 부농의 꿈을 이룬 정씨의 성공비결은 '남보다 한발 앞서가는 창의적 사고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米

거

정상봉



1966년생

주소 전남 곡성군 입면 송전리 사구 222-10 전화번호 061, 363, 4824 H,P 011, 605, 5537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쌀 생산에 주력

주 품목 쌀

영농경력 4년

경영규모 1만2,500평

순수익 2,000만원

쌀값 하락속에 소득은 4배 신장

“최근 쌀 가격이 떨어지면서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도 많지만 땅에 믿음을 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쌀을 생산해 낸다면 소득도 늘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벼농사를 짓는 정상봉씨는 “최근 가격하락으로 쌀로는 소득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 이지만 장기적으로 농가의 노력이 따라준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생활을 접고 올해 4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정씨는 현재 1만2,500평의 논에서 쌀 재배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쌀 농사를 시작했지만 보다 농업에 가치가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쌀 재배에 전념했다.

정씨가 전남 곡성 입면에서 벼농사를 시작한 것은 대도시인 광주와 지역적으로 가깝다는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거리상 도심지와 가까운 이점을 활용하면 소비자 직거래에도 유리하고, 앞으로 소득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돼 이곳에서 벼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시작하면서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의 농기계를



1억여원 어치 구입해 모든 작업을 직접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경작지를 늘리는데 나섰다. 지난해 수확한 벼는 총 500가마로, 3,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그는 “벼 재배 경력 3년 만에 자체비용으로 들어간 1,000만원을 빼면 2,000만원의 순소득을 올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고품질 벼재배가 소득증대 지름 길

“영농초기에 비해 노하우 축적으로 쌀 품질도 좋아졌고, 직거래 판로도 차츰 늘어나 지난해에 비해 20%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정씨가 생산한 쌀중 40kg짜리 200가마는 정부수매로, 200가마는 농협을 통해 판매했고, 100가마는 직

거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직거래 판매가 늘어나면서 물론 소득도 증가했다는 게 정씨의 귀띐이다.

정씨는 “소비자와 직거래만이 수익성 있는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지금 은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점차 판매부문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씨는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쌀 생산에 역점을 두고 내년부터는 친환경 벼 재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재배면적도 늘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감자 시설하우스 재배도 착수

그는 지난해부터 벼농사와 함께 농한기를 이용해 감자 등 시설하우스재배도 시작하였다.

지난해 1,000평의 농토에 감자와 철쭉을 절반씩 재배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1,000평의 하우스에 시설감자를 재배하고 있다.

그는 이와 함께 직거래 판로를 늘리기 위해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씨는 “보다 맛있는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 과정도 무시할 수 없지만 도정시기에 따라 밥맛이 다르기 때문에 신선도를 맞추기 위한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며 “생산된 고품질 쌀을 도시근교농가와 인터넷 판매 등을 통해 직거래를 구상하고 있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米

정영렬

丩



1949년생

주소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865 전화번호 061. 853. 7269

대규모 벼농사로 높은 소득 올려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0년

경영규모 5만평

순수익 7,000만원

벼농사 3만평, 보리농사 2만평

쌀 전업농인 정영렬씨는 전남 보성에서 3만평의 벼농사와 2만여 평의 보리 농사를 짓고 있다.

30년 전부터 벼농사를 시작한 정씨는 '95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농지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영농 규모화만이 기계화를 가능하게 할수 있고 이렇게 해야만 벼농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였다. 또한 한가지, 벼농사만 대단위로 경작해도 단위 면적당 소득은 적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소득은 높아진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주위에서는 쌀농사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벼농사를 확대한다고 걱정하였다.

그는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믿고 나갔다. 정씨는 지금도 그 때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벼농사 재배 면적을 5만평까지 늘려 나간다는 구상이다.

영농 기계화 가능해 부부 둘이서 3만평 거뜰



정씨의 연간 소득은 보리농사 2,000만원을 합쳐 모두 7,000만원이다. 웬만한 도시 근로자들은 부럽지 않은 높은 소득이다. 벼농사 3만평과 보리농사 2만여 평을 농기계로 아내 박정암씨와 둘이서 경작하고 있다. 농기계를 이용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내도 남자 못지 않게 숙달돼 있다.

정씨는 지난해까지 생산한 쌀을 약 50% 정도는 정부 추곡수매와 농협에

시가수매로, 나머지는 자체 판로를 통해 판매했다. 올해는 농협 시가수매가 없어 추곡수매 외에는 모두 자체 판매를 할 계획이다. 그 동안 부산과 경기 부천시역 아파트 단지에 단골 거래처가 있고 농지가 간척지에 위치해 있어 미질이 좋아 소비자들도 즐겨 찾고 있어 판로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갈수록 자체적으로 판매해야 할 물량이 많아지면서 걱정이 없지 않다.

내년부터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 품종을 차별화해 재배하고 미질을 더욱 고급화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년 1,800평에 시험적으로 재배한 고품질 쌀 생산 면적을 내년에는 1만평으로 대폭 확대할 생각이다.

관광 겸한 소비자 현장 견학으로 판로 개척



금년 고품질 벼를 시험적으로 재배해 본 결과 생산비는 더 들었지만 쌀의 운기가 더하고 수량도 10% 정도 더 생산되어 판매와 소득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아파트 부녀회와 자매 결연을 맺고 밥맛 시식회와 관광을 겸한 농장 견학 등을 실시해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정씨는 농촌에서도 열심히 농사 지으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보람있게 살 수 있는데, 농촌 총각이라면 무조건 시집오기를 꺼려하는 처녀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추수가 끝나기 전까지는 정신없이 바쁘지만 농한기인 겨울에는 부부가 함께 여행도 다닐 수 있는 벼농사가 천직처럼 좋다고 말했다.

米

丩

정일모



1967년생

주소 강원 고성군 죽왕면 아촌리 457 전화번호 033. 632. 5710

농촌의 절박한 현실 규모화로 승부한다

경영체명 아촌위탁영농회사

주 품목 쌀

영농경력 10년

경영규모 25ha

조수입 8,000만원

젊음과 패기로서 규모화에 도전하다

'92년 정일모씨는 농지를 임차하여 영농을 시작하였으나 임차만으로는 소득을 올리기가 힘들다는 생각에 규모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느끼고 영농회사 설립을 위해 6개월간의 교육을 받은 후 '94년도에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 영농을 시작 할 때와는 다르게 영농을 하다보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자신감 하나면 될 것 같았지만 기술력의 부족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품질의 저하와 생산량의 감소를 겪게 되었다.

그러나 차츰 경험이 쌓여가고 기술을 익힘으로서 시련을 극복 할 수 있었다. 또한 규모화만이 전업농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필지를 집단화하였으며 그에 따른 기계화를 실시하여 트랙터와 콤팩트, 이앙기, 건조기 등 모든 영농기계를 직접 운영하여 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었다.

지력증진으로 다량의 고품질 쌀 생산

필지 집단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양의 쌀이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영농으로 인하여 지력이 약해져 자 지력회복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여 모든 농지에 대해 호맥을 심기 시작하였다.

호맥을 심자 규산질 비료의 투입량이 적어지고 지력 또한 회복되기 시작하여 다량의 고품질 쌀이 생산되어 생산되는 쌀의 90% 이상이 수매기준 1등급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못자리는 일반 농가와 같은 물못자리를 사용하지 않고 마른논에서 못자리를 시작하여 물을 채워 넣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물못자리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50% 정도의 노동력을 절감 할 수 있으며 또한 모자체가 단단해지고 병충해에도 저항력이 강해지게 되는데, 규모화가 이루어진 필지에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 될 수 있는 영농방법일 것이다.

또한 매년 시비량을 일정하게 하여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시비 시기는 매년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있다.



농사는 힘들지만 농사를 시작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

정일모씨는 경영 장부를 기록함으로써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영농교육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과학영농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쌀은 20%는 정부수매, 10%는 자가판매, 그리고 나머지 70%정도는 위탁판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농가가 정부수매와 위탁판매에 의존하는 것에 비하면 자가판매로 인해 판로를 개척하여 중간상인의 마진을 줄여 영농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자기 자신에게 사기를 치면 망한다” 라는 신념으로 농사는 정직해야 하며 항상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려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공의 요인이 된 것이다.

米
丩
정정수



1937년생

주소 대구 달서구 진천동 300-1 전화번호 053. 632.3187

대형화와 米質 개선이 바로 경쟁력

경영체명 한실농장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0년

경영규모

논 2만평, 수박 2,000평

순수익 2,000만원

영농 기계화로 1만6천평 손수 경작

70세를 바라보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활발한 영농활동을 벌이고 있는 정정수씨.

“지금은 1만6,000평 정도의 쌀 농사와 함께 수박 비닐하우스 10동(2,00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000평 정도의 쌀 농사와 함께 10년간 딸기를 재배했는데 '90년대 초부터 수박으로 바뀌 지금까지 재배하고 있습니다.”

정씨는 이처럼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었던 이유를 “영농기계를 구입해 모든 농사를 기계화시킨 덕분”이라고 말한다.

“혼자 힘으로 1만6,000여평의 논과 2,000여평의 하우스를 경작한다는 것이 어디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됐지 않습니까? 정말 농사짓기 편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내기과 추수를 대신해주는 위탁영농(2만평)을 통해 연간 1,400만원 가량의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정씨는 농기계 가격은 비싼데 비해 평균 5년 주기로 교체 또는 수리를 해야하는 것이 적잖은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대형화와 미질 높여 경쟁력 갖춰야

“2001년 3월 새농민상을 수상하고 그 부상으로 중국을 갔을 때 끝없이 펼쳐진 그들의 넓은 들을 보면서 한편으론 놀랍고 다른 한편으론 부럽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소규모 형태로는 안됩니다. 뜻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고 아울러 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씨가 현재 재배중인 품종은 일미벼. 자연재해와 병충해에도 강하고 맛과 품질도 상품에 속한다는 게 정씨의 설명이다.

출하는 수확과 동시에 미곡처리장으로 보내는 양이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30%는 추곡수매와 직접판매 등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 수박은 상인출하와 제통출하의 비율이 8대 2로, 대부분 말뚝기 형태로 상인에게 넘기고 있다.

정부가 나서 판로개척 해줘야

“정부는 추곡수매량을 줄이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판로를 농민들에게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 스스로 시장 및 판로 등을 개척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부가 나서 새로운 판로를 제시해준다면 추곡수매에 목을 걸고 있는 농민들도 다소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향후 쌀 농사 위주의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정씨는 특작으로 재배하고 있는 수박도 계속 재배할 계획이다.





정진현



1958년생



주소 전북 익산시 함열읍 와리리 78 전화번호 063, 862, 0823 H.P 011, 9642, 0823

대농가를 이루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5년

경영규모 6만평

조수입 1억8,000만원

특기사항

농림부장관상

대농으로 경쟁력을 갖자

정진현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논 4,000평을 물려받았지만,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져 농업기반공사를 통하여 35,000평의 논을 구입하고, 대농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도작에 몰두하였다.

그리고 트랙터 2대, 콤바인 1대, 이앙기 2대를 구입하여 자가노동력으로 해결하여 인건비를 최소화하였으며, 타농가의 농작업까지 수탁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상품의 차별화가 성공을 좌우

많은 땅을 경영하다보니 수도작의 재배는 관행농법을 따르고는 있지만 연 1회의 저농약을 사용하고 있고 품종은 중생종 10%, 중만생종 90%를 선택하여 재배하고 있다.

처음엔 다수확 중심의 농법을 하였지만 최근 친환경농업과 유기농법의 대두로 품질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질이 좋은 '일미벼'를 선택하여 미질위주로 재배하고 있다.



현재 200평당 440kg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량 함열미곡처리장을 거쳐 40kg 57,000원에 농협계통출하를 하고 있다.

그리고 8,000평정도의 면적에 기능성 쌀을 재배하여 '게르마늄 쌀'이라 하여 높은 단가로 푸른산업과 계약 출하를 하고 있다.

농민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

농업인단체 회장직을 4년, 이장직을 18년 동안 역임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농민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농민들의 단합을 이루었고, 현재는 농협 이사과 익산시 전업농 모임의 총무를 맡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농사를 마치고 쉬어야 할 시간을 많은 농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그리고 농협이나 지도소 주최로 농민들이 모여 쌀값 안정 및 농기계의 활용화에 대한 논의를 갖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갖자

향후 비 재배만으로는 쌀 시장 개방에 의한 쌀값의 하락이 우려되고, 유기농법, 친환경농법이 대두되면서 관행농법에 의해 재배된 쌀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여 우수한 품종을 선택하여 대처할 생각이며, 겨울철에는 보리를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는 수도작 농민들이 비록 어렵지만 다 같이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정창섭



1959년생

주소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112-1 전화번호 053. 611. 7510 H,P 017. 503. 7510

규모화해야 소득제고 · 경쟁도 가능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0년

경영규모 3만평

순수익 3,000만원

“농사는 하면 할 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쌀전업농인 정창섭씨는 최근 불안정한 쌀 시장과 관련 이 같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돈이 되는 작목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풍면에서 태어나 자라오면서 이 지역 특색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정씨는 “물이 부족하다는 점을 빼 놓고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농사짓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라고 영농환경을 자랑했다.

그는 지난 '83년 당시 이 지역에서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하우스 딸기를 재배작물로 선택했다. 하지만 어린 아들까지 하우스에서 재워가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경험과 이론 부족으로 실패라는 쓰라린 경험을 맛봐야 했다.

바람막이도 없는 허허벌판의 밭에 별다른 시설도 없이 덩그러니 비닐하우스만 설치하다보니 비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기 일쑤였고 급기야 하우스가 통째로 날아가 버린 것이다.

딸기 하우스농사 실패 포기 고민

“지역적으로 상업을 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학교에서조차 농부의 아들이라고 차별을 받는 아이가 ‘아빠 농사 안 지으시면 안돼요?’ 하고 조르는 것이 맘에 걸려 아예 농사일을 그만둘까하는 고민도 상당했습니다.”

딸기하우스가 남긴 교훈은 아무런 지식과 경험 없이 시작한 소규모 농사로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품종개량 등의 재투자도 불가능해 성공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농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정씨는 지난 '88년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농지구입대출자금을 얻어 농지 2만여평을 구입해 벼농사로 재기에 나섰다.

자신이 생각한대로 규모화 된 영농은 성공, 그는 그후 추가로 농지를 확보, 지금은 3만평 규모 벼농사로 연간 3,0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힘들지만 농사일에 대한 자신감도 되찾았다. “이제는 나 혼자만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영농인 모두가 잘사는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정씨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인회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농업인 후계자들이 영농의욕을 갖고 농업경영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에서였다.

이들은 논두렁에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빈 농약병 문제가 심각해지자 빈병 분리 수거함을 직접 제작해 수거에 나서는 등 농촌환경개선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또 좁고 포장되지 않은 농로 때문에 농산물판매차량이나 농기계 진입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씨는 “가득이나 젊은 농업인력이 빠져나가고 있는 농촌 현실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 역시 시급하다”면서 돈이 되는 농업 찾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관심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농업에도 눈을 돌려 실천 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가 토지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 석회질과 규산질 비료 등을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지만 대규모 농사에서는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보다는 보리를 이모작으로 재배해 덮어주는 것이 땅심을 높이고 산성화를 막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씨는 오랜 동안 토질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론습득과 농사현장에 접목하는 노력에 동분서주 하고 있다.



정철환



1953년생

주소 경남 창원군 남지읍 신전리 545 전화번호 055. 526. 3444

자녀에게 대물림할 수 있는 농업희망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6년

경영규모 2만5,000평

순수익 4,500만원

쌀전업농에 대한 육성책 필요

“수매가를 인하하더라도 정부 수매량을 늘리면 전체 농업 소득의 50%를 차지하는 쌀을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맘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판로가 마땅치 않으니 수확량이 많으나 적으나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재고미 우선 수매 등 쌀전업농에 대한 육성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하는 정철환씨는 임차한 논을 포함해 2만5,000평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

5형제의 장남으로 '69년 마산상고를 졸업하고 군을 계대한 26살부터 아버지의 농지를 물려받은 그는 지주의 아들이었다. 아버지가 천석지기 논을 경작했으니 별다른 어려움이 청년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지금에야 품삯도 그렇고 농촌 일손구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 되고 말았지만 당시에는 넘치는 인력으로 노임도 저가인데다 시세가 좋았다.

연속적인 침수해로 부채증가

그러던 그에게 어려움은 너무 쉽게 닥쳤다. 농지가 있는 신전리 일대가 여름철 우기를 맞으면 수해상습지역으로 연속적인 침수해를 입었다. 인근 제방이 넘쳐 몇 년동안 연속적으로 감당해야 했던 침수해는 아무런 수확을 제공하지 못했다. 부채만 증가시키는 악전고투가 계속 지속됐다. 어려움없이 자란 그였기에 좌절은 남들보다 깊었고 회복하고자 하는 각오를 다지는 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아버지가 물려준 농토를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생각을 했다.

배수개선사업 이투위원장을 맡아 지역적인 침수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배수관을 묻는 등 관개시설확보에 주력했다. 지리적으로 낮은 지대에 위치한 경작지에 희망의 배수로를 심었다. 농기계 구입도 적지 않게 구비했다. 이앙기, 경운기, 콤팩트 4조, 트랙터 2기, 김조기 등 가격만 확보된다면 무리없이 농사를 지을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소득보전 통해 환경친화적 농촌 갱생

“소득을 비교하면 뚜렷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전에는 읍장 3명의 연소득과 맞먹을 만큼 고소득을 달성했던 쌀시세가 지금에 와서는 읍장

한 사람의 연소득에도 버거울 정도로 값어치를 잃었습니다. 2만5,000평의 농사를 지으면서 조수의 7,000만원에 4,5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합니다. 경작지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가능한 소득입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 운용위원인 정철환 씨는 남지농협 이사과 새마을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농업단체에도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당장에야 실현되지 않겠지만 브랜드화된 선진 쌀 재배단지를 견학하면서 얻은 지식의 활용방안을 주변사람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모색하고 있으며 직거래 보다 나은 판로와 규모화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 앞으로 농업인들이 기존의 정부수매나 판로에 의지해서는 아무런 희망을 얻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2004년 WTO협상에서 쌀 관세화 유예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규모화를 위해 현재의 농가수익으로 농경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인다.

정부가 놓고 있는 농지를 사들여 농사를 지으려는 농업인들에게 장기 저리로 임대하는 소유 경작권의 분리가 이뤄진다면 국내 농업의 경쟁력은 또다른 상황에 놓이게 된다. 농촌이 아름답고 깨끗한 공간으로 국민 모두가 지향하는 휴식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米
丩
조관호



1963년생

주소 충북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 163 전화번호 043. 297. 9649

친환경 오리농업으로 쌀농업 활로

경영체명

고두미친환경농업공동체

홈페이지 www.kihn.or.kr

E-mail

nongbu@hanmail.net

주 품목 쌀

영농경력 6년

경영규모 5,300평

농민단체 활동하다 취농

충북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라는 작은 마을에 6년전 등지를 뜬 조관호씨. 마을 이름이 돌아온다는 뜻이어서 그런가 그는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90년부터 농민운동에 뜻을 뒤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와 카톨릭농민회 등에서 일을 했다.

그러다 지난 '97년 직접 영농에 나서겠다고 결심하고 익숙지 않은 농사일을 시작했다. 낭성면 귀래리는 단재 신채호선생의 사당이 있는 곳으로 처음 찾는 이들도 낭성지역이 범상치 않음을 느낄 정도로 산세 좋고 살기 좋은 고장이다.

해발이 300m 정도로 청정지역의 특성을 감안, 친환경농업을 해보겠다는 조씨의 포부가 서서히 결실을 거두고 있다. 그가 처음 시도한 것은 쌀겨농법이었다.

제초제나 농약을 치지 않는 친환경쌀을 재배하기 위함이였다. 그러나 농사일이 서툴렀는지 잘안돼 실패하고 제대로 소출도 못 올렸다.

오리농법으로 무농약쌀 생산



그래서 도입한 것이 오리농법. 오리를 논에 방사해 기르면 각종 충을 잡아 먹을 뿐 아니라 제초제도 쓸 필요가 없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 무농약농산물 생산에 뜻을 둔 농가를 조직하고 각종 영농교육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 또 개별적 실천보다는 농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고두미 친환경농업공동체를 조직했다.

일종의 작목반인 고두미친환경농업공동체는 현재 18농가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의 나이 드신 어른부터 공동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기 시작해 인근마을 농가까지 구성원을 확대해 나갔다. 이같은 그의 노력결과 2001년 처음 쌀과 찹쌀, 현미 등에 대한 무농약품질인증을 획득했고 현재는 표고 메일 들깨, 홍고추 등 12개 품목에서 무농약인증을 득했다.

“어려움이 많아요, 오리가 충해는 잡는데 도열병 등은 특별한 방법이 없어 몇 번 피해를 봤습니다. 모판 상태에서는 기다리병이 발생해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자소독단계부터 신경을 쓰는데 농약대신 소금과 목초액을 이용한다. 농약을 전혀 쓸 수 없고 병에 약해 소출은 일반농업에 비해 떨어지나 90% 수준에는 달한다는 것이 조씨의 설명이다. 공동체 구성원인 18농가가 생산한 무농약쌀은 전량 공동가공 포장돼 가톨릭청주교구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등으로 공급된다. 40kg 조곡기준으로 약 7만7000원을 받고 쌀로 도정할 경우 23만원선을 받는다. 물론 생산전 미리 가격과 물량을 계약하는데 현재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조씨는 오리농법을 통해 2600여평에서 무농약쌀을 재배한다. 2,500여평의 밭에서 생산되는 콩과 기장 등 잡곡류도 무농약인증을 받아 전량 계약재배하고 있다.

농촌관광과 연계한 농산물 생산

주변에서 조씨는 동네 일꾼으로 통한다. 젊은 사람이 의욕이 있고 남보다 먼저 나서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 때문이다. 또 나이 많은 어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전체를 통틀어 50여가구가 채 안되는 조그만 마을에서 조씨같은 사람이 반값과 살갑지 않을리 없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전환기유기농업을 시도할 계획이다. 여전히 화학비료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퇴비위주로 서서히 바꿔 나갈 생각이다. 최근에는 이 마을이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돼 관광객들이 찾을 만한 작목을 고민하고 있다. 고지대의 특성을 살려 산채류를 재배하고 나아가 단지화하는 계획이 그것이다.

“마을은 적지만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면 살기좋은 곳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환경농산물 생산량도 점점 늘려야지요.”



주 병 섭



1950년생

주소 전남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 667 전화번호 061. 392. 8932

‘귀농하기 참 잘했습니다’

주 품목 쌀, 한우
 영농경력 25년
 경영규모 4만평, 한우 40두
 순수익 1억원

도시 정착 실패하고 맨주먹 시작

어려서 도시로 나갔다가 좌절과 실패를 거듭하다 귀향해 농업에 매진하고 있는 주병섭씨.

그는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성공의 길, 부농의 길이 열린다”면서 “한두번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로 생각하지 말고 성실히 내일을 준비하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강조한다

주씨는 어린 나이에 도시로 나갔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특별한 기술도 없어 결국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를 회고한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온 그에게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없고 가진 것이라곤 의지와 남다른 강인한 체력이 전부였다.

처음에는 남의 일을 도우며 품삯을 받아 생활했다. 당시 돈이 생기면 술 마시고 동네사람들과 어울려 소일하던 주씨지만 나름대로 할 수 있다는 신념만은 버리지 않았다.

찾아온 기회, 부농으로 직결

그런 주씨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당시 정부에서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된 것이다. 그는 면사무소와 당시 농어촌진흥공사를 찾아가 어렵게 농지구입자금 7,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우선 논 6,000평을 구입하여 아침에 눈을 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종일 열심히 일했다. 자신의 소유로 된 땅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었다.

그에게는 하루빨리 빚을 갚고 지원 받은 데 대한 보답을 해야 한다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남과 같아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퇴비를 위주로 농사를 짓기도 했다.

청정지역 활용, 유기농법 도입 계획

이렇게 일한 결과 그의 영농규모는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벼농사 2만4,000평, 보리농사 1만6,000평에 한우 40두를 사육, 연간 8,500만원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뽕주

먹으로 시작한 지 20년만에 남부럽지 않는 부농으로 거듭났다.

주씨는 "일부 농가들이 정부 지원금을 공돈으로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다"면서 "실패할 경우 부채로 남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과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씨는 지금도 부부 일손만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이웃들의 농사도 돕고 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이 이앙기나 벼 베기, 논갈이를 부탁하면 자기 일처럼 도왔다.

그러면서 이웃 농가에 영농기술지도는 물론 마을 공동의 일에 참여하다보니 마을이장, 농협 영농회장직 등은 매번 주씨의 몫이 되고 있다. 주씨는 지금까지 닦아온 기반을 토대로 최근 소비자들의 안전성 선호 추세에 맞춰 친환경 농법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주씨는 "앞으로도 청정한 자연환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안전성을 중시, 양보다 질은 따지는 소비자들의 최근 경향에 맞추어 농약과 비료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유기농법, 오리농법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米

주 영 모

丩



1956년생

주소 경남 창원시 동읍 산남리 173 전화번호 055. 298. 5761

철저한 경영 관리로 미래 대비

경영체명 아름농장

E-mail

arumfarm@yahoo.co.kr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6년

경영규모 2만6,000평

순수익 1억2,000만원

26년간 영농일지 기록

주영모씨는 장남으로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친을 여의고 논 2,000평으로 농사를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대 초반부터 가족의 생계를 짊어져야 했던 그였다. 그 뒤 농업경영인과 쌀전업농으로 성장하면서 자경농지는 1만7,600여 평, 단감 과수원 3,000여 평 등 2만여 평을 마련했다. 26여년 동안 농가경영일지와 금전출납부, 농사계획표 등 각종 경영장부를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해 왔다.

특히, 농가경영일지에는 종자 선택, 품종별 식부 면적 조정, 시기별 기상여건 및 기후변동 상황, 병해충 방제, 시비량, 농산물 가격변동 등을 상세히 적어 둔다.

다음해 영농 때 뒤져 보고서 반드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남들은 농가경영일지 하나도 20년 이상 쓰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씨는 3종류의 기록부를 써오면서 농지나 농기계 구입 때 무리한 대출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대부분을 자부담으로 마련하는 알뜰함을 보이고 있다.

토양관리 및 환경농법으로 고품질 쌀 생산

이처럼 철저히 기록된 자료들은 논에 화학비료를 시비할 때도 적용 돼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과다 시비를 하지 않게 된다. 시비 전에 반드시 간이토양검정기를 이용해 토양검정을 한 뒤 시비량을 결정하고 있다.

토양검정 때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시비를 최소화 하는 반면에 석회와 규산질 비료를 2~3년마다 한번씩 뿌려주는 일이다. 퇴비가 들어간 논은 이앙 할 때 단 1회만 화학비료를 주되, 그것도 일반 농지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시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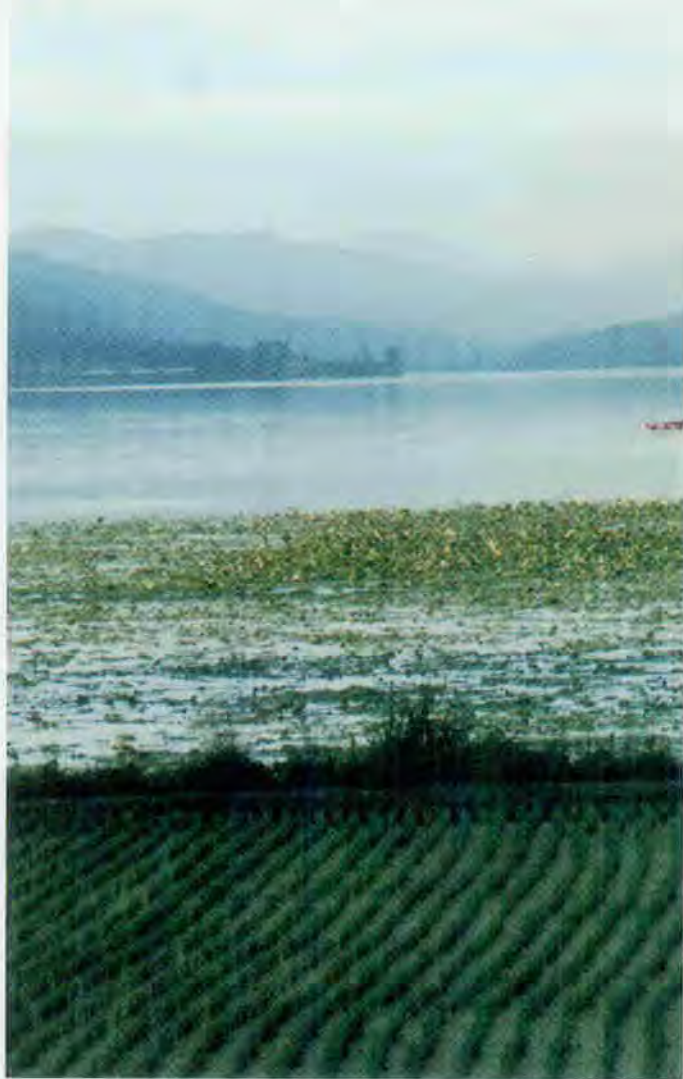
이러한 노력 결과 주영모씨는 '96년도 창원시 주관으로 한 쌀생산우수농가심사에서 장려상을 탔고, 그 뒤 2000년도에는 전업농중앙회 주관 제3회 쌀품질평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영농규모를 10~20ha로 늘여 기업형으로

주영모씨는 연간 쌀 생산으로 8,000여 만원, 단감·시설수박 4,000만원 등 연간 1억2,000여 만원의 순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임차농지를 늘리는 방법으로 논을 최소 10ha에서 많게는 20ha까지 경작할 계획이다.

주영모씨는 이제 영농기술도 어느 정도 축적됐다고 보고 있다. 또한 트랙터·콤바인·건조기 등 기계화 영농도 기반이 잡혀 있는 상태다.

앞으로는 경지구모를 늘려 생산원가를 더 낮추고 점차 기업형 경영에 접근시켜 나간다면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米

주 지 대

丌



1956년생

주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도천리 724 전화번호 055. 963. 0149

성실성과 흙의 진실성을 바탕으로 일으킨 부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5년

순수익 2,000만원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라

주지대씨는 덕유산 국립공원의 끝자락을 자리 잡고 있는 경남 함양군 서상면 도천리 피적네 마을의 소농의 이들로 태어나 어려운 생활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농사일을 시작하였다. 그 당시 농촌의 여건은 농기계가 흔하지 않아 노동력에 의존하여 농사일을 하여야만 하는 어려운 시절이었다.

어린 나이에 농사일을 하다보니 너무 힘들어 사춘기 때 방황은 도시로 내몰았고, 힘든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끼면서 다시 고향으로 오게 되었다.

적극적인 사고가 일궈낸 성과

좁은 농토와 농사에 대한 식견부족을 느끼게 되어 그때부터 행정기관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농사에 대한 교육이나 새로운 정보에 더욱 열심히 쫓아 다녔으며 4-H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농사를 시작할 때에는 농지정리가 되어있지 않아 기계화 영농을 하기에 부적합하여 규모화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경지정리가 우선 과제였다.

면사무소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86년부터 점차적으로 경지 정리를 하게 되었다. '95년에는 트랙터(40hp), 콤바인(3조식), 이앙기(6조식)을 일괄 구입하였고, 처음에는 농기계 수탁사업을 하게 되었다.

위탁하는 농사일을 농업기반공사의 영농규모화 사업과 연계해 임대차 계약을 하게되어 얻어지는 수익과 농기계 위탁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익을 저축하여 논을 구입하게 되었다.

앞으로 농사 짓는데 필수 요건인 집단화 영농과 노동력 절감으로 투입비용최소화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주씨가 농지를 늘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곳이 농업기반공사이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농업기반공사의 영농규모화 사업에 동참하여 농지구입자금을 장기 융자하여 어려움 없이 농지를 구입 할 수 있었다.

벼의 생육과정에서부터 모든 사항을 농촌지도소를 방문, 문의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시비방법, 이앙방법, 농약 희석량, 농약 살포량, 수확량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토양에 맞는 종자를 선택하여 수확량을 증가시키며 비질이 떨어지는 품종은 과감히 퇴치하고 있다.

기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



수확하는 벼의 3분의 1은 정부수매가에 의하여 수매하고 출하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인근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에 산물로 수매하여 판매하고 있다.

못자리에서부터 수확한 벼의 판매에 이르기 까지 모든 사항을 영농일지에 기록하여 필요한 영농사항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전문화와 과학영농을 하여 야만 농사를 잘 지을것임을 깨달아 컴퓨터가 필요함을 느껴 구입키로 하고 컴퓨터에 매년 농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 이듬해 영농에 참고하

고 있다. 이제는 농사도 전문화 시대이므로 더 많은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질 좋고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자연여건상 양질의 토양과 티유산 많은 물로 질 좋고 저공해의 쌀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보다 원만하게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조금제도를 부활하여 지원해주고, 안정된 수매로 인해 농가들의 근심걱정을 덜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주씨의 바램이다.

米

大

최광식



1956년생

주소 전북 순창군 인계면 노동리 123-1 전화번호 063. 652. 0561

새로운 농법 개척 프로농군으로 우뚝

경영체명 우렁쌀농장

홈페이지 www.62ssal.co.kr

E-mail

worong2@hanmail.net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0년

경영규모 1만7,000평

조수입 4,800만원

특기사항 국무총리상,

전라북도신지식인

신기술이 농업 성패 좌우

우렁이 농장을 운영하는 최광식씨는 2000년 전라북도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되었다. 친환경농법인 우렁이농법으로 자신이 직접 벼농사를 지어 가공을 거쳐 판매까지 하는 그는 선친이 운영하던 정미소를 물려받아 '99년 현대식 시설을 갖춰 우렁이쌀 브랜드로 전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여 국민건강을 챙기는 프로 농업인으로 성장했다.

최광식씨는 두 형이 군에 입대한 관계로 '74년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을 돕기로 굳게 마음먹고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농사일에 빠져들었다. 당시에 부모님은 축산에 종사해 최씨도 이일에 매달려 남의 농지를 빌려 쌀 농사를 짓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농업에 문외한인 그는 현실을 직시하고 농촌지도소를 통해 각종 영농상담 및 기술교육 등을 이수했다. 농사에 있어 최고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로 농한기를 이용해 농업관련 교육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 신농업기술을 익히는데 주력했다.

선진 해외연수 통해 새로운 눈떠



'90년 농어촌진흥공사가 주최가 돼 처음 해외 선진농업 견학을 하면서 일본 농업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250마지기의 농사를 짓는 것도 그렇고 농기계 시설을 보유한 것 등 모든 것이 새로웠다. 모든 농사 과정이 농기계에 의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농기계들이 일본 농가에 보급돼 실제 활용되고 있었기에 그는 농업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됐다.

다수확을 꿈꾸고 농사에 전념해 온 그에게 '90년 여름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발에 상처가 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는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은 결과 농약 중독 판정을 받고 대수술을 하게 됐다. 근육에 묻혀있던 농약을 빼내는 수술을 해 병상에 있으면서도 농약을 하지 않고 벼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수백, 수천 번 생각하게 됐다. 그는 퇴원을 하고 난 이후 군청과 농촌지도소를 찾아 새로운 농사 방법을 모색하던 중 특수시책으로 추진, 생소하기만 한 오리농법과 우렁이농법 등을 접하게 됐다.

친환경농법으로 탈바꿈



'92년 오리농법, 미강(쌀겨)농법에 이어 '97년 우렁이농법으로 친환경농법이 태동하게 된 것이다. 당시 생소한 친환경농법에 대한 기술을 타득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교육장을 찾아다녔다. 한국유기농협회와 충북 흙살림연구회, 전남 정농회, 장성 한마음공동체, 곡성 자연농법 등 스스로 참여해 보고 듣고 실천해 나갔다.

'97년 7명으로 시작한 순창군환경농업연구회 회원도 22명으로 늘어남은 물론 매년 5회 이상의 유기농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99년부터 양보다 질로서, 신용을 담보로 무공해, 무농약 쌀을 생산해 전국 소비자들과 직거래를 처음으로 시도했다.

인터넷 구축으로 판매 확대

2000년에 우렁논쌀이란 브랜드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음과 동시에 인터넷홈페이지(www.62ssal.co.kr)를 개설해 무공해 쌀에 대한 홍보와 판매 확대에 열을 올렸다. 또 우렁논쌀은 3kg, 6kg, 10kg 등으로 소포장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였다. 이 쌀은 광주와 부산 등지의 백화점에서도 만날 수 있다.

米
大

최만득



1956년생

주소 경북 영양군 입암면 노달리 184-4 전화번호 054. 682. 3990 H.P 017. 505. 3990

성실과 정직으로 승부한다

주 품목 쌀

영농경력 17년

경영규모 1만7,000평

조수입 5,000만원

빈손으로 시작한 벼농사

“내 땅 한 평 없이 농사를 시작해서 그런지 눈에 대한 욕심은 유별난 편입니다. 농사를 지어 돈이 생기면 무조건 논부터 샀죠. 그렇게 조금씩 모으다 보니 지금은 규모면에서 영양군 내에서도 손꼽히는 벼재배 농가가 됐습니다.”

최만득씨는 말 그대로 자수성가한 농업인이다. 남의 집 일을 도우며 살던 젊은 시절 자신의 땅에서 벼를 키우는 것이 소원이었던 그는 31살 되던 해 어렵게 모은 돈으로 논을 마련했다.

그것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져본 자신의 논이었다. '96년에 정부에서 주는 토지구입자금을 지원 받아 논 3,000평을 마련하고 쌀전업농이 되면서 농사에 이력이 붙자 점점 빠르게 불어난 논이 지금은 1만 7,000여 평에 이른다. “1만 7,000평은 영양군에서나 큰 규모지 전국적으로 본다면 별 것 아닐 겁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시작해 일군 온전한 내 땅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합니다.”

땅에 대한 애정으로 지켜온 세월

최만득씨의 농사법은 한 평씩 차근차근 마련했던 그의 논 만큼이나 우직하다. "다른 발작물이나 과실과는 달리 벼농사에는 특별한 영농비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함과 성실함, 그리고 논과 벼에 대한 애정이야말로 최고의 영농비법이죠."

논에 대한 그의 애정은 가을갈이에서 드러난다. 영양지역의 토지는 다른 곳과 달리 진흙 성분이 많아 가을에 보리를 갈면 땅의 영양상태가 급속히 나빠진다. 이를 알고 최씨는 보리를 가는 대신 해마다 추수가 끝나면 짚을 갈아서 논을 덮어준다. 짚이 썩어서 거름 역할을 하면서 겨우내 땅심을 높여주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최씨 논의 평균 수확량은 항상 주변 농가를 크게 웃돌 뿐 아니라 밥맛 좋기로도 주변에서 소문이 자자하다.

품질이 바로 경쟁력



최만득씨는 올 해 수확한 벼 40kg 960가마 중 400가마를 수매했고, 나머지는 모두 지역 정미소에 팔았다. 지역에서 밥맛 좋기로 워낙 유명한 최씨의 쌀이라 없어서 못 판다는 것이다.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는 비결은 품종에 있다고 최씨는 설명한다. 좋은 품종을 선택해 모를 내는 것이야말로 벼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란 것이다. 실제로 그는 해마다 새로 개발되는 품종을 빠짐없이 확인해 밥맛도 좋고 병해충에도 강한 품종을 골라 모내기를 한다.

최씨의 쌀이 밥맛이 좋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최씨가 수확한 벼를 집에서 직접 건조하기 때문이다. 품종이나 질에서 차이가 나는 다른 벼와 섞이지 않고 자신이 생산한 벼만 따로 건조하기 때문에 정선된 고품질 쌀이 나온다는 것이다.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최씨는 브랜드화나 직거래 같은 것은 알지도 못하지만 최고로 맛있는 쌀, 가장 믿을 만한 쌀을 생산하는 것만큼은 자신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믿는다.

米
大

최영택



1956년생

주소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주천리 469-8 전화번호 031. 672. 5007

벼 재배 고도기술로 안성쌀 입지 강화할터

경영체명 다물농장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5년

경영규모 17만평

조수입 1억3,000만원

월드컵 선수에게 햅쌀 주려고 최초로 수확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주천리에서 약 17만여평의 벼를 재배하고 있는 최영택씨는 안성지역의 자랑거리다.

충북 음성이 고향인 그는 아버지가 정미소를 운영하던 터에 이미 농사일이 몸에 배는 등 농업을 천직으로 살아온 장본인.

군 계대후 과수원을 운영하기 위해 입대전 아버지와 함께 과수묘목을 사들였으나 묘목 장사에게 사기를 당하는 등 여러차례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그는 일간지 마스크를 탔다. 그 이유는 작년 2월 6일 300평의 본인 비닐하우스에 2002년 들어 전국 최초로 모내기를 끝마쳤기 때문이다.

그는 한달전인 1월 7일 국내 육성품종인 진부올벼와 흑진주벼를 파종, 30일간의 성장기간을 거쳐 2월 6일에 모내기를 실시한 것이다.

이것은 2002년 월드컵 때 벼를 수확해 선수들에게 먹이기 위한 것이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대통령에게 인사받아

안성 뿐만 아니라 경기도청에까지 소문이나 2월 23일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접대를 받을 정도로 모든 이들은 그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는 2001년 다음 해에 개최될 월드컵을 대비해 전국 최초로 가장 빠르게 벼를 수확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비닐하우스에서 벼를 재배하기 위해 열풍기 2대, 보일러 4대를 준비하는 등 밤낮으로 벼의 생육적정환경을 맞추었다. 안성시 쌀 연구회원인 최씨는 그동안 쌓은 영농기술력을 바탕으로 농업기반공사와 벼 1만2,000평 임대재배와 위탁영농 2만평을 짓고 있다. 또한 2000년에는 그의 부친과 함께 만든 육묘장이 안성시청 공무원이나 농업인들이 찾아올 정도로 기술력이 대단하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온도·습도의 기술 차이라고 강조한다. 한때 그는 벼 재배에 시행착오를 경험하기도 했다. 2001년 상토를 잘못해 모판 1만상자를 버리게 된 것이다. 제대로 발아가 되지 않고 곰팡이가 발생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었다. 당시 상토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수없이 많았지만 품질자체가 규명화 되지 않아 이래저래 손실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흠어진 논 한곳으로 모아 생산비·노동시간 절감

그는 지난 '99년과 2000년에는 전국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한 쌀 품평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1년에는 역시 경기도 쌀품평회에서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개인으로는 2001년 고도기술 벼농사 우수상을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수상한 바 있다.

앞으로 최씨는 전업농으로서 벼 생산을 규모화 하기 위해 땅을 매입할 계획이다. 즉 흠어진 논을 하나로 단지화 해서 생산비와 노동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안성 인터넷 직거래장터를 최대한 활용해 서울시민들에게 직거래로 안성쌀을 판매할 계획이다.

최씨는 특히 2003년부터는 체험농장 그린투어가 실시되는데 서울 및 과천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이곳 안성에서 투어하면서 쌀 생산방법과 노하우 그리고 안성쌀의 우수성을 느끼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원국



1954년생

주소 강원 홍천군 남면 명동리 209-8 전화번호 033. 432. 3506 H.P 011. 475. 1898

무농약재배로 차별화된 쌀 생산

경영체명 그린농장

E-mail

cwg1898@hanmail.net

주 품목 쌀, 벼싯

영농경력 20년

경영규모 논 7,600평

조수입 2,800만원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 쌀로 승부

“소비자를 겨냥해 고품질의 무농약재배 쌀을 생산한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외국산 수입쌀 개방 폭이 확대되더라도 거뜰히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강원 홍천군 남면 명동리의 쌀 재배 농업인 최원국씨. 최씨는 '98년부터 무농약 오리농법으로 쌀을 생산해 시중가격보다 30~40% 이상 높은 값을 받고 있다.

소비자단체와의 직거래를 통해 전량을 판매하고 있어 판로도 안정적이다.

최씨가 영농에 뛰어든 것은 지난 '82년, 벼와 고추를 재배하였지만 현상 유지에 급급하였다.

그는 오랜 고심 끝에 영농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우선 7,600평 규모의 벼농사를 무농약 오리농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협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 노지재배를 하던 600평 규모의 풋고추는 연동하우스를 설치해 친환경재배 방식으로 돌렸다.

차별화된 영농기술로 화학비료 사용량 줄여



농약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토양내 유기물 함량 높이기에 주력한 결과 98년부터 완전 무농약 오리농법을 실현했다.

이어 미생물제·목초액·전해수·천혜늪즙을 이용, 화학비료 사용량도 30%이상 줄였다. 최씨의 이 같은 노력은 성공농업인으로 이끄는 발판이 됐다.

최씨가 무농약 오리농법으로 생산한 쌀의 품질과 안전성이 높이 평가되면서 '98년부터는 유기농산물 소비운동단체인 (사)한살림과 전량 계약생산·판매하는 성과를 끌어냈다. 일반농법으로 재배한 쌀 보다 50%이상 높은 값을 받아낸 것은 물론 판로걱정도 말끔히 해소했다.

최씨가 무농약 오리농법으로 생산한 쌀의

완전 유기재배로 개방화 시대에 대비



최씨는 2002년 7,600평의 논에 찰벼 6,800평, 메벼 800평을 각각 재배했다. 조곡기준으로 60kg들이 찰벼 146가마와 메벼 36가마를 한살림에 판매했다.

가마당 무농약 재배의 경우 메벼는 7만 5,600원, 찰벼는 8만500원을 받아냈고, 유기재배는 메벼 8만3,000원, 찰벼 9만4,300원에 각각 공급했다. 일반농법으로 재배한 쌀 보다 30~40% 높은 값을 받아내 2,800만원의 조수익을 올렸다.

최씨는 "2002년 2,400평 수준인 유기재배 벼 재배면적을 매년 늘려 2005년엔 전량 유기재배를 실현, 수입개방에도 견딜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나가겠다"고 야무진 포부를 밝혔다.

최 의 주



1935년생

주소 경기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403 전화번호 031. 632. 1117

농협 지원받아 오리쌀 농법 전환으로 성공

경영체명 대대리 오리작목반

대월농협 도움받아 오리쌀 작목반 구성

주 품목 쌀

영농경력 45년

중부고속도로에서 이천톨게이트로 빠져나와 약 20여분간 장호원쪽 방향으로 가다가 대대리로 접어들면 친환경 농업 단지가 펼쳐진다.

경영규모 논 6,000평,

밭 2,000평

20여세대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은 최의주씨와 부인 이삼용씨가 오리농법으로 쌀농사를 지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곳이다.

순수익 3,000만원

최의주씨는 오리농법으로 논 6,000평에서 쌀 100가마를 생산해 가마당 25만원에 직거래로 판매하여 지난해 2,5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밭작물 2,000평에서도 태양초고추, 콩, 옥수수 등을 농사 지어 500여만원의 소득을 추가해 연간 총소득 3,000여만원을 올렸다.

오리농법으로 승부 걸고자 과감히 전환



최의주씨는 이 마을 토박이로 줄곧 쌀농사만 지어왔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꼈다.

그리고 오리농법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오리농법으로 승부를 걸어보기로 한 것이다. 과연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오리만 가지고 벼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하고 염려도 했지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야만 수입 농산물과 경쟁해서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생각

에 지난 2000년부터 대월농협의 도움을 받아 11농가가 오리쌀 작목반을 조직했다. 오리농법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선진지 등을 견학하고 전문 강사를 마을로 초빙해 강의를 받는 등 노력한 결과, 자신감을 가지고 오리농법으로 전환했다. 환경도 살리고 안전하고 맛있는 쌀을 생산해 고소득을 올려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계산이었다.

벼 종자는 추청을 선택했다. 4월 9~11일 못자리를 설치하고 철망, 철주 등으로 논에다 오리집을 만들었다. 이앙은 5월 18~20일 사이에 끝내고 부화 14일된 오리방사는 5월 3~5일에 실시했다.

최씨는 오리농법의 이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오리가 논에서 벼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잡초발생 억제효과, 물바구미 등 해충을 제거하여 병해충을 방지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리의 배설물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화학비료를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쌀’ 하면 경기도 ‘이천쌀’이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만, 오리농법으로 재배한 쌀은 더욱 으뜸이지요. 오리출하는 수확전 8월 15일경에 합니다”

오리쌀 직거래 판매로 제값받아 일거양득

지난해 수확한 백미 100가마는 서울 YMCA 양곡은행의 주선으로 직거래를 통해 80kg 한가마에 25만원에 거래돼 모두 2,500만원을 받았다. 이곳 대대리는 빈곤했던 70년대 서울 YMCA와 인연을 맺어 도움을 받아왔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나누고 있어 직거래가 쉽게 이뤄졌다.

최의주씨가 1년간 농자금으로 투자한 금액과 벌어들인 수입을 계산해 보았다. 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료 160만원, 오리종자 600마리 100만원, 비료대금 11만원, 인건비 및 기타 30만원 등 합계 300여만원을 투자, 직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2천500만원에서 300여만원을 채하면 2천200만원이지만 오리 출하시에 수입을 따지면 훨씬 수입이 웃돈다.



米

大

최찬용



1968년생

주소 충남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374-1 전화번호 041, 943, 0358 H.P 017, 404, 0358

영농규모화로 고품질쌀 생산

주 품목 쌀

영농경력 12년

경영규모 4만평

순수익 5,000만원

환경보호와 토양보호 · 미질향상등 일석삼조

농업여건이 열악한 칠갑산 자락에서 4만여 평의 논농사를 짓는 최찬용씨는 영농 규모화를 통한 기업형 농사꾼을 꿈꾸는 젊은 농업인이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을 포기해가면서 영농에 뛰어들은 것은 '86년이다. 하천과 소류지를 따라 형성된 소규모의 논과 산비탈을 일궈 만든 계단식 밭에서 쌀을 비롯해 잎담배·채소·고추·표고버섯 등으로 농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평택평야나 김제평야의 대규모 영농을 꿈꿔오던 최씨에게는 양이 차지 않았다.

군을 제대한 뒤 '90년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은 논 4,700여 평으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영농 규모화에 나섰다.

이와 함께 1모작에 의존하는 지역 농업인들과 달리 가을 추수 후 논에다 보리를 심는 2모작 농법을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경운기·이앙기·콤바인·트랙터·건조기·분무기 등 논농사에 필요한 농기계 일체를 갖추고 임차면적을 확대해 농사면적을 8만여평으로 늘렸다. 또 '95년 쌀 전업농으로 선정되면서 농지집단화와 경작거리를 줄이기 위해 부모님이 계시는 용두리에서 현재의 역촌리로 이주하면서 생산비 절감을 위해 당시 새로운 농법인 어린모와 직파재배를 도입했다.

영농규모화가 곧 농업의 경쟁력

최씨는 '95년부터 1만5,000여평의 농지를 매입했고 '96년 지역에 대규모 경지정리가 시작되면서 30여필지로 나뉘져 있던 농지를 4필지로 집단화했다. 또 농지매입만 고집하지 않고 임대차와 위탁영농을 병행하면서 임차농지 1,400평을 제외한 모든 농지를 0.5km이내의 3개 지역으로 묶고 농사의 전과정을 기계화해 영농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함께 농기계조작기능사 자격증 취득과 함께 농기계 수리·정비교육도 받아 웬만한 농기계의 90%정도는 직접 수리할 수 있게 된 것을 비롯 마을의 농기계 수리기사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생산자 실명제와 고품질화로 승부



현재 수확한 벼는 현재 정부수매 30%, 농협계통출하 30%,양곡도매상 30%로 출하하고 있는 최씨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고품질 쌀로 승부하기 위해 지난해 청양군의 지원으로 600t의 돼지분뇨를 일시 저장 발효시켜 8만여평의 농지에 사용할수 있는 액비탱크를 설치했다.

6개월 이상 숙성 발효시킨 액비를 눈에 살포하면 가축분

뇨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는 물론 땅심이 좋아지고 벼의 내병성도 높아져 농약을 덜사용해도 되고 미질 향상을 가져오는 등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씨는 올부터 자신의 논 4만여 평과 임차한 농지 4만여 평등 모두 8만여 평의 논에서 친환경농법으로 고품질쌀을 생산, 이를 자신의 고유상표로 인터넷 등을 통한 소비자와의 직거래도 계획하고 있다.

米

大

최창희



1960년생

주소 경기 안성시 양성읍 방축리 446 전화번호 031. 673. 7126 / 02. 517. 3230

농사꾼도 '유통' 잘 해낼 수 있다

경영체명 경기쌀갤러리미

홈페이지

www.migongbang.co.kr

주품목 쌀

경영규모 논 6만8,000평

순수의 1억5,000만원

특기사항 경기도농어민대상

우수쌀 전업농

서울에 직판장개설로 고소득 올려

벼농사를 지어 일년에 1억5,000만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최창희씨는 경기도 안성시 양성읍에서 쌀농사를 지어 서울에 직매장을 설치하고, 직접 판매까지 하는 보기드문 성공 농업인이다.

서울에서도 부촌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청담전철역 부근 삼성동 52-17 영림빌딩 1층 50여 평 사무실과 홍보전시, 매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4년전에 개설한 '경기쌀 갤러리' 쇼룸을 운영, 농업인 소득으로는 놀랄만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 쇼룸에는 도정기에서 고객의 주문에 의해 도정된 맞춤쌀을 즉석에서 생산해 준다.

경기쌀 갤러리서 즉석도정 공급

이곳에서는 자신이 농사지은 쌀은 물론, 경기도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직거래 형식으로 판매해 주기도 한다.

고객의 주문에 따라 즉석에서 도정한 쌀을 판매하며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살아있는 싱싱한 쌀을 소비자에게 즉석 판매하고 있다.

4년전, 경기도에서 7억원을 지원받아 '경기쌀 갤러리' 를 오픈했다.

농민들이 땀흘려 생산한 쌀을 80kg 한 포에 20만원 주고 사들여 수분함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벼를 영양가 높은 쌀로 고객의 주문에 따라 즉석 도정, 80kg한포에 24만원에 판매,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창호씨는 농사철이 지난 요즈음도 새벽 5시에 안성시 자택에서 출발, 6시30분에 사무실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하는데 새벽같이 일어나 벼농사에 전념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경기쌀 갤러리' 에서도 부지런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97년도 쌀전업농으로 선정되어 현재 6만8,000여 평으로 농지를 규모화하여 농업경영비 20%를 절감하는 등 기계영농화의 기틀을 마련한 최창호씨는 '99년 7월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우수 쌀전업농으로 뽑혀 수상한 바 있고, 2000년에는 경기도 농어민대상에서 쌀증산 부문에 수상하는 등 각종 표창과 상을 휩쓸고 있다.

쌀증산 농업인 대상 등 표창 휘쓸어

5남매중 차남으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에 탁월한 소질을 가지고 있던 최창호씨는 권투 특기생으로 체육대학에 입학, 운동을 했으나 운동보다는 싸움질로 소일을 하다가 대학을 아예 중퇴해 버리고 뒷골목 주먹으로 번신, 한때 주먹파워를 과시하던 시절도 있었다.

부인 김지연씨와 인연을 맺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인의 끈질긴 설득으로 '주먹파워' 를 '벼농사파워' 로 전환하게 되었다. "경기쌀 갤러리를 운영해 나가자니 농사꾼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끝에 마케팅전략에 뛰어난 (주)미공방과 업무계휴를 하게 되었지요."

"미공방에서는 저희 경기쌀을 가지고 판매기술제공, 판매협력, 백화점·마트·대리점 등에 판매구축망을 확충해 월 1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라며 나름대로의 성공비결을 설명했다.





한 순 기



1958년생



주소 경남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241-1 전화번호 055. 883. 8079

차별화된 재배방법이 소득의 차이를 가져온다

경영체명 큰들농원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5년

경영규모 1만 8,600평

순수익 3,600만원

대를 잇는 농사일

4남 2녀중 맏이로 태어난 한순기씨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전업농이다.

처음 3,000평에서 시작하여 기반공사의 농지구입자금으로 농지를 확대하였고, 현재는 임차 해서 경작하는 논을 모두 합치면 1만 8,000여 평이 넘는다. 한씨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땅을 늘려 꾸준히 규모화를 꾀해 나갈 계획인데 2002년도에는 태풍과 수해로 인하여 평년 수확량 보다 30~40%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수확한 쌀은 정부수매와 농협수매를 통하여 출하하고 있는데, 농협수매는 RPC(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하여 산물로 수매하고 있어 노동력을 절감하고 있다.

벼의 생육을 고려한 경영방식

벼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는 물관리에 있다. 큰들농원은 벼 생육에 필요한 물을 50미터 암반지



하수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지하수를 이용함으로써 물부족으로 인한 생육장애를 일으키는 일이 없으며, 일반 저수지의 물을 이용하는 것 보다 병충해 영향을 적게 받는다. 병충해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농약을 적게 사용하게 되고, 미질과 밥맛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연간 250석이 넘는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수매에 의한 등급은 전량 특등을 받을 정도로 미질이 뛰어나다. 주로 사용하고 있는 품종은 보급종 위주로 파종하는데, 하나의 품종이 아닌 3~4종의 품종을 사용하고 있다.

큰들농원에서는 파종방법을 성모파종과 직파를 주로 하고 있는데, 직파재배는 논토양 조건 및 파종시기, 기상상황 등에 따라 건답직파 및 담수직파를 할 수 있고 직파적용 품종선택, 그리고 잡초방제체계, 물관리와 비료의 사용량 및 시비방법, 도복대책과 같은 재배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논 로타

리전에 제조하고 육묘가 클 때 제조하여 생육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다.

벼 직파재배는 직접 법씨를 본논에 파종하므로 육묘기간이 없는 대신에 본답에서 생육기간이 이앙재배보다 길기 때문에 질소의 시비량과 시비방법이 중요한데 큰들농원에서는 물을 적게 사용하여 도복을 줄게하고, 비료를 30% 투입하고 나머지는 퇴비를 사용하여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다.

복합경영체를 통한 이익창출

한씨는 벼 수확후 나오는 벼짚을 이용하여 한우사육을 같이하는 복합경영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오는 퇴비를 이용해 거름으로 사용함으로써 땅심을 돈구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1만 8000여 평에 해당하는 논에 퇴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우 20두에서 나오는 퇴비의 양만큼 필요하다고 한다. 현재 한우사육두수는 8두이며, 번식위주의 사육을 하고 있는데 점차 규모를 넓혀 생산비를 낮추겠다고 한다.

점차적으로 친환경쌀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현재 구비된 농기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필지의 논을 경영하고 싶은 것이 한순기씨의 소망이다. 나아가 천연 암반수로 재배한 미질이 우수하고 밥맛이 뛰어난 쌀을 브랜드화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승철



1956년생

주소 경기 평택시 팽성읍 도두2리 89 전화번호 031. 691. 0519

항상 연구하는 농업인

경영체명 우신미곡농장

홈페이지

www.wusinrice.com

E-mail

webmaster@wusinrice.com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7년

경영규모 3만6,000평

순수익 6,000만원

특기사항 농림부장관상

농업의 기계화로 효과적인 영농작업

올해로 27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한승철씨는 제대 후 결혼과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영농에 전념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영농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수작업이었으므로 작업능률은 낮고 몸은 이만지만 혹사당한 게 아니었다

의욕에 찬 한씨는 마을 내에서 영농이 곤란한 고령자와 직장인의 눈을 받아 논갈이와 모내기, 수확 등 주요 영농작업을 대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워낙 많은 땅을 임차해서 농사 지으려다보니 트랙터와 이앙기, 콤바인 등 농기계를 구입해 본격적인 영농대행 체제를 갖출 수 밖에 없었다. 농기계 보급률이 낮은 당시 이러한 것들은 모두 마을 최초로 구입한 농기계들이었다.

친환경농업 위한 노력

한씨는 친환경농업에 대해 배우기 위해 '99년에는 충북 괴산에서 1주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자연농업학교에서 교육을 받기도 했다. 이후 그는 평택시장에게 건의하여 평택시



농업인 60여 명이 친환경교육을 받아 새로운 농업방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추구하는 회원들과 함께 조생종벼를 수확한 땅에 보리를 재배하고 있는데 보리를 재배할 경우, 다년생 잡초가 자연스럽게 사라져 제초작업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철저한 토양 관리와 판로개척

한씨는 “상농은 흙을 다루고, 중농은 곡식을 다루며, 하농은 풀을 다룬다”며 벼농사를 위해서는 토양기반을 다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농사짓는 농업인이라면 토양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텐데도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며 토양관리와 함께 벼 재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품종선택이라 한다.

현재 한씨는 10a당 530Kg 이상 생산되는 양질다수확 품종인 일품벼와 대안벼를 60%이상 재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수기가 다른 2~3개 조생종과 중·만생종을 재배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줄이고 이앙 및 수확기에 집중되는 노동력을 분산시켜 농기계 이용율을 극대화하도록 품종을 선택하고 있다. 조생종을 많이 심는 것은 보리재배를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일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한우사육으로 발생한 우분을 발효시켜 퇴비를 만들어 논에 사용하고 있으며 땅심을 높이기 위해 볏짚은 되돌려 깔고 4년마다 규산질을 뿌린 후 가을갈이를 하고 있다. 특히 쌀겨를 뿌려줌으로써 단보 당 25~30Kg 이상 수확량의 증수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한씨는 많은 벼를 생산하고 있지만 판로문제를 염려하지 않는데, 소사들영농조합과의 계약 물량(전체의 40%정도)은 일반수매가 보다 10%정도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재배하고, 나머지 60%는 경기도 쌀연구회 회원으로서 경기미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경기도 쌀연구회 쌀로 연중 출하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을 더욱 연구·발전시키고 전문기술을 습득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생공존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목표를 실천하고 이를 전파하는 일에도 힘을 쏟을 작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로부터 품질을 인정받은 평택쌀의 홍보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를 추진할 방침이며, 농업용 소프트웨어를 활용 경영개선과 합리화를 이루는 방안도 꾸준히 추진해 갈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기대된다.

米

ㅎ

허남천



1940년생

주소 충북 제천시 백운면 방학 1리 전화번호 043. 652. 6962

저농약 재배를 통한 쌀 생산

경영체명

제천백운친환경농업시범마을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5년

경영규모 논 5,400평

밭 2,500평

순수익 1억원

소농이 가진 소박한 꿈

박달재라는 지명으로 유명한 제천시 백운면의 방학1, 2리 마을은 친환경농업시범마을로 '99년도에 지정되면서 벼농사 위주의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오고 있다. 허남천씨는 고향을 지키며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35년 동안 농업에만 종사해온 여타 농업인과 다른없는 보통의 농업인이다.

젊은 나이에 벼농사를 시작할 당시에는 1,300여 평의 규모로 벼 8가마니가 전부였다. 임차를 통해 사과농사를 시작하면서 현재 논 5,400평, 사과과수원 2,500평으로 그 규모가 늘어났다.

허남천씨가 친환경농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99년에 농촌인력이 고령화되고 소득이 점차 감소하여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친환경농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였다.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마을 주민과 의기투합하여 초기에는 6,000여 평에서 친환경농업을 시작하였으나 지역농가의 기대이상의 호응으로 현재 참여농가는 92농가로 실천면적은 57.6ha로 늘어났다.



마을 주민과 농업기술센터가 힘을 모아

제천시 백운면의 친환경농업시범마을은 중산간지로 규산질 비료를 매년 사용하여 벼의 생육을 튼튼하게 하고 필지별로 정밀토양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배합비료를 사용하는 등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줄여나가고 있다.

연간 3차례 이상의 현장교육과 2차례의 평가회를 통하여 작물양분종합관리(INM)기술과 병해충 종합관리(IPM) 기술을 집중 보급하여 8차례의 농약사용 횟수를 5차례로 낮추고 있다. 화학비료 사용량을 50% 이상 감소시켰으나 적당량의 시비공급으로 인해 오히려 생산량이 증가되었다.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기술지원과 제천시의 지원으로 생산된 쌀은 인근 RPC에 공급하여 시장에 출하되고 있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저농약재배쌀 인증을 받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허씨는 벼농사 뿐만 아니라 사과밭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큰골사과작목반에서 생산된 사과는 중산간지의 높은 일교차로 인해 품질과 당도가 매우 높아 다른 지역의 사과보다 15~20% 이상의 높은 값을 받고 있다.

마을 전체로 친환경농업 확대할 계획



앞으로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57ha 농지 중 녹비작물이 가능한 농지는 호밀을 재배하고, 녹비재배가 부적합한 곳은 벼짚을 썰어 넣어 지력을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리농법을 통한 벼재배로 보다 높은 시장가격을 받기 위해 기술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과 또한 친환경농법을 시작하여 농가들의 호응이 높아질 때 전체 마을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관광자

원인 박달재와 산골짜기 높은 곳에 위치한 맑은 저수지 등을 이용한 녹색체험관광마을을 구상하고 있어 고령화된 농촌의 농가소득 증대와 도시·농촌의 교류에 노력하고 있다.



허태호



1971년생

주소 경남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1299 전화번호 055. 674. 5245

벼농사 15ha 재배 국내 최고 부농 꿈

E-mail hth119@gmgs.net

주 품목 쌀

영농경력 9년

경영규모 3만2,000평

순수익 3,000만원

규모화·집단화로 영농기계화 앞당길 포부 가져

허태호씨는 농업기술센터의 정보와 농업기반공사의 도움으로 농지를 구입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에 승계 받은 농지 1만여 평에서 5년이 지난 지금은 본인 소유의 땅만 2만 평 이상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영농규모를 늘려 임대차를 제외한 면적으로 4만 평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영농규모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연차적으로 일정규모씩 경영여건에 맞춰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효율적 기계화를 위해 농지집단화를 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고 연간 농업소득도 늘여 벼농사만으로도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영개선을 이루어 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농기계를 구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영농교육 참석 및 영농기법 개발에 힘써

비록 그는 어리고 영농경력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젊은 농업인에게는 나름대로 경영모델이 될 수도 있기에, 경영개선에 힘입은 쌀 전업농으로서의 성공담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및 지역자치단체(시, 군)에서 실시하는 농업인 교육장에 초빙 강사로 나가 쌀 전업농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특히 그는 고성군에서 주관하는 쌀 전업농 관련 행사에도 빠짐없이 초청되어 농업인의 입장을 소신 있게 대변했다. 그는 개방화 및 지방화시대에 따른 우량품질미가 향후 각광 받을 것이라 판단하여 병해충에 강한 품종개발을 위한 수도작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연구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규모화, 집단화, 기계화를 통한 농업경영개선을 착실히 다져왔다고 자부했다.

전업농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 배려해야

또 그는 우리 농업의 현재는 매우 어렵지만 오히려 영농확대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향후 15ha까지 영농규모를 확대할 계획이고 전문 농업인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쌀에 관한 한 국내 최고의 농업경영인이 되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전업농 육성을 위해선 정부의 정책 지원을 집중해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도 제대로 된 농사꾼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경영해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농기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농규모의 확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농지구입과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을 연계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米

현영수



1957년생

주소 전남 순천시 별량면 구룡리 591 전화번호 061. 742. 5383 H,P 011. 622. 5383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 확대로 농가소득증대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5년

경영규모 1만5,000평

조수입 6,000만원

특기사항 대통령표창

친환경 농업의 선구자

수도작 25년의 현영수씨는 순천시 별량면의 친환경농업을 주도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그는 '79년 3,000평의 논으로 수도작 농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친환경 농업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품종을 식재했다는 이유로 품질인증을 획득하지 못하고 '98년부터는 13농가를 규합하여 친환경농업작목반을 결성하였다. 2000년부터 급격히 회원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 현재 14개 작목반 150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영수씨를 포함한 22농가는 무농약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나머지 농가는 저농약 품질인증을 받았다.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제고

현씨는 현재 1만5,000평에 쌀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무농약 재배로 5,300평, 관행재배로 경작하고 있는 9,700평은 친환경재배가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무농약 쌀의 판매처는 농협에 계통출하 80%, 소비자와 직거래 20%를 하고 있으며, 판매가격은 80kg 한 가마에 계통농협은 27만원, 소비자와 직거래는 32만원을 받고 있다.

농협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은 320,000원이며 순천 'Come and See 쌀'이라는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 관행 재배된 쌀 가격이 80kg 당 15만원 ~ 16만원임을 감안한다면

'Come and See 쌀'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임을 알 수 있다.

현씨는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EM 쌀겨퇴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EM 쌀겨퇴비는 미질에 적절한 아미로스 함량을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카시아 꽃, 쪼, 죽순, 설순, 깔대 손 등을 함유한 청초액비를 직접 조제하여 생장촉진 등 미질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쌀겨를 뿌려 잡초를 억제하고 있으며, 쌀겨를 뿌려도 발생하는 잡초제거를 위해서 일본에서 구입한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 이 기계는 1시간에 1,200평 정도의 잡초를 제거할 수 있으며, 기계로 할 수 없는 가운데 부분은 약 3회 정도 노동력으로 제거하고 있다.

이처럼 현씨는 수년 동안에 걸쳐 무농약, 무비료의 유기재배를 실천하고 있지만 외부적 환경, 즉 재배지역이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타지역의 농약물이 침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기재배 인증까지는 받지 못하고 있다.

허수아비 축제를 통한 'Come and See 쌀'의 인지도 제고



현씨는 작목반에 신규로 가입하는 농가들에게는 처음부터 무화학·무제초제를 권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도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순천지역 인근에서조차도 'Come and See 쌀'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아 고민하던 중 금년 허수아비 축제를 통하여 메뚜기잡기 대회와 참가자 전원에게 500g의 쌀을

무료로 배포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현씨는 최근 소비자와 직거래 비율을 높여 농가수취가격을 제고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그 동안 연구 개발을 통해 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기능성 쌀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米

홍기완

홍



1954년생

주소 경기 여주군 여주읍 우만리 117-1 전화번호 031. 884. 5311 H,P 011. 686. 5313

친환경 쌀 조기재배로 농가소득 증대

경영체명 성원농장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0년

경영규모 2만1,000평

순수익 6,000만원

특기사항 농림부전국쌀증산왕

전국 최초 모내기 · 벼베기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먼저 잡듯이, 부지런한 농가는 남보다 먼저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모내기를 하고 조기 수확을 통해 미처 햅쌀이 나오기 전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홍기완씨의 농론(農論)이다.

결국 홍씨는 지난 '74년부터 천혜의 농업환경이 주어진 지역에서 '농사로 성공하겠다'는 신념'으로 그동안 주류 도매상 기사로 푼푼이 모은 돈과 부인의 폐물을 팔아 농지 800여평을 마련한 것이 농촌정착의 계기가 되었다.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92년부터 친환경 고품질 쌀을 남들보다 먼저 생산, 고수익을 올리는 선도농가로 성장하게 됐다.

'95년부터 본격적인 비닐하우스 조기재배를 시작한 홍씨는 매년 3월초 본답에 정식 이앙 후 7월초 벼 수확을 한다. 이어 곧바로 후기작(2기작)을 함으로써 토지이용률 제고와 쌀 수취가격을 높이고 있다.

시설내부 25℃ 단시간 내 벼 꽃가루 인공수정 노하우

특히 타 지역농가들도 첫 모내기·수확의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앞다퉈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재배방법의 한계로 대부분 실패를 겪고 있는 것과 달리 홍씨는 내병성에 강한 품종(극조생 진부올벼·석수백묘) 선택과 하우스 내부 온·습도 조절, 등숙 전 벼 수정방법의 독특한 기술을 터득해 조기에 상품성있는 쌀을 생산하고 있다. 홍씨의 조기재배 성공요인은 온도조절과 벼 꽃가루 수정, 물·유기질 비료 공급에 있다.



등숙 전 수정시기가 되면 하우스 내부온도가 25℃일 때 약 5분~10분사이(노지수정 30분) 전체면적에 대해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인공수정을 시킨다. 또 수정 후 기름과 냉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럴 때는 하루 종일 눈에 머물면서 물 공급을 조절하고, 적정 양분 공급을 위해 유기질 비료를 준다.

노지재배 역시 최신 시스템을 갖춘 벼 육묘장을 활용해 어린묘(10일묘)를 육성, 5월초 이상 후 8월 초순경 전국 최초로 수확을 한다.

생산된 쌀은 모두 오리농·키토산 등의 유기농법에 의한 것으로 밥맛이 뛰어난 여주쌀의 명성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대왕님표 여주쌀’ 소포장화 출시, 신세대 지향 상품화 성공



또한 홍씨는 경기도로부터 품질 인증 받은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를 전국 최초로 소포장화(2kg·4kg·10kg)시켜 신세대 고객 지향적인 상품화를 유도, 여주쌀의 품질·가격 차별화를 이뤄냈다.

홍씨는 올해 논 1만9,000여 평 가운데 하우스 조기재배(260평) 쌀 260kg과 노지 조기재배(1,200평) 쌀 6,000kg을 생산, 상품화 시켜 80kg 1가마당 각각 50만원·40만

원씩 판매해 큰 소득을 올렸으며, 나머지 면적의 유기농 쌀도 80kg 1가마당 20만원대의 높은 수취가격을 보였다.

홍씨는 “조기재배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배방법 등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안전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개선시켜 이를 농가에 확대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米

ㅎ

황갑식



1949년생

주소 경북 영주시 안정면 안심리 24 전화번호 054. 634. 4991

소백산록의 자연속에서 오리농법으로 무공해 쌀 생산

경영체명 황부자농장

홈페이지

www.hwangbujanongjang.pe.kr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5년

경영규모 7,000평

순수익 2,500만원

무농약·무공해 농업만이 우리의 갈 길

경북 영주시 안정면 안심1리에서 오리농법을 이용하여 벼를 재배하고 있는 황갑식씨는 무농약·무공해 품질인증 쌀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현재 6,000여 평에 논에 오리를 방사하는 오리농법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오리농법이란 잡초와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리가 배설하는 분뇨로 무기양분을 얻어 유효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적절한 환경조건을 조성함으로써 수질을 보호하는 친환경적이고 생물학적인 선진농법이다. 25년 동안 농사를 지어 오면서 황씨는 농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 자신도 이대로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 미래는 친환경제품이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 무농약 쌀 재배를 시작 하게 되었다. 6년 전부터 직접 오리농법을 하고 있는 농가 등을 방문하여 기술을 전수 받으면서, 황씨는 논농사를 농약없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리농법이야말로 제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힘들지만 가야할 길 무농약·무공해 농산물

영주지역에서 오리농법을 처음으로 도입한 황씨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영주출장소의 기술 지도로 친환경농법을 이용한 오리농법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오리농법의 노하우를 터득하여 이른바 꿈속에 그리던 무제초제 무농약재배 쌀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기술 부족으로 원하는 상품이 나오지 않았으며,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선도 농가로부터 조언도 많이 들었다고 한다. 지력유지를 위해서는 비료를 치지 않고 쌀겨 등 유기질의 퇴비 비료를 이용하였다. 무엇보다 어려웠던 점은 제조작업이었는데, 무농약으로 하다보니 사람을 사서 손으로 잡초를 일일이 뽑았기 때문에 6년동안 하면서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친환경농산물은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직거래방식이 가격보장에 유리한 점이 있어 생산된 쌀에 '황부자청등오리쌀'이란 브랜드를 부착하여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인 이팜, 교회단체 등에 직거래 판매하고 있다. 농가소득 면에서는 관행적인 농법과 대비하여 200여만원의

순소득 증가를 가져 왔다고 한다.

이렇게 자연과 환경을 조화시켜 생산한 '황부자청등오리쌀'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친환경농산물표시신고제에도 등록되어 무농약쌀 신고필증을 교부받는 등 식품의 안정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다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앞으로도 오리농법으로 소득 증대를

현재 홈페이지(hwangbujanongjang.pe.kr)를 통해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면 쌀 판매할 때 짚어서 할 생각이다.

앞으로의 오리농법을 지역 주민에게 널리 보급해서 소득을 증대하고, 쌀값을 상승특화하려는 계획을 가진 황씨는 이제 지역에서 이웃 농업인들에게도 오리농법을 가르치는 등 지역의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저농약재배 이상의 친환경농업을 추구하고자 '소백친환경농업연구회'를 결성한 바 있으며, 앞으로 영주지역의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해서 주력해 나갈 계획을 추진 중이다.



米

농업인

황



1954년생

주소 전북 진안군 성수면 외궁리 341-1 전화번호 063. 432. 9014 H/P 011. 658. 0588

오리농법으로 단골 확보 개방파고 돌파

주 품목 쌀

영농경력 13년

경영규모 1만9,000평

조수입 6,000만원

2년전 벼농사에 오리농법 도입

해발 300m의 전북 진안군 성수면에 가면 농업인 황공호 씨가 친환경 오리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는 논을 볼 수 있다.

모내기가 끝난 논에 오리를 방사해 키우는 이 농법은 오리가 논에서 자라는 잡초와 해충을 잡아먹으면서 서식하기 때문에 제초제와 병·해충약제가 전혀 필요 없어 환경오염 방지 및 무농약 쌀 생산이 가능해 최근들어 선호되고 있는 방식이다. 지난 '91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한 황씨가 오리농법을 도입한 것은 고작 2년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다수확이 벼농사의 목표였으나 쌀이 남아돌면서 지금은 수확량은 적더라도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쪽으로 농가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황씨는 “일반재배때 보다 오리농법을 도입하면서 쌀 생산량은 30%정도 감소됐다”며 “그러나 수익은 일반적으로 재배된 쌀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현재 1만9,000평 논중 6,000평에 오리 860마리를 방사, 오리농법으로 쌀을 재배한다.

오리가 자란 논에서 수확된 쌀은 고령지 청정지역에서 무농약으로 재배돼 안전한 먹거리를 찾고 있는 소비자들로부터 주문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직거래 단골고객 확보

황씨는 “친환경농법을 실행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는 것이 판로”라며 “소비자는 많이 먹어주고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농업인들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생산해야만 친환경농법이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오리농법으로 생산된 쌀은 전주, 서울, 대구 등으로 직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번 먹어본 소비자들은 단골고객이 되곤 합니다.” 황씨가 생산한 쌀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현재 전화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집 앞까지 배달해 주고 있는 고정 고객만도 32가구에 이른다. 그는 오리농법쌀, 청결미, 찹쌀, 흑미, 향미 등 다양한 형태의 쌀을 20kg단위로 포장해 6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도시민 상대 소비홍보 이벤트 계획

7남매중 둘째인 황씨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시생활을 한 것은 불과 2년. 자연과 더불어 사는 농촌이 좋아 고향을 지키며 살아왔고, 결혼해서부터는 진안을 떠나본 적이 없다. 홀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황씨에게 지난 '99년 산간부 쌀증산왕, 2001년 산간부 쌀증산왕, 농수산장관표창 등 다수의 표창정력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황씨는 올해부터는 연 2회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 “오리농법 현장실습과 인근에 위치한 마이산 관광, 흑돼지 바베큐 파티, 훈제오리구이 시식회 등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조마간 홈페이지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가 지금 우리 동네 막둥이입니다. 이대로 20년만 가면 대다수의 농촌마을은 폐허가 될지도 모릅니다.” 점차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현실을 걱정하고 있는 그는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에서의 교육이나 문화생활 등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米

하

황병섭



1945년생

주소 경북 영천시 북안면 당리 402 전화번호 054. 337. 9105

줄사이 늘려 심어 '고품질' 쌀 생산

주 품목 쌀

영농경력 38년

경영규모 9,000평

순수의 4,000만원

우분 뿌린 다음 깊이갈이 후 재식밀도 낮춰

경북 영천의 황병섭 씨는 농한기인 요즘에 한우 축사에서 나오는 우분을 하루에 두 번씩 틔우는 대로 논에 내다 깔고 있다. 이후 논을 깊이갈이한 후 모내기할 때 관행에 비해 1.5~2배 정도 줄 사이를 늘려 이앙한다.

이렇게 생산된 쌀은 밥맛이 좋기로 인근에 널리 입소문이 퍼져 전량 직거래로 판매되고 있어 판로는 걱정하지 않고 있다. 즉, 그만큼 품질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영농경력이 38년째인 황씨는 처음에 600평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해 이제는 쌀 전업농으로 완전히 자리잡았다.

“벼농사가 보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집단화가 이뤄져야 하고,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농사를 짓는다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축산분뇨, 금쪽같은 자원으로 활용

'80년경 쌀 한톨이라도 더 생산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모를 배계 심은 탓에 냉해를 입어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듬해부터 손모나 이앙기로 모내기를 하면서 보다 드물게 심었더니 효과가 대단했다. 즉, 줄 사이를 늘려 모내기함으로써 통풍과 채광이 좋고, 또 수온이 낮에는 높고 밤에는 낮기 때문에 생육이 촉진돼 도복이 거의 없는 데다 해마다 큰 피해를 입히는 문고병(잎집무늬마름병) 발생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우는 논에서 나온 생짚으로 먹여 키우고, 한우 축사에서 생긴 우분을 벼농사에 활용하고 있다. 물론 수확량은 줄 사이를 늘려 심어도 오히려 관행 방법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으며, 경험상 어떤 품종이나 효과가 있다는 것.

“축산분뇨를 이용하면서 비료 구입 비용은 물론이고 비료 살포에 따른 노동력도 많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쌀 품질이 좋아져 수매보다는 직거래로 판매가 이뤄져 소득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결실 맺는다는 정신무장이 중요



각종 농기계는 한번 구입하면 농작업이 끝난 뒤에도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한다. 그런 탓에 '79년에 구입한 경운기도 지금까지 잘 굴러가고 있다. 황씨는 다른 일처럼 농사도 자기 노력으로 결실을 맺는다는 정신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 꾸준하게 고집스레 일하다보면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겠다는 잡념이 없어지고, 현재의 작물에 많은 노하우도 생겨 결국 좋은 결실을 가져온다는 경험을 수없이 겪었다.

쌀의 품질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의해 가려진다.따

라서 쌀이 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증산이나 다수확 위주의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미질 개선에 역점을 둔 재배기술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농산물 수입 개방과 관련, 황씨는 개방 직후에는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열심히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도 농업인답게 희망을 얘기했다.

米

황병호

하



1953년생

주소 경북 예천군 유천면 화지리 242-1 전화번호 054. 652. 2339 H.P 011. 9585. 7413

무농약 농사와 하나님의 섭리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5년

조수입 1억 5,000만원

유기농업의 시작은 농약중독이 원인

황병호씨가 예천군에 정착하게 된 것은 전도사로서 '84년 유천면 성평리에서 첫 목회를 시작한 것이 이곳에 정착한 계기라고 한다.

정착후 교회건축헌금으로 경운기를 구입하여 일손을 돕고 병해충 방제를 시작하였는데 4년 뒤부터는 농약중독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농촌에서 영농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농약만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고 한다.

좌절을 딛고 연간 1억 5,000만원의 매출

황씨는 유기농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고자 정농회라는 유기농단체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듬해 뜻을 같이하는 이웃교회 젊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새누리 공동체'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본격적으로 유기농법을 시작한다.

먼저 필요한 유기물을 얻기 위해 닭 5,000수로 유정란을 생산, 출하하였는데 유통과정의 문제 등 부실한 관리로 2년만에 빛만 남고 조식은 와해된다.

그가 실의에 젖어있던 중 정부에서 WTO의 대처방안으로 유기자연농법을 권장하였는데 정부 지원사업인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사업 신청을 하여 '95년 첫사업자로 선정된다.

양계장 802평, 창고 50평, 저온창고 12평, 관리사 24평, 냉장차 1대를 구입하여 우렁이를 이용한 무농약쌀을 생산, (주)풀무원에 2년간 납품하지만 그마저 IMF사태로 쌀 납품이 중단되어 품비 박산이 나고 만다.

그러나 경기회복과 아울러 유기농에 대한 인식의 호전으로 점차 회복되어 지금은 연간 1억 5,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으며 유기농법 전파를 위해 회원모집과 타지역 강의도 나가는 정도로 발전했다.

황병호씨가 말하는 친환경 왕우렁이 농법



왕우렁이는 남아메리카 아마존강 유역 얕은 늪지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수면과 수면 아래에 있는 식물체를 먹기 때문에 논외 정지작업을 균일하게 한다.

그는 우렁이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논두렁과 배수로 구멍에 조밀한 망으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물이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한다

이앙직기는 5월25일~30일, 이앙 후 7일경에 왕우렁이를 넣는 것이 좋다고 하나 황씨 농장에서는 좀더 수온이 올라간 뒤에 방사하고 벼 활착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밭뚫자리를 설치하여 손이양하여 왔으며, 5일정도 지나 새뿌리가 나올 때 썬 물을 깊이 대고(7~10cm정도)대고 우렁이를 10a당 5kg정도를 넣는다고 한다.

또한 그는 경험적으로 이앙 후 15~20일 사이에 논을 한번 매주는 것이 가장 좋으며 수확은 9월 초순 논물을 깊이 가두었다가 배수로에 마대 설치로 수확 또는 논두렁 주변 웅덩이를 파놓고 물을 베어다 놓으면 그곳으로 우렁이가 모일때 수확한다고 한다.

이제 황씨는 사업확장과 회원확보를 위해 폐교에 친환경농업상설교육장을 설치하고 노인분과 그 자녀들을 초청 견학토록하고, 연간 300명 정도의 회원을 유치하여 유기농법의 확산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황정근



1949년생



주소 충남 당진군 우강면 소반리 145 전화번호 041. 362. 2774

양보다 질로 승부, 전자상거래도 실시

경영체명 반딧농장
 주 품목 쌀
 영농경력 26년
 경영규모 5만평
 순수의 8,000만원

“땅은 노력한 만큼 돌려줍니다.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 가을 수확 후엔 벼짚을 전량 썰어 넣고 있으며 질소질 비료는 최대한 억제하고 규산질 비료를 뿌려서 땅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벼의 생육상태를 수시로 관찰하는 예찰 위주의 방제를 실시해 농약 살포 횟수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반딧농장 대표 황정근씨 그는 양보다 질을 강조한다.

그는 “당진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미질이 좋은 쌀이 생산되고 있다”며 “여기다 저농약 재배와 지속적인 땅심 관리가 보태지면 현재보다 더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고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기계화로 인력난 극복

지난 '95년 전업농으로 선정된 황 대표는 현재 자가 1만 3,500평, 일반 임대 1만평, 농업기반공사 임대 등을 포함 총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다. “농지가 늘어나면 그만큼 소득이 더불어 늘어난다”는 황 대표의 말처럼 그의 연간 순소득은 8,000만원 이상에 달한다.



황 대표는 “많은 논을 경작하다보니 하우스 못자리 등 농번기에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 일손이 달리지만 승용이앙기, 트랙터, 콤팩트, 지체차 등 비농사와 관련된 농기계는 전부 갖고 있어 부부노동력만으로도 충분히 경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 “생산된 쌀이 많아서 수확기인 가을철 전량 판매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미, 김정쌀 등 기능성 쌀을 재배해 연간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토록 하고 인터넷 및 전화 주문판매 등 직접 판매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우선 자기 상표 부착을 위해 상표 등록과 더불어 20kg 소포장 제작, 배달 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직접판매에는 도정시설이 가장 중요해 빠른 시일 내에 도정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름을 걸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건조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미리 벼를 도정하기보다는 주문 받은 후 바로 도정해야 미질이 보호돼 햅쌀 같은 상품을 연중 공급할 수 있습니다.”

품질 향상 위해 도정공장 건립계획

황 대표는 “도정시설은 고정투자가 많이 들지만 앞으로 판매여건과 장래성을 고려해 도정시설을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땅은 노력한 만큼 돌려준다. 농업투자는 단기간 내에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전업 및 규모화 농가는 충분히 경쟁력 있어 농업분야 투자는 현재와 같이 장기계획하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업 및 규모화를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다만 “농민 스스로가 소득 등의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금소요를 예측해야 하고 농민과 자금관리기관 전문가 등이 투자한 시설 등에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쌀을 생산하면 정부가 수매를 해줬지만 앞으로의 농업여건은 스스로 판로를 찾아야 하는 만큼 최고의 쌀을 생산하여 적극적인 판로 개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식량 작물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여는

수수

“토종 잡곡도 현대인의 취향에 맞게 개량하면 충분히 상품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찰옥수수 특유의 쫄깃쫄깃한 맛을 간직하면서도 알맹이 견질이 얇아 먹기에 편한 일명 ‘대학 찰옥수수’를 개발한 농업인의 밀처럼, 소비자의 기호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생산의 기본이다.”

김용주



1954년생

주소 전남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645 전화번호 061. 453. 1835

소비자가 원하는 무공해 밤고구마 생산

경영체명 새터농장

E-mail

kimyjoo1835@yahoo.com

주 품목 고구마

영농경력 30년

경영규모 3만평

순수익 1억

특기사항 신지식농업인

무농약 인증받은 고구마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은 예전부터 밤고구마의 원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곳의 밤고구마 맛은 일품으로 인정받아 왔다. 고구마에는 농산물 생산량을 늘리거나, 편리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 각종 비료나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김용주씨는 그런 농사방법은 앞으로 소비자가 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르게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김씨가 제조제 없이 고구마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주위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몇 년 동안 생산비도 나오지 않는 이러한 작업을 계속한 결과 지금은 당당하게 농약없이도 더 생산비를 줄여 수확량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무 농약 고구마를 생산하여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저장성공으로 출하기간 늘려

모든 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이 고구마 농업을 하는 경영인도 흉수출하하는 경향이 있다. 김씨는 오랜 경험을 통



해 홍수출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생각을 갖게 되었다.

남들 보다 저장기술이 뛰어나 저장을 오래할 수만 있다면 높은 가격에 판매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특별한 저장기술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예전에 땅굴을 파서 씨 고구마를 저장한 기술을 약간 변형한 고구마 저장고를 만들게 된다. 고구마 저장고는 어느 정도 깊이의 황토땅을 제거하여 반 지하로 건설되어있어 땅의 생명력이 고구마에 전달되게 하였으며, 전자동으로 실내온도는 10℃로 최적의 고구마 저장 온도를 유지하였으며, 공기 중의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필터링(정화)을 시키는 장치를 하여 저장성을 높게 유지하여, 출하시기를 8월에서 다음해의 3, 4월까지 납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저장기술만 가지고는 100% 저장에 성공을 시킬 수 없다.

고구마의 저장에 가장 큰 위험은 흑반병으로 고구마 수확할 때 토양에서 고구마 주위로 흑반균이 옮겨 저장 시기 때 고구마를 부패시킨다. 이러한 흑반병을 예방하기 위해 김씨는 순간에 고온으로 살균하여, 표피에 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큐베링 시스템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고구마를 세척하여 소포장으로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여, 부가가치를 더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고구마의 저장에 가장 큰 위험은 흑반병으로 고구마 수확할 때 토양에서 고구마 주위로 흑반균이 옮겨 저장 시기 때 고구마를 부패시킨다. 이러한 흑반병을 예방하기 위해 김씨는 순간에 고온으로 살균하여, 표피에 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큐베링 시스템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고구마를 세척하여 소포장으로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여, 부가가치를 더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녹비를 이용한 유기비료로 땅심을 높인다



김씨의 경작지는 3만 평이 조금 넘는다. 그 중에 고구마 농사는 2만 5,000평 정도이며, 5,000평은 자연 녹비를 이용한 배추농사를 하고 있다. 먼저 5, 6월에 즉 대두콩을 밀식하여 자라게 한 다음 8월(두과 식물이 열매를 맺을 시기)에 경운 작업을 하여 그대로 자연 녹비를 만드는 것이다. 두과 식물은 질소를 고정할 수 있어 천연의 질소질 비료를 만들며, 유기질 비료를 만들 수 있다.

유효비생물이 더욱더 활성화 되어 많은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도 수확량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농법은 배추농사 뿐만 아니라 고구마 후작으로 5,000평의 알타리무 재배지를 제외하고는 2만평의 고구마경작지에도 자운영을 심어 자연 녹비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어 무비료재배 고구마를 생산하여 대형유통업체로 납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1951년생

주소 충남 서산시 해미면 전천리 25 전화번호 041. 688. 2235

지역 실정에 맞는 대체작물로 위기를 기회로

경영체명 인미농장

주 품목 감자

영농경력 33년

경영규모 6,000평

어느날 갑자기 가장이 되다

김인환씨는 객지 생활을 하다가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향으로 내려와 어머니를 모시며 농사일을 시작했다.

물려받은 유산은 초가집과 600평의 농지가 전부였지만, 타고난 성실함으로 마을의 심부름까지 도맡아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점차 자리를 잡게 된다.

'80년 서산지역에 3만평 규모의 표준화 모델하우스가 50%의 정부보조를 받아 도입되었는데, 이때 900평의 논을 담보로 600평의 토지에 하우스를 설치했다.

그 하우스에 반축성 재배로 오이를 심어서 1,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그 중 400만원으로 최고상당 1,200평의 농지를 구입하면서부터 영농기반이 잡혔다고 한다.

거듭된 시련을 뚫고



'84년도에 동생의 교통사고로 병원비를 대느라 농지를 모두 처분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겨울에는 비닐 하우스에서 일하고, 여름에는 전국 농업기술협회에서 주관하는 농민대학에 다니면서 영농 기술을 배웠다.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일함으로써 그 후에는 농협의 이사로도 활동했다.

'99년도 2월 경, 4만 본의 배추묘가 무사마귀병에 걸려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과 협력하여 배추 무사마귀병을 퇴치하기 위해 힘써보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서산지역에 알맞은 대체작물을 선택하다



그래서 2000년도 봄농사부터 배추는 포기하고 대체 작물로 비닐 하우스에 봄 감자를 조기 재배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배추를 심지 못한 주위 사람들을 모아 감자 작목반을 만들고 대관령의 고랭지 감자종자를 구입하여 재배했으나, 재배 경험이 부족해서 그해에 3번이나 냉해를 받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이듬해에는 난방에 특히 신경을 써서 거의 2배에 가까운 수확을 하여 형편이 크게 나아졌다. 2002년에는 농협의 협조를 받아 감자 캐는 기계로 감자를 수확하여 일의 효율성도 높이는 등 경영이 정상궤도에 진입하였다.

계속 연구하며 배우는 자세로

김씨의 경우는 배추 무사마귀병이 돌아 발빠르게 지역 특성에 맞는 대체작물을 찾아 낸데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예다. 감자의 후작으로 오이를 심고 있는데, 키토산과 목초액으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다. 서산에서 생산되는 감자가 다른 지역 감자와 출하시기가 달라서 시세가 좋고, 품질도 좋아서 가락동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감자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우스 감자를 재배할 계획이다.

麥
보

박희석



1951년생

주소 전북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전화번호 063. 453. 2000 H.P 016, 256, 1277

신뢰와 믿음으로 일궈낸 흰찰쌀보리쌀 특산화

주 품목 흰찰쌀보리쌀
영농경력 24년
순수익 1억 3,000만원

'68년 익산시 소재 함열농림고등학교를 졸업한 박희석씨는 어렸을 때부터 농업인이 되고자 농림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였고, 농고졸업후 한우사육, 수도작재배 등의 영농을 종사 하면서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 임무도 수행하였다.

부모님의 성화에 못이겨 지방공무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고 나의 갈길과 인생은 농업에서 찾아보리라 결심하고 공무원의 길을 과감히 버리고 다시 영농에 전념했다.

첫 사업의 쓰라린 실패

영농과 도정업에 종사하면서 항상 무언가 새롭고 부가가치가 있는 농산품을 찾던 중 어느날 식탁에서 떨어진 보리쌀을 특산화하려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리하여 '97년 일반인이 보리쌀을 소포장 판매하는 사업을 인수하여 판매에 나섰지만 소비자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또 그 이듬해에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의 협조로 50ha 흰찰쌀보리를 농업인과 계약재배하였다.

하지만 흰찰쌀보리는 그해 잦은 강우와 높은 습도로 인해 적미병에 감염되어 식용 불가판정을 받게 되어, 계약재배농가들로부터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처럼 첫해 흰찰쌀보리쌀 소포장 판매는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흰찰쌀보리쌀을 직접 먹어보고 성분을 분석한 박씨는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99년 다시 농업인과 계약재배를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흰찰쌀보리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는데 잡수 제거가 큰 걸림돌이 되었다. 농업인을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사비를 들여 인부를 사서 농가포장에 투입하여 잡수를 제거하는 활동을 밤새도록 수없이 전개하였다. 그 결과 양질의 흰찰쌀보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몸과 맘으로 닦은 판매처

흰찰쌀보리쌀의 판매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직접 몸으로 부딪쳐나가는 방법밖에 없었다. 우선 농업인 행사에서 농업인들이 맛을 보고 스스로 우리가 생산한 보리쌀이 좋다는 홍보를 하도록 하기 위해 보리쌀로 만든 인절미를 시식토록 한 결과 스스로도 그 맛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다음으로는 도시 소비자를 타겟으로 삼고 도시 대형판매장에 애걸복걸하여 서울 E마트와 농협하나로마트에 전시판매하였으나 주문량이 적어 초기에는 수수료와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였다. 이에 굴하지 않고 홍보팜플렛을 제작하여 언론매체에 홍보물을 보내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3년동안의 정성과 신뢰는 보리를 재배하는 농업인 뿐만이 아니라 흰찰쌀보리쌀을 먹어보고 구입하는 소비자층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2001년에는 1억원 정도를, 2002년에는 1억3,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다. 앞으로 흰찰쌀보리쌀의 특산화와 다양한 제품생산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더욱 명성 높은 제품을 생산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영농인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말했다.



1970년생

주소 전북 김제시 광활면 은파리 680-5 전화번호 063, 543, 6119

부지런함이 선진농업인으로 변모

경영체명 갯벌농장

주 품목 감자, 쌀

영농경력 12년

경영규모 3만평

조수입 1억3,000만원

농사 비전 있다는 신념 하나로

갯벌농장의 신광식씨는 3만평에서 쌀을 비롯해 보리, 시 설감자 등의 농사를 지어 1년 365일 쉬틈 없이 흙과 함께 살아가는 부지런한 농사꾼으로 선진농업인을 자부하고 있다.

그는 '93년 수도작으로 후계농업인과 '96년 쌀전업농에 선정되면서 대규모화 농업을 꿈꾸며 농지를 점차 늘려야만 살아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아울러 당시 부친의 재산은 눈 4,800평에 불과했으나 '96년도부터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을 시작해 최근 2002년도에 2,400평을 사면서 현재 자신의 농지를 1만 8,000평으로 확대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 기관으로부터 농지임대차사업 1만2,000평을 더 확보해 모두 3만여 평으로 늘리는 대규모화 농사를 실현시키고 있다. 그는 이와 더불어 '94년 농기계 사업에 뛰어드는 변화를 꾀했다. 이 시기에 농기계 보급이 저조하고 지역이 광활한 평야 지역임은 물론 농촌에 노인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농기계를 부려 소득을 올려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사업을 도모하게 됐다.

신씨는 농사를 질 수 있는 농기계를 모두 갖췄다. '94년에 대형 트랙터는 물론 콤바인, 이앙기, 건조기 등을 구입했다. '97년 7,000여 만원의 고가 농기계인 보리전용 수확기인 크라스콤바인까지 확보했다. 이 전용수확기는 이 지역에서 제일먼저 사들이게 된 셈이다. 이 지역은 특히 쌀 수확을 끝내고 대단위로 보리를 재배하기 때문에 보리전용수확기를 구입하게 된 점이 딱 맞아 떨어졌다.

쌀 수확후 시설감자로 소득 톡톡히

매년 10월 초순부터 쌀 수확에 들어가 수확을 마친 후 그의 몸은 더욱 바빠진다. 이 후 보리 파종과 더불어 하우스 감자를 재배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감자 정식 이전에 썩갓을 재배해 단기간에 2,400평에서 1,500여 만원의 소득도 올렸다.

김제시 광활면 지역은 특히 대단위 시설감자 재배단지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은 지 오래다. 맛과 생산량에서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감자지만 유통에 문제가 있어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해 고민해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99년도 그가 주축이 되어 30여 농가가 모여 감자작목반을 구성하였다. 그는 종자와 포장 상자 등을 공동으로 구입함은 물론 공동선별, 계통출하를 통해 반원들의 소득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었다.

상표등록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아울러 2000년도에는 '광활햇감자'로 상표등록과 의장등록을 마쳤다. 이 감자 포장 상자에는 생산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명기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최씨는 늘 처음처럼 농촌에 비전이 있다라는 믿음 하나로 시골에 남았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선진 농업국처럼 대규모화된 농사를 짓는 것만이 국제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 더 많은 농지를 구입해 스스로 어려운 농업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



薯

신성현



1946년생

주소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래 27 전화번호 031. 632. 5115

모락모락 노오란 이천 밤고구마

경영체명 송곡농장

주 품목 고구마

영농경력 33년

경영규모 6만평

조수입 3~4억원

1년 365일 끊임없는 고구마 사랑

서울에서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약 1시간 정도 내려와 호법에서 영동고속도로로 바뀌어 이천 톨게이트를 지나면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아미리라는 마을이 있다. 이곳에서 아들과 함께 1년 365일 고구마를 생각하고 고구마를 사랑하며 맛있는 노오란 이천 밤고구마를 키우는데 여념이 없는 송곡농장 신성현씨가 있다.

시행착오를 거쳐 찾아낸 고구마의 맛과 당도

신성현씨는 가평에서 살다가 1970년에 이곳 이천으로 이사해 '85년까지 사과 과수원을 경영하다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92년부터 고구마로 작목을 변경하여 지금은 약 6만 평 정도 재배하고 있다.

현재는 간식용 고구마만을 생산하고 있는데 가락동 시장을 포함한 전국에 연중출하하고 있으며 10kg짜리 상자로 적

계는 3만 상자에서 많게는 5만 상자까지 수확한다. 한 상자에 1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 데 수확기 출하량은 20~3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저장고에 저장하여 다음 수확 전까지 연중출하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기적인 출하보다는 출하량을 조절하는 것이 보다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넓은 재배면적을 경작하면서 얻은 경험을 통해 밑거름을 줄 때 붕산이나 가리 등을 조금 주면 고구마의 당도 등 품질이 크게 달라지는 것 채득하였으며, 이를 통해 맛과 당도 모두 최고의 간식용 고구마를 생산하게 되었다. 하지만 고구마 재배는 아직까지 심고, 수확하는 것에서부터 저장·선별까지 모두 수작업이라서 손이 많이가고 인건비도 많이 투입해야 한다.

전남 해남지역같은 곳은 1년에 주정용과 간식용의 이모작이 가능해 수확량도 많고 그 만큼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지만 이곳 중부지방은 그렇지 못한 점도 어려움 중의 하나라고 한다.

수확 후 고구마 저장 환경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알맞는 저장창고를 설계해서 지금은 그곳에 효율적으로보관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지속적인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활동 강화



앞으로 우리 농업은 영세농이 사라질 것이며 활발한 작목반 구성과 법인화된 기업형태를 통해농업인들끼리 협동해야 한다고 말하는 신성현씨.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판로개척 및 마케팅활동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성공농업의 관건이라 말하며 향후 그 동안 실험적으로 재배해 봤던 도라지와 당근도 함께 재배해서 다각화도 시도해볼 생각이다.

薯

이 상 규



1958년생

주소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389-10 전화번호 055, 384, 3852

감자·벼·대파 작부체제로 고수익 창출

경영체명 남부농원

주 품목 감자, 벼, 대파

영농경력 22년

경영규모 1만2,000평

순수익 6,000만원

'후계자' 탈락이 전화위복

이상규씨의 학창시절 희망은 푸른 초지를 일구면서 목장을 운영하는 축산경영인이 꿈이었다. 농업계 고교를 다니면서 선택한 것도 축산이었다. 그러나 축산경영인이 되겠다는 꿈은 희망으로 끝나고 말았다. 졸업후 축산부문 영농후계자 선발과정에서 탈락하면서 경종농업으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당시에 영농후계자로 선정됐더라면 아마 지금처럼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다. 또 후계자 자금을 지원받았더라면 현재보다 더욱 평범한 농사꾼이 됐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말이다.

복장주의 꿈을 접고 군 제대후 생각한 것이 도시근교농업이다. 지역적으로는 대도시에 가까이 있고, 낙동강의 풍부한 지하수에 각종 양분이 많이 퇴적된 사질양토가 천혜의 농사기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천부지 일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쌀 농사와 대파, 배추 등을 주로 재배하던 이 지역에 이씨가 감자재배를 시작한 것은 '82년. 우선 물 빠짐이 좋고 단기간에 수확할 수 있는 데다 일반 원예작물과 달리 시설비가 들지 않는 것이 큰 장점이었다. 정부로부터 낙동강변 하천부지 5,000평을 입차해 모두 1만2,000평의 땅에 감자와 벼, 대파를 잇따라 재배하는 안정된 윤작체제로 토지 이용률도 높였다.

물론 이런 작부체계는 지역 환경이나 농산물 시세 등을 먼저 고려한 뒤 여러 작목을 돌려짓기 해 보면서 어떤 작물들이 서로 이어짓기 피해가 적은지를 시험재배해 본 뒤 도입된 것이다.

그는 2월 초순경에 감자와 대파를 심는데 파종 전에 10a(300평)당 계분을 1t 정도 넣는다. 5월 중·하순에 감자를 수확하고 나면 일부는 벼를 재배하고, 나머지는 대파를 옮겨심어 10월부터 수확에 들어간다. 계분을 넣은 땅에는 거름기가 많아 뒷그루를 재배할 때 따로 비료를 주지 않는다. 벼를 심은 곳은 물을 대기 때문에 염분제거 효과도 높고 뒷그루 재배때 병해충 발생도 현저히 줄었다. 감자재배 때는 딱잎 발생 후 진딧물과 역병 방제를 겸해 한 두 차례 농약을 치는 것이 전부다.

특히 농수로가 잘 정비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강변이라 가뭄에도 물 걱정을 않는다. 날이 가물면 오히려 농산물 값이 좋아 더 많은 소득을 안겨준다.

욕심 버리고 성실히 맘흘리는 것이 비결



연간 200t 정도 생산되는 감자는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아 상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사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일부는 농협에 계통 출하하거나 청과물 시장에 내놓기 바쁘게 팔려 판로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이씨의 한해 농업소득은 인건비나 종자비 등 모든 경영비를 빼고도 6,000만원 정도 된다. 이만하면 웬만한 중소기업의 중역들 소득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 스스로의 평가다.



1967년생

주소 강원도 정선군 동면 석곡리 256 전화번호 033. 562. 9485 H.P 011. 9918. 9485

맛으로 승부한 찰옥수수

주 품목 옥수수

영농경력 13년

경영규모 5만평

순수의 1억원

농업을 천직으로 선택

강원도 정선군 동면 석곡리에서 5만 평의 농경지중 4만 평에 찰옥수수를 재배하며 부농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젊은 농업인 이혜근씨. 이씨는 경북전문대학 행정과를 졸업하였으나 취업을 포기하고 젊은 시절부터 평생직업으로 농업의 길을 선택했다.

농업의 길을 선택하였으나 농업기반이라곤 산비탈에 있는 돌 많은 전답 약 2,000평이 전부였다. 이씨는 이 곳에 오미자와 더덕 등을 심으며 자신의 농업경영의 꿈을 일구기 시작했으나 안정적 농업경영을 이루기는 쉽지 않았다고 한다.

찰옥수수 작목으로의 전환

더덕, 오미자 등의 특용작물은 그 특성상 초기 경비가 많이 들고, 2년 이상의 수확기간이 필요한데다 발아율, 토질선택 등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생산의 연속성이 끊겨 단년생 보완작물의 재배가 필요했다.

고민 끝에 이씨가 보완작물로 선택한 것은 찰옥수수였다. 수익률은 그다지 높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수확을 보장할 수 있고, 더덕의 봄과 여름 수확후 후작으로 재배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우연히 충남대 농과대학에서 육종한 연농1호(당시 대학찰옥수수) 시험종을 일부 구하게 되었다. 소량 심어본 결과, 재래종에 버금가는 향토적인 맛이 있고,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으며, 찰기가 많아 식용으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어 상품성이 뛰어난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품종선택까지 마친 이씨는 2000년 3,000평에 연농1호 찰옥수수를 심고, 옥수수 주재배지역과 신품종 개발지역 등 선진재배지를 여러차례 견학하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함은 물론 병해충 사전 예방에 주력한 결과 맛 좋은 찰옥수수 재배에 성공했다.

찰옥수수의 시장홍보와 판로개척

그러나 막상 수확하여 찰옥수수를 시장에 출하해 보니 옥수수 1통당 120원, 어떤 때는 100원도 못 미치는 단가가 나왔다. 이씨는 일단 새로운 품종에 대해 소비자의 인식과 입맛이 길들여지지 않은 탓으로 여기고 판매전략을 장기적으로 잡고 생산량 확대와 시장확보에 나섰다.

2001년도에 약 1만3,000평의 면적에 찰옥수수를 순기별로 나누어 파종하여 1,700점을 생산했다. 또 냉동 찰옥수수 가공공장도 갖추어 냉동저장 찰옥수수를 판매하는 한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맛들이기에 들 어갔다.

이씨는 주5일 근무제로 인한 휴양 인구의 증가로 관광상품인 찰옥수수의 소비가 날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약 4만 평에서 4천점을 생산, 1억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다.

농업경영은 다른 사업경영 등의 요인에다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 그리고 자연환경적 요인이 더하여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이씨는 농업은 자연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오늘도 성실히 노력하면 충분한 대가와 보람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농사일에 전념하고 있다.





1953년생

주소 경북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311 전화번호 054. 954. 2525

지역 특화사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

경영체명 옥신영농조합법인

주 품목 감자

영농경력 25년

경영규모 5만평

순수익 5,000만원

끈질긴 노력끝에 독자 브랜드 '개진감자' 탄생

가난한 농촌의 3남4녀 중 막내로 태어난 임정배씨는 어릴 적부터 농촌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개진감자작목반을 조직, 지역감자재배 농가의 소득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임정배씨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학업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농촌의 가난한 현실 때문에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배움의 터가 꼭 학교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휴과 함께 살면서 농업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기로 결심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기술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독농가에게 기술을 습득하는 하던 중 감자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개진감자 브랜드를 탄생 시키게 됐다.

영농기술 보급으로 함께 가는 농촌 일귀

임정배씨는 '89년부터 시작한 감자농사를 상품화하기 위해 '95년도부터 감자작목반을 조직, 감자재배기술은 물론 유



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작목반의 조직은 감자를 고령지역의 특화상품으로 전국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89년부터 감자농사를 시작했지만 시장에서 상품으로 인정을 받는 데는 10여 년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선별과정에서 속박이를 없애는 등 신용을 쌓은 것이 ‘개진감자’ 하면 누구나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임씨에 따르면 개진감자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것은 지난 '93년부터 라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임씨는 지역브랜드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작목반을 형성하고, 개진감자를 브랜드로 상품화하면 작목반에 속한 많은 농가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

또 임씨는 옥산영농조합법인을 설립, 감자를 거둬들인 유희지를 이용해 단무지용 무를 심어 회원 23농가의 이익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고령화 농촌사회의 대안을 찾아라

그러나 임씨는 점차 고령화 돼 가는 농촌의 인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부 고령농가에서는 감자의 정식을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확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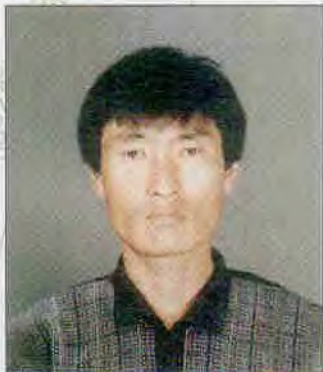
임씨는 이를 해결하기 국내 모 제과회사와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고령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확을 대신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임씨에 따르면 옥산영농조합법인이 모 제과회사와 재배계약을 실시하고 키퍼량을 농가에 배분해 주변 물량에 맞춰 농가에서는 정식을 하게 된다. 이어 수확기가 되면 영농법인에서 인력을 동원해 수확을 하고 이를 계약업체에 일괄납품해 고령농가의 영농활동을 지속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 가격도 kg당 530원 선으로 일반도매시장출하에 비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고령농가들이 경작농지가 있으면서도 재배나 수확이 힘들어 일부 거래상들에게 발떼기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재배품목의 가격이 폭락할 경우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있다”며 “지자체 및 각 작목반 등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점차 노령화 돼가는 농촌의 영농활동이 원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薯 大

최해동



1963년생

주소 경북 고령군 개진면 부리 315 전화번호 054. 954. 8467

경상도에도 감자가 있다

경영체명 개진작목회

주 품목 감자, 수박

영농경력 18년

경영규모 감자 1만5,000평,

수박 1,000평

조수입 8~9,000만원

젊은날 농업을 희망으로 여겨 귀농

18년 전 직장 일을 하고 있던 최해동 씨는 하고 있던 일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하시던 농사일을 도우면서 차후엔 농장 경영을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귀농을 하여 농사일에 전념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때부터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도우면서 해왔던 농사이기 때문에 시작하는데 그리 어려운 점은 없었다.

감자 재배는 이렇게...

시작 당시 감자에 희망을 가져 시작하게 되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감자를 아끼고 잘 가꾸어 지금의 규모에 이르렀다. 중간 중간에 자연 재해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입었지만 피나는 노력을 해서 현재 1만 5000평 규모의 감자밭에서 감자를 재배하여 전량 해태제과로 납품하고 있다.



감자 재배가 재미있고 납품 업체도 확실하기에 감자 생산량을 더 늘이고 질적인 면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생각이다.

작년 여름 태풍 '루사'가 몰고 온 비·바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강원도나 다른 지방만큼은 아니지만 감자, 무, 부추 등의 작물이 불어난 물에 침몰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다. 또한 부수적으로 하우스 수박을 5동(약 1000평 정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수적인 소득을 올려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중국 견학 후 계획



최씨는 농협중앙회 측의 도움으로 중국 하얼빈, 장춘, 목단강 등을 둘러 볼 기회가 있었는데, 쌀 농사의 경우 중국은 땅도 넓고 기름져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이 우리나라쌀 못지 않았다.

거기다가 중국의 쌀 물가와 인건비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많은 위협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쌀과 품질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가격은 4분의 1 수준이라는 말을 듣고 위기의식을 갖기에 충분했다.

다른 농산물 사정도 마찬가지로여서 지금 진행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후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될 경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씨는 사전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자 재배면적을 늘려 생산비를 낮춰 나가면서 하우스, 특용작물 시설을 보강

하고, 좀더 병충해에 강한 감자를 육성하는 등의 기술센터 설립을 강구 중이다.

찾아보기

1 식량작물編

대구	강원	유시웅 192	나만석 102	최만득 284
김현동 94	김성우 52	이대근 214	나성주 104	최해동 336
정정수 266	김필용 74	이병주 224	노종석 114	황갑식 308
정창섭 270	김진우 86	이심진 228	노종진 116	황병섭 312
인천	김찬호 88	이우석 230	류종연 118	황병호 314
장석주 256	안송갑 164	이찬규 244	박준음 138	
광주	양승윤 172	최찬용 292	서정수 146	경남
이달남 232	원성린 188	황정근 316	안효근 168	김경규 30
이찬규 242	이혜근 332	전북	양연모 174	김무성 44
울산	정일모 264	고상영 20	양용철 176	노을용 112
노영수 110	최원국 288	권등주 26	엄한출 182	박정만 130
경기	충북	김병학 50	오김배 184	심원일 158
고종일 22	김웅주 68	김상용 54	유근해 190	심한섭 160
김인산 70	김종학 82	김일도 72	정동출 258	안재현 166
김주홍 84	박기현 122	문홍근 120	정상봉 260	윤준석 202
김학만 92	박지환 140	박은기 124	정영렬 262	이상규 330
박종열 136	박지환 140	박희석 324	정영렬 262	정철환 272
손부남 150	양천기 178	서종석 148	주병섭 276	주영모 278
송중현 154	유재수 196	송명재 152	현영수 304	주치대 280
신성현 328	이기운 208	신광식 326	경북	한순기 298
윤상연 200	이길우 210	엄대기 180	권용구 28	허태호 302
이광우 204	이환구 248	유연홍 194	김동봉 42	
이길정 212	장봉훈 252	정진현 268	김병오 48	
이명열 218	조관호 274	최광식 282	김승대 58	
이범주 220	허남천 300	황광호 310	김종기 80	
이병기 222	충남	전남	김철래 90	
이상용 226	강금성 14	강대인 16	김현일 96	
이정동 234	고한석 24	고만술 18	남경희 106	
이정모 236	김기운 40	김경호 32	박종수 134	
이종윤 238	김용필 64	김공배 34	신호철 156	
최영택 286	김원중 66	김관기 36	한수환 162	
최의주 290	김인환 322	김관호 38	임문배 170	
최창호 294	김재갑 76	김병섭 46	오은백 186	
한송철 298	김휘관 100	김선주 56	윤광일 198	
홍기완 306	남궁훈 108	김연배 60	이기용 206	
	박백순 126	김용주 320	이래도 216	
	박재현 128	김용춘 62	이종원 240	
	박종대 132	김종구 78	이태근 246	
	백현수 142	김홍연 98	미훈 250	
	서용철 144		임정배 334	
			장상우 254	

서울	심영보 230	김두하 76	이은국 316	김채수 134	박진희 190
이남복 282	모상환 246	김문희 82	이학재 326	노종원 154	박천석 192
조능현 370	이성준 300	김진우 128	임경희 330	도금용 158	서정화 210
최창운 410	이소영 304	김창한 132	장철세 344	박병섭 174	안종일 238
부산	장순학 340	문수복 160	조성호 376	박울섭 182	이대화 284
공덕선 30	장향수 346	성기남 214	주호명 392	박종래 186	이등질 288
한성호 424	전용술 350	송주영 220	한만희 420	박화순 198	이인재 318
허상 428	김원	신창호 228	홍성남 430	배종태 200	임채영 334
대구	김남순 70	유용 256	전북	변동택 208	정등용 352
김영호 104	김동기 72	윤갑순 266	김재식 20	엄정균 240	정병근 354
신동문 224	김영교 98	이용석 312	곽재명 32	윤두홍 268	정찬면 362
이성호 302	김유섭 116	이우직 314	김경술 50	윤자석 274	조규상 368
이영일 310	김중섭 124	이종민 322	김경호 52	이승윤 306	조삼수 372
인천	김천주 136	이해극 328	김광수 60	장동원 336	조제노 380
백학현 206	김형윤 150	임안선 332	김근식 66	장성모 338	최준태 406
최진수 408	박치노 196	홍이선 436	김병귀 84	장임기 342	경남
광주	백경열 202	이상열 296	김일열 120	정응기 360	구교천 34
문중수 162	백종태 232	전영규 348	선홍관 212	정찬주 364	권시현 38
정성도 356	심종태 232	충남	신건승 222	정충남 366	권재광 44
홍영남 434	안성배 234	김재식 22	신재선 226	조성규 374	김광덕 56
대전	엄주태 242	김규성 64	유서욱 252	최상진 400	김연수 96
김학재 146	오홍철 248	김명래 80	육병덕 264	최황우 414	김영삼 100
울산	원종실 250	김완성 108	이기남 280	한봉철 422	김판근 142
박병규 170	윤병두 270	김우직 112	이석변 298	한정욱 426	박동문 168
경기	이건방 276	김청한 138	이영기 308	홍성일 432	오만석 244
강수용 16	이관형 278	김태홍 140	조영호 378	경북	이병호 292
권숙찬 40	이도호 286	김학용 144	조행봉 382	권영필 42	이종국 320
권정택 46	이명준 290	김학주 148	전남	권춘원 48	조현목 384
김병린 88	이창우 324	박병규 172	김용 18	김광영 62	조현석 386
김영진 102	정세남 358	박영배 178	강정학 24	김동완 74	조한철 388
김창래 130	조형복 390	박천수 194	고상근 28	김만섭 78	하한섭 416
김호기 152	최근배 394	백종수 204	김광남 54	김원택 114	홍학성 438
민기영 164	최돈우 396	성기환 216	김광선 58	김인남 118	제주
송경용 218	최병우 398	만승휴 236	김기운 68	김주철 126	고광호 26
	최승수 402	유언상 254	김병덕 86	류문성 156	김봉석 90
	최정길 404	유재관 258	김선주 92	박연홍 176	김성훈 94
	최철 412	유제선 260	김오남 106	박유신 180	
	한규섭 418	유충조 262	김용한 110	박이준 184	
	충북	윤석범 272	김재욱 122	박진철 188	
	권부들 36	이상익 294			

3 과수·화훼·특용작물編

서울	윤여송 376	류모열 92	전북	권영길 36	경남
조강희 418	이동식 158	오춘식 368	길환생 238	권재형 40	김두헌 46
부산	이천필 390	유대섭 272	김명주 58	김상구 48	김병천 244
이경성 274	이영진 176	이상수 388	김재홍 70	김영표 316	류만세 254
이시행 174	장성복 406	이석정 164	김중기 74	김영훈 62	류형열 328
대구	정동근 282	임노훈 188	박주태 344	김제인 68	박정세 342
김정호 72	정우석 200	전형선 198	박형순 346	김좌명 322	신기재 354
우병주 370	정해룡 416	정대교 408	서정학 350	김주영 76	오동임 142
인천	조보연 286	정창용 204	산동천 356	김진수 78	유재관 148
박승영 104	최봉수 422	충남	오광섭 140	김종익 324	이세명 168
윤성진 374	최석기 424	구자웅 32	유석용 148	김태만 90	장영길 196
최길보 288	최학균 428	권오영 38	이대훈 156	김필수 82	정득기 410
황대선 432	하상권 224	김근배 240	이상운 162	김학준 86	최용주 426
울산	강원	김문기 308	이태식 182	김해수 88	제주
이성동 276	김동수 306	김연기 56	조충용 214	류종현 326	강만호 16
경기	김선곤 52	김창식 318	전남	박봉하 334	강정호 234
강경원 232	김순희 312	김하권 84	김재원 20	백경철 122	강창준 236
김영기 294	김익환 66	문갑래 330	김재석 22	손계용 126	고봉주 26
김광수 302	김정훈 248	문홍국 98	장태조 24	송영화 130	고영균 28
김교주 304	박덕수 332	박기종 100	곽한웅 298	안동욱 134	고영명 30
김민호 310	박찬성 264	박용복 110	김명숙 314	유신종 372	김도진 44
김서규 246	배동선 348	박재준 340	류재경 252	이규현 380	김상수 50
김현웅 90	여명환 364	배홍석 120	문재성 94	이성대 166	문태진 96
남궁순 250	연익훈 138	성승모 124	박노진 102	이수길 170	송용진 132
민우기 256	이상수 386	손창화 128	박상균 338	이송화 172	양문남 136
박근실 258	이재경 278	신유식 358	박연식 108	이은주 394	이영하 384
박상훈 336	지재수 216	양현철 362	박형순 114	이재호 398	임선준 192
박석주 260	최영식 290	오영석 366	박희정 116	이정원 180	
박신규 106	천수욱 430	윤상현 150	배송춘 118	이진후 400	
박종길 112	충북	이건식 152	이남진 154	임관우 186	
박종훈 262	강영근 18	이건훈 378	이은욱 392	장금식 194	
설호길 352	강은중 296	이기범 382	이일근 178	장인근 202	
심상우 360	김관식 300	이철훈 402	이재진 396	장현호 206	
안재욱 268	김기선 42	이희필 184	장형태 280	조세현 208	
연규중 270	김기선 42	임선민 190	정만수 412	조시화 210	
원병두 144	김립중 242	임명반 404	정명우 284	조우현 212	
	김성중 54	조영호 420	정인 414	최영복 220	
	김영진 60	최영득 218	경북	한성열 226	
	김용성 64	최홍식 222	권세원 34	홍성일 228	
	김재현 320			홍재률 230	

축산編

부산	김창수 352	장만진 190	모평권 320	이동의 104
최철수 204	김철수 46	조항민 198	문생규 60	이명규 334
	이명수 106	조현호 366	문행주 62	이용우 338
대구	이민식 282		박종필 76	이종옥 292
김재열 162	이병범 108	전북	서정대 174	장경윤 120
석재추 82	이상혁 286	권신택 16	신태선 90	정재현 124
진윤식 132	최원규 134	김맹기 28	양일영 326	진용일 304
	함영권 140	김명희 228	양희중 92	
울산		김성호 34	염재선 96	경남
박석광 74	충북	김영만 36	유상모 270	강성이 214
신기용 354	곽동구 150	김택 318	이강운 102	강재두 216
	김승수 234	김투호 166	이도홍 332	김대근 156
경기	노가열 242	김학희 50	장을채 122	김수정 232
강기원 212	노병욱 52	노승관 168	장환기 300	노정만 244
고희중 148	신찬우 88	류광열 54	정환대 362	박명진 324
구관서 14	엄태홍 94	서달권 258	조보훈 126	박윤철 248
권상탁 312	우종완 358	석병오 176	조영관 128	박창식 252
김경호 154	이병규 336	유귀석 268	조희철 200	손균한 84
김계한 224	이상연 112	은성수 100	차장곤 306	손동현 260
김원대 350	이상천 284	이원홍 186		안희복 262
민성원 64	조기창 364	이정일 116	경북	오동식 98
민영주 66	한길현 344	이태일 296	구점식 218	이상영 266
박기홍 68		장세열 192	권영철 18	이재형 288
박훈재 172	충남	한득수 138	권춘구 220	정인구 302
양영학 178	곽한우 152	허종민 142	기우중 222	정현조 360
유용철 272	김기자 346		김상선 32	진삼성 130
유태상 180	김수경 34	전남	김선홍 348	하재윤 136
윤덕영 274	김양임 314	김경호 20	김성식 158	허수상 308
윤성열 328	김영철 316	김길현 24	김연우 236	
윤희진 278	김준호 240	김남대 26	박근규 322	제주
이병훈 110	맹창호 246	김동철 226	박대훈 70	김권호 22
정규성 194	박천서 170	김복술 30	박상근 72	양문석 264
조규용 196	윤병재 182	김수남 230	박종활 250	
조남칠 340	윤병준 276	김명자 38	배영순 254	
최용삼 202	이상옥 114	김요순 238	배태욱 256	
한상춘 206	이승로 184	김원국 40	사공연 78	
홍재경 144	이재형 290	김점중 42	서정주 80	
황병익 208	이종행 118	김창곤 44	손태목 86	
	이창균 294	김태성 48	안승명 356	
강원	이희섭 188	류중원 56	윤재우 330	
김찬호 164	임기묵 298	류호진 58	이기홍 280	

5 농산물가공·유통·그림투어編

부산	조남심 148	최영수 112	장우익 372	백재기 218	이성호 92
김영백 176	차진범 106		정수영 276	손진력 342	이세규 248
나준순 46	홍택선 300	충남	조기심 282	심재선 346	이수동 94
임영숙 266		권세환 310	초기호 284	임동윤 226	이종희 262
대구	강원	김판석 392	조인기 288	유건열 240	이현주 366
이재수 254	김경현 394	김기현 168	조정형 104	이광식 86	정현상 102
이중성 258	김성용 172	김석순 128	전남	이병달 88	조영탑 376
	김성필 26	김인주 182	강성호 160	이순기 358	홍선표 382
	김성호 28	김창수 40	고효숙 308	마정우 144	
광주	김은순 316	박수현 334	기순도 22	이중호 256	제주
백승훈 64	김재익 318	박승혁 134	김양숙 174	창종태 374	구훈태 164
백양기 214	남궁남 48	배규희 62	김영숙 34	정현기 98	김창기 322
안홍순 230	도명길 328	배연근 338	김영운 188	최병조 296	김태주 192
말화권 76	류재춘 402	양완수 350	김철 42	최상기 298	성화정 340
	손주희 406	윤왕식 242	김춘곤 324	한임섭 116	양홍필 236
울산	손중현 222	이재택 252	노안옥 50	함반용 114	이중현 146
권도영 18	안명식 408	이중우 364	박정모 206	황화섭 156	최경숙 108
김영학 180	안영배 74	임중경 272	안철균 140	경남	
마창규 260	원용돈 80	정의국 416	황선승 234	강대주 16	
황병규 304	윤상복 354	최근명 378	이기선 414	관상택 20	
	이명수 356	홍진기 152	임삼옥 264	길덕환 312	
경기	정윤권 100	황건호 302	정은현 150	김기일 314	
권혁진 388	정호섭 278	전북	조규섭 280	김상근 170	
권황주 390	차민학 292	김경택 166	조형래 290	김승교 32	
김교화 396	최봉석 110	김옥희 36	전승욱 294	김영철 178	
김길재 398	한성열 380	김종록 186	홍쌍리 118	김찬모 190	
김달하 184	홍정식 384	김춘봉 44	황동철 154	김항용 400	
김혁수 130	충북	김형귀 194	경북	노동식 326	
박춘래 210	김근실 24	류상열 52	김창덕 122	류재하 332	
서분래 66	김숙자 30	박홍주 60	고재영 162	박동하 56	
서우석 68	류관형 198	송희수 224	김대성 124	박동성 200	
신광현 70	류근모 330	심재석 72	김문철 126	박동제 202	
오세남 352	박범준 404	임준분 78	김정욱 38	박성현 204	
무진호 238	박찬용 208	유재룡 82	김종삼 320	박용대 58	
유학순 84	손홍철 344	윤건중 412	박경보 54	반병숙 404	
이동운 246	안영원 348	이기성 244	박관식 132	백임근 216	
이만형 142	안영옥 410	임장옥 368	박희주 212	변태인 220	
이성갑 90	이원희 360	임재현 370	배문열 336	서정철 138	
이재곤 250	이종태 96	임중경 270	배성한 136	안영달 228	
이종노 362	조영규 286	장영두 274		양무현 232	
임육택 268					

감수위원

권갑하 부장(농민신문사)
김영준 사무관(농림부 공보실)
민승규 박사(삼성경제연구원)
송경환 교수(순천대학교)
최영조 팀장(농협중앙회 조사부)

현지조사 및 원고집필기관

농업전문지 (11개 신문사)

농민신문사, 농수축산신문사, 농업인신문사, 농업정보신문사, 농축유통신문사, 원예산업신문사, 축산경제신문사, 축산신문사, 한국농어민신문사, 한국영농신문사, 한국임업신문사

농업정보119 서비스대학 (12개 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발행일 | 2003년 2월

발행처 | 농림부 · 농협중앙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농림부 공보실 (전화 02-500-1513~4)

·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농협중앙회 문화홍보부 (전화 02-397-5669)

기획·편집 | 강디자인

인쇄 | 웰던에드